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연구

박종구



2005-R-26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A Study on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n Seoul

2007 ~ 2011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박 종 구	• 서울마케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 무 용	• 서울마케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조 현 정	• 서울마케팅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이 봉 구	• 동의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이 훈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정 우 철	• 강원발전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창 학	• 서울특별시 문화국 관광과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의 개요

- 서울시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토대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공고해야 함(법정계획: 관광진흥법 제17조)
 - 하위계획: 중앙부처와 협력사업 고려
 - 중/단기종합계획: 관광개발, 관광인프라, 관광산업, 관광행정 포함
 - 실행계획: 사업실현성, 서울시 가용예산범위 활용 효율적 집행방안 제시
 - 연속계획: 제3차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1-2005)의 후속 사업 제시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2011년 까지 매년 서울시 관광주요업무지침에 활용

II. 정책건의

- 1) 서울 관광비전: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서울 창조
 - ‘외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목적지 창조, ‘시민’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레저도시 창조, ‘관광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좋은 환경을 갖춘 관광산업도시 창조
 - 문화가 살아 쉼 쉬고 이벤트가 열리는 창조적 도시어메니티 조성위한 문화컨텐츠

- 지식/첨단기술의 문화유산, 생태해설 및 정부시스템을 갖춘 해설기능(S/W)보강

2) 관광계획 목표 및 발전지표

- 현행 목표달성 평가지표의 부재에 따른 계량적 관광 발전지표

<표> 서울관광계획 발전지표(2007-2011년)

	2007년	2011년	비고
서울권 국내 국민관광총량	5천3백78만명/연간	5천6백20만명/연간	전국 국민국내관광 규모인 약 6.5억명에 대한 약 5.7%
서울권 국민 관광회수	6.0회/연	약 12회/연	여가생활화 정책 계획목표인 월1회 기준
외래관광객수	600만명/연간 수용	1,000만명/연간 수용	세계 25위권→15위권(국가기준)
관광수입	59억 달러	100억 달러	세계 20→10위권(국가기준)
고용창출	270만명	330만명	
관광 GDP	4.7%	8.0%	문화관광부, 관광진흥5개년 계획상 수치를 활용함

- 세계 25위 관광도시, 아시아 5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지식기반
일류 관광도시 조성
 - 전국 국민국내관광 규모인 약 6.5억명에 대한 약 5.7%인 5천6백20만명/연간
을 목표로 함. 시민관광회수는 약12회/연간 여가생활화 조성
 -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1천달러를 적용하
여 연간 관광수입 약 100억달러의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함

3) 3대 전략

- 첫째,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 해외마케팅 및 홍보강화
- 둘째,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 시민여가 문화의 지속적인 확충,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지식기반 관광전문 휴먼웨어 조성, 특성있는 테마형 체험/문화벨트 관광명소화,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셋째, 관광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관광행정 서비스 제공

4) 기본방향

- 역사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중국,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일본과 차별화된 매력 창출
- 하드웨어(H/W)에서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S/W)로 스토리텔링/연출강화
 - ※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안데르센의 동화)
- 하드웨어(H/W)의 지속적 확충
 - 일반호텔의 관광호텔로의 진출입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호텔로 수용
 - 청계천, 서울숲, 수변 공간(한강 및 양재천 등 환경복원)의 도시공간 리노베이션 체험
-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 핵심테마: 도시/오락형(city entertainment tourism)의 주간: 역사문화체험, 박물관 및 미술관; 오후: 스포츠, 문화이벤트; 야간: 쇼핑 및 나이트클럽
 - 보완테마: 의료시설, 병후건강관리 등 보건관광(health tourism), 미용 및 성

형 결합(beauty tourism)

※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교육과 의료도 관광상품’

- 외국인의 체재관광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관광안내소 설치, 표지판 개량, 관광지도
- 중점목표시장 설정 및 서울 홍보활동 효율성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근거리 시장 주력이 필요함

5) 전략별 관광개발구상

- 주제테마별 다각화되고 시장성이 높은 차별화된 서울형 관광자원개발·관리 계획
 - 자연: 한강(오페라하우스, 선유도, X게임장, 한강교량의 체험관광상품 등), 청계천/서울숲(도심 문화·환경의 재생 현장체험 등), 북한산(생태관광트레킹, 산악자전거, 레저스포츠 상품개발 등)
 - 역사문화자원: 4대문 안 궁궐 문화관광벨트(박물관 연계 체험관광 상품의 발굴), 서울성곽(풍수로 보는 역사탐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살아있는 전통 문화관광공간으로 조성
 - 국제성: 다양한 외국문화와 교류를 통해 서울에서의 즐거운 추억거리 제공 및 문화관광축제(전통행사와 Hi Seoul 페스티벌)
- 장소별 서울시 관광개발
 - 세계적 관광명소화 I: 청계천, 서울숲, 남산정비(도시리노베이션)
 - 세계적 관광명소화 II: 북촌, 도심 5대궁궐 (전통역사체험)
 - 세계적 관광명소화 III: 한강(자연성) 및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문화성)
 - 세계적 관광명소화 IV: COEX 및 학여울 컨벤션관광벨트

-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밀착 관광개발
 - 서울형 축제선정 및 축제지원 시스템의 개발
 - 서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6) 관광사업 제안

- 서울·동경·북경(BESETO) 관광협력 체계 구축
 - 베세토(BESETO) 관광브랜드 구축 및 서울·동경·북경간 관광연계상품의 개발(예:서해안 연계크루즈 상품, 북한경유 관광상품 등)
- 관광수지 개선 및 지방관광 유도
 - 지방관광객이 고속철도를 활용해 서울의 풍부한 도시/오락형(city entertainment tourism)중심의 유치관광코스(지방관광객 pull 전략)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여행 수요에 대한 대체수요
 - 반면 서울시민의 자연체험 위주의 관광수요는 수도권 인근 지방으로 보내는 전략(서울관광객 push 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 유비쿼터스 서울관광 시범지역 운영
 - 인공 및 자연지형지물(관광자원 및 인프라)에 각 자원의 속성정보가 저장된 전자식별자(RFID)를 부착함. 광화문-시청앞광장(청계천)구간에 유비쿼터스 서울관광 시범 운영
- 서울시티패스 발행
 - 예치금액을 사용하고 난 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카드환불소를 마련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이와는 별도로 입장권과 교통버스를 하나로 묶은 서울관광프리패스를 개발하여 개별관광객(FIT)의 번거로움을 줄임
- 입체적인 관광교통 연계망 구축

- 미니레저버스형 관광셔틀버스를 통해 입체적인 관광교통 연계망을 구축하여 각종 관광편의를 제공함
- 서울의 숲, 오페라하우스(노들섬) 등을 연결하는 맞춤노선 및 남산관광 퀘도열차 개발, 선유도 공원 연계노선 개발
- 고품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
 - 고품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활성화 방안은 전문생산업체의 지정, 디자인개발지원, 기술/경영마인드 향상, 우수관광기념품 지정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성
 - 1자치구 1명품 1명소 특화 선정사업

기본구상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 세부추진과제	초기		중기		장기		사업비 (억)
		2007	2008	2009	2010	2011	계속	
■ 도심지역(223.4억)								
도심지역	4대문안 역사 문화벨트 조성							26.2
	청계천지역 코스모폴리탄라인활성화							29
	송례문 광장 조성							6.3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							10
	남산의 관광상품화 추진							26.2
	5대궁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96.2
	쇼핑여건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23.5
	나이트라이프 관광상품 개발							6
■ 동남지역(44억)								
동남지역	엔터테인먼트 중심형 관광 육성							12
	도심환경재생, 서울숲 활성화							21
	고급문화관광 활성화							11
■ 서남지역(73.3억)								
서남지역	블루 문화벨트 조성							9
	상암 쇼핑엔터테인먼트공간 육성							15
	클럽 문화거리 활성화							4
	에코 체험라인 구축							2
	워터프론트 레저 공간 조성							4.3
	노들섬의 랜드마크화							30
	한강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9
■ 북부지역(26억)								
북부지역	그린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15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10

추진전략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 세부추진과제	초기	중기	장기	사업비 (억)		
		2007	2008	2009		2010	2011
■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95.4억)							
문화관광컨텐츠	스토리텔링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10
테마문화벨트	내외산(성곽복원)연계순환벨트조성						13.9
시민 여가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충	시민여가형 한강수변레저공간 조성						15
	다양한 특별체험 관광프로그램 조성						8
	소외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9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특구의 육성사업 지원						14.5
	국제 컨벤션 산업의 효과적 지원						25
■ 관광 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206.3억)							
창의적인 지식기반 관광전문 휴먼웨어 조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11
	매력있는 문화유산 및 생태 해설사 육성						16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	서울 관광통계시스템 구축						9
	문화관광 연계 패스 발행						민자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지원 및 이용개선						14
	도심부 도로 관광코스 경로 표시 사업						3
	유비쿼터스 서울관광 시범지역 운영						29.5
	관광안내소의 선진화						78.3
관광서비스가 체계적인 관광행정	서울관광진흥공사의 설립검토						2.4
	관광수지 개선 및 지방관광 활성화 유도						1
	중장기적 관광 예산의 안정적 확보						10
	관광 주체간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						27.6
	관광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5
■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59.4억)							
해외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동북아 관광교류도시로서 관광이미지 홍보						16.7
	동북아 3수도 관광협력 체계 구축						12.5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의 획기적 정비						30.2

목차

제 I 장 서론	3
제1절 계획배경 및 목적	3
1. 계획의 필요성	3
2. 계획의 목적	5
제2절 계획범위	6
제3절 계획방법 및 내용	8
1. 문헌조사	8
2. 2차 자료 수집/분석	8
3. 자료구축 및 지도화 작업	8
4.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8
5.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8
 제 II 장 관광시장의 동향 및 특성 분석	13
제1절 관광시장의 동향과 전망	13
1. 세계 관광 동향	13
2. 아시아 관광 동향	17
3. 국내관광동향	24
4. 외래관광객 추이 및 행태	30
제2절 서울의 외래관광객 추이 및 실태 분석	33
1. 서울 여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33
2. 여행일반 및 사전과정	34
3. 분야별 여행실태	34
4. 추천관광명소 및 관광상품	36
5. 언어권별 평가	37

제3절 서울관광 국제 경쟁력 비교	38
1. 환아시아권 도시의 관광여건 비교	38
2. 환아시아권 도시와 한국(서울)의 관광 이미지 비교	54
3.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평가	63
4. 서울권 국제관광경쟁력 강화	65
 제Ⅲ장 서울시 관광여건 및 계획과제 도출	71
제1절 서울시 관광자원 현황	71
1. 서울의 관광자원 현황	71
2. 관광 기반시설 및 지원체제 현황	89
3. 서울시 기존/신규 사업 공급가용지 분석	93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계획의 검토 · 평가	98
1.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98
2. 관련 조직 현황	110
3. 서울시 관광개발계획(2002-2004)의 검토 · 평가	112
제3절 서울시 관광수급분석	114
1. 서울시 관광수요 예측	114
2. 서울권 관광수급 분석	128
제4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49
1. 종합분석	149
2. 계획과제	156
 제Ⅳ장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73
제1절 서울시 관광비전 및 목표	173
1. 서울시 계획비전 및 목표	173
2.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181
3. 서울권 관광 발전지표	185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구상	187
1. 관광개발 체계 및 공간체계 구상	187
제3절 서울시 관광소권별 관광개발구상	199
1. 도심지역	199
2. 동남지역	218
3. 서남지역	226
5. 북부지역	236
제4절 서울시 전략별 관광개발 추진계획	242
1. 관광개발 8대 추진전략	242
2. 관광특구 조성계획	255
3.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	268
4. 문화관광부 사업추진 연계방안	285
5. 관광지 광역 연계방안	293
6. 관광지 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	299
 제 V 장 계획의 집행방안	307
제1절 집행단계 설정	307
1. 1단계(2007년~2008년) 추진사업	307
2. 2단계(2009년~2011년) 추진 및 계속사업	308
3. 단계별 전략 구상	308
제2절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310
1. 투자계획	310
2.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310
3. 재원조달계획	313
제3절 관광지원체계 정비	317
1. 관련 조직 개선	317
2. 관련 법/제도 개선	318

제4절 개발 파급효과 분석	319
1. 파급효과 기준	319
2. 경제적 파급효과	320
3. 사회·문화 및 환경적 파급효과	327
4. 지역사회 기여효과	329

표 목 차

<표 2-1>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지출 변화 추이	14
<표 2-2> 세계 관광 상위국의 주요 통계	16
<표 2-3> WTO 국제관광전망	18
<표 2-4> 아시아지역 상위국가 관광통계	20
<표 2-5> 연도별 외래객 입국현황	24
<표 2-6> 1인당 관광지출액 동향	27
<표 2-7> 우리나라 관광수지 동향	27
<표 2-8> 국적별 외래객 입국 현황	28
<표 2-9> 연도별, 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29
<표 2-9> 연도별 한국여행 중 서울 내 방문지	32
<표 2-10> 거주국별 한국여행 중 서울 내 방문지	33
<표 2-11> 추천관광명소 및 상품	37
<표 2-12> 관광환경지표의 정리	40
<표 2-13>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 및 요금	46
<표 2-14> 컨벤션경쟁력 평가	47
<표 2-15> 관광환경지표 현황	52
<표 2-16>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평가	63
<표 2-17> 연도별 한국여행에 대한 차원별 평가	64
<표 2-18>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대 관광국(입국기준)	65
<표 2-19> 아시아지역 상위국가 관광통계	66
<표 2-20> 아시아 지역내 주요도시의 1일평균 체재비	67
<표 2-21> 지자체 가치평가 결과	68
<표 3-1> 문화재 지정 현황	72
<표 3-2> 2004년도 문화재청 주제별 문화재 탐방코스	74
<표 3-3> 문화재청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관련 사업 추진 현황	75

<표 3-4> 서울시 소재 공원 시설 현황	78
<표 3-5> 서울시 소재 공원 이용 현황	79
<표 3-6> 서울시 연도별 공원 증감현황	80
<표 3-7>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 (2004년 11월 4일 기준)	81
<표 3-8>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 현황	85
<표 3-9> 서울시 관광자원 현황	87
<표 3-10> 서울시 소재 관광안내소 현황 (2002년 5월 기준)	89
<표 3-11> 해외홍보간행물 발간실적 및 계획	90
<표 3-12> 영상·홍보시각물 제작실적(2003)	91
<표 3-13> 영상·홍보시각물 제작계획(2004)	91
<표 3-14>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93
<표 3-15> 수도권 문화관광 거점지역 선정현황	94
<표 3-16> 수도권 특화관광사업(문화관광 거점지역내)	95
<표 3-17> 기관별 관련 계획 현황	98
<표 3-1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서울공간구조	104
<표 3-19>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지표	105
<표 3-20> 서울시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	112
<표 3-21> 서울시 관광과 사업별 예·결산 내역(2001-1005)	113
<표 3-22> 서울시 외래관광객수 예측	118
<표 3-23> 서울지역 외국인 호텔투숙객 수요 예측	118
<표 3-24> 전국대비 서울권 국민 국내/외래관광 총량 예측 (단위: 천명)	119
<표 3-25> 국민 국내관광 총량 추세	121
<표 3-26> 국민 국내관광 총량 예측	122
<표 3-27> 2007 수도권 관광총량 (발생량)	123
<표 3-28> 수도권 여행방문지 비율	124
<표 3-29> 2004년 수도권 지역/여행목적지(단위 %)	124
<표 3-30> 2004년 서울권역 관광여행총량	125

<표 3-31> 2004년 서울권역 관광활동 총량	125
<표 3-32> 서울시 국내관광 추세	126
<표 3-33> 서울권역 국내관광 총량 예측	127
<표 3-34> 서울권 관광수요 적용기준	128
<표 3-35> 서울권역 관광공간 및 시설 현황	130
<표 3-36> 서울권 관광공급능력 산정	131
<표 3-37> 서울권 최대시 수요 산정(단위:천명)	131
<표 3-38> 권역별 관광수급분석 (단위: 천명)	132
<표 3-39> 서울권 연도별 숙박관광 총량 (단위: 천명)	133
<표 3-40> 서울시 호텔 객실이용율 추이(1992 - 2003)	133
<표 3-41> 서울시 관광호텔 등급별 연숙박객수 추정	134
<표 3-42> 서울시 호텔 및 객실 현황(2003)	135
<표 3-43> 서울시 관광호텔업 등급별 현황	135
<표 3-44> 국제회의 참가자의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에 대한 평가	139
<표 3-45>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99~'03)	141
<표 3-46>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142
<표 3-47> 국제회의 개최현황 비교(1999~03년) 단위:건	143
<표 3-48>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99~'03)	143
<표 3-49> 국내 국제행사 개최 현황	144
<표 3-50>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144
<표 3-51> 국제회의시설 현황	145
<표 3-52> 국내 전문국제전문회의시설 현황	146
<표 3-53> 서울지역 국제회의 시설 현황	146
<표 3-54> 세계 컨벤션 수요 전망	147
<표 3-55> 연도별 국제회의 수요예측	148
<표 3-56> 전문 국제회의장 건립 추진현황	148
<표 3-57> 국내 수요·공급 종합분석(국제회의장 기준)	149

<표 3-58> 서울관광의 SWOT 분석	156
<표 3-59> 서울관광추진체계 위한 관광과의 다면적 역할	168
<표 4-1> 서울의 5대 관광자원	176
<표 4-2> 서울성의 분류 및 성격	177
<표 4-3> 서울 관광계획의 3대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181
<표 4-4> 서울관광계획 발전지표(2007-2011년)	186
<표 4-5> 기존 계획 상의 권역 구분	187
<표 4-6> 4대 생활권	190
<표 4-7> 2020년 서울의 주요 정책 지표 변화	192
<표 4-8>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193
<표 4-9> 권역의 설정	194
<표 4-10> 지역별 관광거점의 설정	196
<표 4-11> 서울시 관광계획의 공간체계 구상	197
<표 4-12> 도심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200
<표 4-13> 서울시 도심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202
<표 4-14> 현행 운영중인 도보관광코스	204
<표 4-15> 북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206
<표 4-16> 청계천 관광/문화 프로그램	208
<표 4-17> 심야 시티투어버스 노선	214
<표 4-18> 서울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216
<표 4-19>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및 야간교량 현황	217
<표 4-20> 동남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219
<표 4-21> 서울시 동남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220
<표 4-22> 서남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227
<표 4-23> 서울시 서남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228
<표 4-24> 신촌지역과 홍대지역의 비교	232
<표 4-25> 북부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237

<표 4-26> 서울시 북부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239
<표 4-27> 매체별 관광홍보물 현황	254
<표 4-28> 관광특구 현황 및 강약점	257
<표 4-29> 선정방식 기준	262
<표 4-30>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	268
<표 4-31>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시 불편사항	270
<표 4-32> 국민관광객의 국내여행시 불편사항	270
<표 4-33>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황	271
<표 4-34> 관광안내원의 현황	272
<표 4-35> '한국관광정보센터의 경주 방문객 안내센터 서비스 제공안의 사례	275
<표 4-36> 관광안내지도의 개선방향	279
<표 4-37> 관광안내홍보물의 개선방향	280
<표 5-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중점 추진사업	311
<표 5-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314
<표 5-3> 국고 보조금의 신청	315
<표 5-4> 서울시 문화국 조직도	317
<표 5-5> 파급효과 산업분류 체계	321
<표 5-6> 각 산업간 생산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323
<표 5-7> 각 산업간 고용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323
<표 5-8> 각 산업간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324
<표 5-9> 각 산업간 소득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324
<표 5-10> 생산유발계수표	32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2003년도 국제관광객수	13
<그림 2-2> 2004년 전세계 관광객수 지역별 증감률(%)	15
<그림 2-3>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대응	19
<그림 2-4> 우리나라 외래객 입국자 수 및 내국인 출국자 수	25
<그림 2-5> 연도별 관광수입	26
<그림 2-6> 주요 국가별 외래객 입국 목적 비율	29
<그림 2-7> 한국여행 중 방문지	30
<그림 2-8> 서울지역 방문 외래관광객의 방문지	31
<그림 2-9>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41
<그림 2-10> 도시권 위험도	41
<그림 2-11> 쇼핑의 매력	42
<그림 2-12>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43
<그림 2-13> 외국문화 개방도	43
<그림 2-14>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 수	44
<그림 2-15>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45
<그림 2-16> 공항까지의 접근성	45
<그림 2-17> 특급호텔의 수	47
<그림 2-18> 국제 컨벤션 개최회수	48
<그림 2-19> 외국인 출입국 용이성	49
<그림 2-20>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정도	49
<그림 2-21> 국가별 TOEFL 평균성적	50
<그림 2-22> 국제회의 기획자 수	51

<그림 2-23> AIIC(국제회의 통역사협회)등록 동시통역자 수	51
<그림 2-24> 접근성에 대한 이미지	54
<그림 2-25> 역사·문화적인 매력에 대한 이미지	55
<그림 2-26>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미지	55
<그림 2-27> 아시아 주요국의 자연경관에 대한 이미지	56
<그림 2-28> 환대성에 대한 이미지	57
<그림 2-29> 즐길거리에 대한 이미지	58
<그림 2-30> 쇼핑에 대한 이미지	59
<그림 2-31>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59
<그림 2-32> 화폐가치에 대한 이미지	60
<그림 2-33> 여행안전에 대한 이미지	61
<그림 2-34> 환경관리에 대한 이미지	61
<그림 2-35>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62
<그림 3-1>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2004년 11월 4일 기준)	81
<그림 3-2>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분포	82
<그림 3-3> 서울시 문화관광자원 분포	88
<그림 3-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리방향 구상도(안)	106
<그림 3-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안)	106
<그림 3-6> 문화국 조직도	111
<그림 3-7> 푸른도시국 조직도	112
<그림 3-8> 서울의 관광경쟁력	162
<그림 3-9> 서울 관광의 접근방법의 전환	170
<그림 4-1> 서울 분야별 관광미래상	173
<그림 4-2> 서울시 관광계획 비전과 목표	174
<그림 4-3> 서울시 정체성과 관광추세를 반영한 서울관광비전 설정	180
<그림 4-4>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 설정	188
<그림 4-5>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의 권역설정	188

<그림 4-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5개 생활권 구분	189
<그림 4-7>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구분	190
<그림 4-8>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본구상도	191
<그림 4-9> 서울시 권역별 구분	195
<그림 4-10> 서울시 관광계획 공간체계 구상도	198
<그림 4-11> 도심지역 위치도	199
<그림 4-12> 도심지역 공간개발구상	203
<그림 4-13> 청계천 안내도	208
<그림 4-14> 남산 순환로	211
<그림 4-15> 동남지역 위치도	218
<그림 4-16> 동남지역 공간개발구상	221
<그림 4-17> 서울숲 마스터플랜	224
<그림 4-18> 서남지역 위치도	226
<그림 4-19> 서남지역 공간개발구상	229
<그림 4-20> 월드컵 공원 안내도	231
<그림 4-21> 북부지역 위치도	236
<그림 4-22> 북부지역 공간개발구상	240
<그림 4-23> 관광특구 개선 방안	258
<그림 4-24>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역	260
<그림 4-25> 관광안내체계 특성	269
<그림 4-26> 안내정보의 분류	269
<그림 4-27> 관광안내소 개선 전략	274
<그림 4-28> 안내소 운영체계	276
<그림 4-29> 공공안내 그림문자와 용어의 예시	281
<그림 4-30> 현재 시티투어버스의 형태	282
<그림 4-31> 파리 시티투어버스	283
<그림 4-32> 런던 시티투어버스	283

<그림 4-33> 명동옛국립극장 건축설계경기 공고 선정작	290
<그림 4-34> 명산 Grouse Mountain을 오르는 'Skyride'	294
<그림 4-35> 양재천 모내기 교육장	296
<그림 4-36> 양재천 산책로 조성	296
<그림 4-37> 암사 선사주거지 내부	296
<그림 4-38> 미사리 조정 경기장	296
<그림 5-1> 단계별 전략	309
<그림 5-2> 파급효과 체계	320

제 I 장 서론

제1절 계획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범위

제3절 계획방법 및 내용

제1절 계획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필요성

- 서울은 인구규모 세계 10위, 동북아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 세계 수준의 IT인프라,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도시 등으로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아시아/환태평양의 거대도시임. 이러한 기반을 통해 서울은 향후 5년은 21세기 일류 관광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임
- 서울의 관광정책은 그 동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입안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서울시를 둘러싼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본 계획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기존 기능성, 경제효율성 우선의 도시발전 전략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여유로운 여가를 즐기며 언제 어디서나 문화이벤트가 열리는 선진 관광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임
- 서울시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관광부, 2001)을 토대로 2006년 내에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제17조; 법정계획)
- 서울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전략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증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¹⁾

- 기존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위계획인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약하고, 계획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 및 사업의 제시가 미흡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권역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권역계획의 수립방향과 지침을 제시를 활용함
 -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방향 설정
 - 지자체의 가용예산 분석에 기초한 현실적 투자계획 수립
 - 관광(단)지 개발계획 외에 역사·문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등 각종 지역 관광개발 사업 제시
 -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및 타 부처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 지역 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관광개발 주체의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방안 제시
 - 건설·개발 위주의 관광자원 개발에서 친환경적이고 문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자원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서울권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임
- 서울시는 향후 5년간(2007~2011)의 관광비전 설정 및 계획과제/실행계획이 필요함
 - 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 권역의 특성화 계획

1) 한국관광연구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 연구」, 2001

· 관광(단)지 지정의 근거계획

- 본 연구는 법정계획, 하위계획, 중단기 종합계획, 실행계획으로 서울을 친환경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전통, 풍부한 문화인프라 및 세계 최고 효율이 공존하는 일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의 비교우위 테마인 자연성, 역사성, 국제성을 통한 지역관광특화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연: 한강(오페라하우스, 선유도, X게임장, 한강교량의 체험 관광상품 등), 청계천/서울숲(도심 문화·환경의 재생 현장체험 등), 북한산(생태관광트레킹, 산악자전거, 레저스포츠 상품개발 등)
- 역사문화자원: 4대문 안 궁궐 문화관광벨트(박물관 연계 체험관광 상품의 발굴), 서울성곽(풍수로 보는 역사탐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살아있는 전통 문화관광공간으로 조성
- 국제성: 다양한 외국문화와 교류를 통해 서울에서의 즐거운 추억거리 제공 및 문화관광축제(전통행사와 Hi Seoul 페스티벌)

2.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의 목적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의 구체화된 서울권역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서울시 관광개발계획(2002~2006)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계획으로 기존 관광개발의 개선점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함
- 서울 관광개발의 통합적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세부지침을 제공함. 아울러 서울권을 환아시아에서 으뜸가는 문화관광 도시경쟁력을 지닌 동북아 문화관광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전략계획 및 추진방안을 수립함

- 관광산업이 서울의 미래 성장원동력이 되도록 관광서비스의 고급화, 체험관광의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
-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관광안내 포털서비스 체계구축 및 관광안내체계의 선진화 추진함
-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방식 통한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를 강화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함

제2절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2007년~2011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면적 605.52km²)

○ 내용적 범위

- 본 계획은 서울시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광진흥법 제47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서울시 관광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일류 도시로서 서울의 국제관광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비전을 도출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구상과 전략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 집행방안 및 개발효과를 분석함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중 서울시 권역의 관광개발계획으로 제3차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06년)의 후속 계획으로 향후 2011년을 대비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

<표 1-1> 중앙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법정 계획 내용 (관광진흥법 제47조 2항)	본 계획의 주요 내용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및 관광시장 동향 파악 • 내·외래관광객 추이 및 행태 분석 • 서울시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현황 파악 •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 서울관광의 국제경쟁력(환아시아권)강화 및 SWOT 분석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광수요 예측 및 공급산정 • 서울시 기존/ 신규 사업 공급가능지 분석(신규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 및 개발방향 포함) • 서울시 관광수급 분석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광개발의 방향 및 전략 수립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 서울시 관광지원체계 개선 방안 수립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기존 관광지의 사업추진 여부를 유형화하고 계속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광개발계획의 공간체계 설정 • 권역내 및 각 자치구와 연계 방안 수립 및 수도권 일부 광역계획 수립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추진주체(서울시, 각 자치구, 민간협의회 등) 관련 조직개선 및 법/제도 개선 • 개발효과(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분석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사전/사후 환경성 검토 대상 파악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외도시의 모범적 관광시스템 검토 • 세계 일류도시로서 서울 문화관광 국제경쟁력 비교

- 추가로 제4차 권역계획의 중점 추진사항 중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계획/제시된 사업실적을 조성실적, 예산투입 실적, 관광객 수 추이, 지역경제 기여효과(조세수입, 고용창출 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3절 계획방법 및 내용

1. 문헌조사

- 관광시장의 동향 및 특성
- 서울의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현황 파악
-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 해외도시 사례 연구 통한 시사점 도출

2. 2차 자료 수집/분석

- 서울시 관광수요/ 관광수급 추정을 위한 2차자료 분석

3. 자료구축 및 지도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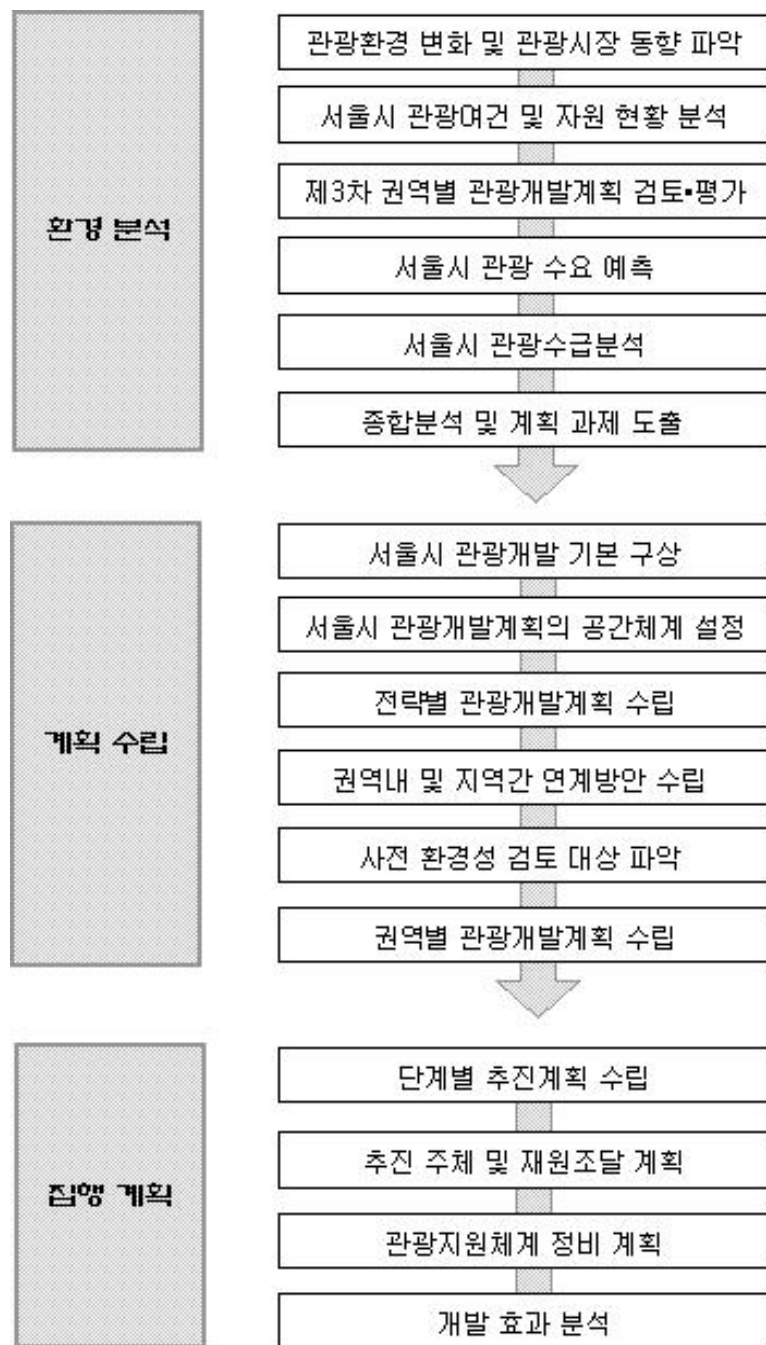
- 서울시 권역별 관광자원분포도 및 관광개발계획 구상도 작성

4.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 서울권역의 관광자원 분포 및 개발 현황 조사

5.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과업 수행 내용의 검토 및 의견 제시
- 관광수요 추정 및 수급 분석에 대한 의견 수렴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 인근 3개 관광권역간 전문가 사전 협력 통한 공동지역 협력 사업추진 및 공동마케팅을 통해 차별적 권역특성 개발 및 상호 유기적 조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Ⅱ장 관광시장의 동향 및 특성 분석

제1절 관광시장의 동향과 전망

제2절 서울의 외래관광객 특성 및 서울 관광실태 분석

제3절 서울관광 국제경쟁력 비교

제1절 관광시장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관광 동향

- 각 대륙별 관광성장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 국제관광객은 약 12% 성장함.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37%, 북미 12%의 성장률을 나타냄. 국제관광객 규모는 5억 2천 6백만 명 정도로 추산됨



〈그림 2-1〉 2003년도 국제관광객수

자료 : WTO, 「World Tourism Barometer」, 2004.6.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표 2-1>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지출 변화 추이

연 도	관광객 (백만명)	성장률(%)	관광지출 (10억불)	성장률(%)
1999	644	2.9	456	2.7
2000	687	6.8	474	4.5
2001	684	-0.5	462	-2.6
2002	703	2.7	474	2.6
2003	694	-1.2	514	8.4

자료 : World Tourism Organization 「World Tourism Baromete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WTO는 「Tourism 2020 Vision」의 장기전망을 통해 전세계 국제관광객수가 1995년 5.6억명에서 2010년 10억명, 2020년 15.6억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²⁾
 - 1995~2020년까지 연평균 4.1% 증가 전망
-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2004년 세계관광객수 동향 및 관광수입, 관광지출, 2005년 전망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국제 관광객수는 7억6000만 명, 전년 대비 10%의 성장을 기록함.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9%, 중동의 경우 20%, 미주는 10% 성장. 이와 같은 성장세는 SARS, 이라크 전쟁, 세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03년에 큰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여짐³⁾

2)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p.9

3)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참조



자료 : datanews 2005년 2월 28일자

<그림 2-2> 2004년 전세계 관광객수 지역별 증감률(%)

- 세계관광객 총량에서는 프랑스가 2003년 75,048천명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관광수입면에서는 미국이 2003년 64,509백만불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가 여행객수나 관광수입면에서 월등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중국이 2003년 여행객수에서 5위, 관광수입면에서 7위를 차지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임
- 2000년 이후 테러,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여행객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증가하는 관광객 이동의 자유와 안전 보호라는 상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표 2-2〉 세계 관광 상위국의 주요 통계

(단위 : 천명, 백만불)

순위	국가명	여행객수		순위	국가명	관광수입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1	프랑스	77,012	75,048	1	미국	66,547	64,509
2	스페인	52,327	51,830	2	스페인	33,609	41,770
3	미국	41,892	41,212	3	프랑스	32,329	37,038
4	이탈리아	39,799	39,604	4	이탈리아	26,915	31,222
5	중국	36,803	32,970	5	중국	20,385	17,406
6	영국	24,180	24,715	6	독일	19,158	22,984
7	러시아	23,296	-	7	영국	17,591	22,752
8	캐나다	20,057	17,534	8	터어키	11,901	13,203
9	멕시코	19,667	18,665	9	오스트리아	11,237	14,068
10	오스트리아	18,611	19,078	10	홍콩	9,943	7,657
...				...			
31	한국	5,347	4,754	20	한국	5,919	5,343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4, WTO World Tourism Barometer(2005.1)(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 : 1. 순위는 2002년 순위임

2. 영국, 러시아, 한국은 방문객(visitor)수이고, 나머지 국가는 숙박관광객(Tourist) 수입. 숙박관광객(Tourist)을 기준으로 집계한 경우는 이웃나라와 국경이 접하는 등 지리적인 상황으로 인해 당일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국가인 경우임

3. 방문객(visitor)은 유상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아니며 방문기간이 1년미만인 자

4. 러시아 방문객은 2002년 23,296천명임. 2003년 자료 부재

-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OECD, APEC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보안 관련 법규, 시설 등에 대한 공동 지표 및 기준 마련, 국가별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 여행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여행자보호위원회 구성, 국가 간 긴급연락체제 구축 등 국제관광객의 안전보호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와 지식에 대한 수요 증가, 디지털기술 발전, 네트워크화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음

-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수 2001년 4억 1천만 명, 2005년 13억 명 증가 예상 (e-TForecasts)
-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상호침투가 발생하고 원격쇼핑이 가능함으로 진입장벽이 해체되어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증가
-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2000년 2,470억 달러, 2005년 50조 3575억 달러 전망

2. 아시아 관광 동향

- 한·중·일·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블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WTO)
-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객수는 1995년 81백만명에서 2010년 1.9억 명, 2020년 4억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 세계관광시장에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시장점유율은 1995년 14.4%에서 2020년 25.4%로 증가하여 유럽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역내관광은 1995년 82.1%에서 2020년 75.8%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장거리 여행자는 1995년 17.9%에서 2020년 2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⁴⁾

4)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5

<표 2-3> WTO 국제관광전망

(단위 : 백만명, %)

구분	기본연도	전망		연평균증가 율	시장점유율	
	1995	2010	2020	1995-2020	1995	2020
World	565.4	1,006.4	1,561.1	4.1	100	100
Africa	20.2	47.0	77.3	5.5	3.6	5.0
Americas	108.9	190.4	282.3	3.9	19.3	18.1
East Asia and the Pacific	81.4	195.2	397.2	6.5	14.4	25.4
Europe	338.4	527.3	717.0	3.0	59.8	45.9
Middle East	12.4	35.9	68.5	7.1	2.2	4.4
South Asia	4.2	10.6	18.8	6.2	0.7	1.2
International (a)	464.1	790.9	1,183.3	3.8	82.1	75.8
Long-Haul (b)	101.3	215.5	377.9	5.4	17.9	24.4

주 : (a) 국제관광객 (b) 역내관광 제외(장거리 여행자)

자료 : World Tourism Organization(WTO)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p.5 재인용)

- 21세기에는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어 자연환경 파괴와 자원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구 차원의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2002년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 의정서) 발효·실행, 2002년 남아공에서 지구환경정상회담 개최, 2003년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환경분야 협상의제 포함⁵⁾
- 중국은 Green GDP를 국가발전 척도로 도입
- 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 세계관광기구(WTO)는 2002년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를 개최

5)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P.5

-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 : 중국 10.5%(2002년)→12.1%(2014년), 일본 8.9%(2002년)→9.1%(2014년)전망(WTTC)
 - 일본 「A New Welcome Plan 21」, 중국 「관광비전계획」, 싱가포르 「Tourism 21 : Vision of a Tourism Capital」, 호주 「Tourism : A Ticket to the 21st Century」 과 같은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특히 중국은 북경올림픽(2008년)과 상해세계박람회(2010년)를 기회로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시아내 국제관광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제2의 디즈니랜드, 동경롯데월드, 아톰랜드 등 관광위락시설 건설
 - 중국 : 2004년 스누피공원 유치, 2006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장



<그림 2-3>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대응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3년의 SARS의 충격을 말끔히 벗어난 것은 중국인의 역내 아웃바운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일본 관광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약 3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입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인 출국 관광객은 약 82% 증가하였는데, 주로 홍콩과 마카오를 목적지로 택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홍콩은 58%, 마카오는 36%의 입국 성장률을 나타냈음. 대만 46%, 한국 28%, 일본 24%의 입국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2-4> 아시아지역 상위국가 관광통계

(단위 : 천명, 백만불)

순위	여행객수(2003)		관광수입(2003)		관광지출(2003)	
	국가	인원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32,970	중국	17,406	일본	28,959
2	홍콩	15,537	홍콩	7,657	중국	15,187
3	말레이시아	10,577	태국	7,821	홍콩	11,447
4	태국	10,082	말레이시아	5,901	한국	8,248
5	싱가포르	5,705	한국	5,343	대만	6,480
6	마카오	6,309	싱가포르	3,998	싱가포르	4,925
7	한국	4,754	대만	2,976	인도	2,255
8	일본	5,212	마카오	-	인도네시아	3,082
9	인도네시아	4,467	인도네시아	4,037	태국	3,496
10	대만	2,248	일본	8,848	말레이시아	2,846

자료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4, WTO World Tourism Barometer(2005.1)(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 : 1. 순위는 2002년 순위임

2. 마카오 관광수입은 2003년 자료 부재. 2002년 4,415백만달러임

-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지역의 역내관광 시장규모는 1998년 1,546만 명, 1999년 1,753만 명, 2000년 2,028만 명, 2001년 2,115만 명, 2002년 2,403만 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1999년~ 2002년 연평균 11.7%씩 증가)⁶⁾

-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역내관광수요는 1998년 531만명, 1999년 653만명, 2000년 760만 명, 2001년 810만 명, 2002년 923만 명임(연평균 15.1% 증가)
- 3국을 제외한 역내관광수요는 1998년 1,015만 명, 1999년 1,100만 명, 2000년 1,267만 명, 2001년 1,304만 명, 2002년 1,474만 명임(연평균 9.9% 증가)
- 중국은 이미 2003년부터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규모가 총 2천만명정도로 일본을 넘어서고 있어 아시아 최대의 목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국외 관광목적지의 제한이 완화되고 있어 중국인이 선택하는 목적지의 향방이 세계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의 여행은 중국 국내 관광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관광지의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인프라 정비와 관광산업의 성장은 중국 주변국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서 중국 관광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이영주, 2004: 27)
-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WTO가입에 따른 개방정책 확대에 기초하여 해외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전면자유화가 예상되는 등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확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유럽 27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럽 여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중국은 한국,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해 26개 국가만을 여행지역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인들과 비자를 소지한 개인만이 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음. 그러나 중국정부는 2004년 9월달부터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등에 대한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해당국과 합의하였음. 그러나 영국은 여행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됨
- WTO는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2010년 약 6천만 명, 2020년 약 1억 명(세계 4위)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중국 관광국은 1994~2003년 해외로 출국한 중국인이 매년 13.9%씩 증가했다고 발표. 2003년 중국인 여행객은 2,020만 명이었으며 2004년 1~5월에는 1,117만 명이 해외로 나가 2003년 같은 기간보다 81.6% 증가⁷⁾
- 2002년 기준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약 54만명으로 중국인 해외관광객수는 약 1,344만명으로 4%에 불과하나, 국내 관광시장점유율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외래관광객 시장점유율 : 일본 43.4%, 중국 10.1%, 미국 8.6%
 - 지난 10년간 중국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19.1%대
- 태국, 비수기 공략 'Green Season' 관광전략 마련
 - 태국 관광당국(TAT:th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이 비수기 공략을 위한 연례 마케팅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방콕에서 개최
 - 5월에서 9월 사이의 태국의 관광 비수기를 'Green Season'이라 명명하여, 이 시기 태국이 몬순우기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록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하여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힘

7) 세계일보, edaily, 북경만보 종합, 2004.8.30 (이영주, 2004, p.49-50 재인용)

-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관광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및 북미지역의 전통시장 지역은 계속적으로 성수기철에 방문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시장지역인 중국과 인도, 태국 국내수요의 증가 및 저가 항공기의 발달로 인해 비수기철에 태국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Green Season 마케팅 계획에는 9개 틈새 관광객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에 맞는 맞춤형마케팅을 구사할 예정임. 최고급 관광객, 컨벤션/전시회/인센티브 관광객, 골프, 웰빙 및 온천 관광객, 다이빙, 기업 및 비즈니스 여행객, 노인 관광객, 장기체류, 허니문 관광객이 타겟임. 또한 타이 국제항공과 기타 지역 및 국제 항공사들과 제휴, 인터넷 기술과 직접예약 시스템 준비를 통하여 Green Season의 관광객 유치에 할 예정(부산발전연구원 해외도시정보 71호, 2004.7.21; 이영주, 2004, p. 58-59 재인용)
- 대만, 300만명 유치목표 프로모션 계획
 - 2004년 상반기 SARS 및 대선후유증 등의 악재로 인하여 상반기의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에는 300만명의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를 수립
 - 일본 및 홍콩시장은 부정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시장은 2004년 전세기의 증가로 한국인의 대만 방문객수는 원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유럽시장이 넓고 시장 잠재력이 커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마케팅사에 의뢰, 현지 시장에서 각각 프로모션을 대행케하고 있으며 마케팅대행사가 없는 기타 유럽지역은 대만과 직항 노선이 있는 비엔나, 로마, 암스테르담 등의 지역(런던과 파리 제외)을 우선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04년 연말까지 창룽(長榮)항공이 시드니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라 하반기의 대만 관광시장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밝힘(한국관광공사 자료실,

2004.7.15; 이영주, 2004, P.59 재인용)

3. 국내관광동향

1) 관광객수

- 2000년 외래관광객 500만 명 돌파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제관광은 1989년 1월 해외여행 연령제한 폐지가 시행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음. 이러한 추세는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국인 출국자수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1995년에는 내국인 출국자수가 외래객 입국자수를 상회하였으며, 관광수지도 1995년을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⁸⁾

<표 2-5> 연도별 외래객 입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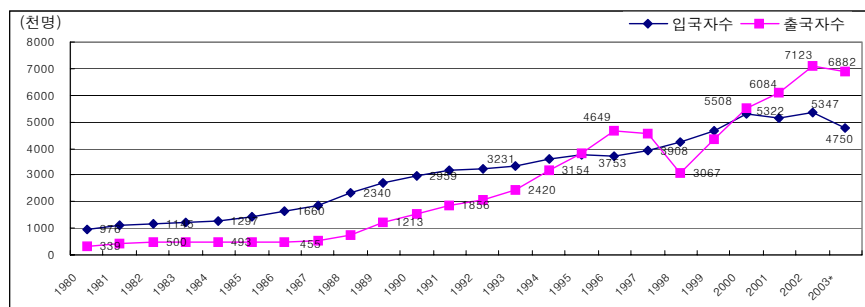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외래방문객수	증가율	연도	외래방문객수	증가율
1981	1,093,214	12.0	1993	3,331,226	3.1
1982	1,145,044	4.7	1994	3,580,024	7.5
1983	1,194,551	4.3	1995	3,753,197	4.8
1984	1,297,318	8.6	1996	3,683,779	-1.8
1985	1,426,045	9.9	1997	3,908,140	6.1
1986	1,659,972	16.4	1998	4,250,216	8.8
1987	1,874,501	12.9	1999	4,659,785	9.6
1988	2,340,462	24.9	2000	5,321,792	14.2
1989	2,728,054	16.6	2001	5,147,204	-3.3
1990	2,958,839	8.5	2002	5,347,468	3.9
1991	3,196,340	8.0	2003	4,752,762	-11.1
1992	3,231,081	1.1	2004	5,818,298	22.4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8)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6

- 1997년 IMF 기간 중 출국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추세가 가속화됨으로써 최근 10년간(1993년~2002년) 우리나라 외래객 입국자수는 연평균 5.3%씩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국자수는 연평균 15.3%씩 증가하였음
- 2003년에는 국제관광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어 외래객 입국자수는 전년대비 11.1% 감소하였음. 2003년 전반기에는 이라크 전쟁과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영향으로 세계 관광시장의 급속한 위축을 가지고 왔음. 특히 SARS는 관광객 이동을 급속히 감소시키면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 9)



〈그림 2-4〉 우리나라 외래객 입국자 수 및 내국인 출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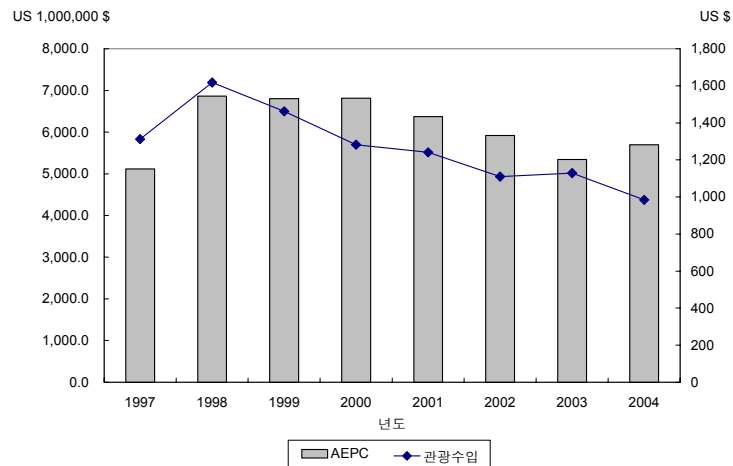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2) 관광수지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경비는 1993년 1,043달러에서 1998년 1,615달러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1999년 이후 점차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요인도 있지만,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관광객의 행태가 변화하면서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지출욕구가 감

9)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6-7

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5> 연도별 관광수입

주 : AEPC는 1인당 평균소비액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 우리나라 외국인 1인당 평균지출액은 1998년 1,615달러에서 2002년 987달러로 감소, 내국인은 1998년 861달러에서 2002년 1,073달러로 증가. 최근 10년간(1993년~2002년) 관광수지는 관광수입액 1993년 35억달러에서 2002년 52억달러로 연평균 6.4% 증가. 관광지출액은 1993년 33억달러에서 2002년 76억달러로 연평균 13.4%씩 증가¹⁰⁾

10)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표 2-6> 1인당 관광지출액 동향

(단위 : 달러, 원, 전년대비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외국인	지출액	1,043	1,063	1,488	1,474	1,309	1,615	1,460	1,280	1,238	987
	증가율	3.0	1.9	40.0	-1.0	-11.2	23.4	-9.6	-12.3	-3.4	-20.3
내국인	지출액	1,347	1,296	1,546	1,498	1,379	861	916	1,121	1,076	1,073
	증가율	-27.5	-3.8	19.3	-3.1	-8.0	-37.6	6.4	22.4	-4.0	-0.3

자료 : 전효재, 2003, 국제관광 수요예측, p.10

-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의 일인당 소비지출과 관광수입 총량은 1998년을 제외하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외래관광객 증가율 : 1980~2000년 평균 9.0%, 2001~2003년 평균 -2.5%
-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액 : \$1,460(1999)에서 \$1,107(2003)로 감소

<표 2-7> 우리나라 관광수지 동향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

구 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2000년	6,811	0.1	6,174	55.3	637
2001년	6,373	-6.4	6,547	6.0	-174
2002년	5,919	-7.1	9,038	38.0	-3,119
2003년	5,343	-9.7	8,248	-8.7	-2,905
2004년	5,697	6.6	9,499	15.2	-411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동향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 주요 관광시장별 동향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객의 주요 송출국의 시장점유율은 일본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중국이 10.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관광객의 점유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미국 관광객의 점유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일본, 대만의 방문객수가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관광 목적 입국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음. 일본, 대만, 홍콩의 관광 목적 입국객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8〉 국적별 외래객 입국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국적	2001		2002		2003		2004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일본	2,377	-3.8	2,321	-2.4	1,803	-22.3	2,443	35.5
중국	482	8.9	539	11.9	513	-4.9	627	22.4
미국	427	-6.9	459	7.6	422	-8.2	511	21.2
필리핀	211	-15.2	216	2.3	217	0.4	213	-1.5
홍콩	205	2.0	179	-12.5	156	-12.8	155	-0.8
러시아	135	-13.3	165	22.7	168	1.6	157	-6.6
대만	129	1.8	137	5.8	195	42.1	305	56.7
구주	429	-5.2	504	17.4	481	-4.5	498	3.5
계	5,147	-3.3	5,347	3.9	4,753	-11.1	5,818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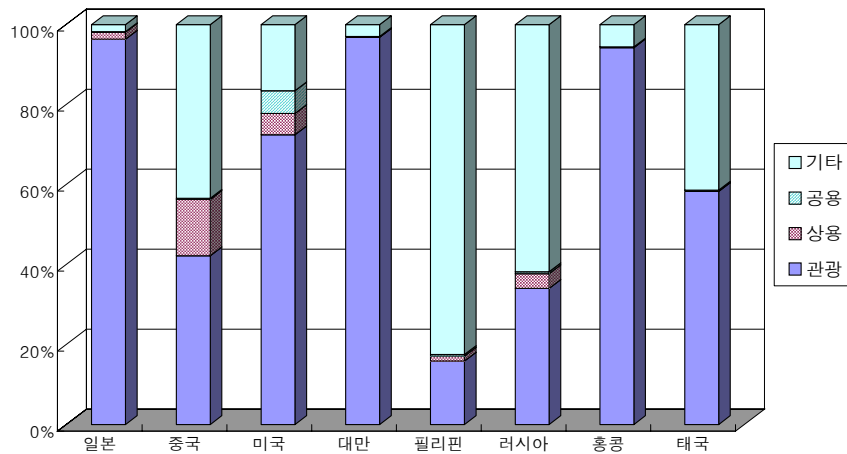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표 2-9> 연도별, 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일본	미국	중국	구주	교포	기타	계
1995	44.4	9.6	4.8	10.9	8.9	21.4	100.0
1996	41.4	10.8	5.4	11.5	8.2	22.7	100.0
1997	42.9	10.9	5.5	10.5	7.9	22.3	100.0
1998	46.0	9.5	5.0	8.9	7.4	23.2	100.0
1999	49.9	8.5	6.8	8.3	6.5	23.0	100.0
2000	46.5	8.6	8.3	8.5	5.2	22.9	100.0
2001	46.2	8.3	9.4	8.3	5.6	22.2	100.0
2002	43.4	8.6	10.1	9.4	5.9	22.6	100.0
2003	37.9	8.9	10.8	10.1	6.0	26.3	100.0
2004	42.0	8.8	10.8	8.6	5.2	24.6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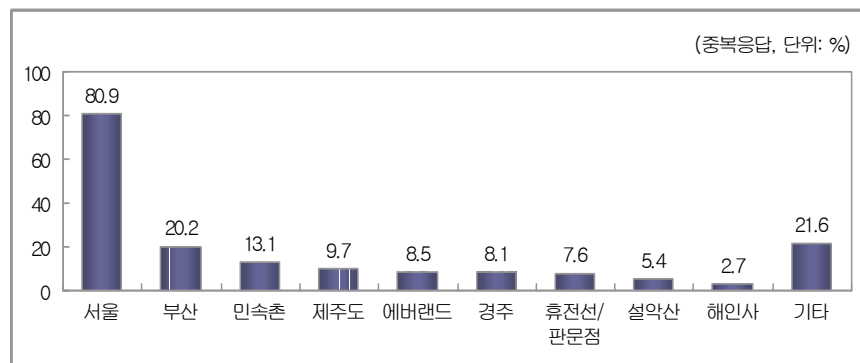
<그림 2-6> 주요 국가별 외래객 입국 목적 비율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4 (<http://www.knto.or.kr>)

4. 외래관광객 추이 및 행태¹¹⁾

1) 한국에서 방문한 곳

- 80.9%의 외래객이 ‘서울’을 방문하였음. 다음으로 ‘부산’(20.2%), ‘민속촌’(13.1%), ‘제주도’(9.7%), ‘에버랜드’(8.5%), ‘경주’(8.1%), ‘휴전선/판문점’(7.6%), ‘설악산’(5.4%), ‘해인사’(2.7%), ‘기타’(21.6%) 등의 순서임



<그림 2-7> 한국여행 중 방문지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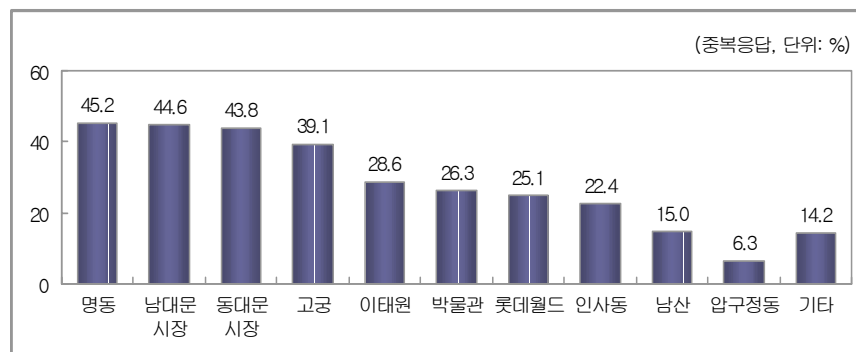
- 연도별 서울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83.7%(2002) → 85.0%(2003) → 80.9%(2004)로 약간 감소하였음
- 월별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매월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1월 82.9%, 2월 78.1%, 3월 80.2%, 4월 80.5%, 5월 81.9%, 6월 83.5%, 7월 83.7%, 8월 81.0%, 9월 82.4%, 10월 80.8%, 11월 76.3%, 12월 79.7%). 서울 외 다른 지역의 경우 8월은 ‘부산’(25.8%), 1월은 ‘에버랜드’(13.9%)와 ‘설악산’(12.9%)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1)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조

- 거주국에 관계없이 '서울'을 방문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69.2%) 거주자가 다른 국가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비율이 낮았으며, 2003년과 비교해서도 '서울'(77.9%→69.2%)을 방문한 일본 거주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서울 내 방문지

-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래객은 서울 내에서 '명동'(45.2%), '남대문시장'(44.6%), '동대문시장'(43.8%)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고궁'(39.1%), '이태원'(28.6%), '박물관'(26.3%), '롯데월드'(25.1%), '인사동'(22.4%) 등의 순서임



<그림 2-8> 서울지역 방문 외래관광객의 방문지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연도별 방문지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은 2003년에 비해 '명동'(38.9%→45.2%)을 방문한 비율이 증가하였고, '박물관'(30.1%→26.3%)을 방문한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음
- 월별 방문지 추세는 8월은 '명동'(51.9%), '남대문시장'(51.7%), '박물관'(35.0%)을, 1월은 '롯데월드'(34.7%)를, 3월은 '동대문시장'(49.3%)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외 4월(44.1%)과 9월(44.0%)은 ‘고궁’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9> 연도별 한국여행 중 서울 내 방문지

(단위: %)

구분	2004년	2003년	2002년
명동	45.2	38.9	45.2
남대문시장	44.6	44.7	53.2
동대문시장	43.8	45.5	46.5
고궁	39.1	36.5	38.7
이태원	28.6	30.2	29.8
박물관	26.3	30.1	31.0
롯데월드	25.1	27.4	26.3
인사동	22.4	20.0	19.1
남산	15.0	15.1	12.6
압구정동	6.3	5.0	5.3
기타	14.2	24.7	22.9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거주국별 방문장소를 살펴보면, 일본 거주자는 ‘명동’(67.6%), ‘남대문시장’(54.1%)을, 중국 거주자는 ‘고궁’(52.2%), ‘동대문시장’(48.7%)을, 홍콩 거주자는 ‘명동’(70.0%), ‘남대문시장’(54.4%), ‘동대문시장’(52.9%), ‘롯데월드’(47.0%)를, 싱가포르 거주자는 ‘동대문시장’(66.3%), ‘롯데월드’(57.8%), ‘고궁’(57.4%)을, 대만 거주자는 ‘동대문시장’(81.8%)을, 태국 거주자는 ‘동대문시장’(61.7%), ‘고궁’(61.7%), ‘남대문시장’(56.9%)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시아 국가 거주자는 시장 등 쇼핑 지역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이태원’(55.0%)을, 캐나다는 ‘고궁’(52.6%), ‘이태원’(50.3%)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0> 거주국별 한국여행 중 서울 내 방문지

(단위: %)

	사례수	명동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고궁	이태원	박물관	롯데 월드	인사동	남산	압구 정동	기타
전체	7,929	45.2	44.6	43.8	39.1	28.6	26.3	25.1	22.4	15.0	6.3	14.2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연령별 방문지를 살펴보면, 20세 이하, 20대의 저연령층은 ‘명동’(각각 60.2%, 54.1%), ‘동대문시장’(각각 59.6%, 54.6%), ‘남대문시장’(각각 56.0%, 47.2%) 등 쇼핑 장소와 ‘롯데월드’(각각 37.2%, 29.5%)를 방문한 비율이 높았고, 61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고궁’(53.4%), ‘박물관’(34.5%) 등 역사 유적을 방문한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방문 목적별로 보았을 때, 사업/전문활동에 비해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방문객이 ‘명동’(각각 28.0%, 62.6%), ‘남대문시장’(각각 32.7%, 55.4%), ‘동대문시장’(각각 30.1%, 56.5%), ‘고궁’(각각 28.6%, 47.3%) 등의 방문 비율이 높음

제2절 서울의 외래관광객 추이 및 실태 분석

1. 서울 여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75.3%가 서울 여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전반적 만족는 78.8점으로 나타남
- 다시 한번 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비율은 73.7%, 서울을 여행지로 추천하겠다는 비율도 76.6%로 나타나, 서울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친절함(55.8%) 점이 가장 인

상에 남았으며, 반면에 말이 통하지 않은(27.8%)점이 여행중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함

- o 인상깊은 점으로는 ‘사람들이 친절하다’, ‘음식이 맛있다’, ‘쇼핑/관광하기 좋다’, ‘도시가 활기에 차있다’, ‘안전하다’, ‘날씨가 청명하다’,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다’, ‘물건이 싸다’, ‘자유분방하다’, ‘도시가 깨끗하다’ 등으로 응답하였음
- o 관광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교통이 혼잡하다’, ‘한글을 읽을 수 없다’, ‘택시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있다’, ‘관광지 등에 안내가 없어 불편하다’, ‘서비스 나쁘다’, ‘버스가 난폭하다’, ‘오수/하수냄새’,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한 호객행위’ 등을 들고 있음

2. 여행일반 및 사전과정

- o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개별여행(53.4%)’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로 ‘관광/휴가/레저(65.4%)’를 목적으로 ‘동성/이성친구(39.2%)’ 또는 ‘혼자(21.9%)’ 방문함
- o 서울 선택 이유로는 ‘거리/비용’과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24.1%)

3. 분야별 여행실태

1) 숙박시설

- o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고급대형호텔(48.8%)’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주 이용 숙박시설로는 롯데호텔(20.2%), 하얏트호텔(10.3%), 힐튼호텔(9.4%), 인터콘티넨탈(5.8%), 메이어트호텔(4.5%) 등을 들고 있음

- 숙박시설 선택 시, ‘교통의 편리함(34.8%)’과 ‘시설/서비스의 우수성(31.3%)’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예약은 주로 ‘여행사/전문예약 회사를 통해서(46.0%)’ 이루어짐.
-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응답자(457명)의 69.8%가 “만족”하고 있으며, 주이용 숙소에 대한 만족도는 77.6점으로 나타남.

2) 음식점

- 서울 여행 중 ‘시내 한국 음식점(57.1%)’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응답자(457명)의 69.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이용 시, ‘의사소통(8명)’과 ‘음식의 입맛(7명)’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가장 많음.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주문/결제시 종업원과 의사소통이 어렵다’, ‘음식이 입맛에 안맞는다’,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다’, ‘메뉴판에 음식설명이나 사진이 부족하다’, ‘요금이 비싸다’ 등으로 응답하였음

3) 관광지/쇼핑지

- 서울 여행 중 방문한 관광지/쇼핑지에 대해, 응답자(457명)의 70.2%가 ‘만족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원화 사용(9명)’과 ‘안내표지 부족(8명)’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관광안내정보

- 서울 여행 중 관광/안내정보가 필요할 때, ‘관광안내소(22.3%)’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내시설로는 ‘호텔안내데스크(34.8%)’를 가장 많이 이용함.
- 서울 여행 중 응답자의 47.9%가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여행 전 사전에 준

비하는 경우(29.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여행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필요했던 정보는 '관광지/관광코스 소개(35.9%)'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안내(21.2%)', '쇼핑정보(13.6%)'의 순으로 나타남.

5) 교통수단

- 외래관광객은 공항에서 서울 진입 시 공항리무진버스(42.5%)를 가장 많이 이용함. 서울 시내 이동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택시(33.5%), 지하철(30.6%), 관광객 전용렌트버스(18.8%), 자가용(8.8%), 시내버스(4.6%) 순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 이용시 택시의 경우 기사와의 의사소통 곤란을 지하철은 계단 및 역내이동거리 불편을 시내버스의 경우 과속/난폭운전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나타남

4. 추천관광명소 및 관광상품

- 전반적으로 과년도 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주간관광명소'로 "서울타워"가 새롭게 인기 방문지로 나타남.
- 외국인 관광객은 경복궁(7.0%)을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 주간 관광명소로 서울타워(6.8%)가 새롭게 인기 방문지로 나타나고 중국어권 관광객은 한강(16.0%)을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추천함.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타워(21.1%)를 가장 멋진 야경장소로 추천함, 반면 중국어권 관광객은 한강(41.3%)을 가장 멋진 야경장소로 인식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여행중 왕궁수문장교대의식(7.0%)을 가장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타공원(4.6%), 인사동축제(3.5%)가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주로 동대문시장(22.3%)과 명동(21.4%)을 쇼핑장소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 여행중 체험프로그램으로 안마/마사지(6.6), 사우나/스파(5.7%), 한국 음식(3.9%) 순임

<표 2-11> 추천관광명소 및 상품

구분	주간관광 명소	야간관광 명소	음식	공연/행사/ 축제	쇼핑장소	쇼핑물품	체험 프로그램
1순위	경복궁	서울타워	불고기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동대문시장	옷	안마/ 마사지
2순위	서울타워	한강	비빔밥	난타공원	명동	화장품	사우나/ 스파
3순위	한강	남산	김치	인사동축제	남대문시장	가방	한국음식
4순위	인사동	명동	갈비	남산골한옥 마을	백화점	김	음식만들기
5순위	롯데월드	호텔야경	삼계탕	이태원축제	면세점	김치	한복입고 사진찍기

자료 : 서울특별시, 2004, 「2004년 외국인관광객 서울여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5. 언어권별 평가

- 서울 여행에 대해 영어권 관광객의 만족도가 84.2점으로 타 언어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 음식, 관광/쇼핑지, 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제3절 서울관광 국제 경쟁력 비교

1. 환아시아권 도시의 관광여건 비교

1) 환아시아지역 관광 동향

-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주요 세계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 WTO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지난 2001년 한 해 총1억1천510만명의 국제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년 대비 5.5%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같은 해 3.8%의 증가율을 보인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유일한 지역이었음
-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 시장 점유율은 1995년 14.4%에서 2000년에 16.0%로 증가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그 점유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이 높은 성장을 주도하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국제관광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짐
- 이러한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
-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기존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되는 동남아시아간의 관광교류와 협력 강화는 보다 큰 하나의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관광이 국제적인 경쟁력과 위상을 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과 실천적 사업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동북아시아의 관광중심도시 서울

- 한국이 동북아 관광중심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관광협력 및 R&D의 거점, 국제관광객의 교류와 이동의 중심지, 국제관광객의 방문과 체류의 목적지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치와 여건, 잠재력을 상세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 따라서 날로 세계화되고 있는 서울이 동북아의 관광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전략적 적소를 탐색하고 자 함
 - 아시아 전역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도시들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0% 이상되고 1인당 GDP가 700달러 이상의 국가의 중심적인 도시
 -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로서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 동경, 서울 등을 동북아 중심 주요도시로 선정됨

3) 서울의 관광환경 여건 분석

- 서울은 다양한 볼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갖고 있는 도시
- 분산되어 있는 서울의 관광기능을 제대로 조합하고 기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최소한으로 조성만 하여도 서울의 도시관광기능은 극대화가 될 수 있음
- 현재의 서울은 행정기능 이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관문으로서의 기능은 지속될 것이므로 서울의 도시관광역할

을 증대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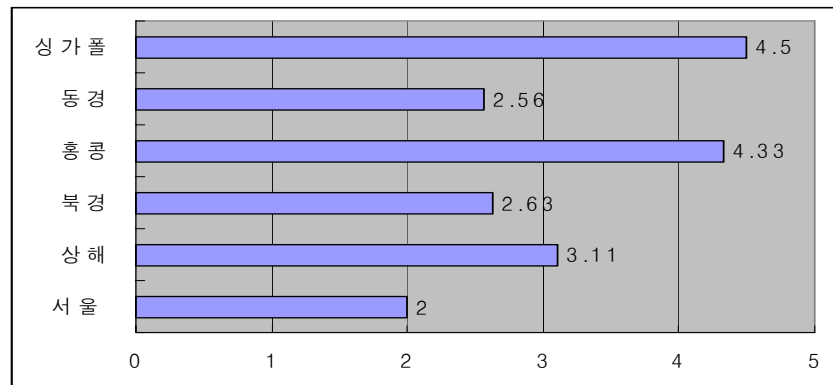
- 동북아 관광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지표의 설정과 측정,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임

<표 2-12> 관광환경지표의 정리

분류	항목
생활의 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도심권 위험도
	쇼핑의 매력
	외국인 커뮤니티활성화 정도
	외국문화 개방도
기반시설 환경	항공편으로 접근가능도시
	주요 도시행 항공편수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
	특급호텔 수
	컨벤션 중심지 경쟁력 평가
	컨벤션 개최빈도
	외국인의 출입국 용이성
	도시기반 시설의 외국의 표기정도
인적자원	영어사용 능력
	국제회의 기획자의 수
	동시통역자 수

(1) 생활의 질

-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 외국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배타적 감정 역시 경쟁 도시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화되어 있는 싱가포르,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동경이나 북경과 비교해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극히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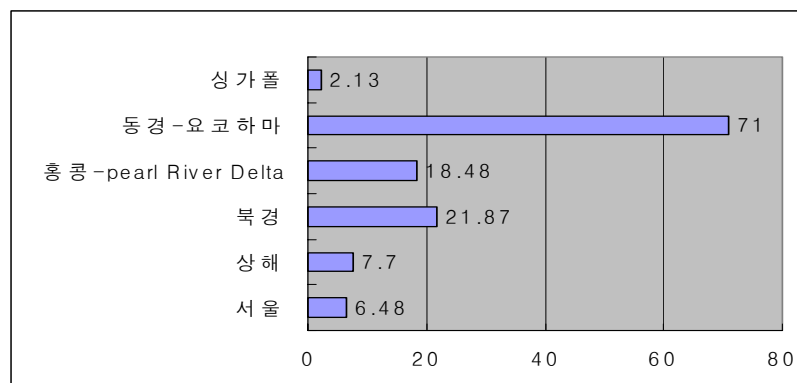


<그림 2-9>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도시권 위험도

- 싱가포르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재해취약성에 있어서는 북경다음으로 취약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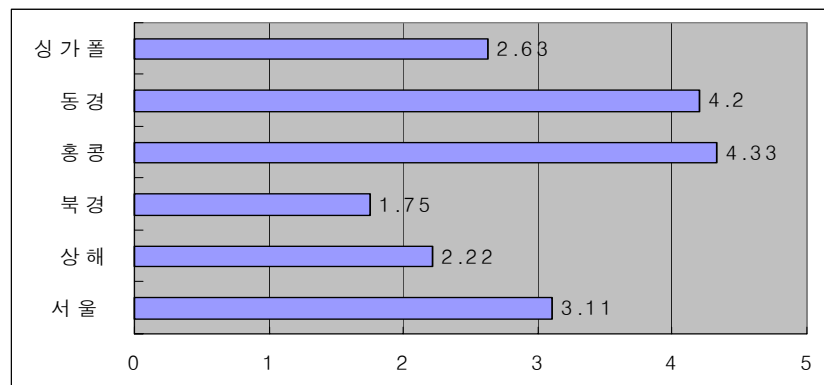


<그림 2-10> 도시권 위험도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쇼핑의 매력

-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쇼핑 등의 관광 여건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임. 서울의 경우 북경, 상해, 싱가포르보다는 쇼핑의 매력이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보통에 머물고 있음. 쇼핑에 강점이 있는 도시로는 전도시가 면세점화되어 있는 홍콩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 상점이 들어서 있는 동경 등을 손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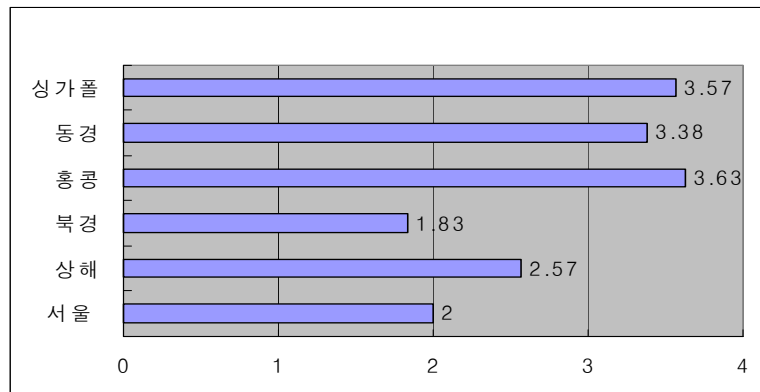


<그림 2-11> 쇼핑의 매력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외국인 커뮤니티(차이나 타운 등) 활성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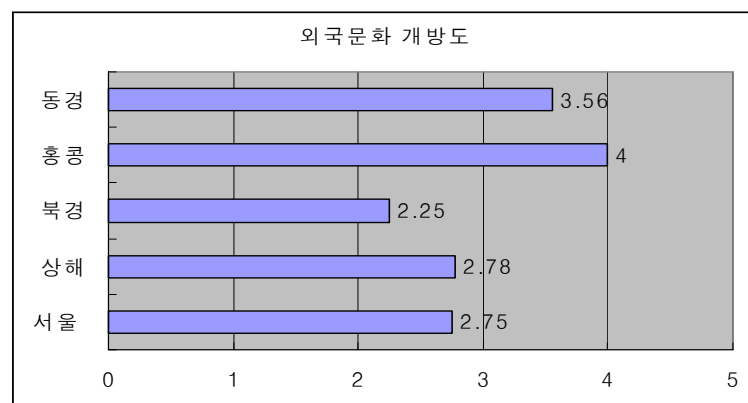
- 서울은 차이나타운과 같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
-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 이미 국제화가 이루어진 도시는 물론, 중국의 상해와 비교해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됨



〈그림 2-12〉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외국인 문화 개방도(외국영화, TV방송, 책, 음악 등 수입에 대한 규제)
 - 서울은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짐. 홍콩과 싱가포르가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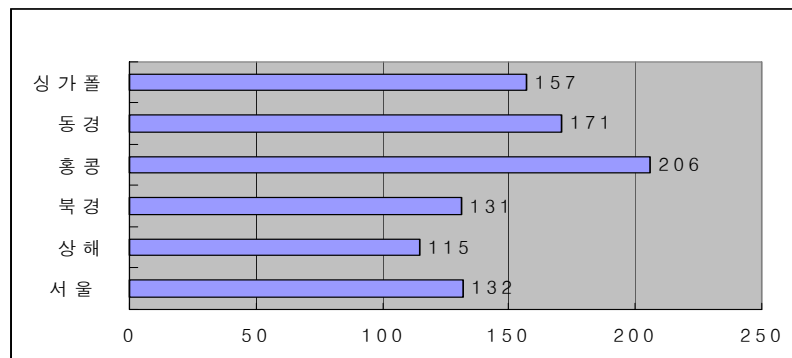
〈그림 2-13〉 외국문화 개방도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2) 관광기반환경

○ 항공편으로 접근가능한 도시

- 입지상 동북아 중심지라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필수 조건인 항공 연결 도시 수에서 서울은 아직 홍콩이나 동경, 싱가포르에 비해 뒤처짐. 연결 도시 수에 있어서는 홍콩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며, 동북아에서는 동경의 경쟁력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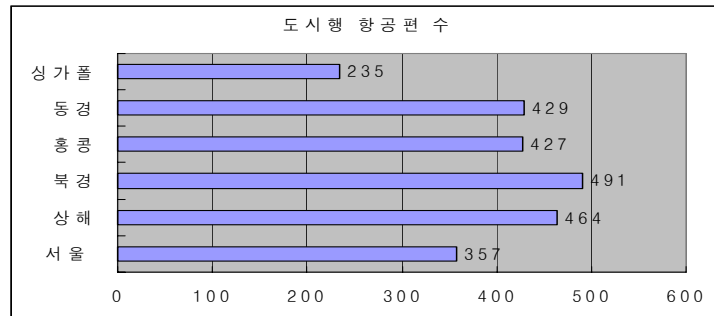


<그림 2-14>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 수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 비교 대상 6개 도시들의 항공편 수를 보면, 국내선 편수가 많은 상해, 북경을 제외하면 동경과 홍콩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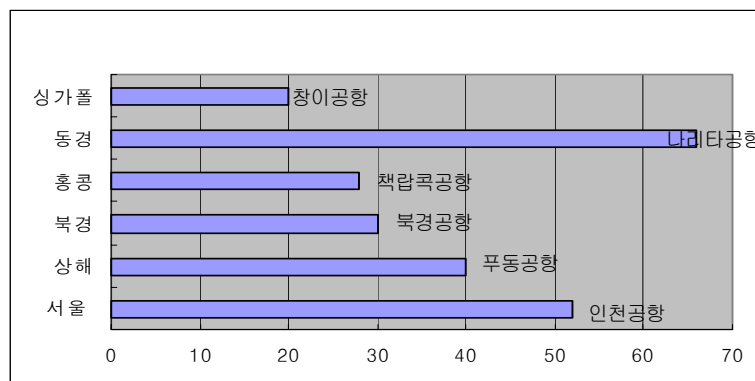


<그림 2-15>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

- 거리 및 접근 수단의 측면에서 볼때,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경쟁 도시들 중 동경을 제외한 타 도시에 비해 공항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항 접근수단이 도로에 국한되어, 경쟁 도시에 비해 공항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그림 2-16> 공항까지의 접근성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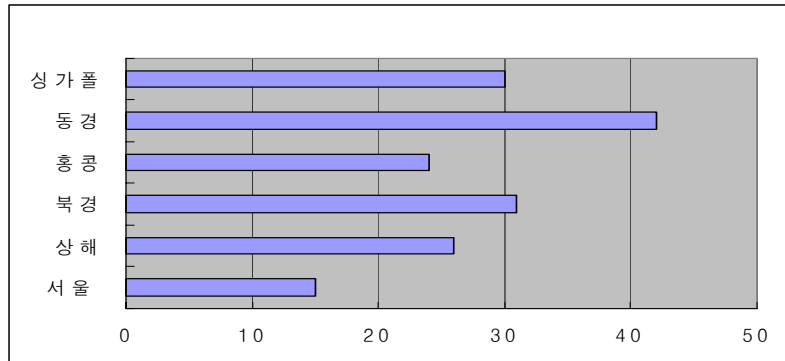
<표 2-13>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 및 요금

도시	교통수단	소요시간	요금(원)
서울	택시	60분	36,000
	공항버스	60~100분	6,500~12,000
북경	택시 공항버스	40~50분	10,434~11,844 2,397
상해	택시 공항버스	50분 50~90분	21,150 4,230
홍콩	택시	-	52,150
	공항버스	-	2,533~6,705
	고속철도	23분	13,410
동경	택시	60~120분	220,000~250,000
	공항버스	60~80분	30,000
	고속철도	60분	31,400
싱가폴	택시	20~30분	15,364
	공항버스	-	3,340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특급호텔의 수

- 특급호텔은 비즈니스 출장자 및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업무 및 미팅공간, 그리고 컨벤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 관광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임
- 특급호텔 수는 동경의 1/3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쟁 도시중 서울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7〉 특급호텔의 수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컨벤션 중심지 경쟁력 평가

- 현재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 빈도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이나,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벤션 인프라의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2-14〉 컨벤션경쟁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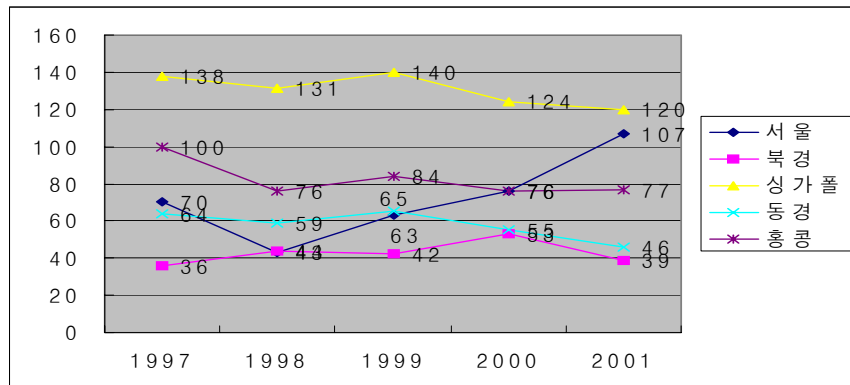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개최빈도	컨벤션 개최회수	◎	-	△	○	△	◎
	국제회의 기획자	X	X	X	◎	X	◎
인프라	동시통역자 수	△	△	○	△	△	△
	특급 호텔 수	X	△	X	◎	○	○

주 : ◎ 매우 경쟁력 있음, ○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X 경쟁력이 없음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컨벤션 개최 빈도

- 서울은 아시아지역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컨벤션 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 서울은 2001년도에 컨벤션 개최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음
-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지역의 전체 컨벤션 회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아이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컨벤션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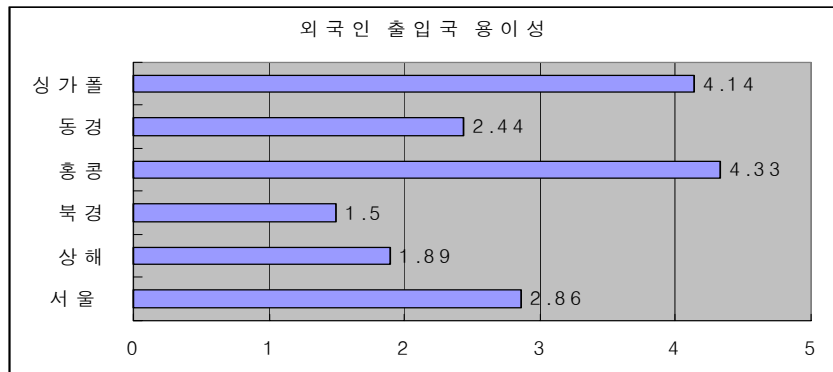


<그림 2-18> 국제 컨벤션 개최회수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외국인 출입국 용이성(외국인에 대한 비자정책, 차별 등)

-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해서도 서울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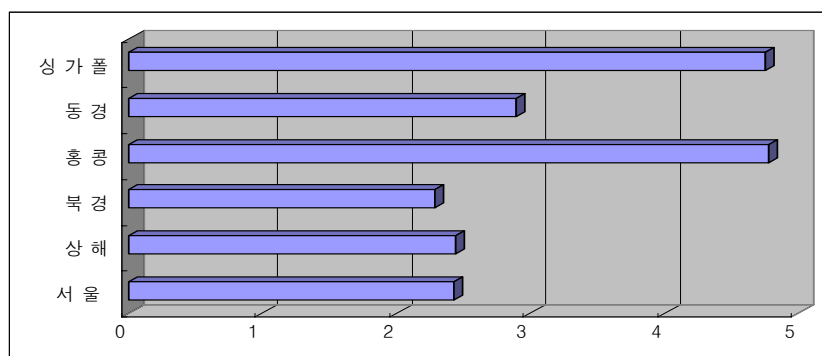


<그림 2-19> 외국인 출입국 용이성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의 표기 정도

-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여건을 나타내고 있음. 싱가포르와 홍콩은 일반 행정서비스, 도시기반시설 두 측면 모두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왔지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네도시(서울, 상해, 북경, 동경)의 국제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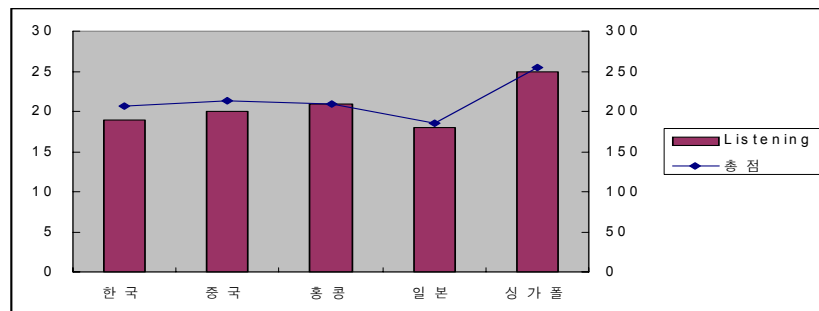
<그림 2-20>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정도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3) 인적자원

○ 영어사용능력

- 한국인의 TOEFL 평균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실질적으로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면 중국의 도시들과 서울,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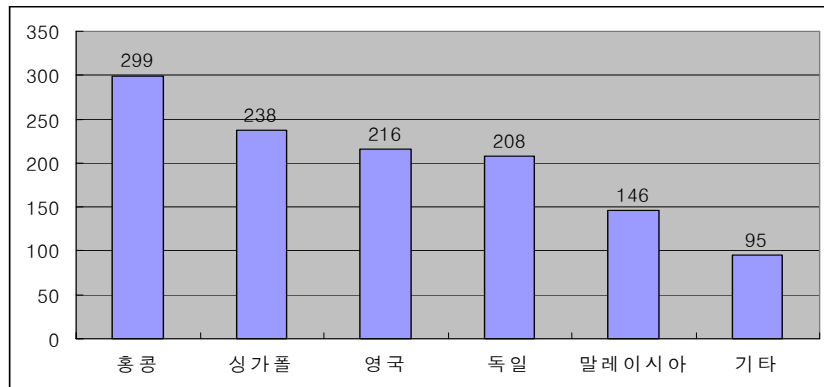


<그림 2-21> 국가별 TOEFL 평균성적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국제회의 기획자의 수

- 한국에는 전문적인 국제회의 기획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ICC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회의 기획자의 수는, 등록자의 홍콩19%, 싱가포르 15%, 서울에는 거의 전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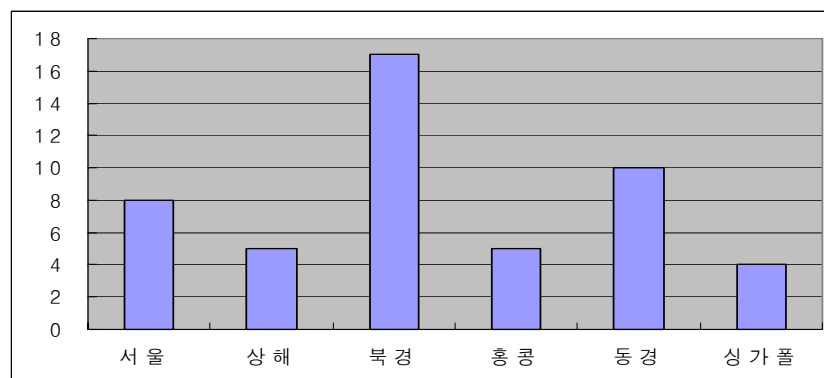


<그림 2-22> 국제회의의 기획자 수

자료: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동시통역자 수

- 국제회의 통역사협회에 등록된 국제회의 전문 동시통역자 수 역시 서울은 매우 부족함.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영어가 실질적으로 공용어로 사용되므로, 동시통역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 AIC(국제회의의 통역사협회)등록 동시통역자 수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표 2-15> 관광환경지표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생활의 질	도심권 위험도	서울은 자연재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	3위	싱가폴
	쇼핑의 매력	싱가폴, 동경에 뒤떨어짐.	3위	홍콩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도시	5위	홍콩
	외국문화 개방도	중국과 비슷 폐쇄적인 도시	5위	홍콩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경쟁 도시 중 가장 강한 편임	6위	싱가폴
기반시설 환경	외국인의 출입국 용이성	비교적 용이하나 홍콩/싱가폴에 비해서는 부족	3위	홍콩
	도시기반 시설의 외국의 표기정도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여건	5위	홍콩
	항공편으로 접근가능도시	홍콩, 동경, 싱가포르에 비해 접근가능한 도시 수 적음	4위	홍콩
	주요 도시행 항공편수	동경과 홍콩에 비해 뒤떨어짐	5위	북경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	거리도 멀고 접근 수단도 한정되어 도심까지 소요시간 많이 걸림	5위	싱가폴
	특급호텔 수	경쟁도시 중 가장 적음	6위	동경
	도시 인근공항 이용 외국인 입국자 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	3위	홍콩
	컨벤션 중심지 경쟁력 평가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 인프라 열악	2위	싱가폴
	컨벤션 개최빈도	싱가폴과 함께 가장 앞서나가고 있음	2위	싱가폴
	국제회의 기획자의 수	절대적 부족	3위	홍콩
인적자원	동시통역자 수	북경과 동경에 비해 부족	3위	북경
	영어사용 능력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절대열세	4위	싱가폴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환아시아권 대표적인 도시와 서울의 관광여건을 비교해 본 결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서울은 도심권 위험도(3위), 쇼핑매력(3위),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5위),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5위), 외국문화 개방도(6위)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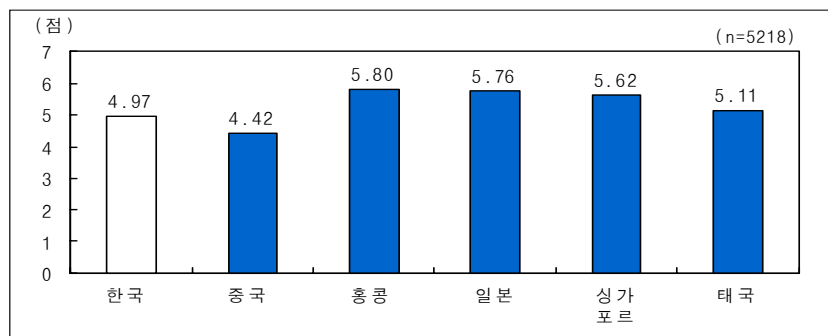
4.4위로 우선순위를 차지했음

- 기반환경측면에서의 서울은 외국인인 출입국 용이성(3위), 도시기반 시설의 외국의 표기정도(5위), 항공편으로 접근가능 도시(4위),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5위),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5위), 특급호텔수(6위), 컨벤션 개최 빈도(2위), 컨벤션 중심지 경쟁력 평가(2위)의 순으로 평균 5위로 평가됨
- 인적자원측면에서의 서울은 국제회의 기획자 수(3위), 동시통역자수(3위), 영어사용능력(4위)으로 평균 4위를 차지했음
-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때, 생활의 질 가운데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관광중심지가 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벤트와 홍보 등 국제적인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한 문화활동이 다양하게 전달되어 저야 할 것임
- 기반환경은 서울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음. 경쟁도시 가운데 특급 호텔의 수가 가장 적은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측면에서는 영어사용 능력은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면 중국과 서울, 일본 비슷한 수준이며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서울시 차원에서 국제회의 자격증 소지자와 국제컨벤션의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환아시아권 도시와 한국(서울)의 관광 이미지 비교

1) 접근성(Accessibility)

- 환아시아 주요 국가의 접근성의 이미지는, 홍콩이 5.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일본 5.76점, 싱가포르 5.62점, 태국 5.11점, 한국 4.97점, 중국 4.42점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6개국 중 5위로 중국을 제외한 4개 나라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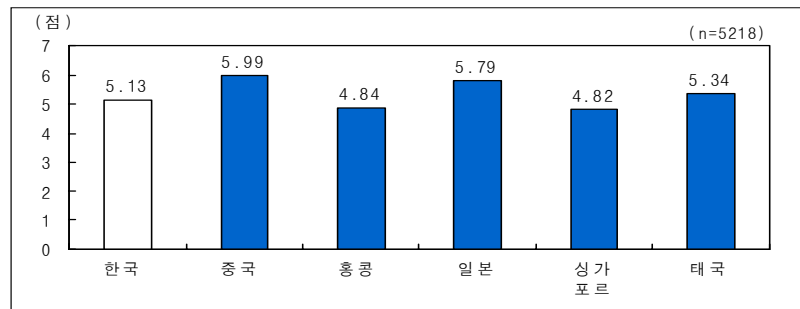


<그림 2-24> 접근성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2) 역사·문화적인 매력(Historic/Cultural attractiveness)

- 역사·문화적 매력 항목에서는 중국이 5.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다음은 일본 5.79점, 태국 5.34점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4번째인 5.13점을 기록하였음. 도시국가인 홍콩(4.84점)과 싱가포르(4.82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역사·문화적 매력이 낮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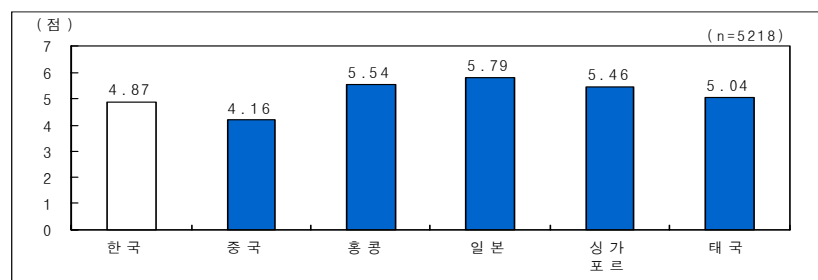


〈그림 2-25〉 역사·문화적인 매력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3) 관광인프라(Tourism infrastructure)

-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는 일본이 5.79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홍콩(5.54점)과 싱가포르(5.46점), 태국(5.04점)의 순으로 좋게 평가되었고, 한국은 4.87점으로 최저 점수를 획득한 중국(4.16점)과 함께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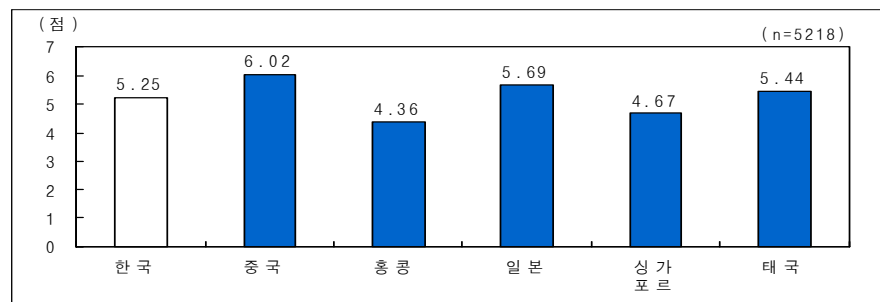


〈그림 2-26〉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 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4) 자연경관(Natural scenery)

- 자연경관에 대한 평가는 중국이 6.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 5.69점, 태국 5.44점, 한국 5.25점 순으로 4개국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홍콩(4.36점)과 싱가포르(4.67점)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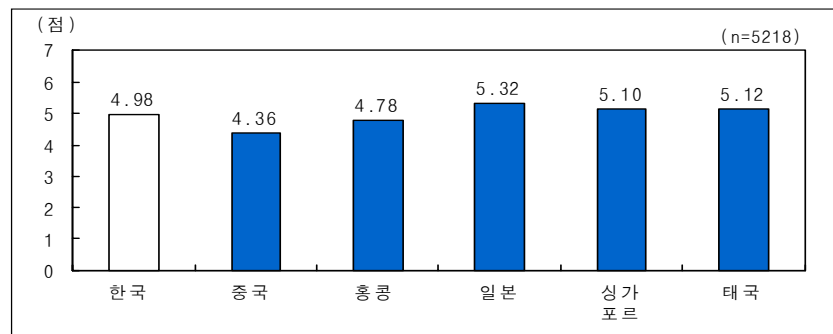


<그림 2-27> 아시아 주요국의 자연경관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5) 환대성(Hospitality)

- 환대성(hospitality) 측면에서 일본이 5.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태국이 5.12점, 싱가포르가 5.10점으로 5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한국은 4.98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홍콩 4.78점과 중국 4.36점에 비해 평가점수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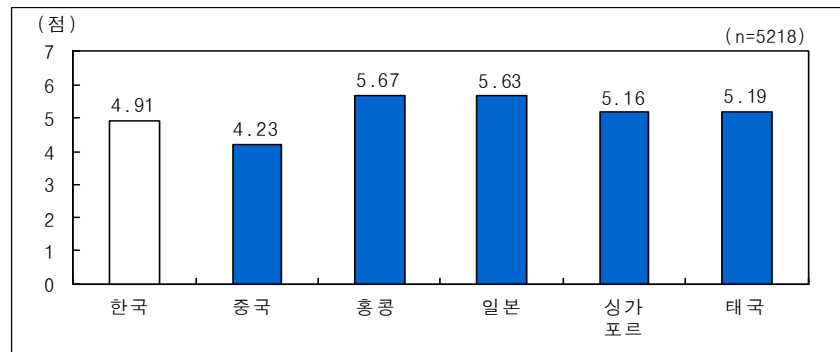


<그림 2-28> 현대성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6) 즐길거리(Entertainment)

- 즐길거리에 대해 홍콩(5.67점)과 일본(5.63점)은 ‘훌륭하다’쪽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은 4.91점으로 태국(5.19점), 싱가포르(5.16점) 보다 낮아 6개국 중 5위로 낮게 평가, 중국은 4.23점으로 나타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매력은 높게 평가받은 반면 즐길거리는 가장 미흡한 국가로 평가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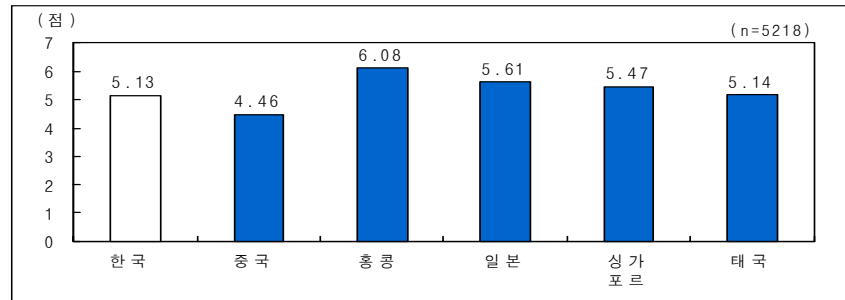


<그림 2-29> 즐길거리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7) 쇼핑(Shopping)

- 아시아 6개국 중 쇼핑에 대한 평가는 홍콩이 6.08점으로 가장 좋게 나타나 쇼핑천국으로서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일본 5.61점, 싱가포르 5.47점, 태국 5.14점 순이었다. 한국은 태국과 비슷한 수준인 5.13점이었고 중국은 4.4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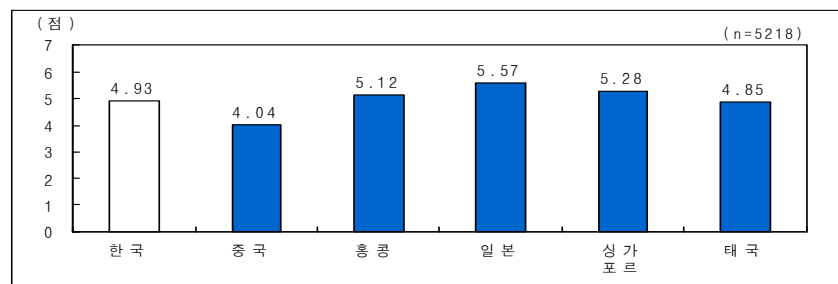


<그림 2-30> 쇼핑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8) 서비스(Quality of service)

- 서비스면에서는 일본이 5.57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은 싱가포르(5.28점), 홍콩(5.12점)에 대한 평가가 좋았음. 한국은 4.93점으로 6개국 중 5번째였으며, 중국은 4.04점을 얻어 서비스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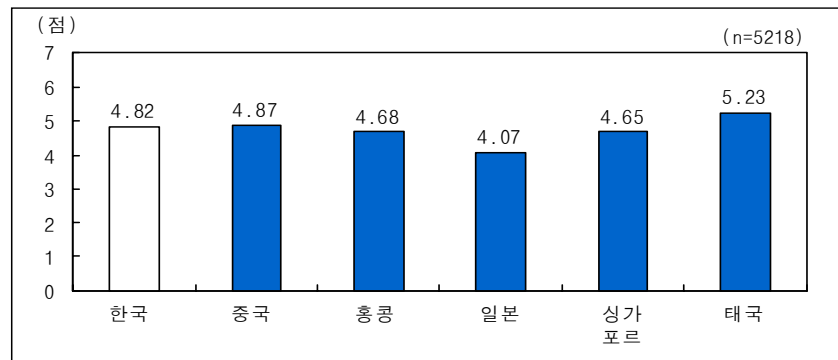


<그림 2-31>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9) 화폐가치(Value for money)

- 화폐가치 항목에서는 태국이 5.23점으로 아시아 6개국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이 4.07점으로 가장 낮았음. 한국은 4.82점으로 중국(4.8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4.68점으로 나타난 홍콩은 싱가포르(4.65점)와 비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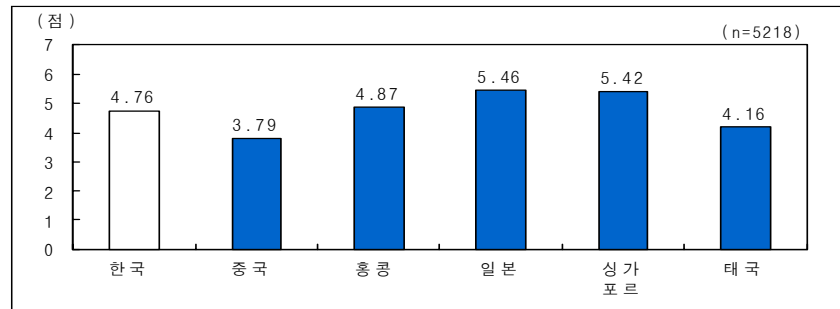


<그림 2-32> 화폐가치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10) 여행안전(Travel safety)

- 여행안전 면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5.46점, 싱가포르가 그 다음인 5.42점으로 조사되어 아시아 타 국가들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홍콩 4.87점, 한국 4.76점, 태국(4.16점)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국은 3.79점으로 여행안전 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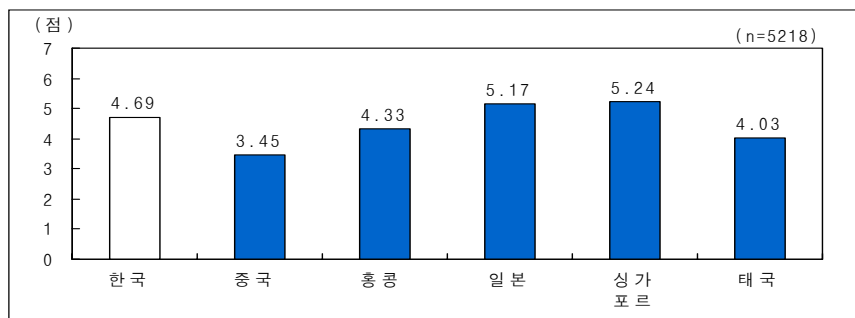


<그림 2-33> 여행안전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11)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 환경관리 항목에서는 싱가포르가 5.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도 5.1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이 4.69점으로 홍콩(4.33점)과 태국(4.03점)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은 3.4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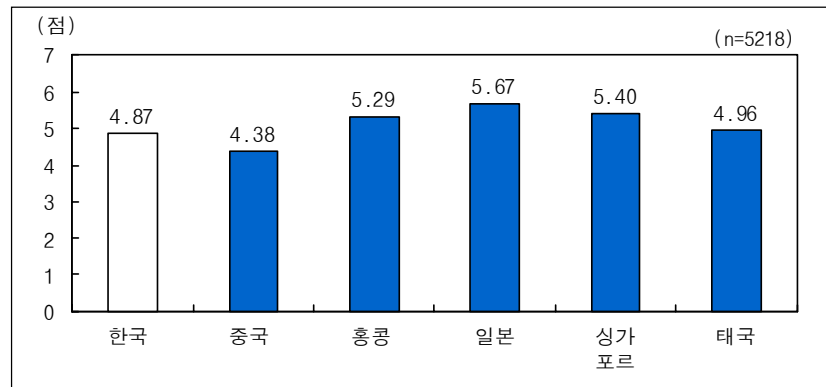


<그림 2-34> 환경관리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12) 관광지로서의 브랜드이미지(Destination brand image)

- 관광지로서 브랜드 이미지 항목에서는 일본이 5.67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다음은 싱가포르가 5.40점으로 홍콩(5.29점)보다 높았으며, 한국은 4.87점으로 태국(4.96점)보다도 낮은 평가, 중국은 4.3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 2-35>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자료: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2001, 한국관광공사.

- 환아시아권 도시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 비교 결과, 서울은 접근성(5위), 역사 문화적 매력(4위), 관광인프라(5위), 자연경관(4위), 현대성(4위), 즐길거리(5위), 쇼핑(5위), 서비스(4위), 화폐가치(3위), 여행안전(4위)의 순으로 평가 되어짐
- 화폐가치 항목에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약간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그 밖에 관광전반에 관한 이미지는 낮은 수위를 기록하였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즐길거리, 쇼핑, 서비

스 등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3.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평가

- 200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외래관광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표 2-16>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평가

(단위: %)

	사례수	매우 훌륭 (5점)	훌륭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균 (점)	전체 평균(점)
공항 시설	10,052	41.0	41.0	16.8	1.0	0.2	4.22	4.04
공항 서비스	10,044	33.6	40.4	24.3	1.3	0.3	4.06	
출입국 절차	10,034	28.4	37.0	28.0	5.0	1.7	3.85	
대중교통 시설	8,642	23.0	43.1	30.2	3.2	0.5	3.85	3.85
대중교통 서비스	8,611	22.6	40.1	32.0	4.3	0.9	3.79	
대중교통 요금	8,537	28.5	39.8	28.0	2.9	0.8	3.92	
숙박 시설	9,639	27.3	43.5	25.7	3.1	0.4	3.94	3.86
숙박 서비스	9,632	26.9	42.5	26.8	3.3	0.6	3.92	
숙박 요금	9,466	19.5	39.7	34.6	5.1	1.1	3.71	
식당 시설	9,910	18.2	43.6	33.8	4.0	0.4	3.75	3.79
식당 서비스	9,932	22.6	44.0	29.2	3.6	0.6	3.84	
식당 음식의 질	9,923	23.5	45.1	26.6	4.2	0.7	3.86	
식당 가격	9,604	19.2	39.7	34.2	5.6	1.3	3.70	
쇼핑 시설	8,988	19.8	45.4	32.3	2.3	0.2	3.82	3.74
쇼핑 서비스	8,982	20.2	42.4	32.9	3.6	0.9	3.78	
상품의 질	8,976	17.4	44.9	34.5	2.8	0.4	3.76	
상품 가격	8,908	15.1	38.5	38.6	6.4	1.5	3.59	
관광 정보 입수	7,793	17.4	37.4	37.2	6.6	1.5	3.63	3.88
관광 안내원	6,782	25.5	39.4	29.7	4.2	1.3	3.84	
관광 안전성	8,273	29.5	43.9	23.8	2.2	0.6	4.00	
관광 매력도	8,295	23.6	43.3	29.9	2.8	0.4	3.87	
사람들의 친절성	8,504	34.0	40.6	21.4	3.0	1.0	4.04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공항 시설’(4.22점), ‘공항 서비스’(4.06점), ‘관광 안전성’(4.00점), ‘사람들의 친절성’(4.04점)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음. 반면, ‘숙박 요금’(3.71점), ‘식당 가격’(3.70점), ‘상품 가격’(3.59점), ‘관광 정보 입수’(3.63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항목별 평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에 비해 ‘공항’(4.13점→4.09점→4.04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숙박’(3.79점→3.80점→3.86점)과 ‘관광’(3.81점→3.83점→3.88점)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중교통’(3.90점→3.86점→3.85점)은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에 비해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식당’(3.78점→3.76점→3.79점)과 ‘쇼핑’(3.73점→3.76점→3.74점)은 2002년,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17> 연도별 한국여행에 대한 차원별 평가

(단위: 점)

	2004년	2003년	2002년
공항	4.04	4.09	4.13
대중교통	3.85	3.86	3.90
숙박	3.86	3.80	3.79
식당	3.79	3.76	3.78
쇼핑	3.74	3.76	3.73
관광	3.88	3.83	3.81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4. 서울권 국제관광경쟁력 강화

- 세계적 관광도시로서 서울은 다른 경쟁도시들이 없는 고유성과 매력성을 통해 경쟁우위요소의 강화는 중요한 국가단위 관광경쟁력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0년 10대국중 한국은 10.3백만명으로 10위에 위치

<표 2-18>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대 관광국(입국기준)

	2020년 관광객수 (백만명)	연평균 성장률 (1995 ~ 2020년)
중 국	130.0	7.77
홍콩 특별행정구	56.6	7.09
태 국	36.9	6.91
인도네시아	27.4	7.66
말레이시아	25.0	4.96
호 주	17.6	6.40
싱가포르	15.4	3.55
베 트 남	13.5	9.65
필 리 핀	11.3	7.72
한 국	10.3	4.11

자료: WTO, Tourism 2020 Vision, 2001

- 현재 아시아지역 상위국가의 관광통계인 관광객유치, 관광수입, 관광지출 등의 현황자료는 아래와 같음. 2000년 한국은 연간관광객수 5,322천명으로 7위, 관광수입 6811백만불로 4위, 관광지출 6,262백만불로 4위에 위치
- 주요도시 국제회의 2003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87회(0.92%)로 세계 주요도시중 15위를 차지함. 아시아 도시로는 싱가포르 122회(1.29%)를 차지하여 아시아도시중 1위, 방콕이 68회(0.72%)로 22위를 차지함

<표 2-19> 아시아지역 상위국가 관광통계

(단위:천명, 백만불)

순위	관광객수(2000)		관광수입(2000)		관광지출(1997)	
	국가	인원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31,229	중국	16,231	일본	33,041
2	홍콩	13,059	호주	8442	중국	10,166
3	말레이시아	10,222	홍콩	7886	대만	6,500
4	태국	9,509	한국	6811	한국	6,262
5	싱가포르	7,000	태국	7119	호주	6,219
6	마카오	6,682	싱가포르	N/A	싱가포르	3,224
7	한국	5,322	인도네시아	5749	말레이시아	2,478
8	인도네시아	5,064	말레이시아	4563	인도네시아	2,436
9	호주	4,946	대만	3738	필리핀	1,936
10	일본	4,757	일본	3,374	태국	1,888
세계		698,794		475,800		

자료: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1, WTO, Tourism Highlights, 2001

- 관광도시로서 국제경쟁력 요소중 도시관광 목적지로서 매력성, 접근성, 다양성,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물가수준은 외래관광객에게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원화강세인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서울의 관광 가격경쟁력은 다른 경합도시와 비교할 때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 2004년 2월 현재 세계 100대 도시중 1일 평균체재비(특급호텔 1박포함)를 보면 서울이 11위인 486달러로 아시아에서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도시로 나타남. 또한 100대 도시중 특급호텔 1박 객실평균가격은 서울이 334달러로 14번째로 비싼 도시로 조사되었고 음식비용도 15번째로 높은 도시로 평가됨

<표 2-20> 아시아 지역내 주요도시의 1일평균 체재비

(단위:달러)

도시	도쿄	홍콩	자카르타	오사카	마닐라	싱가포르
1일평균체재비	588	467	393	391	375	346
도시	상하이	베이징	하노이	방콕	칼라룸푸르	서울
1일평균체재비	343	338	299	282	178	486

자료: 산업연구원,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제251호, 2005, 3. 30

- 역내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홍콩이 쇼핑대국답게 외국인관광객들의 쇼핑비지출이 전체 지출비용의 50%를 상회하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외래관광객 지출 중 쇼핑비 지출이 약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한국과 역내 주요국들의 쇼핑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한 걸음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쇼핑관광 진흥정책과 쇼핑이벤트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국가 단위 통계에서 분석할 수 없는 국제관광 경쟁도시 비교의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서울을 다른 환(環)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중심 거점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관광기반시설인 특급 숙박시설, 다양한 문화/위락시설, 컨벤션 시설 및 교통시설 등은 강점으로 작용하나 서울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안내정보시스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및 환대정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도시관광지로서 서울은 현대적인 이미지에 전통적인 관광자원이 잘 어우러져 있는 만큼 이를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이 요구되며,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도 필요함
- 한편 국내의 지자체 가치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5대도시는 먼저 제주시는 78.13점, 춘천시 72.44점, 서울시는 72.10점, 대전 69.10점, 부산 64.37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국제적 휴양도시라는 이미지, 춘천은 깨끗하고 아름

다운 호반의 도시로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시는 관광지로서 자원자체의 매력도 보다는 한국의 수도도시로서 높은 인지도가 영향을 미침

<표 2-21> 지자체 가치평가 결과

순위	브랜드	점수(100점 만점)
1	제주시	78.13
2	춘천시	72.44
3	서울특별시	72.10
4	대전광역시	69.10
5	부산광역시	64.37
6	수원시	62.74
7	인천광역시	58.82
8	대구광역시	57.07
9	전주시	54.26
10	광주광역시	53.99
11	청주시	53.91
12	울산광역시	49.68
13	창원시	48.13

자료: 산업정책연구원, 코리아브랜드 컨퍼런스 2002, 2010 브랜드 강국 코리아

- 한국의 대표 도시브랜드중에 하나인 서울은 앞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한 장기적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시설 마련과 찾아오고 싶은 국제관광지로 위상을 확보해야함

제Ⅱ장 서울시 관광여건 및 계획과제 도출

제1절 서울시 관광자원 현황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계획의 검토/평가

제3절 서울시 관광수급분석

제4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III장 서울시 관광여건 및 계획과제 도출

제1절 서울시 관광자원 현황

1. 서울의 관광자원 현황

1) 역사문화관광자원

- 문화관광에서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중대함.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 중 하나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며 그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있음.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큰 것을 지정 문화재라 하며,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사료로 구분됨¹²⁾
- 문화재는 관광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당수의 관광지가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1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표 3-1> 문화재 지정 현황

		서울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18	305
	보물	359	1,386
	사적	65	440
	사적및명승	0	9
	명승	0	10
	천연기념물	10	336
	중요무형문화재	36	109
	(보유자)	(58)	(213)
	중요민속자료	48	240
	소계	636	2,835
시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54	2,059
	무형문화재	31	314
	기념물	21	1,420
	민속자료	28	308
	소계	234	4,101
문화재자료		13	1,854
합계		883	8,790

자료 : 문화재청(2004년 5월 31일 기준) (문화관광부, 2004, p.153)

-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조선왕궁 복원·정비, 고궁을 살아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무형문화재 및 중요 동산문화재의 관광상품화 추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13)
-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경복궁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태원전권역에 대한 복원이 추진 중이며, 이미 완공한 침전권역, 동궁권역, 홍례문권역과 함께 조선 정국인 경복궁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음. 이와 함께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복

13)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원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등을 거쳐 현재 건천궁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2004년 창덕궁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덕수궁 복원·정비를 추진 계획

- 조선 왕궁을 살아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활용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궁중생활상 재현전시를 2004년에는 경복궁 침전지역(강녕전, 교태전 일곽)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10월/경복궁) 등 격조 높고 장엄한 궁중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확대하고, 아울러 각 궁별로 국어·영어·일어·중국어로 궁궐 문화재 및 생활상, 역사적 사건 등을 안내·설명하는 문화재 안내원을 배치·운영함
- 우리 과학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양하고 역사교육 장소와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경복궁 내에 보루각 건립과 자격루 복원을 추진하며, 서울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과 협조하여 경복궁 홍례문을 비롯한 창덕궁 돈화문, 덕수궁 대한문에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특히 2004년에는 궁궐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창덕궁 후원 옥류천 지역을 정비하여 확대개방하는 등 고궁교육과 관광명소로 활용사업 추진
- 선조의 생활지혜가 담긴 우수한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전문 디자인 개념을 도입, 문화 이미지가 담긴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한국의 집과 주요 면세점에 전통공예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확충하고, 한국의집·남산골 한옥마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에서 정기적인 상설 무형문화재 공연·전시를 실시하여 내·외국인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다음은 2004년도 문화재청 사업추진현황과 문화재 지정현황 및 주제별 문화재 탐방코스임

<표 3-2> 2004년도 문화재청 주제별 문화재 탐방코스

주제별	탐방코스
한국의 세계유산을 찾아서	<문화유산> 창덕궁→종묘→화성→해인사 <기록유산> 훈민정음(간송미술관)→조선왕조실록(규장각)→승정원일기(원본:규장각, 영인본:국사편찬위원회)→직지심체요절(활자영인본:홍덕사지, 청구고인쇄박물관)
서울 고궁·내들이 서울의 성곽 여행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운현궁→종묘→경희궁(서궐도) 서울송례문→서울홍인지문→서울성곽→북한산성→아차산성→행주산성→몽촌토성→광주풍납리토성→남한산성→화성
조선의 왕릉을 찾아서	동구릉→태릉강릉→정릉→의릉→선릉정릉→현릉인릉→광릉→서오릉→서삼릉→사릉→홍릉유릉→파주장릉→공릉순릉영릉→온릉→김포장릉→용릉건릉→영릉
찬란한 백제의 향기	<한성 백제의 자취> 광주풍납리토성→몽촌토성→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방이동백제고분군
한국의 종교유적지를 찾아서	<불교-대표사찰을 중심으로> 조계사→봉선사→월정사→신흥사→용주사→법주사→수덕사→마곡사→금산사→선운사→백양사→대흥사→관음사→송광사→선암사→화엄사→쌍계사→범어사→통도사→불국사→은해사→고운사→동화사→해인사→직지사 <천주교 -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명동성당→약현성당→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인천답동성당→해미읍성→전주전동성당→화산천주교회→대구계산동성당 <개신교 -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동교회→제암리유적경(회성)→강화 서도중앙교회→금산 교회(전북김제)→제일교회(대구) <민족종교 - 지정문화재 중심> 천도교중앙대교당→수운교천단→상주동학교당
선비정신의 고향을 찾아서	<서원> 서울문묘(성균관)→도동서원→소수서원→도산서원→병산서원→옥산서원
선사시대 생활모습	암사동선사주거지→단양금굴구석기유적지→둔산선사유적지→영암장천리 선사주거지→주암댐지석묘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찾아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곳> 낙화암→신라경순왕릉→중원미륵리사지(마의태자)→고려공양왕릉→경복궁(명성황후조난지)→덕수궁(증명전)→원구단(조선호텔내)→홍릉·유릉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서	<근대교육의 현장> 고려대학교본관·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구서울대학교본관→중앙고등학교본관·서관·동관→연세대학교스튜던트관·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대전여중강당→목포시립도서관 <근대 독립유적지의 현장을 찾아서> 독립문→구서울구치소→탑골공원→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근대문화의 태동> 구벨기에영사관→우정총국→대한의원→구공업전습소본관→구러시아공사관→한국은행본관→서울역사→구군산세관→구니주경찰서→진해우체국

주 : 서울과 관련된 탐방코스에 한정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54

<표 3-3> 문화재청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관련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추진 사업 실적
무형문화재 공연의 지역축제-국 제행사 연계	2003	○ 구로문화축제에 평택농악 등 2개종목 공연(10월) ○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 5월 ~ 10월 / 200만명 관람 (외국인 118만명 포함) ○ 국왕즉위식(세종대왕) - (5.25~6.26 / 25,000명 관람)
	2004	○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 3월 ~ 5월 / 1,049,338명 관람(외국인 211,763명 포함)
무형문화재 관광상품 개발·보급 확대	2003	○ 「한국의집」을 통한 전통 볼거리, 먹거리 제공 - 민속공연 관람 33,662명(외국인 24,559명 포함) - 식음료 이용 84,213명(외국인 20,063명 포함) ○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문화 재현: 516,065명(외국인 36,124명 포함) - 문화행사 : 세시절행사, 전통예술공연, 전통공예시연 등 - 전통혼례 : 34건(외국인 6건 포함) ○ 한국문화의집 KOUS 전통예술공연 - 전통예술공연 관람 1,579명(외국인 141명 포함) - 전통한식당 이용 3,392명(외국인 238명 포함), - 청소년,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3개교 680명 참가)
	2004	○ 「한국의집」을 통한 전통 볼거리, 먹거리 제공 - 민속공연 관람 21,883명(외국인 14,484명 포함), - 식음료 이용 33,203명(외국인 9,307명 포함) ○ 한국문화의집 KOUS 전통예술공연 - 전통예술공연 관람 10,279명, - 전통차집, - 가족마당극 “똥벼락” (1.15-2.8 / 1,052명 관람) - 우리문화한아름-재단무용단 (2.13 / 83명 참가) - 우리문화한아름-짚풀체험 (7.9 / 40명 참가)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상설화	2003	○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연·전시 - 풍류한마당 공연 (1월 ~ 12월 / 1,004명 관람) - “어린이 민요대회” (5월 / 200여명 관람) - 세시절 공연 “설, 입춘, 대보름 행사” (2월/440여명 관람) - 한국매듭전 (8.18~9.1 / 1,121명 관람) - 철재오옥진 각서전 (9.4~9.30 / 1,180명 관람) - 천공의 숨씨를 찾아서 (10.23~11.9 / 548명 관람)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전시(상설 / 4,700여명 관람) 등 ○ 특수학교 청소년대상 방문 공연 (4 ~ 5월 / 4개교 / 1,300여명)
	2004	○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연·전시 - “풍류 한마당” 공연(4.23-5.30 10회 공연 / 1,239명 관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전시(상설) - 소장품전 전시(1.15-1.31 / 228명 관람) - 소장품전(2) 전시(3.15-4.29 / 614명 관람) - 24회 전통공예명품전 (5.13-5.30 / 668명 관람) - 전통공예건축학교 졸업작품전 전시(1월 ~ 2월 / 870여명 관람) ○ ‘우리문화 한아름’ 행사(1.7 1회 공연 / 40명 관람)

<표계속>

	연도	추진 사업 실적
전통문화 재현행사	2003	○ 전통혼례 재현 (한국의 집) (38회-상설시연 20회, 우귀행렬 18회 / 158,000여명 관람-외국인 147,000명 포함) <절기별 세시풍속행사> ○ 전수회관 : 신년 재수굿(150여명), 대보름행사(350여명) ○ 한국의집 : 대보름 지신밟기(200여명) ○ 한옥마을 : 입춘행사(4,000여명), 설행사(70,000여명), 대보름행사(35,000여명), 단오행사(25개 구청, 59명참가)
	2004	○ 전통혼례 재현 (한국의 집) (9회-상설시연 3회, 우귀행렬 6회 / 33,750여명 관람-외국인 3,00여명 포함) ○ 한국의 명인 명창(KOREA TOP ARTIST) (한국의집) (3월~5월, 18회) <절기별 세시풍속행사> - 세시절(설) (1.20 1회공연 / 400명 관람)

자료: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광과는 해설사가 동반된 도보관광코스를 6개 코스에서 8개 코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2005년 10월에 북촌코스, 청계천코스를 추가할 계획
- 이를 위해서 서울문화유산해설사를 추가양성(74명에서 104명으로 영어 10명, 일어 10명, 중국어 10명을 추가)하고 기존해설사의 재교육을 강화
- 4개국어(국·영·중·일)로 된 홍보리플렛 각 15,000부를 외국인 관광객 선호지역 집중배포함

2) 생태·녹색 관광자원

- 도시인들은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갯벌, 탐조, 동굴, 반딧불 등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체험관광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생태자원의 보존에만 치중함에 따라 관광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음 (문화관광부, 2004)

- 탐조관광의 경우, 철새는 주변 자연환경에 민감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주로 겨울에 서식함에 따라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이를 관광자원화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
- 이전에는 교수 및 동호인 등을 중심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관련 민간단체에서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황새, 두루미, 백조 등의 희귀 새를 보전·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청소년, 가족단위 등 일반 관광객을 중심으로 새의 관찰을 통해 즐기고자 하는 탐조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은 관광자원으로 부상됨. 이러한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전망대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휴게실 등의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활성화가 되지 못하였음(문화관광부, 2004)
-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3개소(총면적 7,750km²)로서 전국토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면적 4,883km²(전국토의 4.8%)와 해면면적 2,867km²(전국토의 2.8%)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2개소, 군립공원이 31개소임. 서울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1983년 4월 2일에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9.916km²임

〈표 3-4〉 서울시 소재 공원 시설 현황

(단위 : km²)

구 분 공원명		계획		시설		미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646	158.13	1,498	135.77	148	22.37
도 시 공 원	계	1,417	107.65	1,273	85.92	144	21.73
	도시자연공원	20	66.58	11	51.85	9	14.73
	근린공원	271	36.30	216	29.57	55	6.72
	어린이공원	1,120	1.63	1,041	1.48	79	0.15
	체육공원	1	0.03	1	0.03	-	-
	묘지공원	5	3.12	4	2.99	1	0.13
자연공원(국립공원)		1	39.86	1	39.86	-	-
기 타 공 원	계	228	10.63	224	9.99	4	0.64
	유원지	4	0.64	-	-	4	0.64
	강변공원(한강변, 지천변)	15	7.09	15	7.09	-	-
	마을마당	173	0.09	173	0.09	-	-
	올림픽공원	1	1.45	1	1.45	-	-
	기타 { 월드컵공원(기타), 용산공원 소공원, 문화마당, 광장 등 }	35	1.37	35	1.37	-	-

자료: 서울특별시, 「공원현황」, 2003

<표 3-5> 서울시 소재 공원 이용 현황

구분	시설현황	면적(㎡)	이용자수 (단위:천명)	단위면적당 이용자수 (천명/ha)	비고 (개소)
도시 자연공원	시설	43,961,118	26,463	56.8	8
	미시설	24,471,914.9	4,197	41.4	13
	소계	68,433,032.9	30,660	98.2	21
근린공원	시설	10,867,855.2	33,015	6,529.5	149
	미시설	15,374,002.1	4,578	468.9	68
	소계	26,241,857.3	37,593	6,998.4	217
묘지공원	계	3,156,690	7,390	67.2	4
국립공원	계	40,809,110	3,618	0.9	1
총계		138,640,690.2	79,261	7,145.6	243

자료: 서울특별시, 「공원현황」, 2003

- 행정구역 면적(605.52km²) 대비 공원율은 26.12%으로, 1인당 공원면적은 15.38 m²로 2002년(15.25m²)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음(인구수 10,280,523인, 2002. 12. 31 기준). 이는 도쿄 2.94, 고베 16.43, 파리 10.35, 뉴욕 14.12, 토론토 29.42와 비교하였을 때 세계적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10.47m² (2002년 : 10.39m²)
-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 : 4.58m² (2002년 : 4.51m²)
- 시설율 : 85.86%
- 소유구분 : 국·공유지 61.49%, 사유지 38.51%

<표 3-6> 서울시 연도별 공원 증감현황

(단위 : km²)

연도	공원수	공원면적	공원율	증감내역		비고
				공원수	면적	
1997. 1.	1,400	152.50	25.18	-	-	
1998. 1.	1,405	154.06	25.44	5	1.56	용마,안산,홍제
1999. 1.	1,419	154.18	25.46	14	0.12	여의도,독산2
2000. 1.	1,423	154.23	25.47	4	0.05	샛마을,신트리
2001. 1.	1,437	155.85	25.74	14	1.62	응봉,방배,갈산
2002. 1.	1,559	157.59	26.02	122	1.74	월드컵,선유도
2003. 1.	1,646	158.13	26.12	87	0.54	추모공원,오동공원 우이동유원지

자료: 서울특별시, 「공원현황」, 2003

-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①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②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③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처·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⑥ 생태계의 표본지역을 환경부장관(육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함



<그림 3-1>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2004년 11월 4일 기준)

<표 3-7>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 (2004년 11월 4일 기준)

지역명	위 치	면적 (km ²)	특 징	지정일자
한강 밤섬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마포구 당인동	0.241	도심속 철새도래지, 퇴적물에 의하여 매년 면적 증가	1999. 8.10
둔촌동 자연습지	강동구 둔촌동 211	0.025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0. 3. 6 2002.12. 5
방이동 습지	송파구 방이동 439-2	0.056	수생식물 대규모 군락, 수서곤충과 조류 서식, 도시지역의 인공 습지	2002. 4.15
탄천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405	자연형 하천, 모래톱과 수변 습지,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2002. 4.15
진관내동 (북한산성) 습지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일대	0.017	습지생태계 생물 다양성 풍부,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2.12.30
암사동 습지	강동구 624-1 일대	0.103	도시지역의 하천습지, 학술적 연구가치가 큼	2002.12.30
고덕동 한강고수부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96일대	0.106	수변초지 및 하반림 발달	2004.10.20
청계산 원터골 낙엽활엽수 군집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산4-38일대	0.146	우수한 낙엽활엽수 분포	2004.10.20

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그림 3-2〉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분포

3) 문화관광상품

-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육성하는 문화관광상품임
- 2004년 문화관광축제 중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서울 약령시 축제(5월 4일 ~ 5월 8일, 한약초사진전시회, 약재썰기대회, 건강박람회, 한방체험한마당, 우수한약재전시회 등)가 있음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상설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상품한 것임. 문화관광축제가 일주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설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관광객

이 그 장소에 가면 동일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축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광상품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의 지원·육성을 위한 부족재원 지원, 국내외 홍보강화, 국내외 여행사 연계마케팅 실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안내물 제작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04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는 관광상품성을 기준으로 엄정한 선정절차를 거친 13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 당 국비 4,000~5,000만원씩을 지원·육성하고 있음. 서울에는 ‘포도대장과 그 순라꾼’(종로구)이 5월-10월 동안 매주 토·일요일 16:00에 인사동 야외무대 및 거리에서 열리는데, 주요 행사내용은 인사동 거리 순라 및 풍물, 순라행진, 재판무대극, 품바공연 등의 현장극이 열림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 2005년 3~12월(매일 10:30~15:30)
 - 장소 : 서울광장(창덕궁 행사폐지에 따라 대체장소 검토중)
 - 행사인력 : 33명(공익요원 25, 민간인력 8)
 - 교대의식 및 수위의식(서울광장 행사는 순라행렬 추가)
 - 상설 부대행사 : 수문장 복식입어보기, 궁중 투호놀이 등
 - 어린이체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초등학교 24개교 264명
 - 사업비 : 1,379백만원
- 고궁축제행사 실시
 - Hi Seoul Festival 기간중 고궁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추진
 - 경복궁 근정전 일대 : 세종대왕 즉위의식
 - 창경궁 명정전 일대 또는 서울광장 : 조선조 궁중의상 패션쇼

- 전통의례의 고궁과 현대적 흥미유발 프로그램의 조화 유지
- 2004.5월 하이서울 축제시 : 경복궁(세종대왕 즉위식, 3만명 관람), 경희궁(왕세자 관례의식, 3천명), 이웃나라 사신맞이 (창경궁, 1만명)
- 사업비 : 200백만원

4) 관광특구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정구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법령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임
- 관광진흥기금 용자 확대를 비롯하여 특구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특구내 민간단체가 자체진흥 계획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관광특구 지정 신청의 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은 첫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중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둘째,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셋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될 것 등임

<표 3-8>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 현황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km ²)	지정 시기	비고
명동·남대문·북창지역	서울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2000.3.30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인근지역
이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1997.9.25	이태원으로 인근지역
동대문 패션타운	서울 중구, 을지로 3·4·5가동, 신당1동, 광희동 일원	0.58	2002.5.23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재래시장

○ Korea The Shopping Paradise 캠페인(Hi Seoul Grand Sale 2004)

-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주최하여 진행하던 Korea The Shopping Paradise 캠페인의 주요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1단계로 서울시와 함께 2004년 5월 1일부터 9일까지 ‘Hi Seoul Grand Sale 2004’를 실시하였음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캠페인은 지난 1999년 이래 매년 공사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을 겨냥하여 개최해온 대형 쇼핑프로모션 행사로 서울시로 행사를 이관, Hi Seoul Grand Sale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는 해외 프로모션 부분을 담당하여 후원역할을 수행하였음. 실시기간동안 명동, 이태원, 동대문 관광특구 및 면세점, 백화점, 대형 쇼핑점, 호텔 등 30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대폭적인 가격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이태원 특구 등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 방한하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장 단장, 거리 장식 현수막 및 배너 준비 등과 특구 내 상당수의 점포에서 할인행사를 하였으며 행사 기간 중 다채로운 거리공연을 펼침
- 조선, 롯데, 신라, 인터콘티넨탈, 파라다이스 등 이번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18개 호텔에서도 최고 50%의 객실이용료 할인 및 사우나, 수영장 무료이용, 조식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공사가 후원하여 Hi Seoul Festival 및 Hi Seoul Grand Sale 기간 중 펼쳐지는 쇼핑할인행사, 각종 이벤트 및 한국의 쇼핑 관광 매력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 구미주, 중국 및 동남아의 유명 일간지와 전문지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Hi Seoul Grand Sale 포스터,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각 현지에 배포, 공사 홈페이지(tour2korea.com, 영·일·중)를 이용, 행사 정보 및 행사 참여업체 정보 등을 수록하여 외국인관광객들에게 홍보함

○ 이태원 관광특구

- 이태원 관광특구 그랜드 세일 행사(2005년 4월) : 50백만원(시·구비 각 50%)
-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2005년 10월) : 200백만원(시·구비 각50%)
- 관광안내소 운영(1개소) : 통역 및 여행·숙박정보 서비스

○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 명동축제 민간자율 개최 : 2005년 4월, 9월(2회)
- 관광안내소 운영(2개소) : 통역 및 쇼핑정보

○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 지역특색을 살린 상징 조형물 설치 : 680백만원(시·구비 각50%)
- 관광안내관 설치(4개) : 60백만원(시·구비 각 50%)
- 관광안내소 운영(1개소)

<표 3-9> 서울시 관광자원 현황

구분		자원 현황
자연 자원	공원	국립공원 : 1개소 39.86㎢ (경기도 지역 포함)
		도시공원 : 1,273개소 85.92㎢
		기타공원 : 224개소 9.99㎢
	온천	6개소 (이용업소 4개소), 45.3천평 (22.75천평)
인문 자원	문화재	883개소 (국가지정 636, 시지정 247)(2004.5.31 기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70개소, 미술관 22개소, 화랑 223개소
	공연시설	공연장 118개소 (300석 이상 53, 300석 미만 65), 영화관 268스크린
	공공도서관	63개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6개소, 문화의집 25개소
	체육시설	10,815개소 (종합경기장 3, 실내체육관 48, 구민·다목적체육센터 27,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1,089, 학교시설복합화 5, 종목별 체육시설 145, 체육시설업 9,498)
	청소년수련시설	42개소 (수련관 22, 문화의집 10, 수련원 5, 아영장 3, 유스호스텔 2)
관광 지역 개발	관광특구	이태원 0.38㎢ (1997.9.25 지정)
		명동·남대문·북창지역 0.63㎢ (2000.3.30 지정)
		동대문 패션타운 0.58㎢ (2002.5.23 지정)
관광 상품 개발	축제	46개소(서울시 9, 강남구 7, 강동구 1, 강북구 2, 강서구 1, 관악구 2, 광진구 2, 구로구 2, 노원구 1, 동대문구 3, 동작구 1, 서대문구 1, 성북구 2, 송파구 1, 양천구 1, 영등포구 1, 용산구 1, 종로구 4, 중구 4)
	여행업	3,866업체 (일반 546업체, 국외 2,318업체, 국내 1,002업체) (2004년 6월 기준)
관광 사업 체	관광호텔업	112업체 20,194실(특1 16업체 8,684실, 특2 18업체 4,749실, 1등급 36업체 3,833실, 2등급 26업체 1,684실 3등급 9업체 519실, 미정* 7업체, 725실) (2004년 6월 기준)
	숙박업	4,302업체(2003년 12월 기준)
	국제회의기획업 (PCO)	108업체(2004년 4월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	72업체(관광유람선업 1업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69업체, 종합휴양업 2업체) (2004년 6월 기준)
	유원시설업	13업체
	관광편의시설업	406업체
	카지노	1업체(2004년 6월 기준)

자료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관광부, 2004), 2004 지역축제 전수조사(문화연대, 2005), 서울시 내부자료, 2004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관광부, 2004)

* 관광호텔업 등급미정은 신규등록업체로서 2004년 5월 기준으로 등급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임



<그림 3-3> 서울시 문화관광자원 분포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관광상품 마케팅 방안」, p.217

2. 관광 기반시설 및 지원체제 현황

1) 관광안내소 및 탐방객 안내소

- 관광안내소의 주요 기능은 내·외국인 관광안내 및 여행상담, 홍보물 배포, 관광불편 신고접수, 숙박·교통 안내 등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0〉 서울시 소재 관광안내소 현황 (2002년 5월 기준)

운영기관	안내소명	운영기관	안내소명
서울특별시	동대문 종합	일반여행업협회	서울타워
	시청		전쟁기념관
	월드컵 홍보관		덕수궁
	명동		고속터미널
	이태원 간이		문정동로데오
	남대문시장		명동
	김포공항	지하철공사	시청역
	도심공항		을지로입구역
	이태원 종합		잠실역
	동대문 간이		안국역
용산구	이태원(1)		혜화역
	이태원(2)		김포공항역
종로구	인사동(남)	도시철도공사	여의도역
	인사동(북)		영등포구청역
서대문구	신촌역(국철)		천호역
관광공사	관광공사	철도청	광화문역
	인천공항(동)		서울역
	인천공항(서)		영등포역
일반여행업협회	경복궁	민간	명동(비자)
계	38개소		

자료출처: 서울시 관광과 내부자료, 2002

2)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도

- 2003년도 해외홍보간행물 발간실적 및 2004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11> 해외홍보간행물 발간실적 및 계획

(단위 : 부)

구 분		간 행 물 명	발 간 언 어	2003실적	2004계획
여행 업자용		한국여행상품기획안내서	영, 일, 중(간, 번)	26,800	14,000
		한국관광뉴스	영, 일, 중(간)	307,000	312,000
		소계		333,800	326,000
일반 여행 자용	기 본 간 행 물	한국관광종합화보집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317,400	270,000 (아랍어 5만 신규 발간)
		가이드북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태	590,800	440,000
		전국/서울지도	영, 일, 중(간, 번)	687,100	380,000
		소계		1,595,300	1,090,000
	주 제 별 간 행 물	겨울체험관광	영, 중(번)	40,000	50,000
		문화관광축제안내	영, 일, 중(간, 번)	-	84,000
		소계		40,000	134,000
	총계			1,969,100	1,550,000

주 : 중(번) - 중국어번체자, 중(간) - 중국어간체자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67

- 영상 및 시각물 제작사업으로 한국관광 홍보영상물과 관광달력, 포스터, 입체 홍보물, 연하장 등의 홍보시각물을 현지인의 감각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또한 해외홍보용 사진자료 발굴을 위해 매년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사진·영상자료 홈페이지(www.photo-korea.org)를 운영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한국관광홍보사진 및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3년도 제작실적 및 2004년도 제작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12> 영상·홍보시각물 제작실적(2003)

구분	내용	수량
영상물	○ 종합홍보영상물 - □□See you in Korea□□ (영, 일, 중, 불, 독, 서, 러) ○ 일본·중국·동남아지역 인기가수 뮤직비디오VCD - □□SONGS From KOREA□□	1편 17,000개
달력	○ 주제 : 한류 및 문화체험 ○ 3종(벽걸이용 2종, 탁상용 1종) ○ 국내, 20개 해외지사, 134개 재외공관 등 전세계 배포	90,800부
포스터	○ 꽃 포스터(신규), 신부, 종합관광 등 신규 및 추가 제작	143,300부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13> 영상·홍보시각물 제작계획(2004)

구분	내용	수량
영상물	○ 멀티미디어 영상물 - 일본·중국·동남아지역 인기가수 뮤직비디오VCD - 관광홍보 CD ○ 금강산 홍보비디오 (영, 일, 중)	20,000개 10,000개 1편
달력	○ 주제 : 한류 및 자연경관 ○ 3종(벽걸이용 2종, 탁상용 1종) ○ 국내, 20개 해외지사, 134개 재외공관 등 전세계 배포	107,400부
포스터	○ 신규포스터 5종(한국관광 이미지 3종, 한류 주제 2종)	85,000부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서울 문화관광자원의 국내·외 인지도를 확산시켜 관광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홈페이지 주소 <http://www.visitseoul.net>(서울문화관광)
- 서비스 언어 : 5개국어(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번체)
- 서비스 내용 : 고궁·숙박·음식점 및 각종 문화행사·시설 등의 문화관광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 서울시 관광과의 2005년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국제행사 참석자 등에게 메일서비스를 제공
- 청계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콘텐츠 정보 업그레이드,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참여프로그램 운영
- 숙박, 공연, 여행상품, 교통 등 온라인서비스 제휴 추진
- 소요예산 258백만원

3) 서울 시티투어버스

- 서울시티투어버스는 2개 노선(도심순환, 고궁코스) 7대가 운행되고 있음
-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로 내린 정류장에서 30분 간격으로 다음 버스를 탈수 있고, 다국어안내시스템(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어 통역가이드가 동승, 안내함
- 운행시간은 도심순환코스는 오전9시~오후9시(막차 오후7시 출발)이고, 고궁코스는 오전9시~오후5시(막차 오후4시 출발)임. 매주 월요일은 휴무(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행)이며, 출발장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 ¹⁴⁾
- 민간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영상, 신문, 지하철 광고, 온·오프라인 이벤트

14) <http://www.seoulcitytourbus.com/> 참조

개최, 여행사·호텔 등과 제휴 마케팅 강화 등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표 3-14〉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구 분	일 정
도심순환코스	광화문→덕수궁→롯데호텔→남대문시장→서울역→USO→전쟁기념관→미군용산기지→이태원→크라운호텔→명동→남산골한옥마을→소피텔앰버서더호텔→국립중앙극장→남산 서울타워→하얏트호텔→타워호텔→신라호텔→동대문시장→대학로→창경궁→창덕궁→인사동→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경찰박물관→세종문화회관→광화문
고궁코스	광화문→덕수궁→프레스센터→교보문고→인사동→창덕궁→대학로→창경궁→창덕궁→인사동→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세종문화회관→광화문

3. 서울시 기존/신규 사업 공급가능지 분석

1) 관광 거점 지역

-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은 1998년 초에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추진한 사업임.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관광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과 특화관광사업추진으로 대별됨
-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은 전국 주요 시·군·구 30개 지역을 선정 외국인의 체재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소 설치, 안내표지판 개량, 안내지도제작·보급, 화장실 개량 및 신축, 해외홍보물 제작·배포, 관광서비스 개선, 친절·청결운동 전개 등이며, 정부는 추진기간을 1단계(1999~2001)와 2단계(2002~2003)로 나누어 각각 15곳에 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5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원, 총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9년도 첫해에 10.4억원, 2000년에는 20억원,

2001년에는 20억원, 2002년에는 24억원, 2003년에는 23.5억원의 기금을 지원 하였음

<표 3-15> 수도권 문화관광 거점지역 선정현황

시·도	거점 지역				
	합 계	1단계(1999 ~ 2001)			2단계(2002 ~ 2003)
		개 소	지역명	개 소	지역명
서울	4	3	종로구, 중구, 용산구	1	송파구
인천	2	1	중구	1	강화군
경기	3	1	수원시	2	용인시, 인천시

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15

- 특화관광사업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하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50개 중점사업과 80개의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연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중점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점육성기간(1999~2003)동안 정부에서 1,50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500억원 총 3,000억원을 지원 계획하여, 동 계획사업에 1999년도 44억원, 2000년에 139억원, 2001년에 157억원, 2002년에는 171억원, 2003년에는 157억원 계 668억원(2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동 사업기간 동안 타 부처, 타 실·국 등에서 847억원(13개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총 1,517억원(42개 사업)의 국고가 지원

<표 3-16> 수도권 특화관광사업(문화관광 거점지역내)

시·도	중점 사업	연계사업
소계	11개 사업	13개 사업
서울	1. 경복궁 고궁탐방코스 관광상품화(종로구·중구) 2. 인사동 길 등 테마거리 조성(종로구·중구) 3. 남대문시장 쇼핑관광 활성화(중구) 4. 동대문시장 쇼핑관광 활성화(종로구) 5. 이태원 등 쇼핑관광 활성화(용산구) 6. 문정동 로데오거리 관광명소화(송파구)	1. 남산골 한옥마을 관광상품화(중구) 2. 덕수궁 수문장 교대실 상례화(중구) 3. 북창동 국제음식촌 조성(중구) 4. 잠실고수부지 명소화(송파구) 5. 석촌호수 야간놀이마당 조성(송파구)
인천	1. 용유·무의 국제관광지 개발(중구) 2. 고인돌 관광이벤트공원 조성(강화군)	1. 고려촌 건립(강화군) 2. 병인양요 재현 이벤트 개최(강화군) 3. 국민자연사박물관 건립(강화군)
경기	1.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수원시) 2. 2001 세계도자기축제 국제화(이천시) 3. 판문점-통일전망대 관광 연계사업(파주시)	1. 첨단 멀티미디어 테마파크 개발(수원시) 2.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수원시) 3. 정조대왕행차 재현(수원시) 4. 골프관광상품 개발(용인시) 5. 관광휴양 연계 관광상품 개발(용인시)

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16

2) 신규 거점 지역 발굴

(1) 북촌

○ 북촌 현황

- 위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계동, 원서동 일대 645,000m²
- 한옥 : 총 924동(등록한옥 321동)
- 매입한옥 : 25동(서울시 18동, 도시개발공사 7동)

○ 북촌가꾸기사업 예산(2001~2006년) : 844억원

○ 북촌 종합관리대책 마련 : 북촌가꾸기사업 중점 추진, 한옥보존을 위한 장기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 생활과 활동이 있는 「옛 서울도시」로 발전시킬 계획
- 북촌문화센터 운영(대지 697.50㎡, 건물 237.32㎡)
 - 운영시간 : 1일 2회(오전 09:30~12:30, 오후 14:00~17:00) 및 수시운영
 - 강좌과목 : 11개분야 40개 강좌(한지공예, 민화, 전통자수, 전통술 빚기, 천연염색, 전통서각, 다도, 생활예절, 대금, 단학, 시조, 창 등)
 - 강좌교실 : 4개방 활용(안방, 사랑방, 대청마루방, 별당)
- 홍보전시실 운영
 - 북촌한옥마을 소개 및 한옥의 변천사 등 홍보영상물(DVD) 상영
 - 북촌한옥마을 홍보용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비치·배포
 - 북촌한옥마을 답사 국내·외 관광객 지역안내 등

(2) 노들섬

-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야외음악당이 건립될 예정임
-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인 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
 - 국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오페라 하우스 건립
 - 한강의 생태적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공원 조성
 - 한강의 수경 공간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및 유원시설 조성
 -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 공간의 장 마련
- 현황
 - 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대(노들섬)
 - 면적 : 116,236.8㎡ (유원지 45,373㎡, 하천부지 67,708.5㎡, 도로부지 3,155.3㎡)

m²)

○ 건축개요

- 건축물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청소년야외음악당, 기타시설 등
- 접근시설 : 대중교통, 보행자 전용통로, 수로운송 등

○ 추진계획

- 2005년도 : 국제아이디어 공모, 기본계획 수립, 공사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실시설계자 결정
- 2006년도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2009년도 : 공사준공 및 개관

-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페라극장은 영국의 로열오페라하우스, 프랑스의 바스티유오페라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등으로, 서울오페라극장은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바스티유오페라극장이나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규모로 세워질 가능성이 큼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계획의 검토·평가

1.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1) 관련 계획 검토

○ 기관별 관련 계획

<표 3-17> 기관별 관련 계획 현황

기관	주요 관련 계획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제2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4-2008년)
환경부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2003 ~ 2012)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서울시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06) (서울시정4개년계획) 비전 서울 2006(2002-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1) 건설교통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 문화·관광부문 (2000-2020)

-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을 위하여 7개 문화·관광권을 설정
 - 한강유역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북부권, 영남남부권, 제주권
 - 한강유역권은 “국제도시, 전통문화의 관광”으로 특화 주제를 설정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당됨

- 중추관문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박람회시설 및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풍의 호텔 등을 건설하여 수용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문화를 홍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전시장, 공연장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 추진
- 도시의 경관을 한국적으로 유도하여 문화적 독창성과 우월성 부각
- 내륙의 문화 및 자연지에는 대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도시민 일상의 문화 및 관광·위락 활동을 위한 시설을 집중 배치

(2) 문화관광부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권역과 집행권역(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기능적 연계 및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권역계획의 실천성이 미흡하였음. 그리하여 제2차에서는 관광자원의 동질적 특성에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 권역계획의 집행단위인 행정권을 고려하여 집행주체(행정권) 중심의 관광권역을 설정하였음
- 선정된 관광권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16개 시·도 권역임
- 서울특별시의 개발방향은 국제 관광교류 중추도시로 육성하는 것임
- 도심 및 북서부지역: 4대문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기능과 전통시장, 숙박시설을 활용한 쇼핑위락기능, 마포·상암지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관광기능을 수행
- 북부지역: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국민생활 관광기능 수행

- 한강 및 주변지역 : 한강과 한강둔치,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수변위락 관광기능
- 남동부지역 : COEX, 주제공원, 올림픽공원을 활용한 국제교류관광기능과 도심위락관광기능을 수행
- 남서부지역 : 녹지공간과 도시공원을 확충하여 국민생활관광기능을 수행
- 개발 전략 :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도시 관광 교통운영체계 구축, 한강 및 녹지공간 관광자원화
- 관광수요 예측 관광객지표 : 국민 국내관광 총량, 당일관광 총량, 숙박관광 총량
- 관광공급 분석 지표 : 권역별 연간관광 총량, 최대시 수요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의 중점 추진사항 발표 (2005.1.)

- 기존 관광지의 평가 의무화를 통한 관광지 정비·보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2-2006)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 수립방향 설정
 -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사업추진 여부 및 우선순위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집행 실현성 제고
 - 관련 법규·제도·행정적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집행 실현성 제고
 - 지자체의 가용예산 분석 통한 현실적 투자 계획 수립
- 관광개발 수단 다각화
 - 관광(단)지 개발 계획

-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 관광개발 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및 타 부처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 검토
-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지역 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관광개발 주체의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방안 제시
- 계획 사전 검토체계 확립
- 친환경, 문화적 상상력 강화
 - 건설·개발 위주의 관광자원 개발에서 친환경적이고 문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자원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

□ 제2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4-2008)

-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부문 실행계획, 주5일 근무제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부문 개발계획, 기존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제1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관광비전 21)과의 연계계획임
- 5대 관광진흥목표와 13대 전략과제 제시
 - 동북아지역의 관광중심성 확보 : 국제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전략지역 육성 및 매력물 개발, 국제 및 남북관광협력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광참여 확대 : 관광인식제고 및 교육활동 지원, 생활관광 환경정비·개선, 국민관광 참여기회 확대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 : 관광공간 체계 개편, 지역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쇼핑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촉진
- 관광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성장 동력화 : 관광산업구조개편 및 핵심산업 육성, 관광 R&D 강화 및 조직화
-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관광행정체계 및 정책기능 재정립, 관광재정 확충 및 투자유치 다각화

□ 기타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및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2004년부터 추진
- 숙박시설의 확충, 대규모 관광·스포츠레저단지의 조성, 국내외 민간투자의 확대,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 일본관광객의 지속적 유치, 동남아 및 구미시장의 개척, 해외 홍보시스템의 개선, 컨벤션산업의 육성, 대표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안내체계의 내실화,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통망의 확충, 6대 광역권 관광자원의 개발, 10대 거점 중심 관광자원의 개발, 국민관광의 활성화, 소외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남북연계관광의 활성화

(3) 서울시

□ (서울시정4개년계획) 비전 서울 2006 - 문화·관광분야 (2002-2006)

- 편리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6개 사업 제안
- ① 효율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 교통·숙박 및 관광특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 서울시터투어버스의 운영체계 개선, 중가 호텔 확충 및 월드인 등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관광특구별 특성에 맞는 관광아이템 개발 및 환경개선

②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지속 개발·활용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부대행사 확대, 청계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존 전통문화축제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의 정례화 및 홍보강화, 서울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체계적인 육성, 주5일근무 대비 관광상품 개발

③ 효과적인 관광홍보·안내체계 구축 : 교통·숙박·환전·홍보물을 통한 원스톱 관광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관광안내소에 영·중·일어 통역요원 배치, 관광안내소가 지역명소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 청계천 복원 완료시점에 주변 관광안내소 설치, 기존의 자료를 업그레이드한 한국어·외국어판 관광홍보물 지속적 보완 발간, 문화관광 정보포털 운영

④ 해외관광시장 개척 : 관광홍보마케팅 수단의 다양화와 효과적인 매체 선택

- 관광교역전 및 해외관광 판촉전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 미주지역 여행자협회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총회를 통한 홍보
- 관광산업 종사자, 언론인 등 해외의 관광관련 인사초청 서울관광 팸투어 실시
- 각국 국제공항 라이트박스 광고를 통한 서울이미지 제고

⑤ 한강변 5개 시도 광역권 관광개발 : 실효성있는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신규 관광상품 개발 추진

- 한강인접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패키지 관광상품개발을 추진할 계획

- 추진 사업 : 한강 700리 관광홍보책자 발간 및 안내도 제작 설치, 청소년 한강역사문화 탐방, 한강 700리 도로 사이클 대회, 동남아 공동 관광판촉전 개최, 한강홍보비디오 공동 제작 등

⑥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 조성·활용 : 4대문안 5대 거점 관광자원정비 및 시티투어 연계 5대거점을 중심으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상품화

- 거점별 문화자원 발굴·연계 및 제반 인프라 구축,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적극 활용하여 5대 거점 연결, 도보관광코스 확대운영, 서울 문화유산해설사 집중 육성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 세계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복지도시,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계획
- 핵심 이슈 : 동북아 전략거점으로서 서울 위상 강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 확보, 자연지형에 순화하는 친환경적 도시구조, 5대 생활권간 지역균형 발전 도모, 도심 공간구조 재편 및 기능 활성화
- 서울의 공간구조 :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 대생활권 : 도심부 + 4대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자족성을 추구하고 통행유발을 감소

<표 3-1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서울공간구조

대생활권	상주인구(2001년)	중심지
동북생활권	339만	왕십리/청량리
서북생활권	122만	상암/수색
동남생활권	209만	영동
서남생활권	304만	영등포/여의도

-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 용산, 상암, 마곡, 문정, 장지, 뚝섬.
 - 용산은 기지 이전후 공원을 주기능으로 함
 - 뚝섬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유지·관리
- 환경, 공원·녹지, 경관 부문별 계획
 - 파트너쉽에 의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 예방적·통합적·광역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연스러운 ‘녹색 이미지’ 재생
 - 생활권역별 공원녹지 균형 배분
 -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공원녹지축 구상 : 환산림생태축, 도심남북녹지축, 한강하천생태축, 생활녹지축

<표 3-19>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지표

	2001년	2020년
1만명당 문화시설 수	0.78개	1개
도심광장 조성	없음	시청 광장 등 3곳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자치구당 1개	자치구당 2개 이상
문화지구조성	인사동 문화지구 1곳	홍대, 대학로 문화지구 서초문화예술지구 남산문화예술지구 청담문화예술지구 (화랑 및 패션)
문화벨트조성	역사문화탐방로 1곳	청계문화벨트(역사·도심문화 산업) 한강문화벨트(시민 위락/공원) 잠실문화벨트(스포츠·레저/대중문화)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그림 3-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리방향 구상도(안)



<그림 3-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안)

□ 기타 : 2005년 서울시 관광과 업무계획

-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 만족스러운 관광홍보·안내체계 구축
 - 관광홍보체계 개선,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북촌문화센터 및 홍보전시관 운영

(4) 환경부

□ 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03-2007)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
- 4대 추진전략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민·관, 국제 파트너십 증진
-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추진 계획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전국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토의 종합적·유기적 보전관리 기반체계 확립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보호 지역 지정·관리, 국민신탁운동 법제화 추진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 보전관리체계 강화
 -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식물 대상 종 확대, 외래종·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위해 방지대책 강화 등으로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 자연 친화적인 국립공원 이용문화 정착,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생

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환경관리기반 강화하기 위한 계획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국토환경지표의 개발·활용 등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운용지침 개발·보급, 스크리닝(Screening)·스코핑(Scoping) 제도 도입, 전략환경평가체제로의 발전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지원
 - 국토환경정보망,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등 국토환경 정보체계 구축·활용

□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2003-2012)

- 자연공원 관리기본방향
 - 공원자원의 보전 및 복원 : 생물자원조사·복원기능 강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 확대
 - 자연친화적 탐방문화정착 : 공원별 탐방프로그램 차별화,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설치·운영, 공원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
 -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행정 :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주민지원 범위 및 사업 확대

(5) 산림청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 2003년 9월 3일에 계획을 일부 수정 발표
-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중시하고, 산지·산림자원 조성

위주에서 산림휴양, 청소년 자연학습 및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하며, 국민참여와 지방특색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산림휴양시설과 생활권 도시 숲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 숲’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조성하기로 함. 이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산림 체험, 수상레포츠, 산악승마 등 전문휴양림을 전국 6대 휴양 권역별로 조성하고 도시 숲, 학교 숲 등 생태형 도시산림공원도 확대해 가기로 결정

2) 관련 법규 현황

□ 관광 관련 법제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예안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등

□ 관광 관련 법규

- 국토개발에 관한 법규(국토이용관리법 등),
- 개발법규는 관광개발사업의 제반 절차가 규정된 법규(도시계획법 등)
- 개발규제법규는 물리적 공간이나 개발과정을 규제하는 법규(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세제관련법규는 각종 조세 및 준조세 부과 및 감면에 관한 법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 토지관련법규는 토지 취득에 대한 법규(토지수용법 등)
- 특정지역 개발 법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

2. 관련 조직 현황

1) 중앙부처

☐ 문화관광부 관광국

-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 전담조직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 관광 전담조직은 문화관광부 관광국으로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국민관광과, 국제관광과로 구성

☐ 관련 부처

- 관광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 부처별 업무수행의 기본틀 안에서 관광업무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
- 관광개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산업국, 체육국, 청소년국,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있음

2) 서울시

☐ 문화국 관광과

- 서울시의 관광관련 행정조직은 문화국 관광과에서 담당
- 관광과는 관광진흥팀, 관광사업개발팀, 관광홍보안내팀, 관광환경개선팀, 문화관광정보개발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30명(2004년 기준)
- 그러나 관광이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면서 관광 업무가 관광과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등 자연자원(산림, 한

강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6〉 문화국 조직도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구현에 정책 비중을 높임에 따라 푸른도시국을 2005년 1월 신설
- 해당 업무는 그동안 환경국에서 관할하던 공원·녹지·자연생태 분야, 공원 운영 및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게 됨. 이를 위해 야생 동식물 보호와 하천 생태 복원업무를 담당할 자연생태과가 푸른도시국 산하에 신설됨. 그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생태관광 담당 업무는 자연생태과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
- 푸른도시국 현원은 339명으로 자연생태과 26명, 공원과 29명, 조경과 19명, 민주공원조성추진반 7명, 녹지사업소 118명, 남산공원관리사업소 69명,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7> 푸른도시국 조직도

3. 서울시 관광개발계획(2002-2004)의 검토 · 평가

- 서울시 일반회계예산대비 문화예산의 점유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20> 서울시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

(단위: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	9,681,242	11,221,908	10,150,000
문화(문화국) 예산	259,300	300,238	347,152
서울시 일반회계예산 대비 점유비율	2.68%	2.68%	3.42%
관광(관광과) 예산		4,149	4,612
서울시 문화예산 대비 점유비율		1.38%	1.33%

자료: 서울시 관광과 내부자료(2005년)

<표 3-21> 서울시 관광과 사업별 예결산 내역(2001-1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관광인프라 구축	서울시티투어 운영	728,650	2,159,180	1,142,888	491,834	385,395	133,600	113,616	133,600
	월드컵 숙박시설	308,000	283,280	186,094					
	민관합동 민박가구	20,000	64,000	27,329					
	외국인관광객 숙박편의 증진				153,792	81,279	133,262	38,290	89,500
	관광특구 활성화	36,500	10,000	10,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495,000
	도심부 도보관광 코스개발운영						147,150	129,589	121,000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재현	1,374,576	1,048,029	999,016	1,048,995	992,523	796,087	722,079	1,379,625
관광상품개발	서울관광사진전 관광상품화	70,000	70,000	67,077	75,000	72,529	80,720	75,523	71,000
	관광중사원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22,000	22,000	16,861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353,000	413,000	313,071	477,000	455,768	476,000	475,500	442,000
	외국인이 뽑은 관광명소30선 운영		200,000	172,793					
	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DB구축 용역		150,000	150,000					
	외국인관광객 설문조사						19,800	16,900	30,000
	고궁축제행사 개최						198,000	187,100	200,000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40,000	40,000	
	한강변 5개시도 관광상품개발				20,000	15,470	20,000	17,447	252,100
	새서울자원봉사		150,850	143,870					
관광홍보및안내 체계강화	영상물 제작, 테마별 기획홍보		895,250	786,253	885,000	842,354	976,300	938,654	50,000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		7,000	3,940	7,000	2,027	7,000	3,139	5,000
	국내외 관광교류, 관광 팸투어 개최		410,000	253,708	340,000	232,682	390,000	282,058	275,972
	관광안내소 운영		1,525,115	1,168,124	322,649	246,213	350,544		655,626
	북촌문화센터 및 홍보전시관 운영								65,335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201,600	186,755	258,230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 제작		20,000	0					

자료: 서울시 관광과 내부자료(2005년)

제3절. 서울시 관광수급분석

1. 서울시 관광수요 예측

1) 관광수급분석 방법

- 본 장에서는 서울권역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고 이를 상호 비교·분석함.
먼저 관광수요는 다양한 예측모형을 통하여 적정수요를 산정
- 먼저 정량적(quantitative)예측을 통해 권역내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상위 계획인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관광부, 2001) 수치와 1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수요예측 결과가 과(過)산정되지 않도록 전문가의견조사인 정성적(qualitative) 예측방법을 통해 적정규모를 산정함.
- 정량적 예측은 현재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가 년도별 국민여행총량을 거주지역별 여행경험율에 대한 과거자료(1976-2004년)에 대한 정보가 모두 구체적인 값으로 획득 가능하고, 예측하는 내용이 미래에 돌발적이지 않아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예측시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용됨. 따라서 회귀분석, 중력모형 등과 같은 인과모형보다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법 등과 같은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이 보다 타당함
 - 회귀분석은 예측 될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 중력모형은 거주지에서 특정지역으로서의 여행이나 이주, 직장への 출퇴근, 정보 서비스의 이동, 자본이나 상품의 이동 등과 같은 공간상호작용을 다루는 모형임
 - 시계열 분석은 과거 및 현재 추세의 비율만을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시간변수 한가지만을 선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비율을 미래로

연장시키는 방법임. 이중 ARIMA 모형은 여러 형태의 단일변량시계열 자료를 확률과정모형, 즉 AR, ARMA, ARIMA 및 계절 ARIMA에 접목시켜 효과적으로 시계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계획에서 가장 효과적임(조신섭, 1997; 박유성, 1998)

- 정성적 예측방법은 예측시점에서 과거의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예측시점까지 지속이 불확실할 경우 또는 예측하는 내용이 미래의 돌발적 사건에 관한 것일 때 사용되는 예측방법임. 주로 델파이 예측법(Delphi techniques), 전문가 판단모형(Judgment-Aided Models:JAM), 시나리오 설정법(Senario writing methods) 등이 있음
- 예측대상은 국민국내관광총량 및 외래관광총량 수요를 기본으로 하되 전국단위 통계자료를 각 지역별 통계자료로 전환하여 활용함. 서울지역의 여건에 맞춰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은 별도로 시행함
 - 먼저 서울권 관광활동총량(목적지 방문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서울권내에서 국민 국내관광관광과 외래관광 수요를 구분하여 예측하고 공급측면에서 서울권역의 관광개발 및 자원현황을 분석하여 관광공급면적을 산정한 후 수급상의 과부족, 과다공급을 계량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시
 - 마지막으로 서울권 관광공급 산정은 서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면적총량을 관광수요로 전환하여 관광수요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서울권 관광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사례

- 『서울근교권 관광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1992)
 - 수도권 수요 추정 과정 : 전국관광총량(=인구×참여율×참여회수)을 구하고, 여기에 수도권의 유입수요와 수도권내 이동수요를 합하여 전체 수도권 수

요를 추정함

- 그러나 '수도권내 이동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거주민의 관광참가율, 참가회수 등의 기본지표 추정과 '수도권유입량 수요'의 경우 유입비율의 추정이 필요하나, 이용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본의 예를 활용하여 참여율 및 참여회수 등의 지표를 구함

$$\begin{aligned} \text{수도권내 이동수요} &= \text{수도권 거주인구} \times \text{수도권내 관광참여율} \times \text{인당 참여회수} \\ \text{수도권내 유입수요} &= \text{수도권 제외 전국관광총량} \times \text{수도권 방문비율} \end{aligned}$$

-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총관광수요가 전국국민관광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년 31.65%, 118,945천명에서 2001년 38.53%, 206,35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한계는 내국인의 관광활동에만 국한된 수요 추정이라는 점임

○ 『2002년 월드컵 서울시 외래방문객 예측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 서울시 관광과(2000)의 2002년 외래방문객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관광객 추정에 있어, '99년 6월 한달 간의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수는 398,022명 (1일 평균입국자수 : 13,267명)이고 이중 서울시 체재 외래관광객 수는 13,267명×71.8%(입국자 중 서울지역 체재율)임
- 서울방문 외래 방문객 수요 추정 : 일반관광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평상시의 월별외래관광객 현황(1975~1998년)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 6월 한달 동안의 순수 관광객 수를 예측함
- 일반관광객 추정절차는 1988년 올림픽기간(9월) 동안의 순수관광객과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 방문했을 예상 관광객의 수를 각각 추정하고, 이

두 수치간의 비율을 월드컵에 적용하여 2002년 6월의 순수일반관광객의 수를 추정하였음. 결과적으로 약 270,000명이 월드컵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순수관광목적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

- 월드컵 개최시 순수관광객 산출방법은 1988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를 따로 추정하고, 1975년부터 1998년까지의 9월 중 관광객의 변동추이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 모형
 $(y = 14247x + 18099, R^2 = .917)$ 을 세우고 이 식을 통해 예상치를 구함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 수요예측방법으로 과거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음. 자료분석에 사용된 수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한국관광통계」(통계월보)를 활용하였음. 또한 시계열 분석 방법중 수요예측에서는 ARIMA 모형이라 불리는 박스-젠킨스법과 선형 또는 비선형의 회귀모형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 외래관광객 수요추정은 198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외래입국자¹⁵⁾ 중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율을 서울시 외래입국자수로 가정, 이를 ARIMA 모형으로 시계열 분석을 함
- 추가로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도별 서울지역 관광호텔 운영실적에서 외국인 숙박객수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또는 비선형 형태의 회귀모형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외래관광객 예측 결과, 외래입국자수 통계를 활용한 결과는 다음 <표 3-22>와 같음

15) 외래입국자 중 관광 및 상용, 공용 등 여러 목적별 입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외래입국자 수 총량을 그대로 사용함

〈표 3-22〉 서울시 외래관광객수 예측

(단위 : 천명)

구분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시	4,657	5,008	5,358	5,708	6,058	6,408	6,758	7,107	7,457	7,807
전국	5,312	6,104	6,530	6,955	7,381	7,806	8,232	8,658	9,083	9,509

주 : 서울시 및 전국 외래관광객수 예측 모형은 ARIMA(2,1,2)(0,1,1)2s Noint 임

- 둘째로 서울지역 관광호텔 운영실적 중 외국인 숙박객수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또는 비선형 형태의 회귀모형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23〉과 같음. 선형모형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2~3% 정도로 조정 되었으며, 비선형 모형은 5% 정도의 성장률로 예측

〈표 3-23〉 서울지역 외국인 호텔투숙객 수요 예측

(단위 : 명)

모형 \ 년도	기준년도 2001	2002	2003	2004	목표년도 2005
1차 회귀모형	3,382,963	3,475,200	3,567,437	3,659,674	3,751,911
2차 회귀모형	3,353,413	3,435,557	3,516,555	3,596,347	3,674,953

주 : 1차회귀모형 $Y_t = 1,999,408 + 92,237 X_t$, $R^2=0.666$

2차회귀모형 $Y_t = 2,254,045 + 6,206 X_t^2$, $R^2=0.625$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관광부(2001)

- 서울권역별 계획의 상위계획인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관광부, 2001)에서는 국민국내관광 총량예측은 시계열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1차 분석한 국민국내관광 총량예측 결과를 토대로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영향을 감안하여 국민국내관광 총량을 2002년 4억여명, 2005년 5억4천만명, 2011년 6억1천만명으로 예측함

- 한편 전국단위 외래관광객수 예측은 외래관광객수의 시계열 예측을 토대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정책의지(예: 2010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방문)를 감안하여 2002년 620만명, 2005년 800만명, 2008년 920만명, 2011년 1,050만명으로 예측함
- 전국단위별 지역관광수요는 기존 지역별 방문통계치를 근거로 전문가조사를 활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이를 추세수요로서 향후 각 권역의 개발여건 변화요인에 따라 수요증감은 가변적으로 적용함
- 기본계획에서는 서울권역의 2005년 관광총량은 약 5천2백85만명이며 이중 국내국민총량이 약 3천2백만명과 외래관광객 약 2천만명(당일 2천3백만명, 숙박 8백만명)으로 산정함. 한편 2008년은 서울권 관광총량은 약 5천4백만명으로 이 수치는 국내국민총량 3천2백만명과 외래관광객 2천1만명을 포함한 수치이며,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1년 서울권 관광총량을 약 5천6백만명으로 산정함

<표 3-24> 전국대비 서울권 국민 국내/외래관광 총량 예측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5	2008	2011
서울권	국내	당일	20,313	23,779	23,678	25,173
		숙박	7,001	8,434	8,608	9,431
		소계	27,314	32,213	32,286	34,604
	외래		16,953	20,641	21,675	21,603
전국		당일	241,822	307,824	327,948	370,193
		숙박	162,826	199,612	208,928	235,775
		소계	404,648	507,436	536,876	605,968
	외래		37,177	46,964	52,103	55,535

자료: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재구성

- 그러나 권역별 관광수요는 기존 지역별 방문 통계치를 근거로 전문가 조사(관광관련 외부 전문가회의의 의견)를 수렴하여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임, 수요예

측결과가 과대선정되지 않도록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의 수요에
측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함. 관광수요예
측의 오차율을 실제로 계산한 결과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마져 시계열 분석모
형을 기준으로 국민 국내관광 총량예측 결과를 토대로 국민 국내관광총량을 보
정한 결과 2005년 5억1천만명, 2008년 5억4천만명, 2011년 6억1천만명으로 예측
함. 그러나 2004년 예측치 473,173(숙박 187,351명, 당일 285,822명)이 실제로
2004년 국민여행 총량 358,942(숙박 234,127 당일 124,815)과 비교할 때 오차율
은 31.8%나 됨

3) 서울시 여행총량 및 관광수요 추정

○ 전국 단위 국민 국내관광 수요예측

- 전국 국민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광발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서 국내관광총량 예측은 1차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인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예측을 실시함. 현재 국민 국내관광 총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각년도)에서 조사
된 당일 및 숙박관광총량을 활용함
- '95년-'99년까지의 4년간 전국 국내관광 총량추이를 살펴보면, '97년에 IMF
체제하에 따른 '99년에는 경기침체 및 실업문제로 인해 참가회수 등이 급격
히 감소하면서, 관광총량 또한 10.4%정도 감소함. 그러나 2001년 3억2천만
명, 2004년 3억5천만명으로 IMF 이전보다 크게 증가함
- 당일관광의 경우 2001년 경험을 및 1인당 참여횟수가 증가하여 27.3%증가
하였으나 2004년에는 경험을 및 1인당 참가회수에서 크게 감소하여 전체
관광객수와 관광총량 측면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숙박관광의 경우 2001년 처음으로 70%대, 2004년 80%대로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1인당 참가회수나 참가일수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25> 국민 국내관광 총량 추세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4*
당일 관광	경험률(%)	80.1	78.4	77.4	85.9	76.8
	1인당 참가회수(회)	5.3	5.7	3.7	4.5	3.2
	관광객(천명)	27,082	28,196	27,836	32,266	29,769
	관광총량(천명)	117,328	204,276	134,505	171,289	124,815
숙박 관광	경험률(%)	69.2	59.6	63.7	71.0	81.8
	1인당 참가회수(회)	1.6	1.3	1.4	1.4	2.6
	1인당 참가일수(일)	3.7	3.9	3.8	4.1	6.0
	관광객(천명)	23,396	21,435	22,909	26,670	31,707
	관광총량(천명)	125,519	139,900	138,102	156,639	234,126
국민 관광	경험률(%)	92.6	87.9	91.8	96.7	95.8
	1인당 참가회수(회)	6.9	7.0	5.1	6.0	5.8
	1인당 참가일수(일)	8.9	9.6	7.6	8.7	9.2
	관광객(천명)	31,307	31,612	33,015	36,323	37,134
	관광총량(천명)	301,847	344,176	272,607	327,928	358,942

* 2003년도는 국민여행실태조사는 미시행됨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 과거 국민 국내관광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 수요예측을 한 후 주5일 근무제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을 한 결과이며, 2005년에는 당일관광은 3억명, 숙박관광은 약 2억명 정도로 예측되었으며, 2011년에는 국민 국내관광총량이 6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됨. 이는 '95년 3억 명이 조금 넘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26> 국민 국내관광 총량 예측¹⁶⁾

(단위: 천명)

구 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국민국내관광총량	404,648	507,436	536,876	605,968
당일관광총량	241,822	307,824	327,948	370,193
숙박관광총량	162,826	199,612	208,928	235,775

자료 :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 수도권 국내관광 현황

- 서울권역 여행총량 산출에 앞서 수도권 권역의 국민여행총량은 각 권역의 주민들의 총 여행참가자수, 참여횟수 및 참가일수 등을 포함하여 지역 여행총량을 산출함. 계획연도의 시작연도인 2007년과 목표연도인 2011년 모두 계획지표의 산출은 먼저 광역연계측면에서 수도권 관광총량을 먼저 산출함. 먼저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 서울권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국민여행실태’에 대한 1인당 평균여행총량을 추정하였다. 서울의 지역여행총량을 구하기 위한 만 15세 이상 인구수 약 8,301,488명을 활용함
- 전국(수도권 지역 발생량 포함)에서 수도권을 여행목적지로 방문하는 비율은 총 23.3%임.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2%, 인천 3.5%, 경기 12.6%임
- 전국에서 수도권 권역으로 당일여행의 주된 방문지로는 경기(15.0%)지역이 주된 이동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서울(6.5%), 인천(4.6%)의 순임. 한편 숙박관광의 경우 수도권 권역 전체는 전국 숙박여행목적지로서 약 20.5%를 차

16)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는 '84년부터 '97년까지('99년 수치 제외)의 당일 및 숙박관광총량을 활용하였으며, '99년에 감소된 총량이 2001년에는 '97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1차 예측을 실시함.

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경기(10.1%), 서울(8.1%), 인천(2.3%) 순임

<표 3-27> 2007 수도권 관광총량 (발생량)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국내여행 총 경험률(%)	95.8	92.3	96.8	84.0	96.0
숙박	81.8	80.9	90.8	69.8	82.2
당일	76.8	66.2	67.0	54.8	76.8
참여횟수(1인당) (회)	5.87	4.20	4.52	3.85	4.22
숙박	2.65	2.27	2.49	1.99	2.32
당일	3.22	1.93	2.03	1.86	1.90
숙박여행체류기간(1회당)	2.90	2.72	2.74	2.75	2.67
당일여행참가일수(일)	3.22	1.93	2.03	1.86	1.90
숙박여행참가일수(일)	6.04	5.50	6.17	4.77	5.57
국내여행 참여회수(천인, 회)	227,537	109,748	37,522	7,868	64,358
숙박	102,721	43,661	20,670	4,067	18,924
당일	124,815	66,087	16,852	3,801	45,434
국민여행이동총량(천인, 일)	358,942	142,554	68,072	13,550	60,932
숙박	234,127	76,467	51,220	9,749	15,498
당일	124,815	66,087	16,852	3,801	45,434

*2007년 자료는 2004년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4(재작성)를 통하여 추정함

- 특히 당일여행의 경우 서울권(43.6%), 경기권(41.7%), 인천권(29.9%) 지역거주자들이 특히 경기지역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서울시민들은 경기(43.6%), 강원(13.7%), 서울(11.2%) 등 자신이 거주하고 곳과 인접한 지역을 당일여행을 많이 다녀왔음. 반면 서울을 당일여행 목적지로 선택하여 관광여행 송출지 역할을 하는 지역은 주로 강원 19.5%, 인천 15.1%, 서울 11.2%, 충남 9.7%, 충북 9.5% 순임
- 한편, 국내숙박여행 방문지로는 강원(16.5%), 경기(10.1%), 경남(9.2%)이 주된 방문지역임. 이중 서울권 거주민들은 주로 숙박여행 목적지로서 강원(36.9%), 경기(13.2%), 충남(9.1%)지역 등 주로 실제 거주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숙박여행을 다녀오는 경향이 있음. 반면에 서울을 숙박여행 목적지

로 선택하는 지역은 제주 23.0%, 충남 19.0%, 전북 17.0%, 충북 16.7%, 전남 15.0% 순임

<표 3-28> 수도권 여행방문지 비율

숙박관광(%)				당일관광(%)			
계	서울	인천	경기	계	서울	인천	경기
20.5	8.1	2.3	10.1	26.1	6.5	4.6	15.0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4(재구성)

- 수도권역 거주인구가 수도권 지역을 관광활동 목적지로 선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37.4%, 인천 38.9%, 경기 45.9%로 전체 수도권 거주민들이 수도권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비율은 약 40.7%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민들은 주로 경기도를 그들의 주된 여행목적지가 선택함
- 그러나 이를 여행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일여행방문지로 서울은 64.4%(서울 11.2%, 인천 9.6%, 경기 43.6%), 인천 59.3%(서울 15.1%, 인천 14.3%, 경기 29.9%) 경기도는 66.7%(서울 8.8% 인천 16.2% 경기 41.7%)가 수도권을 여가활동 목적지로 하고 있음. 한편 숙박여행목적지로서 서울은 20.1%(서울 2.6%, 인천 4.3%, 경기 13.2%), 인천 27%(서울 7.7%, 인천 5.2%, 경기 14.1%), 경기도는 28.2%(서울 5.0% 인천 2.7% 경기 20.5%)가 수도권을 여가활동 목적지로 하고 있음

<표 3-29> 2004년 수도권 지역/여행목적지(단위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계
서울	6.0	6.3	25.1	37.4
인천	10.4	8.6	19.9	38.9
경기	6.8	8.9	30.2	45.9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4(재구성)

- 이러한 비율을 통해 서울권역의 관광총량은 숙박관광 1천99만명, 당일 2천2백92만명을 합산한 약 3천3백만명임. 이는 전국 관광총량의 약 3억 59만명의 약 9.2%를 차지함

<표 3-30> 2004년 서울권역 관광여행총량

합계	숙박관광(천인/일)	당일관광(천인/일)
	서울	서울
33,083	10,991	22,092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4(재구성)

<표 3-31> 2004년 서울권역 관광활동 총량

합계(천인/일)	서울권역 관광활동 총량	외래 여가활동총량
52,494	33,083	19,411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4(재구성) 및 문화관광부, 제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 서울 국내관광 총량

- 2007년의 계획연도 및 목표연도인 2011년의 서울지역 국내관광총량은 2004년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통하여 추이를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에 따라 2011년까지 변화전망을 예측함. 국민 관광객 수요 산정 기본식(인구×참여율×참여회수)이 보다 합리적이거나 전국 권역의 국민여행이동총량식이 표준화된 추정식을 따르며 수도권 전체내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광역계획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권을 지역내 이동수요와 서울지역의 유입수요로 나누어 추정함
- 먼저 서울권 이동수요는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로 숙박관광을 하는 경우는 미미하기에 서울지역 이동수요는 당일관광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함. 따라서 서울지역의 국내관광

총량은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함

▫ 당일관광 = (서울 만 15세 이상 인구수×1인당 연간 평균 서울 당일 여행 참여일수)+(서울외 만 15세 이상 인구수 ×1인당 연간 평균 서울 당일여행 참여일수) ▫ 숙박관광 = (서울 만 15세 이상 인구수×1인당 연간 평균 서울 숙박 여행 참여일수) + (서울외 만 15세 이상 인구수 ×1인당 연간 평균 서울 숙박여행 참여일수) * 관광공사 국민여행 총량 추정식을 따름
--

- 서울지역은 수도권의 광역계획차원에서 먼저 수도권 권역(경기, 인천 포함)의 숙박/당일관광 목적지 방문비율을 통해 수도권 권역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활동량을 추산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2004)의 여행목적지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비율을 적용하여 숙박과 당일여행 방문지 비율조사(표 4-1)를 통해 관광활동 수요현황을 산출

<표 3-32> 서울시 국내관광 추세

(단위 : 천명, %)

	목적지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	2004
당일관광	서울→서울	9.3	9.1	8.9	7.6	34.2	11.2
	서울외→서울	3.0	1.8	2.3	1.3	10.7	6.5
서울지역 당일관광비율		12.3	10.9	11.2	8.9	44.9	17.7
전국 당일관광총량		110,894	117,328	204,276	134,505	171,289	124,815
서울지역 당일관광총량 ¹⁾		13,640	12,789	22,879	11,971	76,908	22,092
숙박관광	서울→서울	-	-	-	-	0.4	2.6
	서울외→서울	5.9	4.9	2.8	4.4	3.3	8.1
서울지역 숙박관광비율		5.9	4.9	2.8	4.4	3.7	10.7
전국 숙박관광총량		149,436	125,519	139,900	138,102	156,639	102,721
서울지역 숙박관광총량 ²⁾		8,817	6,150	3,917	6,276	5,795	10,991
서울지역 관광총량 ³⁾		22,457	18,939	26,793	18,247	82,703	33,083
전국 국내관광총량		260,330	301,847	344,176	272,607	327,928	358,942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주 : 1)=전국당일관광총량×서울지역 당일관광비율, 2)=전국숙박관광총량×서울지역 숙박관광비율, 3)=서울지역 당일관광총량+서울지역 숙박관광총량

- 통계청 지역별/연령별 추정인구자료를 활용하여 8백 44만 7천명(8,447,190) 2007년 2011년은 10076173명중 8,628,294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청 2001~2030년 시도별 자료는 2002.5월에 작성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2005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로 수정보완한 자료임
-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 보정을 거쳐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즉 2000년 이후 국민 국내관광이 '97년 이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을 때, 서울 지역의 국내관광 총량은 2007년에는 3천2백만명을 넘어서며, 2009년에는 3천3백만, 2011년에는 3천4백만명으로 예측됨

<표 3-33> 서울권역 국내관광 총량 예측

(단위 : 천명)

구 분		2007	2009	2011
국민 국내관광 총량	당일관광총량	23,977	24,175	25,173
	숙박관광총량	8,658	8,882	9,431
	소계 (전국대비%)	32,635(6.1)	33,057(5.9)	34,604(5.7)
	전국	533,672	559,907	605,968
외래관광 총량	서울 (전국대비 %)	21,146(42.2)	21,651(40.7)	21,603(38.9)
	전국	50,105	53,247	55,535
총계		53,781	54,708	56,207

출처 :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01 자료를 계획/목표년도로 재수정함

2. 서울권 관광수급 분석

1) 서울권 관광수급

(1) 관광수급분석방법

- 관광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각각 산정 후 수요측면의 최대시 수요와 공급측면의 최대공급능력을 비교하여 서울권역의 수급분석을 실시함
 - 수요측면: 관광총량→ 최대시 수요
 - 공급측면: 관광개발·자원의 공급면적→ 최대공급능력
- 관광수요측면에서 서울권 관광총량에서 ‘동시수용력’ 개념을 이용하여 최대시 수요를 산정함. 서울은 도시의 특징을 지니면서 외래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이므로 3계절형으로 가정함(문화관광부, 관광진흥10개년 계획, 1997). 회전율은 평균체제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하여 1/1.7을 이용함
 - 최대시 수요=권역별 관광총량 X 최대일률 (3계절형인 1/30을 적용) X 회전율(1/1.7) X 서비스율 (80%)

<표 3-34> 서울권 관광수요 적용기준

서울권 관광수요분석	최대일률	회전율	서비스율
산정	3계절형	4시간	80%
계량적 수치	1/30	1/1.7	80/100

- 공급측면에서는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공급지표기준을 활용하여 서울권 관광자원 면적에서 이용가능면적과 원단위를 고려하여 공급능력을 산정하였음

(2) 관광공급능력 산정

- 본 연구에서 현재 서울시 전반의 관광공급시설의 산정은 관광수요의 대상이 되는 서울권역내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의 현황을 근거로 산정함. 서울권 관광자원 면적에서 각 관광공간 및 시설현황을 자연생태, 위락공간, 관광편의시설업종, 체육활동공간, 전시관람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가능면적과 원단위를 고려하여 유형별 공급능력을 산정함
- 2007년 현재 서울에는 관광진흥법상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관광시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관광공급측면에서 서울권 관광자원 면적에서 이용가능면적과 원단위를 고려하여 공급능력을 산정하였음. 즉 현재의 유형별 관광시설 분포현황 및 각 분야별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관광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어떤 시설을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함

<표 3-35> 서울권역 관광공간 및 시설 현황

구분		2007년 개발현황*		공급지표 기준		비고(전국 치 또는 인구수)
		개소	면적 (km ²)	이용가능 면적율 (%)	원단위 (m ² /인)	
자연 생태 공간	국립공원	1	40.80	10	35,000	
	자연휴양림 (1개 통합가)	국유림		20	500	
		공유림		20	500	
		사유림		20	500	
	소계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	20	80	
		근린공원	26.24	20	80	
		자연공원	68.43	15	35,000	
		기타	3.15	20	80	
	소계					
	생태계보전지역	8	20.13			
위락 공간	관광지/관광단지	-		50	80	서울권역 관광지無
	주말농장(농협운영)	18	310만평	60	200	
	테마파크	1				
	유원지			50	80	
	자동차 야영장					
	수렵/사격장					
관광 편의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50	50	
	관광숙박업	110(객실수 19,761)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체육 활동 공간	유원시설업					
	요트장			40	100	
	골프장			40	1,000	
전시 관람 공간	승마장			10	100	
	고가,생가,민속마을					
	안보관광지					
	박물관	67				
	미술관	22				
	연극공연장	129	58,157석			

* 2007년 현황자료는 2005년 기준자료를 활용함. 앞으로 계획인 확정된 관광시설을 합산함. **.
문화관광부(1997), 관광진흥10개년 계획에서 재구성

- 상위계획인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서울권 관광공급 분석에 따르면 서울권의 개발현황은 107.96km²에 이용가능면적 18.17km²로 공급능력은 18만명으로 산정함

<표 3-36> 서울권 관광공급능력 산정

서울권 관광공급분석	개발현황(km ²)	이용가능면적(km ²)	공급능력(천명)
서울	107.96	18.17	180

<표 3-37> 서울권 최대시 수요 산정(단위:천명)

구분		2007	2009	2011
본 계획산정	연간관광총량	32,213	32,286	34,604
	최대시 수요			
제2차관광 개발계획	연간관광총량	53,591	54,709	56,207
	최대시 수요	630	643	661

* 연간관광총량은 서울권 국민국내관광총량과 외래관광총량을 합산하여 반올림한 수치임

- 관광수급분석은 관광개발·자원현황을 토대로 관광수요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관광개발·자연면적의 과부족분을 산정하였음

<표 3-38> 권역별 관광수급분석 (단위: 천명)

구분	연도	수도권 총계	수도권 광역권역		
			서울	인천	경기
공급능력	2007	1,283	320	175	788
	2009	1,298	327	176	795
	2011	1,313	328	180	805
일일관광 수요량	2007	2,329	622	191	1,516
	2009	2,417	635	203	1,579
	2011	2,626	661	233	1,732
수급비교	2007	△1,046	△302	△16	△728
	2009	△1,119	△308	△27	△784
	2011	△1,313	△333	△53	△928

자료: 문화관광부, 2001,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재구성. 2007년 수치는 2005년과 2008년 자료를 평균치를 통하여 산출함.

- 전국을 대상으로 수급분석 결과 수도권은 계획기간중 과수요(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서울권역은 계획기간중 과수요(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전국에 비해 공급수요가 미미한 편임. 특히 수도권인구의 2011년 수도권 집중도 5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총량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규관광지구 개발 및 기존 관광시설의 질적수준 확대 등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수용태세의 확충이 필요함
- 인사동, 코엑스몰, 롯데월드 등과 재래쇼핑센터 등이 관광개발·자원현황 면적에서 산정되지 못하는 공급면적으로 작용되어 수급상의 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결론적으로 서울권에서는 새로이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H/W 적 관광개발 방식보다는 S/W에 치중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됨. 특히 도시관광, 문화관광 등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바람직함

2) 서울권 세부 관광업종별 수급분석

- 관광 공급 측면은 전국 단위의 계획에서는 면적 총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시설의 공급중심의 수급분석을 실시함

(1) 관광숙박시설

- 목표객실 수요산정
 -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의 서울권이 전국 국민국내숙박관광총량과 외래숙박관광총량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즉 2007년 29,804천명(국민관광총량 8,658천명, 외래숙박관광 총량 21,146천명), 2011년 31,034천명(국민관광총량 9,431천명, 외래숙박관광 총량 21,603천명)으로 추정함

<표 3-39> 서울권 연도별 숙박관광 총량 (단위: 천명)

연도	국민국내숙박관광총량	외래숙박관광총량	합계
2007	8,658	21,146	29,804
2009	8,882	21,651	30,533
2011	9,431	21,603	31,034

<표 3-40> 서울시 호텔 객실이용율 추이(1992 - 2003)

(단위 : %)

연도	전체(외국인)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	70(50)	73(52)	78(54)	79(56)	74(50)	77(60)	78(64)	82(69)	81(68)	77(64)	74(62)	62(49)
전국	63(26)	63(26)	69(27)	67(24)	66(26)	62(35)	58(36)	61(40)	65(43)	62(40)	60(39)	52(31)

주 : 외국인 이용율은 등급별 이용인원에 대한 비율이며, 전체 이용율은 등급별 연 판매가능실수에 대한 연판매실수 비율임.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은 미포함
 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현재(2003년 자료기준) 서울시 관광호텔 등급별 연숙박객수를 추정하면 다음 <표 4-19>와 같음

- '99년 기준 자료를 보더라도, 특급호텔의 경우 '99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표 3-41> 서울시 관광호텔 등급별 연숙박객수 추정

(단위 : 천명)

년도	총계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2007	10,028	4,269	2,691	1,717	871	480
2009	10,502	4,470	2,818	1,799	912	503
2011	10,979	4,676	2,948	1,881	954	520

출처 : 서울특별시, 『특별시구 개발구상』, 2001 자료 활용하여 과거 서울시 호텔 연숙박객수를 추세 연장하여 분석함

- 서울시의 호텔등급별 추정 이용객 수는 특1, 2급과 1~3급 호텔을 합하여 2007년 10,028천명, 2009년에는 10,502천명, 201년에는 10,979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총 객실 수(20,713실) × 객실이용률(77.25%) × 365일 × 1 실당 평균 이용객 수(1.5인)]

○ 공급가능 객실산정

- 현재(2003년 자료기준) 서울시 관광호텔 및 객실 현황을 보면, 전국 총 108개중 서울시 특급호텔 이상이 23개(특1급 16개, 특2급 17개)로 전국대비 약 21.3%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전체 공급가능한 특급 관광호텔 객실수는 총 13,349실로 전국의 28,747실의 약46.4%를 차지하여 시설규모면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지역편중 현상을 볼 수 있음

<표 3-42> 서울시 호텔 및 객실 현황(2003)

지 역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등급미정		계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호텔 수	객실 수
서울	16	8,684	17	4,665	36	3,752	26	1,698	11	619	6	706	112	20,124
계	43	17,286	65	11,461	193	15,169	128	6,678	74	3,199	31	2,403	534	56,196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Korea Hotel Association)

- 서울지역의 중저가호텔수는 총73개로 공급가능한 총 객실수는 총 6,069실에 이룸. 1급-3급 중저가호텔은 평균객실수 83개로 특급 호텔이 중저가 호텔에 비해 객실 수와 연속박객 수에서 약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약 66% 정도를 특급호텔에서 분담하고 있음.

<표 3-43> 서울시 관광호텔업 등급별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호텔수	객실수	연속박객수	연판매가능 실수	판매실수	이용율
특1급	16	8,684	3,417,328	3,175,953	1,998,413	62.92
특2급	17	4,665	2,343,149	1,729,095	1,081,231	62.53
1급	36	3,752	1,487,364	1230,513	804,748	65.40
2급	26	1,698	491,214	523,365	260,250	49.73
3급	11	619	140,202	198,700	84,708	42.63
등급미정	6	706	-	-	-	-
계(가족호텔 포함)	112	20,124	7,986,813	6,959,826	4,303,112	61.83
전국대비(%)	21.0	35.8	63.9	34.9	41.7	-
전국	534	56,196	12,507,347	19,916,265	10,317,421	51.80

호텔 및 객실 수에 미정 3업체 353객실, 일반관광호텔 3업체 138객실, 가족호텔 1업체 281객실은 제외되었음

자료 : 전국관광호텔협회, 「 ' 2003 관광호텔운영실적」, 2004

○ 호텔 수요 공급 종합

- 2011년 4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며, 이중 약 80% 정도는 서울에 머무르게 될 예정이어서 서울시 호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WTO의 세계관광전망에서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중국의 해외여행 개방과 더불어 역내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위의 호텔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 결과와 주요 관광 동향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호텔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서울시의 호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텔 이용자의 시장 세분화에 대한 고려와 각 등급별 이용객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등급별 호텔 신축 및 증축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그리고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숙박단지 개발로 인해 2007년에는 수도권에 8천실 규모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함. 수도권 지역의 관광숙박단지는 서울 및 인천공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상당부분 서울시 숙박 수요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시 숙박 수급문제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공급은 신규 호텔 건립방법과 더불어 숙박 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과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2) 컨벤션 시설

○ 한국관광공사, 「2004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2004.12)¹⁷⁾

17) 2004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중 국제회의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 기준에 부합되는 22개의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동기,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한국의 이

-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우 평균 체류기간이 6일이상 되므로 이들을 국내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그러므로 국제회의 참가자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유치 실적은 160건을 개최하여 전세계 18위 기록
- 응답자의 64.5%가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평균 체류기간은 6.5일이며 8일 이상 체류자는 24.4%나 됨. 홀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가 51.1%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친구 동반(14.8%), 배우자 동반(13.8%), 자녀 동반(2.4%)의 경우도 31%에 달하므로 이들 동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요구됨
- 회의 이외에 참가한 활동은 쇼핑 74.1%, 시내관광 53.5%, 유적지 방문 49.9%, 식도락 38.6%, 유흥 18.0%, 소도시방문 14.8%, 회사견학 9.1%, 스포츠(골프, 하이킹 등) 7.9%, 카지노 3.5%, 기타 10.8%의 비율로 조사됨
- 개최지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환대'와 '안전과 보안'이 5점만점에서 4.4점을 획득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개최지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매력성'은 응답자의 83.9%가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하여 5점척도에서 평균 4.16을 기록하였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회의 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반시설(관광인프라 포함)' 및 '문화역사 유적지'가 각각 4.06점,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와 활력'이 그 뒤를 이어 각각 4.03점, 4.02점으로 나타남

미지, 국제회의 참가의사결정의 영향력, 국제회의 참가 만족도, 재방문 의향, 여행목적지로서 한국을 추천할 의사 등을 조사하고,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의 총지출을 분석하였음. 2004년 기간동안 연중 고루 분포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16개, 제주 2개, 대구 2개, 부산 1개, 경기도 1개로 분류하며 회의 종류를 정부회의, 협회회의, 학술회의로 세분화하여 설문조사하였음

- 그러나 물가수준은 5점 만점에 3.47점을 나타내 유일하게 4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회의의 주 개최 도시인 서울의 객실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항공부문을 제외한 2004 국제회의 참가자의 개별방문자의 지출액(미화 2,366 달러)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개별 관광객이 소비한 총지출경비(2003년 미화 1,262달러, 2002년 1,229달러)와 비교하면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액이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회의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해주고 있음
- 국제회의 참가자의 한국방문 만족도가 83.9%로 매우 높고, 향후 3년 이내에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65.9%, 제3자에게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79.4%로 나타나,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긍정적인 관광이미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만성적인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국제회의 참가자가 회의이외에 참가한 활동은 쇼핑, 식도락, 관광 및 스포츠 활동 등이므로 국제회의 개최지 주변에 one-stop으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3-44> 국제회의 참가자의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에 대한 평가

구 분		평균(점)	전체평균(점)
국제회의 시설수준	본회의장의 시설수준	4.32	4.29
	분과회의장	4.16	
	커뮤니케이션 시설	4.32	
	방음, 조명 및 음향 시설	4.21	
	안전과 보안 시설	4.43	
국제회의 운영수준	회의 개최관련 안내자료 제공	3.96	4.01
	국제회의 홈페이지 운영	3.92	
	회의 등록의 효율성	4.12	
	공항영접 및 호텔이동	3.93	
	안내데스크 운영과 정보 서비스	4.06	
	행사 게시판과 안내표지	4.01	
	행사장 이동교통편	4.07	
	장애자 시설 및 서비스	4.00	
접근성	국제항공 접근성	3.99	3.98
	입국절차	3.99	
	대중교통 편의	3.97	
숙박	숙박시설 선택의 다양성	4.00	3.99
	예약의 효율성	3.98	
회의관련 특별이벤트	사교행사	4.04	3.95
	문화프로그램	4.07	
	동반자 프로그램	3.88	
	포스트 투어	3.90	
	전시프로그램	3.94	
	회의관련 식음료행사	3.87	
회의이외의 경험	관광	3.97	3.81
	현지 식당	3.90	
	쇼핑	3.82	
	엔터테인먼트 & 나이트라이프	3.71	
	스포츠 & 레크레이션활동	3.67	
	사업기회(고객방문, 사업협상 등)	3.7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4, 「2004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p.45 <표 30>

- ‘접근성’, ‘숙박’, ‘회의관련 특별이벤트’, ‘회의이외의 경험’ 분야에서 4점 이하의 점수가 나왔음. 국제회의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목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회의와 관련해서는 30% 이상이 동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동반자를 위한 프로그램, 본회의뿐만 아니라 포스트 투어, 전시프로그램, 식음료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 회의 참석자는 평균 6일 이상 체류하게 되므로 회의 이외의 시간을 보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회의이외의 경험'이 가장 낮은 점수(3.81점)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 나이트라이프', '스포츠 & 레크레이션활동'의 점수가 가장 낮으므로 이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 또한 국제회의 개최관련 안내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 숙박시설 예약의 효율성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함

○ 컨벤션 산업 개요

- 컨벤션 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외화획득과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컨벤션 산업은 관광산업 분야의 꽃이라 일컬을 정도로 1차적인 회의장 시설 뿐 아니라 관광·레저·숙박·유흥·식음료 등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관련 서비스를 수반함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각종 국제회의나 대회의 국내 개최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 국내 최초의 전문회의장인 코엑스 컨벤션센터가 건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의 유치가능성이 보다 확대됨
- 게다가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는 지역단위, 국가단위, 권역단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또한 활발해짐에 따라 민간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활동도 크게 늘어

나게 되어, 국제회의산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3-45>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99 ~ '03)

(단위 : 회, %)

구 분 \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세계	9,465 (-0.35)	9,433 (-0.34)	9,259 (-1.84)	9,124 (-1.46)	9,445 (3.52)
아시아	1,255	1,234	1,185	1,274	1,215
한국	85	105	129	123	160
서울	62	68	100	81	87

주 : ()안은 성장률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 『'03년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3

- 세계의 국제회의 개최 현황(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9,445건으로 전년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개최 순위는 ①구주(58.3%), ②미주 (20.9%) ③아시아주(12.9%), ④아프리카주 (4.8%), ⑤대양주(3.1%) 순으로 순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유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5,507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초과함
- 2003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미국 1,068건 (11.31%), 프랑스 647건(6.85%), 독일 487건(5.16%), 이태리 437건(4.63%), 영국 420건(4.45%)순으로 나타났다. 2003도에 괄목할 성장을 보인 나라는 이탈리아(371건→437건), 스위스(256건→322건) 등이며 우리나라는 160건을 개최하여 세계 전체 18위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2단계 상승, 국제회의 개최국가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6>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단위 : 건)

순위	국가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	미국	1,145	1,064	1,227	1,161	1,178
2	프랑스	565	627	801	762	778
3	영국	505	464	662	617	680
4	독일	481	500	626	661	612
5	스페인	392	343	387	343	348
6	이탈리아	371	420	493	443	456
7	벨기에	313	306	373	334	451
8	호주	281	297	413	293	335
9	캐나다	279	206	280	244	241
10	네덜란드	267	257	364	411	427
11	스위스	256	253	284	235	249
12	오스트리아	243	242	250	252	334
13	일본	232	228	253	220	257
14	덴마크	193	156	159	180	167
15	중국	180	159	194	174	168
16	핀란드	164	197	165	245	202
17	스웨덴	163	187	161	175	264
18	싱가포르	137	118	126	122	144
19	포르투갈	131	109	138	125	237
20	한국	123	129	105	85	63

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p.82

- 아시아지역 국가별로는 일본이 219건(18.0%), 한국이 160건(13.2%), 중국, 홍콩 및 마카오가 123건(10.1%), 싱가포르가 122건(10.0%)을 개최하여 아시아지역 개최현황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7> 국제회의 개최현황 비교(1999 ~ 03년) 단위: 건

	1999	2000	2001	2002	2003
	개최건수	개최건수	개최건수	개최건수	개최건수
일본	257	253	228	232	219
한국	85	105	129	123	160
중국	174	194	159	180	123
(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122	126	118	137	22
태국	117	115	81	103	111
인도	107	101	80	93	101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3

- 아시아지역 주요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도시별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22건(10.0%)으로 1위, 서울이 87건(7.2%)으로 2위 그리고 방콕이 68건(5.6%)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15위, 아시아 2위를 차지하여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편임

<표 3-48>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99 ~ '03)

(단위 : 회)

개최도시 \ 년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	1999년
	구성비	건수	건수	건수	개최	건수
싱가포르	10.0	122	137	118	126	144
서울	7.2	87	81	100	68	48
방콕	5.6	68	67	64	77	45
도쿄	3.6	44	43	52	66	70
베이징	3.4	41	59	55	63	37
쿠알라룸푸르	3.4	41	50	35	48	46
뉴델리	3.0	37	36	30	35	40

자료 : 한국관광공사, 『'03년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3

- 2003년 기준 국내 국제행사 개최건수는 총 590회중 290건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49.1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서울 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진 반면, 이벤트 및 지방축제는 각 지방별로 분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우 인천 8회(1.36%), 경기도 17회(2.88%)를 차지함

<표 3-49> 국내 국제행사 개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국제회의		전시회		기타행사		계	
	건수	외래객수	건수	전체관람객수	건수	외래객수	건수	외래객수
1993	150	24,689	85	N/A	41	5,288	276	212,937
1994	146	19,164	111	N/A	51	5,923	308	206,107
1995	184	40,437	96	N/A	55	134,314	335	299,310
1996	227	28,567	106	5,646,933	62	69,936	395	207,066
1997	248	30,087	104	5,336,571	76	127,125	428	299,148
1998	267	22,725	93	7,721,692	135	-	495	-
1999	287	34,038	112	7,918,807	106	-	505	-
2000	292	33,562	117	8,609,892	135	-	544	-
2001	294	40,625	128	12,570,580	134	-	556	-
2002	295	35,100	130	7,965,913	135	-	561	-
2003	298	34,467	154	10,175,257	138	-	590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회의 산업현황』, 2003

<표 3-50>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단위 : 회, 명)

시·도별	2003년 개최실적			
	개최건수	구성비	전체참가자수	외국인참가자수
서울특별시	158	53.02	83,828	22,552
수도권(경기,인천)	12	4.03	1,974	322
전국	298	100.00	133,513	34,467

자료 : 한국관광공사, 『' 2003년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3

- 2003년도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서울이 158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53.02%를 차지하여 여전히 서울 집중현상을 보이거나 약간 감소추세임. 시·도별 외국인 참가자 현황에서도 서울이 22,55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3,936명, 부산시가 2,404명으로 나타남

○ 컨벤션 개최 현황

- 서울시의 국제회의장을 보면, 현재 1,500석 이상의 회의장이 87개이나, 전문 국제회의장은 25개 정도임. 그리고 대부분이 특급호텔에 부속된 인하우스(in-house) 컨벤션이라 할 수 있음
- 국내의 전시장은 COEX 등 총 7개이며, 옥내기준 총 전시면적은 68,033m²임¹⁸⁾

<표 3-51> 국제회의시설 현황

	시설	수용인원(대회의장)
컨벤션센터	4	18,300석
호텔회의장	89	74,467석
준회의장	14	34,748석
계	107	127,515석

주 : 2004년 6월 기준

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p.82

18) 서울특별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001, p.4~54.

<표 3-52> 국내 전문국제전문회의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주요시설	부대시설	비고
코엑스(COEX)	지상5층, 지하4층	대회의장 6,500석 중소회의실 52개실 전시시설 4개실	사무동, 숙박시설, 주차시설, Retail, 수족관 등	
서울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지상36층, 지하5층	컨벤션시설 5,000평	로비, 동시통역실, 부속실	
부산전시컨벤션 센터 (BEXCO)	지상7층, 지하1층	대회의장 2,88석 중소회의실 22실 전시장	옥외전시장 편의시설 전시부속품실 등	
대구전시컨벤션 센터 (EXCO Daegu)	지상5층, 지하4층	전시장 2,342평 컨벤션홀 3,200 중소회의장 11실	-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ICC JEJU)	지상4층, 지하2층	컨퍼런스홀 4,300석 대회의실 1,84석 중회의실 514석 소회의실 6실 전시실 818평	상업시설 주차장 썬큰가든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27,052평	컨벤션센터 2,500석 특급호텔 401실 전시장 6,400평	기획상가, 오피스텔 등	2009년 전시실 완공 예정
고양국제전시장	부지 10만평			
대전컨벤션센터	지상2층, 지하	대회의장 2,000석 중소회의장 10실 전문전시장 6.50평	무역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2009년 완공예정

출처 : 한국관광공사, 「청사초롱」, 제 180호 2001년4월26일자

<표 3-53> 서울지역 국제회의 시설 현황

시설명	회의장수	수용인원		비고
		대회의장	총객실수	
올림픽공원	3	15,000	-	체육관시설
COEX	6	6,500	-	전문회의, 전시실
세종문화회관	4	3,895	-	-
서울힐튼호텔	10	3,200	692	-
예술의 전당	5	2,600	-	-
롯데호텔	14	1,800	1,486	호텔부속 연회시설
호텔 인터컨티넨탈	14	1,800	543	"
호텔 신라	8	1,500	497	"
그랜드하얏트호텔	6	1,500	605	"
대한생명 63빌딩	11	1,500	-	연회시설
호텔 롯데월드	6	1,500	533	호텔부속 연회시설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회의 산업현황』, 2003

○ 컨벤션 산업의 수요 예측

- 컨벤션 산업의 수요 예측에는 기존의 시계열 컨벤션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과 참가 외래객수에 의한 수요 추정방법, 그리고 외래관광객에 의한 수요 추정방법 등이 있음
- 컨벤션 산업에 관한 기존의 여러 보고서를 취합하여 비교한 결과, 향후 10년간의 수요 전망에 대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분석함
- 우선 세계 컨벤션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06년에는 10,000회이며, 2010년에는 11,000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의 분담율은 평균 13% 정도에서 15%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표 3-54> 세계 컨벤션 수요 전망

(단위 : 회)

구 분	2006	2009	2011
전세계	10,059	10,956	11,254
아시아	1,697	1,832	1,922
비율(%)	16.2	16.7	17.1

출처 :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1997

- 한편, 향후 10년 간 국내에서 1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연평균 수요는 약 500건 이상이며, 연평균 참여자 수는 약 12~1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중에서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국제회의 개최 중 7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서울지역이 전체 국제회의 개최건수 중 약 70% 이상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 256회, 2006년 338회, 2010년에는 약 414회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표 3-55> 연도별 국제회의 수요예측

(단위 : 회)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세계	9,697	10,108	10,537	10,984	11,451	11,937
아시아	1,420	1,530	1,614	1,692	1,781	1,876
한국	309	360	412	463	511	552
서울	216 (69.9)	256 (71.1)	297 (72.1)	338 (73.0)	378 (74.0)	414 (75.0)

출처 : (주)아이디엔컨설팅트 Analysis(기초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001에서 재인용

주 : ()은 서울지역의 부담율(%)

○ 컨벤션 시설 공급 전망

- 서울·수도권 지역의 2005년까지의 국제회의장 공급 규모는 COEX 컨벤션 센터 6,500석과 고양 컨벤션센터 17,000석이며, 전시장은 고양컨벤션센터 17,000평과 부산시 9,000평 등 30,000평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됨

<표 3-56> 전문 국제회의장 건립 추진현황

개관년도	시설명	규모	
		대회의장	전시장
2000	코엑스(COEX)	7,000석	36,027㎡
2001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4,200석	16,616㎡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2,800석	26,446㎡
200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4,300석	2,586㎡
2004	창원전시컨벤션센터 (CECC)	5,000석	7,860㎡
2005	한국국제전시장	2,000석	16,940㎡
2009	수원컨벤션센터	2,500석	21,000㎡
2009	대전컨벤션센터	2,000석	20,000㎡

출처 : 문화관광부, 「2004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p.83 (2004년 6월 기준)

○ 컨벤션 수요·공급 종합

- 국내의 국제행사의 시/도별 수요·공급 종합분석에서 2003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총 590건의 국제행사중 290건(약 50%)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서울집중화 현상을 여전히 두드러질 것이다. 2011년 기준 서울/수도권은 14만명의 참여자수에 비해 서울의 공급규모는 약 9만8천명으로 약 64% 공급부족발생이 예상된다

<표 3-57> 국내 수요·공급 종합분석(국제회의장 기준) (단위 : 회, 석, 명)

구 분		2007	2009	2011
수 요	개 최 건 수(전국)	487	516	533
	서 울	358	396	450
	참여자수 ¹⁾	116,770	128,410	140,390
공급 ²⁾	전 국	99,415*	N/A	N/A
	서울·수도권	75,615*	N/A	N/A
	전국 참여자수	125,827	144,555	163,283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001자료를 활용하여 계획연도에 맞춰 수정함

주 : 1) 1,000명 이상 기준, 2) 1,500석 이상 기준

제4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종합분석

1) 관광개발(계획)에서의 서울의 역할 정립

○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지역관광의 관문기능

-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관문(A gateway of Korea)이며, 조선시대의 600년 도읍지로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현대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세계의 몇 안되는 고도(古都)이자 메트로폴리스임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의 비중은 과거 전체입국자의 약 80%이상('99~2000년도 약 82.3%)을 차지함. 외래방문객실태조사(2004년)에서 서울 방문하였다는 외국인은 83.7%(2002년) -> 85.0%(2003년) -> 80.9%(2004년)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최대의 한국의 대표적 관광목적지이자 관광브랜드로 한국관광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입출국객들은 서울에 장기간 체재하였거나 최소한 단기 체재한 후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로서, 서울은 국내외적으로 볼 때 주요한 교통/이동의 결절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의 관광개발투자는 서울이 인구가 많고 제반 관광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를 하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됨. 한편 서울의 관광개발 정책이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benchmarking)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함
- 관광분야에서의 혁신과 파급의 선도적(leading) 기능
- 관광분야에서의 혁신과 파급의 선도적(leading) 역할과 만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주변의 자치단체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도움을 가져다 주는 상호이익적(win-win)인 관계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 결절의 기능과 누적효과(trickling-down effects)의 극대화 추구

- 같은 규모의 관광투자라 할지라도 서울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과 경제적인 부(富)를 주변지역에 최대한 확산시키도록 함
- 단기적으로는 서울에서의 관광개발사업과 투자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전·후방 연계효과(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s)와 산업연관에 의한 주변

지역의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 그리고 서울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관광교통인프라로서 관광객 이동의 결절 지역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여타 관광부문에서도 주요 집산지(集散地)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함

◆ 연계관광상품의 강화와 리퍼럴(referral) 기능의 활성화

-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의 타 지역으로의 재송출 기회를 확대하여 체재기간의 연장과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방한기간 및 관광지출확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서울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참신한 연계관광상품이나 장거리 관광상품(동남아관광객을 위한 스키장 연계상품, 휴전선 및 땅굴견학 상품, 용인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제주도 관광 등 국내 장거리 상품)을 발굴하여 타 지역으로의 단체관광객 연계송출을 극대화함
- 다른 지역을 방문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관광시설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안내와 예약기능, 그리고 소개(referral)활동을 최대한 확대, 시행함

◆ 관광개발과 관련한 광역계획의 선도적 기능 수행

- 서울은 인근 자치단체간의 협조와 공동계획 및 집행이 요구되는 광역 관광시설의 설치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주변지역에 부(負)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의 마련에 선도적 역할수행필요
- 관광계획의 합리화와 관광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인근 지역간의 관광인프라의 보완/대체 관계를 사전에 계획하여 자치단체의 상호이익적인 상황을 조성(예컨대 서울의 일시적 숙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산숙박단지 등과 같은 인근지역의 숙박시설 적극 활용)
- 자치단체간의 공동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정책 협력을 위한 서울 주도의 합리적인 자원분담체제의 구축

2) 서울권 내부 각 부문별 관광자원 분석

(1) 역사문화관광자원

- 고궁과 박물관 등 역사유적이 주로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보는 관광이나 전시·관람에 국한되어 있어 참여형의 체험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궁의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움
- 서울의 전통문화 행사의 경우, 주로 봄·가을에 편중되어 개최되며 소규모 비정기 일회성 행사는 체계적인 홍보가 어려움
- 무형문화재 관람이나 공연 등이 거의 대부분 감상형으로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2) 현대문화 관광자원

- 테마공원(theme park)의 경우 체험시간이 일시적이어서 관광객의 재방문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테마공원은 시 전역에 비교적 잘 분포되어 있으나 권역별, 테마별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
- 공연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공연장으로 대규모 공연이 어렵고, 장르별로는 한국 대중음악이 주류여서 외래관광객에게 매력적이지 못함
- 명동이나 신촌축제와 같은 현대문화행사의 경우, 기념 퍼레이드, 대중가수 공연 같이 과거 행사관행을 답습하여 지역 고유의 장소성이 퇴색되고 있음

- 개최시기는 가을에 편중되어 관광객이 접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부문의 자율성 활용이 미흡함
- 인사동, 대학로, 홍대 앞 등 특화거리는 지역공간의 특이성 상실과 조잡한 상가 출몰로 인해 개성없는 상업공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음
- 서울의 야간관광은 바(bar)와 카페, 카지노 및 디너쇼, 야간쇼핑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이나마도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외래관광객이 즐기기에 한계를 지님

(3) 생태·녹색 관광자원

-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풍부한 산악자원이 있으나 외래관광객이 실제로 찾는 산은 도심의 남산 정도에 불과하며, 관광적 관점에서의 산악자원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상품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산악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북한산의 자연학습 프로그램과 자연학습 탐방로가 있으나,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역할에 국한되며, 외래관광객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라 하기 어려움
- 한강 수면을 생태관광자원화 한 곳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나마도 어린이용 자연학습장 수준으로 관광객이 체험 가능한 생태관광상품으로 기능하지 못함

(4) 레저 관광자원

- 서울의 산악 자연자원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은 등산 정도에 불과하며, 산악트레킹, MTB 등 보다 참신한 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은 매우 미비함
- 여러 가지 레저활동이 가능한 한강시민공원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수목과 잔디가 부족하며,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 수상스키, 수상스쿠터 등 수상 레저활동 시설은 반포지구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공원으로의 잠재력에 비해 여의도, 뚝섬, 잠실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이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함
- 한강 유람선은 선내(船內)의 이용 및 편의시설이 미비/조잡하며, 한강 주변의 경관이 단조로워 수상의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로 기능하기 어려움

3) SWOT 분석

(1) 주요 강점

- 서울은 고도(古都)로서의 매력과 현대적인 거대도시로서의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잠재력이 많은 도시임
- 동북아의 중심 도시의 하나이며, 최근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교류증진으로 인한 관광 확대 기대
- 도심과 부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위락시설이 산재하고 쇼핑관광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

(2) 주요 약점

-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성이 부족하며, 아직도 보는 관광 위주의 상품개발로 전근대성을 띠고 있음
- 관광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수급분석도 미비함
- 교통, 숙박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관광안내체계 등 전반적인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음

(3) 기회 요인

- 최근 동북아지역의 허브공항으로서 인천신공항이 지척에 개항되어 관광객 유인에 도움이 될 여건을 갖추고 있음
- COEX 등 수도권에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국제 비즈니스시설 개장으로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의 유치 전망 밝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와 인접한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4) 위협 요인

-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 교토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도시들과의 국제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예상
- 대내적으로는 부산, 제주 등 지방도시들이 국제 관광도시로 비약하면서 국내 도시와의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

<표 3-58> 서울관광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 동북아 국제협력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 ○ 2000 ASEM 회의, 2002 월드컵대회 개최로 인한 한국의 대표브랜드 서울관광 ○ 600년 고도로서의 역사문화자원 풍부 ○ 현대적 메가시티로서 매력성 강화 ○ 도심 및 부도심의 위락시설 및 쇼핑관광 기반 시설 양호 ○ Hi Seoul Festival 등 지역축제 증가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이용률 미흡과 체험관광상품화 미비 ○ 상습적 교통지체와 대기오염 문제 심각 ○ 외래관광객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숙박시설의 절대량 부족 ○ 전통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부족과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의 활성화 미흡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도시관광 연계루트 부족 ○ 서울만의 독자적 이미지 및 상징 부재 ○ 국내 경기침체 및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축
기회	위협
○ IT발전으로 디지털문화컨텐츠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가능 ○ 한류열풍 확산 ○ 한강의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화 가능 ○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용산민족공원 통한 도시녹지 공간 확보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관광객의 계속적 성장, 특히 중국,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대두	○ 외래관광정책 강화에 따른 일본, 중국의 관광경쟁력 증대 ○ 위엔화 절상압력 및 달러대비 원화강세추세 ○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 교토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국제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 부산, 제주 등 지방 주요 도시의 국제관광도시로의 비약

2. 계획과제

-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의 해결
 - 단체여행사에 의해 패키지로 유도되는 외래관광객 방문 목적지가 수익성이라는 한계때문에 지방관광에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일원에만 지나치게 국한되는 것은 한국관광의 큰 한계라 할 수 있음. 서울은 외래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임

- 그러나 제주나 부산, 경주 등을 제외하면 지방에 외래관광객들이 머물만한 적합한 관광숙박시설이 부재하고 쾌적한 식·음료 업소가 부족함.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인바운드 주요시장으로부터 항공편 직항이 연결되는 국제공항이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수도권 위주의 도시형 관광일색이 되어버려 자연지향관광이나 지방의 순수 한국의 역사문화, 향토체험 등을 통한 관광상품 다양화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
- 향후 서울권의 관광개발 방향은 지역협력형 지방정부와 서로 상생하면서 광역단위 관광연계망을 조성하여 지역협력형 관광산업으로 자리 매김이 필요함

○ 문화/자연해설기능의 강화

- 서울권의 관광상품의 최대 약점은 해설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방문객을 감동시키고 방문경험에 대한 기억을 오래가게 할 수 있는 해설기능은 관광상품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문적인 해설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해설판이나 브로셔 등으로 해설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체계적인 해설원 양성교육과 해설관련 시설마련 등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됨
- 역사문화관광의 활성화: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고궁과 박물관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전통문화행사의 상설화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홍보강화
- 자연 및 레저자원의 적극 활용: 한강, 북한산 등 서울이 지닌 산악자원과 수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관광과 레저관광 상품화 도모, 한강지역의 각종 조류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지역에 대한 탐조관광의 활성화 시도
- 현대적 문화행사의 차별화: 각종 현대 문화행사와 축제는 장소성과 개성,

그리고 독창성이 부각되는 관광상품으로 재구성하고 정례화, 문화행사와 축제 등의 기획, 집행에 있어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

- 외래객 야간 관광수요의 충족: 야간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야간 쇼핑 공간의 확충과 서울 야경의 관광상품화 도모, 홍대와 신촌, 압구정 등의 야간 쇼 및 카페, 호텔 등의 카지노 산업의 활성화
- 쇼핑관광의 촉진: 명동, 이태원,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 외래객이 자주 찾는 쇼핑명소와 관광특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서울의 재래시장의 관광상품화와 홍보 강화

o 관광지원체계의 선진화

- 관광기반시설 확충: 호텔 등 숙박시설, 컨벤션시설, 위락시설, 관광안내체계, 공중화장실 등 관광관련 기반시설의 확충과 국제적 수준 확보
- IT의 전략적 활용 및 관광안내시스템의 완비
- 관련법령·제도 선진화
- 관광투자자원 확충

□ 서울의 관광계획은 전통적 관광지표인 관광객수 증가, 평균체류기간 연장, 관광수입 증대 등에 기반을 둔 외래관광객의 유치보다 서울에서 경험하는 관광체험이 즐거움과 추억으로 가득 차고,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초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

(1) 동북아 관광시장의 치열한 경합과 변화를 고려함

-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 동북아의 중심, 대륙관문의 관광교류도시로서 관광비전 설정
- 서울의 관광산업은 현재 일본과 중국 양쪽에 잠식당할 위기임. 주변경쟁국

의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대량 관광송출국(일본, 중국)의 인접도시로써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 서울은 거대한 역사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중국, 친절한 관광 서비스와 쾌적한 관광인프라를 갖춘 일본과 차별화된 관광매력 창출이 주된 과제임
- 서울은 자연경관(중국), 리조트시설(일본)은 상대적 열세이나, 첨단도시, 쇼핑, 레저, 문화전통 등 다양한 협의의 공간내에 관광자원을 복합화 시키고 전통문화, 생활양식, 음식, 대중문화 축제 등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관광자원을 재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덧붙여 관광상품화 노력이 필요함

○ 세계적인 브랜드의 테마파크 서울(수도권 인근)에 유치 통한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구축

- 주변의 대규모 관광시장(중국, 동남아)을 겨냥한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휴양시설 개발 육성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활용하여 외자유치 활동 전개

○ 국제회의시설 등 대형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숙박, 음식, 문화, 위락시설 등 다기능적 시설을 컨벤션 산업과 연계하여 개발

(2) 현재 하드웨어(H/W) 중심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문화컨텐츠 중점의 소프트웨어(S/W) 및 스토리텔링 등 관광연출력의 강화

○ 기존 서울 관광계획은 하드웨어(H/W)중심의 물리적 개발(계획 및 설계)에 중점을 둬. 서울의 지역특성을 살린 지식, 문화, 창의, 감성 등 문화컨텐츠를 충분히 활용한 개발이 필요함

- 문화와 내용, 스토리가 없는 공허함을 관광시설로 메우고 관광시설만 있고, 이에 따른 관광컨텐츠와 관광고유의 디자인(아름다움)이 미흡
 - 문화해설기능이 미약, 체험형 레저수요의 흡수 미흡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소유권 보호에 미흡
- 문화컨텐츠(S/W)관광개발 전환 위한 하드로부터 소프트로, 양으로부터 질 강화
- 작아도 특색 있는 관광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이제 하드웨어만 중시하는 관광진흥계획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음. 다양한 문화관광컨텐츠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관광컨텐츠, 그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갈 필요성이 있음
- ※ 예: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안데르센(H. Andersen)의 동화),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질허(F. Silher)의 노래), 그리고 로마의 스페인 광장(오드리 헵번(A. Hepburn)의 로마의 휴일)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까닭은 관광컨텐츠 통한 관광연출임
- 최근 관광분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영역파괴가 진행되고,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끄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관광객들은 고만고만한 가격과 기능 보다 개성과 감성을 구매함. 서울관광의 소프트 경쟁력은 역사/문화/자연자원을 복합화하여 이를 기획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
- 관광산업은 아이디어 전쟁이며,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소프트웨어가 핵심 성공요인
 - 자연경관, 문화재 관람 수준을 넘어서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 이벤트 관광상품, 안내시스템, 서비스품질 향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질적 경험을 다각화 시킴

- 관광시스템에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서울의 시간과 공간, 지역과 거리를 극복한 관광융화상품의 기획, 생산/홍보/판매
- 지식, 첨단기술의 해설(PDA)과 유비쿼터스 관광
- 테마별 문화유산해설가이드 및 프로그램 보강
- 한류관광을 활용한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전통문화 등이 복합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 드라마, 가요, 영화 등 연예 위주에서 음식, 쇼핑 등 각 분야로 한류 열풍 다원화를 유도, 산업군간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3)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조화 지향

- 중저가 관광호텔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외래관광객의 숙박난 해결이 필요
 - 일반모텔의 관광호텔로의 진/출입 제한을 완화시켜 일정수준 이상의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호텔로 수용함
 - 장기 체재자 또는 가족단위 체류를 위한 주거호텔의 도입
 - 국제수준의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중저가호텔(Budget Hotel) 지원
 - 유명호텔과 체인화(서비스의 표준화, 공동브랜드 사용 등) 지원

(4) 핵심, 보완적 테마로 구분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 현재 단순, 획일, 저품질, 이미지 부재 속에 서울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이 없는 실정임. 서울관광 상품은 동북아 타 도시(동경, 상하이, 북경)와 차별성, 정체성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재 지역관광산업을 논하면서 서울에 대한 기초연구가 거의 없음
- 서울의 특성이 무엇인지? 서울의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의 경쟁력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특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무엇인지?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반영함



<그림 3-8> 서울의 관광경쟁력

- 핵심테마: 도시/오락형(city entertainment tourism): 주간은 역사문화체험,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하고, 오후는 스포츠, 문화이벤트, 야간에는 쇼핑임
 - 서울 관광산업의 지식집약화가 가능한 관광분야로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고급문화관광, 이벤트 및 5대궁궐 등 역사체험공간의 관광상품화, 특색 있는 레저산업, 놀이공원(Amusement park), 사이버 관광 등임
- 보완테마: 연극, 뮤지컬, 음악공연 등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의료시설, 건강관리, 병후건강관리 등 보건관광(health tourism), 미용 및 성형결합 (beauty tourism), 어학연수 등 교육관광(education tourism), 연수세미나, 세 일즈관광(business travel) 등임

- 특히 성형 및 미용 관련 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지원, 건강과 치료목적의 방문객은 장시간 체류하며 관광지출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기에 서울 특화관광상품으로 잠재력이 높음

※ 예: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교육과 의료도 관광 상품'이라는 전략으로 의료시스템과 여행사를 연계, 건강여행 패키지, 영어·중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임

- 지속가능성에 대한 친환경도시 건축 관광프로그램: 청계천, 서울숲, 난지공원 등 환경복원의 도시공간 이노베이션 체험패키지 관광프로그램 개발
- 5대궁과 관련된 역사체험 상품개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활용): 문화재청과 협의 필요

○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 관광코스화

- 왕궁탐방로, 가회·인사동길, 대학로, 덕수궁·경희궁, 남대문·명동 중심지구 등 도보관광코스 개발
-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선정, 외국인의 체재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기반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특화관광사업을 발굴·육성함

○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연계

- 국악, 탈춤, 민속놀이 등 특색 있는 전통예술 공연상설화 및 관광상품화
- 국립극장, 국악원, 정동극장, 운현궁, 서울놀이마당, 남산 한옥마을 등 연계 시킴

○ 한강의 관광자원화, 거점지역 연계, 수상관광 레크리에이션 활성화(여의도, 뚝섬, 상암, 한강, 잠실)

- 도심에서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제고(한강지구와 버스, 지하철역과 연계, 표지판 개선)

- 유람선 운항을 다양화하고 유람선 공연, 유람선 레스토랑, 通勤船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황포, 마포, 광나루 등 옛 나루터, 압구정 등의 옛 정자터,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역사복원
- 한강 연계 이벤트 : 정조대왕 주교도하, 한강다리 밟기 대회, 돛단배 경주대회 등 복원
- 특색 있는 보행자 전용 한강다리 건설 추진 후 문화예술·경관조망공간으로 활용

○ 고유 음식문화 체험관광상품(대장금 한류 음식관광 패키지)의 개발

- 주제별 특화식품 개발 : 궁중음식 외에도 삼계탕, 불고기, 죽, 떡, 구절판, 신선로, 건강식 등
- 식당 환경개선 및 퓨전메뉴 개발, 외국어 메뉴서비스 개선(외국어 병기)

(5) 기본기를 갖춘 관광기초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 현재 저가형 숙박시설 등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 부족, 국제 수준에 미달하는 관광안내서비스 수준임
- 외국인의 체재관광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표지판 개량, 관광지도 개선, 화장실 개량 등이 필요함
 - 관광 기초 환경 경쟁력(숙박, 언어, 친절, 안내, 도로표지판) 강화
 - 관광정책, 제도적 경쟁력(관광행정전문화, 관광인력의 고급화) 강화
 - 관광 교통서비스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외래관광객 교통불편 해소
- 특색 있는 쇼핑환경 조성, 외국어 가능 안내원 배치, 환전소, 은행, 화장실 확충, 시티투어의 활성화 및 복합 승차권 제도의 도입

- 인터넷의 다국어 관광안내 및 예약서비스 제공, 음식점 외국인 예약서비스의 체계적인 시행
- 청계천, 서울숲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관광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환경 파수꾼제의 도입 및 관광소음규제 조례 지정

(6) 주요 관광업종의 가격경쟁력 강화

- 환율인상, 항공료 인상, 비싼 숙박요금 등은 태국과 중국 등 관광경쟁시장과의 관광경쟁력 열세를 가져와 갈수록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은 감소함. 관광업계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광상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서울관광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서울의 관광업종은 외국에 비해 높은 고정비 부담, 낮은 설비투자효율, 높은 객실가격 및 낮은 수익성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1천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임
 -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으로 미주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부담이 늘어났고, 영세율 폐지로 관광호텔의 객실부담금이 10% 이상 올라감에 따라 한류열풍을 활용하기 어려움(도시 체재비 세계 11위(\$486.39), 하루 음식비 세계 15위(\$131.94)의 높은 비용구조임)
- 이에 반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 관광에 대한 기본인식 전환 및 관광규제를 줄이고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건 미흡: 고물가, 출입국 절차, 교통 및 언어불편, 위생문제, 외국어 안내체계 미흡 등
 - 가격요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사치업종에서 제외시켜 40여종의 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나도록 함

- 서울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함

(7) 관광산업의 전문화, 대형화, 복합화 등 산업 클러스터망 구축

- 호텔, 여행업 업종을 집적(agglomeration)할 수 있는 지구지정 및 영세한 전/후방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관광산업의 종다양성 확보(쇼핑업체, 향토토산품, 통/번역업체, 이벤트업체, 운송/렌터카, 관광인력공급 업체, 보험사 등) 위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 우리 문화와 예술성이 가미된 고품위 관광기념품의 발굴 및 유통지원으로 쇼핑관광의 활성화 추진
 - 서울관광기념품센터 면세점 운영(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작품판매 및 유통센터 기능 병행)
- 차별화된 장기적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
- 인사동,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등 재래시장의 쇼핑상품 관광명소화
- 공항출국장에 환급사무소 설치 및 사후면세점 지정(중앙정부 부처와 협의)

(8) 중점목표시장 설정 및 서울 홍보활동 효율성

- 명료한 해외타깃시장 구분이 없음
 - 외국인 대상 홍보기법이 단조롭고 홍보물에 대한 투자 부족
 - 언어권별 홍보물 부족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근거리 시장 주력이 필요함
 -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10년에는 현재의 일본인 관광객수에 버금갈

것으로 예측됨. 정부는 2011년 1천5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중국관광시장의 성장추이를 감안할 때 도달 가능성 또한 상존함

- 세계 관광시장에서 중국은 방문자수, 수입액 순위 모두 5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내 외국인 관광객중에서도 중국인인 일본인(43.1%)에 이어 2위인 9.8%를 차지하고 있음
- 근거리 국제선 항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간 통합항공운송시장 구축이 필요함. 유럽의 저비용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유럽통합항공운송시장의 구축이 전제되어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음

○ 서울관광의 핵심이미지 홍보 및 표적시장 홍보 강화

- 외국인에게 비쳐진 서울 관광이미지의 정기적 조사
- 2·30대 젊은층 관광수요 및 needs를 파악(Test-bed 기능) 후 홍보강화
- IT환경에 맞는 첨단 관광정보의 제공

○ 국가별 주 여행정보원에 주목하여 마케팅 차별화

- 외래관광객 유치지역을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등 중점목표 마케팅 관광시장을 설정, 여타지역은 국별, 지역별 특성을 살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감
- 세계 3위의 국제 관광객 송출국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방한 관광객수는 최근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음. 중국 관광시장과 경제대국인 일본 관광시장과의 교류/연계를 강화,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적극 활용함. 중화권 시장은 한류, 눈, 쇼핑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 강화
- 일본인 홍보에는 김치, 맛있는 음식, 오랜 전통/역사/문화 외에 드라마 및 촬영지 등 식문화의 다양성 강조, 부상하는 13-34세의 젊은층, 노령은퇴자

및 가족관광 수요층 유치 등 시장개발이 필요함

○ 신규 관광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 한류 관광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강화

- 근거리 시장에 주목함(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 신규 관광시장 개척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홍보사업비 지원 등)

(9) 서울 관광추진체계 위한 관광과의 다면적(多面的) 역할 부여

○ 서울 관광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서별 상호 협력체계 및 사업 승인시 협의, 인/허가 절차의 간략화 등 계획추진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강화함

- 서울 관광과는 관광진흥계획의 총체적 연출자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면적 역할을 수행함

<표 3-59> 서울관광추진체계 위한 관광과의 다면적 역할

다면적 역할	세부 기능
기획자	총체적인 방향성 제시 및 세부시행과제의 기획
조정자	관광진흥계획은 종합실행계획으로서 여타 실국과 협력체계,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자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관광부문은 직접 참여
촉진자	금융적 지원제도를 이용한 지원, 세제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홍보
규제자	관광시장의 질서유지, 규제기능, 관광행정의 지도 예) 퇴폐와 향락적 요소에 대한 단속, 환경오염 혹은 교통유발 등에 대한 지도 및 규제

○ 실질적인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

○ 관광산업의 동향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자료 제공

○ 서울 관광진흥을 이끄는 관광재원 확보

- 서울 관광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조달이 뒷받침 되어야 함

(10) 관광시설 및 관광산업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광 참여 기회 확대

○ 수도권 집중은 전국 관광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에 수도권 광역개발이 필수적임. 전국을 다양화 시키고 특화시켜 수도권 지역간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함

○ 관광요금 할인제도 도입 검토

- 공원, 관광지, 박물관, 기념관 등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요금할인 확대 검토

○ 장기적으로 교통수단, 관광지, 숙박, 위락시설 등에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할인 유도

○ 혼자 여행하는 노약자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숙박업소에서 유료 간호인 연결 서비스 제공

- 지역의 관광안내소, 병원 등과 연계

○ 장애인을 위한 특별 관광프로그램 개발

○ 여행 바우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철도, 항공 등의 교통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테마파크, 레스토랑 등 시설에서 운용



〈그림 3-9〉 서울 관광의 접근방법의 전환

제Ⅳ장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제1절 서울시 관광비전 및 목표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구상

제3절 서울시 관광소권별 관광개발 구상

제4절 서울시 전략별 관광개발 추진계획

제Ⅳ장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제1절 서울시 관광비전 및 목표

1. 서울시 계획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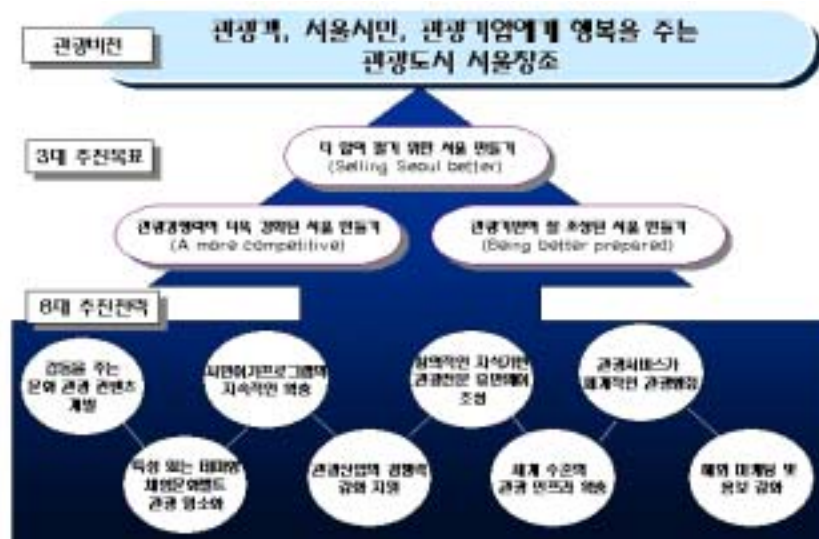
1) 서울 관광의 미래상

- 분야별 관광미래상은 국제교류측면에서 관광교류도시 조성, 문화생태측면에서 문화생태도시 조성 시민여가레저측면에서 레저관광도시 조성, 관광산업측면에서 관광산업도시 조성, 유비쿼터스, IT기반의 하이테크측면에서 첨단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관광인프라측면에서 관광행정도시 조성 등에 있음



<그림 4-1> 서울 분야별 관광미래상

- o 분야별 관광미래상을 통해 대외적 지향점은 서울만의 매력과 특성을 살려 외래관광객(2011년 1천만명)이 즐겁고 좋은 추억을 남겨 계속 재방문하고 싶은 곳, 대내적인 지향점은 기존 폐쇄된 여가공간을 열린 공간화하여 서울시민에게 여유로운 여가레저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관광사업자들에게 우호적인 관광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관광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 o 따라서 서울시 계획비전은 ‘관광객, 서울시민, 관광기업에게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서울창조’임. ‘외래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명소 조성, ‘시민’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레저도시 조성, ‘관광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좋은 관광산업환경을 갖춘 관광산업도시 조성에 있음



〈그림 4-2〉 서울시 관광계획 비전과 목표

- o 이러한 관광계획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1천만명 외래관광객(100억불) 유치 달성)

- 서울관광의 핵심이미지 창출
- 성숙/성장/도입시장별 구분된 마케팅
- 관광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광고효과 측정

(2)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서울의 정체성 최대한 발휘된 관광도시)

- 관광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쇼핑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관광특구의 활성화, 외래관광객이 선호할 만한 문화, 역사, 자연자원 등 관광매력을 갖춘 관광명소를 조성함
 - 자연: 한강(서울광장-청계천-서울숲-오페라하우스), 북한산, 남산, 내/외4산
 - 역사문화: 5대궁 및 재현프로그램,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현대성: 세계수준의 e-sport, 레포츠, 쇼핑 등
 - 사람: 최고의 관광가이드, 친절함 미소
- 서울의 대표적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싸고, 품질 좋고, 풍부한 경험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체험브랜드(Hi-Seoul Brand)를 창출함.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하여 특색 있는 서울의 관광매력을 창출함. 특히 서울형 전략관광프로그램은 아래의 서울의 5대 관광자원을 통해 매력을 증가시킴

<표 4-1> 서울의 5대 관광자원

자연	역사문화	현대성	사람	수도성
한강: 오페라하우스, 한강공원 등 문화관광자원 확충, 수상교통망, 수변 숙박시설 등 설치	궁궐 등 재현프로그램 확대	서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최고의 가이드(문화유산 해설사)	서울의 역사·문화 등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요소
청계천/서울숲: 도심 문화/환경재생의 현장 극적 변화 상품화	살아있는 전통 문화공간 확충	세계 수준의 오락시설, 공연, 레포츠, 쇼핑, 이벤트 등의 개최	친절한 미소 등	수도·역사의 상징 궁궐
내·외4산: 서울만의 자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환경		컨벤션 산업, 편리성, 쾌적성		

- 이 외에 호텔업서비스 향상, 여행/관광업체 육성 등 관광 산업체 경쟁력 제고,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 관광해설사의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인력 bank 구축 등을 추진함

(3) 관광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 (관광객이 지도만 가지고 불편없이 혼자서 여행이 가능한 관광도시)

-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인프라를 선진화하며, 관광명소의 대중교통과 교통망 연결, 관광안내시스템의 체계화 및 다양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등 관광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다양한 관광교통수단을 활용한 관광교통체계 구축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별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
 - 관광안내소 서비스체계의 선진화 및 관광안내소 운영체계 개선

- 관광코스 중심의 교통관광지도를 개선하여 유용한 정보제공 및 이용의 편리성 도모
- 불편 없는 교통, 교통안내표지판, 관광도로 조성
- 규제완화 등 관광관련 제도의 정비

2) 2011년 서울시 관광계획 비전과 목표의 철학

- 서울시의 지역정체성(Seoul Identity)을 통해 서울만이 지닌 지역고유성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2011년 까지 관광의 흐름을 고려함

<표 4-2> 서울성의 분류 및 성격

서울성		성격
지역적 영역	국제성	세계도시로서 서울
	전국성	수도(首都)로서 서울
	광역성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서울
시간적 영역	역사성	정도 600년의 도읍지 서울
	현대성	최첨단 현대도시문화의 중심, 세련됨, 편리함, 화려함
	고속성	빨리빨리 사회, 압축적 근대화, 분주함과 생동감
사회문화적 영역	다양성	공간적 다양성, 사회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 즐거움, 재미, 볼거리, 혼잡함
	소외성	쓸쓸함, 외로움, 방황
	역동성	전통과 현대의 공존, 시공간 변화의 가속화, 생동감, 자유로움, 어지러움, 시끄러움
공간환경적 영역	고밀성	초고밀도 도시, 복잡하고 답답함, 만원 서울
	거대성	삭막함, 딱딱함

(1) 서울의 정체성

○ 국제성: 세계도시로서 서울

- 세계적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제고 및 세계문화교류의 중심지 기능 수행
- 동북아 3개 수도(首都)도시 공동협력마케팅의 구심체

○ 광역성/수도성: 전국의 중심인 600년 도읍지 서울

-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의 전략마련
- 중앙정부, 시민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권) 네트워크의 구축

○ 역사성/자연성/다양성/역동성

- 역사성의 현대적 회복, 도시문화유산의 친밀성 회복
- 한강과 내·외4산으로 둘러싸인 환상형 도시생태계를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
- 전통과 현대의 공존, 생동감,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

○ 현대성, 고속성, 거대성이 크로스오버 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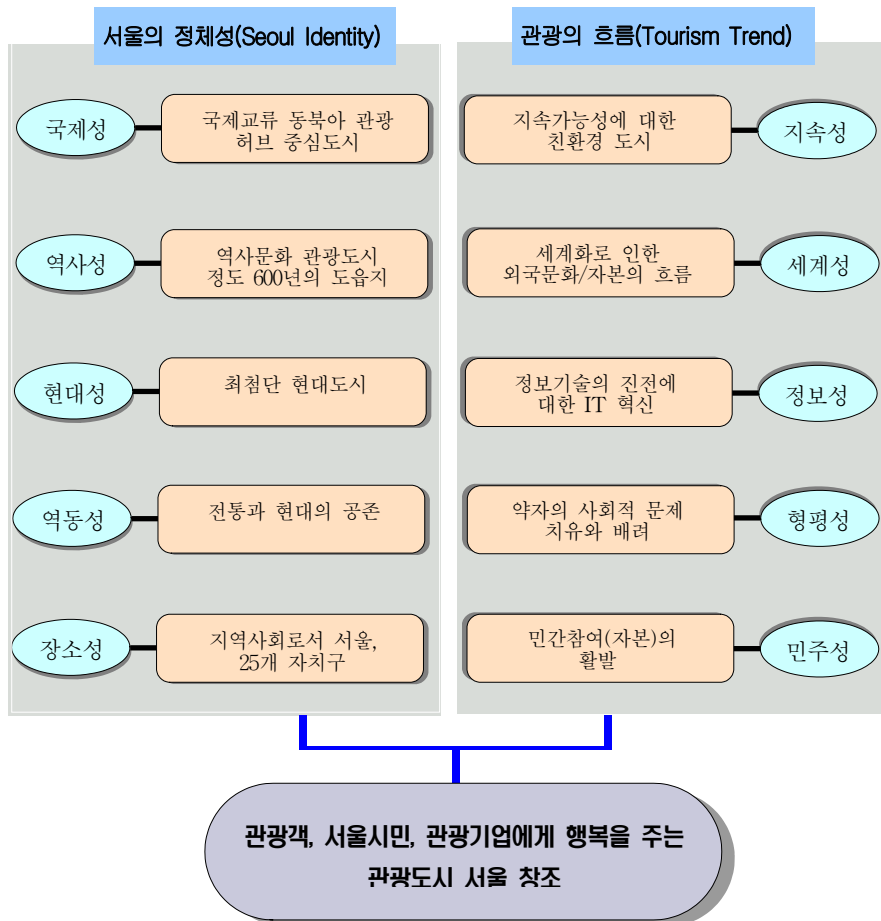
- 최첨단 현대도시문화의 중심, 세련됨, 편리함, 화려함
- 24시간 도시로 진입(편의점, 패스트푸드, 사우나, 은행거래기 등)
- 빨리빨리 사회, 압축적 근대화, 분주함과 생동감
- 초고밀도 도시, 복합시설을 갖춘

(2) 관광의 흐름

- 환경에 대한 도덕적 의무(지속가능성에 대한 친환경 관광도시): 난지공원, 청계천, 서울숲, 수변공간(한강 및 양재천, 탄천 등 지천의 환경복원 등)을 활용

한 도시여가공간의 지속적인 관광리노베이션의 계속적 진행

- 세계로 향한 국경 없는 열립 경영: 동북아시아 수도 도시 간 신속하고 국경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을 동북아 한자문화관광벨트의 관광 허브 축으로 위상강화
- 첨단 정보기술의 진전에 대한 IT혁신(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하되 감성/감동적인 홍보): IT 기술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관광정보망의 실현
-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문제의 치유로서 관광레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의 해결
- 지식경제, 문화적 다양성(영상, 미디어, 방송, 창작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문화디지털 콘텐츠를 결합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 민간참여(자본)의 활발: 관광행정의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와 경영마인드의 도입
- 서울 관광 진흥계획은 기존 단위사업위주의 관광시책에서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이해관련자의 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과제를 이행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됨



〈그림 4-3〉 서울시 정체성과 관광추세를 반영한 서울관광비전 설정

2.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 첫째,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Selling Seoul Better), 둘째,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A more competitive Seoul), 셋째, 관광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Seoul-being better prepared)로 규정됨
- 관광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기초로 본 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계획기간내 실현가능성과 정책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함

<표 4-3> 서울 관광계획의 3대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3대 추진목표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 (Selling Seoul Better)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 (A more competitive Seoul)	관광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 (Seoul-being betterprepared)
해외마케팅 및 홍보강화	시민여가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충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관광행정 서비스 제공
	창의적인 지식기반 관광전문 휴먼웨어 조성	
	특성있는 테마형 체험/문화벨트 관광명소화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3대 추진목표는 치열하게 경합하는 환(環)태평양, 동북아 관광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首都)도시로서 1천만명 외래관광객(100억불) 유치 달성, 시민의 풍요한 삶이 편안하고, 재미있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청정도시, 지식기반 첨단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아 오고 싶은 매력적인 아시아 관광중심도시를 조성함

1) 환태평양의 동북아문화권(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중심엔터테인먼트
관광거점도시로서, 태평양시대의 중추 서울관광

- 서울을 품격 높은 관광브랜드 및 높은 고객충성도를 지닌 환태평양의 선진 관광도시 구현함.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 공항통관시스템의 개선과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등 국제도시로서 기반조성 △ 외래관광객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홈스테이(Home-stay) △ 관광·컨벤션도시 육성 △아시아 학술·문화교류 거점도시 △아시아에 대한 공헌 등의 구현
- 특히 베이징과 동경은 서울이 세계적 관광목적지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력, 교류관계 등에서 최적의 협력대상인 동북아 3수도도시임. 따라서 '베세토' 3각 도시 관광벨트 조성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흐름 속에서 바람직한 동북아 관광/경제협력체 구성이 될 수 있음
 - 한·중·일 3국간 교류와 협력통해 한자, 유교 등 문화적 동질성과 각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3국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3국 소프트 산업(감각(韓)/문화원형(日)/기술(日)) 등 각국의 문화소프트 산업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함
 - 고요함(靜), 인간미(愛), 신비함(妙)의 특성을 지닌 동양의 문화를 제시하여 Asian Wave를 형성함
- 서울시는 베세토 3각 관광협력벨트가 구축되면 세 도시간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물 제작을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시킴. 한편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관광정보 교환 등이 뒤따라 관광교류가 증진될 것임. 대규모 관광교류전과 현지 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국제적 이벤트를 자주 열고 세 도시간 자유로운 관광교류를 가로막는 요인인 출입국 관리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할 것임

2) 예술문화가 살아 쉼 쉬고 언제 어디서나 이벤트가 열리는 창조적 도시 어메니티 서울관광

- 도시의 아름다움, 건강함, 청결함과 같은 쾌적한 여가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객(outsiders)은 자유로움의 만끽, 서울시민(insiders)은 창의적 문화가 갖추어져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이 있는 문화관광환경과 창조적인 사람들이 단지 관객에 머물지 않고 그 무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서울의 대표적 상징적 랜드마크 구축할 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연결된 문화벨트를 통해 도시 곳곳을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함

3) 자원기반에서 지식/첨단기술기반의 문화컨텐츠 관광상품 및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서울 관광

- 기존의 관광개발방식은 물리적 자원개발(H/W)중심으로 이루어 지던 방식을 무형적 관광문화컨텐츠(S/W)에 대한 관광문화컨텐츠를 확보함. 또한 문화 행사와 축제, 지역별 이야기, 설화, 역사이야기 등에 대한 해설체계와 진흥방안이 필요하며 테마별 스토리텔링을 통해 풀어가는 방식을 도입함
- 지식기반의 미래사회는 문화 바탕없이 첨단기술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관광 문화정책이 공연, 영상, 출판, 디자인, 관광, 문화재, 체육, 미디어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아지고 있음.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영상·게임·음악·출판·애니메이션·방송·광고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고부가가치문화상품개발, 우리문화산업의 해외진출지원 확대 등 동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함
- 복합관광문화 클러스터의 도시로서 문화컨텐츠 상품에서 기획/기술/경영 분야의 특히 관광산업의 기반은 복합엔터테인먼트 산업클러스터()기반 조성함.

다른 영역 및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 교육(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사업 등은 좋은 사례임

- U-Tourism플랜'을 도입하여 유비쿼터스 정보관광 인프라를 구축함.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관광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능형 유비쿼터스(Ubiquitous) 첨단미래 관광도시통한 종합적이고 디지털화된 지역관광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종합적인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PDA, MP3 등)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화 확산함.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트래블'(U-Travel) 시대가 열렸다. 유-트래블'이란 유명 관광단지 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관광안내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구축함
- 디지털마케팅
-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유비쿼터스 기반 관광정보 정보화
- 단말기 보급, 콘텐츠 개발위한 연구개발(R&D)
- 문화/관광거리에서 공연관련 정보를 단말기로 전송받아 민속공연 예약을 한 뒤 단말기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다양한 이동경로들이 나타난다. 공연 관람 후 점심때가 되자 음식점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얻어 한국전통음식을 맛봄

4) 생태복원도시로 여가공간을 갖춘 서울 도시숲

- 환경의 시대에 맞아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간에 대한 높은 열망을 다양한 형태의 생태숲, 도시숲 조성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계획의 실천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자연복원의 현장리노베이션 도시 서울관광을 현장감 있게 보기위한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성, 환경성, 곳제성, 문화성 등 서울관광을 보다 다양하고 고차원적으로 발전케 할 것임.
- 서울 시민들은 서울을 대체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면서도 녹지가 부족하고 건축물들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며,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하다고 인식함. 생태적으로 건강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계획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생태숲 조성함
-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원재조성(남산, 청계천, 용산미군기지 등)이나 재단장 처럼 서울시에서 새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정도인데 비해 공원조성 후 새로운 시설이 전면적으로 보강되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공원부지의 재활용임
 - 남산리모델링: 철조망을 없애고 자갈길이나 흙길로 바꾸며 출입을 막고 있는 소로를 산책로와 연결하여 숲속 깊숙이 개방함. 목도설치, 웅덩이와 연못을 조성함. 남산의 생태와 남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축제개발
 - 기존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을 새로운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형태와 성격의 공원을 통한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완성

3. 서울권 관광 발전지표

- 서울의 관광계획비전에 따라 목표연도 2011년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함. 관광개발 계획지표(발전지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함
- 비계량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최우수 등급을 주고,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따라서, 질적 목표는 향후 서울시 관광진흥위원회를 질적 평가자문단을 활용함으로써 비계량적 지표의 등급별(9등급 평가) 부여조건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권 국내국민관광총량은 기존 국민관광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전국 국민 국내관광 규모인 약 6.5억명에 대한 약 5.7%인 5천6백20만명/연간을 목표로 함. 또한 서울권 국민관광회수는 약12회/년으로 여가생활화 정책 계획목표인 월 1회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함. 이는 국민관광시대, 2011년을 제 2의 서울관광진흥 기반마련의 계기가 될 것임
- 한편 외래관광객수는 전국단위 외래관광객 방문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이 국제교류 관광중추지역으로서 2011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수는 약 1천만명을 목표수치로 함.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 1천달러를 적용하여 연간 관광수입 약 100억달러의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함

<표 4-4> 서울관광계획 발전지표(2007-2011년)

	2007년	2011년	비고
서울권 국내국민 관광총량	5천3백78만명/연간	5천6백20만명/연간	전국 국민국내관광 규모인 약 6.5억명에 대한 약 5.7%
서울권 국민관광 회수	6.0회/연	약12회/연	여가생활화 정책 계획목표인 월 1회 기준
외래관광객수	6,000만명/연간 수용	1,000만명/연간 수용	세계 25위권→15위권(국가기준)
관광수입	59억달러	100억달러	세계 20→10위권(국가기준)
고용창출	270만명	330만명	
관광 GDP	4.7%	8.0%	문화관광부, 관광진흥5개년 계획상 수치를 활용함

제2절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구상

1. 관광개발 체계 및 공간체계 구상

1) 기존 계획 검토

- 상위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제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기존 계획 검토 필요
- 변화된 관광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권역 구분의 타당성 검토 필요

<표 4-5> 기존 계획 상의 권역 구분

설정 근거	권역 설정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2-2011)	- 도심 및 북서부 : 종로, 중, 성북, 동대문, 성동,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 북부 :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 한강 및 주변 - 남동부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남서부 : 관악, 동작, 금천,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2002-2006)	- 북부 :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은평 - 도심 : 종로, 중, 용산, 동대문 - 동부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 광진 - 서부 : 관악, 금천, 구로, 양천, 동작, 영등포, 강서, 마포, 서대문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안)	- 도심 : 종로, 중, 용산 - 동북 :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 동남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서남 : 관악, 금천, 구로, 양천, 동작, 영등포, 강서 - 서북 : 은평, 서대문, 마포



<그림 4-4>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 설정



<그림 4-5>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이종규, 2001)의 권역설정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서울의 공간구조 구분 :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 대생활권 : 도심부 + 4대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자족성을 추구하고 통행유발
을 감소

<표 4-6> 4대 생활권

대생활권	상주인구(2001년)	중심지
동북생활권	339만	왕십리/청량리
서북생활권	122만	상암/수색
동남생활권	209만	영동
서남생활권	304만	영등포/여의도



<그림 4-7>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구분

-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 용산, 상암, 마곡, 문정, 장지, 뚝섬
 - 용산은 기지 이전 후 공원을 주기능으로 함
 - 뚝섬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유지·관리



<그림 4-8>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본구상도

<표 4-7> 2020년 서울의 주요 정책 지표 변화

구분	2001년	2020년
1만명당 문화시설 수	0.78개	1개
도심광장 조성	없음	시청 광장 등 3곳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자치구당 1개	자치구당 2개 이상
문화지구조성	인사동 문화지구 1곳	홍대, 대학로 문화지구 서초문화예술지구 남산문화예술지구 청담문화예술지구 (화랑 및 패션)
문화벨트조성	역사문화탐방로 1곳	청계문화벨트(역사·도심문화 산업) 한강문화벨트(시민 위락/공원) 잠실문화벨트(스포츠·레저/대중문화)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 특히, 600년의 역사성과 현대적인 업무·상업공간이 공존하는 도심과 접한 배후 도시의 중심지로서 도시에 유입하는 교통을 차단 또는 흡수하도록 도심의 일부 기능을 수용토록 한 부도심의 도시기능은 도시관광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도심 및 부도심 중 용산과 영동 지역은 관광잠재력이 큰 자치구와도 중첩되고 있어 관광계획 공간체계 수립시 중심지 체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8>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구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
도심	도심	용산	-	한남	종로, 용산, 중
동북	-	청량리 왕십리	미아, 상계, 망우	화양, 중곡, 군자, 금호, 구의, 건대입구, 전농, 면목, 묵동, 종압, 동산, 선관, 방학, 쌍문, 수유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	-	(수색*)	연신내, 신촌, 공덕	불광, 남가좌, 응암, 홍제, 아현, 서교, 합정, 수색	은평, 서대문, 마포
동남	-	영동	천호, 길동, 잠실, 사당, 남현	도곡, 개포, 방배, 양재, 수서, 가락, 암사, 이수, 문정, 고덕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	-	영등포	목동, 대림	신정4거리, 등촌, 신월, 화곡, 신정,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시흥, 신길, 신풍, 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 난곡4거리, 봉천, 독산, 신림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계	1	4	11	54	25

주: 부도심 중 수색은 2001년 이후의 장기구상임

자료: 서울특별시, 「2011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1997, p. 78

3) 권역 설정

- 기존의 계획 상에서의 권역 설정을 따르는 방법은 다음의 세 방안이 있음
 - 1안 : 상위 계획인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서울시 자원분포에 의한 관광기능별 권역 설정을 따름
 - 2안 : 계획수립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선행 연구(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2001년 발행)의 권역을 따름

- 3안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생활권을 따름
- 1안을 적용할 경우, 도심 및 북서부가 구분되지 않아 상업 및 업무기능의 중심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며
- 3안을 적용할 경우, 서남 및 서북 지역의 대표적 관광이 부족하여 관광자원의 유형과 분포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2안을 적용하도록 하며, 권역 설정과 중첩되는 벨트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함

<표 4-9> 권역의 설정

구분	지역 범위
도심지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동남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서남지역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북부지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그림 4-9> 서울시 권역별 구분

4) 권역별 관광거점의 설정

-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확충되어 있고 인근의 개별 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 곳으로 각 관광지역내 관광거점을 선정토록 함
-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각 지역들은 지역의 관광특성에 따라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시장분석을 통해 밝혀진 시장별 선호도에 의해 각 지역별 목표시장을 표적화하여 이후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표 4-10〉 지역별 관광거점의 설정

구분	관광거점	지역범위
도심지역	청계천 일대	남대문, 동대문, 인사동,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명동 등
	남산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타워 등
동남지역	COEX · 학여울	COEX몰, 학여울 등
	서울숲	뚝섬 등
서남지역	홍대	홍대, 신촌, 여의도 공원, 63빌딩 등
	상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공원 등
북부지역	도봉산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등
	숙정문	숙정문, 북악산, 삼청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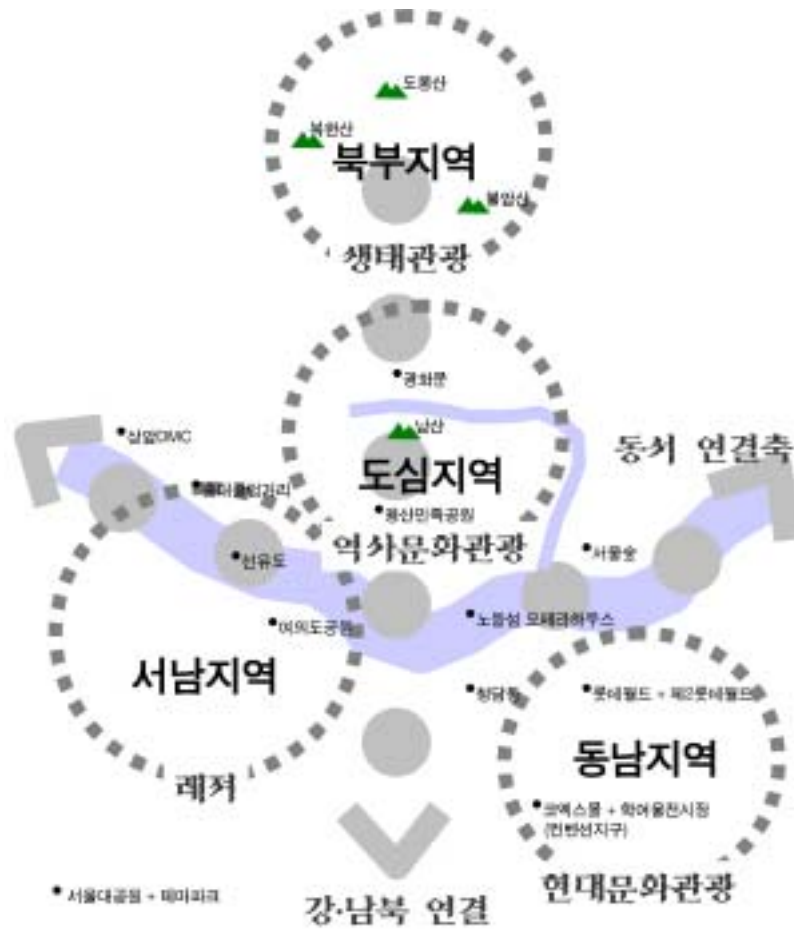
5) 지역 및 거점별 주제 선정

- 각 관광지역의 자원특성 및 향후 해당지역이 담당할 관광기능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개발주제를 선정토록 함

- 청계천 친수공간 및 다양한 역사적 문화자원, 쇼핑명소가 풍부한 도심지역은 도시친수공간 및 역사문화·쇼핑지역으로 육성하고, 컨벤션 등 현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남지역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서 이미지화하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및 홍대, 신촌 등의 서남지역은 청년문화 및 생태·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며, 도봉산, 숙정문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생태관광 및 역사문화지역으로 설정함

〈표 4-11〉 서울시 관광계획의 공간체계 구상

구분	관광거점	연계 관광자원	개발방향	개발특성
도심지역	청계천, 남산	명동, 정동거리, 대학로, 이태원	역사문화관광	• 도시친수공간 및 역사문화 /쇼핑 지역 • 역사문화체험의 중심지로 육성 • 서울시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유도 • 친수문화공간의 벨트화 추진 • 쇼핑관광 활성화
동남지역	COEX/학여울, 서울숲	롯데월드, 예술의전당, 압구정 로데오거리	현대문화관광	• 복합 엔터테인먼트 지역 • 컨벤션 단지를 활용한 현대문화관광의 허브 구축 • 도심환경 재생현장의 관광상품화 • 고급 문화의 관광상품 개발
서남지역	홍대, 상암월드컵 경기장	신촌, 여의도	레저	• 청년문화 및 생태·레저관광지역 • 청년문화 중심의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 쇼핑·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 육성 • 한강을 활용한 레저활동 공간 확충
북부지역	도봉산, 숙정문	정릉	생태관광	• 생태관광 및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자연환경 보존과 조화 • 산악자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림 4-10〉 서울시 관광계획 공간체계 구상도

제3절 서울시 관광소권별 관광개발구상

1. 도심지역

1) 관광자원 특성



<그림 4-11> 도심지역 위치도

- 종로구, 중구에는 서울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고궁과 남대문, 동대문, 종묘 등의 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박물관 및 기념관 등 수많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의 새 관광명소이자 도심문화/환경 재생의 현장, 친수·문화공간으로 거듭남
- 그밖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정동극장 등의 대형 공연장이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 및 예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도심지역은 이외에도 쇼핑관광을 위한 여건도 잘 조성되어 있음. 남대문시장, 동대문 시장 등의 재래시장, 인사동의 골동품 시장, 외래 관광객 중심의 명동, 이태원 등의 관광특구는 서울의 여타 상권과 함께 쇼핑관광의 핵을 이루

고 있음

〈표 4-12〉 도심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고궁 및 사적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윤현궁, 경희궁, 남대문, 동대문, 종묘, 남산골 한옥마을
박물관 및 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전쟁기념관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정독극장, 국립극장, 한국의 집
쇼핑/문화의 거리	남대문시장, 동대문상권, 경동약령시장, 인사동, 명동, 이태원, 대학로
기타	청계천 산책로, 서울타워, 청와대

2) 개발기본구상

☐ 서울시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유도

- 서울시 관광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관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취득,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정보체계를 확보하고, 도심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 외 지역, 서울 외곽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관광연계지역으로 활용
- 서울관광의 핵 역할로서, 관광활동의 출발이자 도착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관광시설과 교통인프라 정비

☐ 역사문화 체험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역사문화관광 지역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유적 관람 중심의 정적인 관광에서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동적인 관광형태로 변모하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육성함

□ 수상문화자원의 벨트화 추진

- 복원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숲, 노들섬, 선유도를 연계하는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서울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외래방문객에게는 흥미로운 자연관광 매력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음

□ 쇼핑관광 활성화

-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쇼핑관광 명소로 알려진 지역의 노후한 불량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경동약령시장, 동대문 품물시장 등 외래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강화

3) 도심지역 공간개발구상

- 도심지역 중의 청계천, 남산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며, 지역내 자원간 연계성을 위하여 명동, 정동거리, 대학로, 이태원을 부거점 지역으로 설정하여 서울시 도심지역 관광기능을 강화시킴

〈표 4-13〉 서울시 도심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관광 자원	기능	세부기능
청계천	거점	• 자원간 연계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 • 서울시 관광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관광의 거점 기능 역할
남산	거점	• 도심지역의 자연·휴식 공간의 확충
명동	부거점	• 도심지역의 쇼핑·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관광객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 기능 확충
정동거리	부거점	•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심지역 역사문화 벨트의 중심지 역할 수행
대학로	부거점	• 젊은이들의 낭만·예술의 거리로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지 역할 수행
이태원	부거점	• ‘서울속의 외국’으로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 쇼핑과 관광의 명소로 거듭 • 도심지역의 패션·문화 중심지로 육성



〈그림 4-12〉 도심지역 공간개발구상

4) 중점추진전략

□ 4대문안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 조선왕조 600년 수도인 서울의 중심부인 4대문 안에 산재한 각종 역사/문화 유적을 연계한 특화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도심부 도보관광코스 개발/운영
- 4대문 안 문화재, 고궁,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구성한 기존 도보관광 코스를 전문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함

〈표 4-14〉 현행 운영중인 도보관광코스

구분	소요시간	거리 (km)	코스현황
정동일대	2시간	1.4	덕성~중명전~(구)러시아공관~경희궁~역사박물관
	1시간30분 (관람시간제외)	1.2	덕수궁(궁중유물전시관, 덕수궁미술관)~시립미술관~경희궁~역사박물관
경복궁 일대	4시간	4.3	경복궁~삼청동길~인사동
	3시간	2	경복궁~청와대앞길~효자동사랑방
창경궁 일대	2시간30분 (창덕궁 제외)	2.7	종묘~창경궁~(창덕궁)
	1시간40분	1.8	종묘~창경궁~문묘
대학로	3시간	2.4	대학로~이화장~낙산공원 *자율도보코스
명동 남대문	2시간	1.6	남대문시장~명동~명동성당 *자율도보코스
청계천	3시간	3.4	시점부광장~광통교~광교~수표교~관수교~세운교~배오개다리~오간수교
북촌 일대	3시간	3.5	운현궁~북촌문화센터~불교미술박물관~오죽공방~궁중음식연구원~가회박물관~매듭공방
	3시간	3.5	운현궁~옷칠공방~종친부~가회동 31번지 한옥촌~하늘물빛~단 한국문화연구원

-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문화·관광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서울 명소지역 도보관광코스 개발

- 주요 역사/문화유적을 5대 거점으로 구분
 - ①근대문화중심 거점(덕수궁, 정동, 역사박물관), ②전통문화중심 거점(남산 한옥마을, 경복궁, 북촌, 인사동), ③젊음의 거리 거점(대학로 일대), 역사/④ 생태중심 거점(청계천 복원 구간), ⑤쇼핑중심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 거점별 문화자원 발굴/연계 및 제반 인프라 구축: 변의 다양한 문화시설·행사, 쇼핑, 음식점 등을 연결한 관광상품 개발 / 관광안내판, 벤치, 안내소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 관광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
- 서울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한 5대 거점의 연결. 특히, 근대문화중심 거점과 전통문화중심 거점 등 2개의 거점을 복원 중인 서울성곽과 연결한 노스텔지어 지역(nostalgia region)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관광객에게 복고적 여수(旅愁)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북촌문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북촌문화센터 및 홍보전시관 운영

<표 4-15> 북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기관명	항목	내용	기관명	항목	내용
가회 박물관	체험 분야	민속강좌(민화찍기, 부적찍기)	우리집 게스트 하우스	체험 분야	한옥숙박, 일상문화체험
	전화	741-0466/ 741-4766		전화	744-0536
	주소	종로구 가회동 11-103		주소	종로구 계동 104-3
	URL	museum.dnip.net		URL	-
하늘 물빛 전통 염색 연구소	체험 분야	천연염색, 전통매듭, 쪽보자기	유스 패밀리	체험 분야	다도, 한복입어보기, 김치담그기, 예절배우기, 붓글씨체험
	전화	741-6352		전화	3673-0323
	주소	종로구 삼청동 35-167		주소	종로구 가회동 11-28
	URL	www.macart.co.kr		URL	www.korea-family.com
락고재	체험 분야	숙식, 식사, 세미나	연강 죽장 전시관	체험 분야	오죽이용한 소품만들기
	전화	742-3410		전화	3676-7519
	주소	종로구 계동 98		주소	종로구 원서동 41
	URL	-		URL	-
서울 게스트 하우스	체험 분야	한옥숙박	안국 게스트 하우스	체험 분야	전통가옥체험
	전화	745-0057		전화	736-8304
	주소	종로구 계동 135-1		주소	종로구 안국동 72-3
	URL	www.seoul110.com		URL	angukhouse.com

- 문화센터는 전통문화강좌와 전통풍속행사장을 제공하고 시연을 지원하고 북촌 내 공방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하여 전통생활체험교육 장소화
- 홍보전시관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북촌의 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문화교실강좌 개설 운영 (대지 697.50m2, 연면적 237.32m2)
- 북촌 전통장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전통공예와 전통문화를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
- 도보관광 주요 코스에 전문 해설사를 배치, 국내외 관광객에 직접 동행 설명 안내 지원
 - 주요 코스 문화유산해설사 육성 활용 : 총 95명 (영어 40명, 일어 45명, 중

국어 4명, 내국인 전담 6명)

-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실시
- 문화유산해설사 추가 양성 : 신규 해설사 30명 양성
- 문화유산 해설스토리 개발 : 동화작가 등을 통해 도보관광코스 해설가이드
북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로 개발/제작
- 문화유산해설사 인터넷 수기집 작성 : 도보관광예약사이트에 해설과정에서
의 에피소드 등 '해설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고궁이야기' 코너를 신설

□ 청계천 코스모폴리탄 라인(Cosmopolitan line) 활성화

- 청계천 복원사업은 태평로 입구(시점) ~ 신답철교(종점) 5.84km 구간을 '03.
7. 1 ~ '05. 9. 30 (사업비 : 3,867억원) 시기내 복원함
 - 청계천 복원을 통해 문화·자연·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창출
 -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을 개발하여 서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코스 확대 : 북촌, 청계천 코스 연계
- 복원 청계천은 서울시민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 친수공간
인 동시에 서울광장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와 인접하여 서울을 방문하
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코스모폴리탄 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래 관광객들의 밀집 점점을 점차적으로 청계
천 라인의 여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선 탑골공원, 종묘, 동대문
등 문화자원과 연계가 용이한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을 중심으로 외래관광
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표 4-16> 청계천 관광/문화 프로그램

구분	관광/문화 프로그램
청계천 축제	시민참여 행사, 주변상가들의 빅세일 행사
도보관광코스	청계천의 역사유적지와 8경을 연계하는 청계천 도보 관광코스 운영
시티투어버스	기존의 시티투어버스의 고궁코스를 변경함으로써 청계천과 주변 고궁, 인사동 등 인기명소를 연계
청계천 거리예술공연	청계천의 22개 다리위에서 버스커(Busker)라고 불리는 거리예술가의 공연
전통문화재현	수표교 다리밟기, 편싸움, 연등 행사 등의 전통행사 재현
청계천 시민 걷기대회	시민걷기 대회를 정례화하여 청계천 명소화

자료 :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도심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 2005

- 현재 청계천변을 조망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순환버스(Yellow Bus)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일반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있어 청계천의 상징성을 제대로 부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외형 및 색상을 변형한 새로운 형태의 순환 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3> 청계천 안내도

- 일광 지역(Sunshine road) 운영
 - 하계 휴가 시즌에 한해 산책도로의 일부 구간을 일광욕 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휴가를 떠나지 못한 서울 시민들의 간이 휴양욕구를 충족시킴
- 기념 구간(Celebration zone) 운영

- 특정 기념일을 기해 청계천의 일정 구간을 기념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문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함. 예를 들어 발렌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의 경우 연인들이 공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함

○ 청각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강화:

- 현재 복원 청계천 구간은 22개의 다리와 다양한 조형물이 물 및 조명과 어울려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음.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야간을 중심으로 계절에 맞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로맨틱 가도(romantic road)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함. 또한,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 청계천 주요 지점의 정보가 입력된 소형 라디오를 제작하여 대여해줌으로써 어느 지점에서 도보관광을 시작하더라도 불편함이 없게 유도함

○ 해피타임(Happy time)이벤트 실시

- 청계광장에 움직이는 시계탑을 설치하여 매시간 방문객의 시각적 즐거움을 유발함과 동시에 특정시간대에는 의미를 부여하여 그 시간에 특정한 행위를 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식의 시간으로 연출함

□ 승례문광장 조성

- o 휴식공간과 보행로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경관미를 제고하고, 국보1호인 승례문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 o 광화문~시청~승례문~서울역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 o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를 넓히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보행환경 개선
- o 광화문광장은 정부의 광화문복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상시 문화예술활동 전개

- 연중 전통문화 공연 : 남산한옥마을, 운현궁, 서울놀이마당 등
- 전통문화 재현 : 과거, 종묘, 사직대제, 연등축제 등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 종합축제, 전시판매장
- 북촌한옥마을
- 청계천과 서울광장, 덕수궁과 시립미술관, 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연계
- 세종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젊은이를 위한 ‘야간문화’ 조성
- 심야라이브콘서트, 심야예술영화, 전통예술공연, 전시회 등
- 서울광장 : 여름 영화상영, 동절기 스케이트장 운영

□ 남산의 관광상품화 적극 추진

- 남산은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목을 이루는 푸른 수림경관이 훌륭하고, 산 꼭대기에서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임
- 또한 전통정원과 전통한옥 다섯채를 복원한 남산한옥마을에서는 주 1~3회 전통예술공연 프로그램이 진행
-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 연계 필요
 - 남산의 전통예술공연 프로그램은 상설공연이기는 하나 주 1회 내지 주 2~3회 공연밖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국립극장, 국악원, 정동극장, 운현궁, 서울놀이마당, 남산 한옥마을 등 연계시켜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국악, 탈춤, 민속놀이 등 특색 있는 전통예술의 관광상품화 필요
 - 전통 국악공연장 건립 : 남산한옥마을내 300석 규모

- 서울유스호스텔 설치 : 중구 예장동 (구) 시정개발연구원

- 내4산(북악산-인왕산-낙산-남산)을 연계한 자연탐방형 연계순환벨트를 조성하여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과 역사경관 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함. 서울의 멋진 야경과 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성곽따라 10km 산책코스 프로그램’을 조성함

- 김구광장~남산식물원~남산타워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탈바꿈함으로써 개나리, 진달래, 벚꽃나무가 심어진 아름다운 숲길임
- 정상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곳곳에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



〈그림 4-14〉 남산 순환로

□ 5대 궁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및 고궁 축제

- 4대문안 궁궐을 소재로 한 궁중문화행사를 연례화하여 궁궐을 찾는 국내외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① 경복궁: 조선왕조의 궁궐을 대표하는 정궁으로 조성, 국가오례 재현행사의 전문화, 청화대 연계 관광 코스 개발
 - 세종대왕 즉위의식 재현 및 조선조 궁중의상 패션쇼 재현
 - ② 창덕궁: 궁궐의 전통 조경양식 부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홍보활동 강화, 후원의 풍류문화 체험상품 개발
 - ③ 덕수궁: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대한제국 황실문화 체험상품 개발, 정동일대 및 원구단과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
 - 궁궐 상설문화행사 실시(왕이나 왕비의 하루 일상생활 모습을 매월 주말마다 재현함으로써 국내외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관광수요 증대)
 - 덕수궁 대한문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일일 상설운영)
 - ④ 창경궁: 고궁으로 특성화, 궁중아악·무용공연 전문화
 - ⑤ 경희궁: 궁중다례, 전통혼례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역사박물관과의 밀접한 연계상품 개발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을 전통과 품격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정착
 - 궁성문 수위의식, 행렬의식(순라), 교대의식을 병행 실시 수문장복식체험, 수문장캐릭터퍼즐놀이, 수문장캐릭터 다트게임, 순장패 스탬프 찍어주기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 600년 수도, 500년 왕도(Royal City)의 상징공간인 4대문 안의 대표적인 왕도문화 재현행사로 정착시켜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함
- 숭례문 개장에 따른 숭례문 파수의식 행사실시 (일일 상설운영)
- 숭례문 파수의식, 행렬의식(순라), 교대의식을 병행 실시

□ 쇼핑여건 개선과 재래시장 관광 활성화

- 남대문·동대문: 기존의 재래시장과 대형 패션몰이 공존하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정비안 구상
- 인사동: 연중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한국 전통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유도
- 경동약령시장: 한약재를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으로서 전통적인 방식의 건강상품의 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화 전개
- 동대문 동물시장: 한국의 대표적 벼룩시장이었던 황학동 시장의 명성을 이을 수 있는 적극적 마케팅 전개

□ 나이트 라이프 관광상품 개발

- 시티투어버스 야간관광코스의 조정
 - 한강다리 조명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공원 및 유람선 선착장 등으로의 시티투어 노선 확대
 - 야간에 교통체증이 없는 점 과 관광객이 방문 도시에서 야간문화(night life)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 등을 배경으로 개설됨

<표 4-17> 심야 시티투어버스 노선

심야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
광화문 - 프라자호텔 - 롯데호텔/조선호텔/프레지던트호텔 - 서울역 - 남담누시장 - 밀리오레/세종호텔 - 동대문시장 - 소피텔 - 신라호텔 - 타워호텔 - 남산타워 - 힐튼호텔 - 하얏트호텔 - 이태원 - 여의나루 - 홍대앞 - 신촌이대 - 광화문

- 심야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은 숙박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함. 저녁식사가 끝나
는 오후 9시부터 늦은 취침을 할 수 있는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한강유람선 선착장이나 고속철과 연계해 서울의 중요
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인 한강을 비롯한 주요 야경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¹⁾.

○ 야간공연의 육성과 관광상품화 추진

- 전통예술 공연(정동극장)과 연극 및 뮤지컬 공연(대학로) 및 야간문화관광
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는 홍대지역, 대학로, 인
사동, 북촌,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태원, 월드컵공원, 천호동, 삼성동, 압구
정동, 예술의 전당일대 등임

① 홍대지역

클럽문화와 고급카페 문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야간문화관광명소다. 1990년대
대중화·상업화·대형화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인디문화의 메카’로 자리잡
은 클럽문화는 최근 ‘클럽데이’라는 자생적인 지역문화행사의 핵심컨텐츠로 자
리잡고 있다. 클럽데이 행사는 매회 만여명의 젊은이들로 성황을 이루는 지역
행사로 시민단체와 결부된 클럽문화협회에서 기획,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한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체제 개선방안」, p.86

장의 티켓으로 하루 동안 모든 클럽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행사다. 홍대지역은 ‘문화발전소’, ‘문화인큐베이터’ 등으로 불림

② 남대문

“한여름밤의 메사 쿨 페스티벌”과 같은 야간문화행사가 개최. 메사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메사가요제, 인형극, 연예인 코스프레, 여름 휴가 반납콘서트 등이 세부행사내용으로 진행됨

③ 인사동/사간동 미술관 밀집지역

- 인사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미술거리
 -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점인 통문관을 비롯하여 서울시 내 골동품 상점의 41.5%, 화랑의 38.8%, 필방의 91.8%가 밀집
 -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련 업소 약 200여 개소 밀집
- 인사동에 음식점, 노점상 등이 들어서는 등 관광거리의 분위기가 강해지면 서 인사동에 바로 인접한 사간동이 새로운 화랑거리로 부각
 - 사간동에는 현대화랑, 금호미술관, 금산갤러리, 국제화랑, 인화랑, 사간화랑, 아트선재센터 등 13여 개의 화랑이 밀집
 - 인근 경복궁 내에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박물관이 있어 전통과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능
 - 아트스페이스 서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가옥에 마련된 전시장이 있음
 - 국제화랑은 국내외 거장의 전시를 진행해 온 사간동의 대표적 화랑중 하

- 4대역사문화자원의 야간관광 매력 증대
 - 서울시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연장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야간문화관광자원은 점·선·면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역별로 야간문화관광 자원을 구분할 수 있음

<표 4-18> 서울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구분		자원
점		문화시설물, 문화재, 주요 건축물 등
선		교량, 거리 등
면	야경 특구	한강, 청계천, 월드컵공원, 남산, 여의도, 잠실, 예술의 전당, 인사동, 봉은사, 세종로, 서울시청 등
	관광 특구	명동·북창동·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등
	관광 명소	정동, 세종로, 인사동, 종로, 남산, 대학로, 신촌·홍대지역, 압구정·청담, 강남, 삼성, 잠실, 이태원 등

〈표 4-19〉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및 야간교량 현황

유형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	참여비(단위:원)
공연 관람형	난타공연관람	20:00-21:30	넌버벌퍼포먼스 난타공연 관람	65,000 85,000(VIP석)
	Beat of Korea	18:00-21:00	정동극장 전통공연관람 한정식	70,000
	Jeongdong Theater	18:00-22:00	정동극장에서의 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30-22:00	정동극장에서의 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00-22:00	난타극장	62,000
	TokebiStorm Performance	-	-	65,000 85,000(VIP석)
전통 문화 체험형	Korea culture experience	17:00-20:00	한국의 다도 및 산채 김치장과 전통음식 전통놀이배우기	99,000
야경 관람형	night of Seoul	18:00-22:00	63빌딩 및 한강유람선	69,000
	Seoul Tower and Dongdaemun market tour	18:00-22:00	서울타워, 동대문시장	65,000
	Seoul Tower and Night Shopping	-	-	50,000
	Han River Ferry and Observatory	-	-	75,000
야간 쇼핑형	night shopping tour	18:00-22:00	서울타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명동, 이대앞	69,000
	Night Tour	18:00-22:00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야간쇼 관람형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서울타워, 한국의 집, 한정식	99,000(뷔페식) 115,000(풀코스)
	Walker hill Gala Night	18:00-22:30	쉐라톤워커히카지노, 한정식	99,000
	쉐라톤워커히쇼	18:00-22:30	한강야경관람, 워커히쇼, 한정식	97,000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한국의 집 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풀코스)
	Night tour	16:00-19:00	한국의 집 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풀코스)
	쉐라톤워커히쇼	18:00-22:0	한강야경관람, 워커히쇼, 한정식	97,000

교량					
1	청담대교	자양동 - 청담동	8	반포대교	용산서빙고동 - 서초동
2	올림픽대교	구의동 - 풍납동	9	한강대교	용산한강로 - 노량진본동
3	가양대교	마포상암동 - 강서가양동	10	잠실대교	광진자양동 - 송파잠실동
4	원효대교	원효로 - 여의도동	11	양화대교	마포합정동 - 영등포당산동
5	성산대교	마포망원동 - 영등포 양평동	12	당산철교	마포합정동 - 영등포당산동
6	동호대교	옥수동 - 압구정동	13	광진교	광진광장동 - 강동천호동
7	동작대교	용산이촌동 - 서초반포			

2. 동남지역

1) 관광자원 특성



<그림 4-15> 동남지역 위치도

- 동남지역에는 COEX몰, 롯데월드, 테크노마트 등 현대적인 도시경관 속에서 인공적인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비문화공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 서울숲, 올림픽 공원, 석촌호수 공원 등이 소재해 있어 정비된 도시기반 시설과 함께 깨끗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압구정동과 청담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각종 고급 부띠끄와 카페 및 화랑 등이 밀집되어 신흥 고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음
- 교통편이 편리한 강남역은 각종 여학원과 극장, 유흥 시설 등이 공존하면서 분당권의 소비층까지 흡수한 젊음의 거리로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

<표 4-20> 동남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공원/테마파크	COEX몰, 롯데월드, 석촌호수공원, 올림픽 공원, 잠실한강시민공원, 서울숲
소비문화공간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역, 테크노마트, 워커히 카지노, COEX카지노
기타	예술의 전당

2) 개발기본구상

□ 현대문화관광의 관광허브 구축

- 컨벤션 단지과 각종 문화 거리가 집약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심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현대문화관광 이미지를 적극 판촉
- 동서축으로 분포한 주요관광자원에서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허브(Hub) 중심지로서 삼성역(COEX)과 잠실역(롯데월드)을 거점·부거점화 할 필요가 있음

□ 도심환경 재생 현장으로써의 서울숲 관광상품화

- 한강유역과 연계한 생태 탐방 프로그램 강화 (길동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밤섬, 선유도 생태공원, 월드컵공원 등과의 연계)
- 문화예술공원, 공연장소 확충 등으로 서울시민의 예술 문화활동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고급문화의 관광상품화

- 현대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 개개인이 타인과 차별되는가가 키포인트임. 특히, 경제력에 여유가 생길수록 예술문화활동 및 명품 소비에 관심

을 기울이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예술관광 육성을 위해 동남지역의 우수한 공연시설과 소비문화 거리를 활성화하여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3) 동남지역 공간개발구상

- 동남지역 중의 COEX/학여울, 서울숲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며, 지역내 자원 간 연계성을 위하여 롯데월드, 예술의 전당,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부거점 지역으로 설정하여 서울시 동남지역 관광기능을 강화시킴

<표 4-21> 서울시 동남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관광 자원	기능	세부기능
COEX/학여울	거점	• 서울시의 대표적인 국제무역과 문화교류의 장 •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 및 전시·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
서울숲	거점	• 서울 동부의 대규모 도시숲으로 시민들의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됨 • 한강 및 청계천과 연계되는 서울 동남지역의 녹지·문화축 역할
롯데월드	부거점	• 관광, 위락,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 테마파크 • 주변의 석촌호수와 함께 동남지역의 시민 휴식·휴양공간이자 놀거리·즐길거리의 메카로 육성
예술의 전당	부거점	• 동남지역의 대표적 복합예술센터로 LG 아트센터 등의 문화공간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의 문화적 주체성 및 국제적 연대성을 높이도록 함
압구정 로데오거리	부거점	• 고급 레스토랑 및 카페 밀집지역으로 예술의 전당 및 코엑스 지역과 연계한 고급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주요관광자원현황 동남지역



<그림 4-16> 동남지역 공간개발구상

4) 중점추진전략

□ 엔터테인먼트 중심형 관광 육성

-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 관광의 확산 전략의 하나로써 동남지역을 제2의 관광거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도심지역과는 달리 활기찬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포지셔닝함
- COEX몰 일대 컨벤션 단지의 거점화
 - 고양시의 컨벤션 센터(KINTEX)가 건립되면서 수도권 국제 컨벤션 시장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나, 편리한 교통, 특급호텔 등의 기반시설과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COEX몰,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이 위치하여 고효율성의 관광이 가능함
- 복합엔터테인먼트 거점화
 - 청담·도곡 지구, 잠실 지구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국인 엔터테인먼트 소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말 서울 시내 카지노 업장으로 COEX에 위치한 한무 컨벤션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의 세계적 인도어형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 롯데월드를 연계한 국제적 컨벤션·복합 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심환경재생의 현장 - 서울숲 활성화

- 근대 서울의 산업화로 위한 도시기반시설 공간이었던 뚝섬은 1950~80년대 서울경마장, 체육공원으로 여가공간을 활용하였으나 2005년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한 서울 숲을 새롭게 조성
 - 성동구 성수동일대 약35만평 (여의도공원의 5배)

- 사업비 투입은 약 2,353억원(보상비 1,688, 공사비 665)

- 주요시설은 5개 테마별 공간배치

- 문화예술, 생태숲, 체험학습, 습지생태, 한강 주변공원

- 서울숲 조성효과 및 관리

- 야생동식물 관찰 : 8종 72수(고라니, 사슴, 다람쥐, 조류 등)

- 도심녹지축 형성 : 북한산 ~ 종묘 ~ 청계천 ~ 중랑천 ~ 서울숲 ~ 한강

- 시민여가형 한강수변 레저공간 확충

- Green way 조성으로 광화문(종로, 중구, 성북) ↔ 청계천 자전거전용로 ↔ 중랑천(광진, 성동, 중랑, 동대문, 강북, 도봉) ↔ 한강시민공원(강동, 강서) ↔ 서울숲의 지하통로 접근로 개선

- 생태교실, 곤충 배우기, 물길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조기 마감에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의 수 및 인원의 확대 실시 필요

- 한강유역의 생태공원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길동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밤섬, 선유도 생태공원, 월드컵공원 등



<그림 4-17> 서울숲 마스터플랜

□ 고급문화관광 육성

- 예술의 전당, LG아트홀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공연시설들은 강북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정동극장 등의 건축연도가 오래된 공연장들에 비해 시설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 강북중심의 문화공연 체험의 기회를 강남으로 확대하여 내국인에게는 문화향유권을, 외국인에게는 우수 예술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함
- 청담동·압구정동의 유명 명품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한 쇼핑관광, 다양한 갤러리를 중심으로 관람관광, 특색 있는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한 여유로운 식음관광을 엮어 서울의 여타지역과는 차별되는 고급 이미지의 관광지역 (Luxury zone)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청담동에 위치한 화랑들은 미술시장을 겨냥한 고급 상업화랑
- 90년대 초반부터 집중되기 시작하여 강남의 신촌 문화벨트로 급성장
 - 가산화랑, 갤러리 퓨전, 카이스 갤러리, 갤러리 마담포라, 원화랑, 이목화랑, 조선화랑 등 4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화랑들이 밀집
- 다양한 현대미술의 유통과 소비의 장소
 - 청담동의 주 소비층은 부유한 중년층
- 이미 국내에서는 청담동·압구정동이 고급문화지향적 장소로 인지되고 있으나, 외래 관광객에게 소개되는 각종 홍보물에 부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청담동·압구정동에 관한 정보는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3. 서남지역

1) 관광자원 특성



<그림 4-18> 서남지역 위치도

- 여의도 공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63빌딩 등이 분포하고 있어 기존의 잘 정비된 도시기반 시설과 함께 신흥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
-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개최했던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젊음 문화를 대표하는 신촌과 홍대 지역이 있어 청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서대문구에 소재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들이 거처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청소년 교육의 장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표 4-22> 서남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공원/레포츠	여의도 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양화 한강시민공원, 망원 한강시민공원, 선유도 공원, 63빌딩, 상암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공원
젊음의 거리	홍대 앞, 신촌
기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2) 개발기본구상

□ 상암지구의 쇼핑·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 육성

- 2010년 완공 예정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서울시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으로 업무·상업기능 강화
- 월드컵 경기장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및 난지도에서 새롭게 거듭난 5개의 테마공원(평화, 난지천, 난지한강, 하늘, 노을 공원)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 청년 문화 중심의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간 관광활동이 활발한 서남지역을 야간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야간관광 기능을 육성, 집중 홍보하고, 야간 관광이 부족한 도심지역과 연계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한강을 활용한 레저활동 공간 확충

- 한강은 서울의 주요 수변자원으로서 관광자원의 잠재력은 풍부하나 이를 활용한 수상 레저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레저관광지역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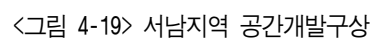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강을 활용한 수상 레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함

3) 서남지역 공간개발구상

- 서남지역 중의 홍대,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며, 지역내 자원간 연계성을 위하여 신촌, 여의도를 부거점 지역으로 설정하여 서울시 서남지역 관광기능을 강화시킴

<표 4-23> 서울시 서남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관광 자원	기능	세부기능
홍대	거점	• 클럽문화,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 출판 등의 문화컨텐츠를 특화시켜 서울 서남지역의 젊은이의 관광명소 및 나이트 문화명소로 활성화
상암 월드컵경기장	거점	• 쇼핑·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남지역의 대표 복합관광지로 육성
신촌	부거점	• 거점지역인 홍대와 더불어 젊은이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의 확충
여의도	부거점	• 서남지역의 금융·증권 등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한강 주변의 생태·문화공간의 역할 담당



4) 중점추진전략

□ 블루 문화벨트(Blue cultural belt) 조성: 청계천-서울숲-노들섬-선유도

- 새로 조성된 대표적 친수공간이자 생태복원지역인 복원 청계천과 서울숲, 그리고 향후 서울의 문화메카가 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육상과 한강으로 연계한 생태/문화관광벨트로 조성
- 청계천: 생태문화관광 공간으로서 전통과 현대, 순수와 대중예술이 피어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며, 이동무대를 설치하여 도심의 문화코스(청계천 문화관 개관, 청계천 다리, 청계천 야간조명을 관광자원화, 시티투어버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조성
- 서울숲: 대규모 도심 생태공원으로 문화예술공원, 가족마당, 야외무대 등 공연장소 확충, 한강수변공원, 자전거도로 등 시민레저공간 조성
- 노들섬: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단지 및 국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한강의 수경공간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및 유원시설 조성
- 선유도: 환경테마공원으로서 현장체험 교육, 하늘공원-선유도공원-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주말 시민여가코스의 개발

□ 상암지구 - 강북 최대의 쇼핑·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 육성

-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서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복합 스포츠·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함
- 디지털미디어센터 등의 비즈니스 센터 확충
 - 2010년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서울시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완성되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담당할 비즈니스 센터로 각광받게 되며

상암지구는 주거·휴식·문화기능과 더불어 업무기능까지 담당하게 됨

-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 이전 등의 업무·상업 기능 강화
-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적극 활용
 - 축구 경기가 없는 기간은 오페라, 콘서트 등의 무대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 기능 강화
- 5개의 테마공원의 이벤트·프로그램 강화
 - 평화, 난지천, 난지한강, 하늘, 노을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주제로 학생/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프로그램 운영



〈그림 4-20〉 월드컵 공원 안내도

□ 클럽문화거리 활성화

- 250여 개 문화산업직종들이 입지: 200여 개의 출판사를 비롯하여 디자인스튜디오, 광고, 영화, 방송, 사진, 만화, 패션, 연극, 인터넷콘텐츠 등과 관련된 회사들이 입지

<표 4-24> 신촌지역과 홍대지역의 비교

구분	신촌지역	홍대지역
이미지	젊은층 소비문화의 용광로	언더그라운드 복합문화공간
입지	부도심	부도심 주변 주택가
소비층	10, 20, 30대의 연령층이 공존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많음	20, 30대 연령층 중심 대학생, 전문직, 예술인이 많음
주요업종	술집, 카페,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여관, 나이트클럽, 극장	라이브클럽, 댄스클럽, 미술학원, 작업실, 소극장
문화	소비문화, 먹거리문화	고급문화, 볼거리문화
거리	분주, 현란, 부딪힘이 많음, 취객, 빠끼	여유, 고즈넉, 특이한 패션의 사람들

자료 : “월드컵 전략지역 장소마케팅 - 홍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2000, p.41

- 홍대지역의 소극장은 순수 연극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예술 장르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
 - 현대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연극과 무용을 선보이는 씨어터 제로, 영상과 퍼포먼스, 음악, 미술이 공존하는 썸스페이스, 시각예술전시장인 대안공간 루프 등
- 홍대지역 주요 업종의 입지요인으로²⁾
 - 소공연장은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
 - 작업실은 문화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문화예술공간의 집적,
 - 클럽은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지역의 상징성)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홍대지역은 인근의 신촌지역과 매우 다른 분위기를 형성
- 홍익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는 카페, 라이브 클럽, 댄스 클럽 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나이트 라이프 문화 명소로 활성화

2) 이선미, '홍익대 주변지역 특정적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75-76

- 또한, 클럽 이외의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 출판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관광자원들과 연계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 개별적 문화 콘텐츠 개발은 홍대 주변의 업소들의 고유 영역으로서 개별 추진하며, 정책차원에서는 문화지구의 지정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많은 대학들이 소재한 신촌 지역도 홍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홍대와 신촌 지역의 개별 문화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소비자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매력 증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에코 체험 라인 구축

- 자연 생태 체험 코스 개발
 - 하계에는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전문가 혹은 생태해설사의 경관 혹은 생태환경에 대한 선상강의와 관찰,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함
 - 밤섬, 선유도 등에 정박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선상에서 망원경으로 탐조, 저녁에는 도시의 야경 감상
- 철새 생태 관찰 코스 개발
 - 동계에는 양화지구-선유도-여의도(샛강생태공원)-밤섬-중랑천 합수부-탄천 합수부-독섬지구를 잇는 철새 관찰 코스 개발 / 선유도 등에 정박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선상에서 망원경으로 탐조
- 연계 체험 코스
 - 한강본류에서의 에코체험 상품을 지천(안양천, 중랑천, 양재천 등)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를 따라 육상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워터프론트 레저 (Waterfront Leisure) 공간 조성

○ 수상공간 활용의 다양화

- 수상공간은 스포츠/레저기능 이외에도 물류기능과 교통기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음. 따라서 한강의 수상공간을 한강 수상교통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서울의 교통문제해결, 물류비용 절감 등 수상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함

○ 수상스포츠 행사의 유치

- 한강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수상스포츠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카누경기, 수영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레저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한강교량의 조형화

- 한강의 다리를 “넘는 다리”에서 “머무르고 싶은 다리” 또는 “조망하고 싶은 다리”로 바꾸기 위하여 한강다리의 확장 또는 개축기회를 활용하여 서울의 경관관리와 한강공간의 매력성 차원에서 기존의 한강다리에 조형미를 갖춘 부착물을 설치하며, 한강다리에 조망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 시티투어버스와 연계

- 현재 한강으로의 접근성 불량과 한강내의 단절적 공간구성으로 한강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서울시 티투어버스의 한 정류코스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리버 파노라마 투어 (River Panorama Tour)

- 한강 혹은 도시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전망 포인트를 발굴하여 경관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함. 대표적으로 서울 숲, 잠실 올림픽 경기장, 노들섬, 절두산 성지, 선유도, 난지캠핑장 및 월드컵 경기장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셔틀형 교통수단과

각 시설에 접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레저.문화시설 신설 및 재배치

- 문화/휴양(21종 50개) 및 운동. 편익시설(21종 105개) 신설.재배치
- 수상스키선착장 바지선(2개소) 및 마리나 시설(2개소) 신설

□ 노들섬의 랜드마크화

○ 서울시 상징적 문화인프라 확충

- 서울 오페라하우스 및 전용콘서트홀 건립
- 상징적 지역을 선정,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화

○ 현재 추진 중인 노들섬 문화예술센터의 건립을 통해 기존의 서울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남산 서울타워와 더불어 수상과 산악의 통합적 랜드마크 네트워크 구축

○ 한강의 생태적 특징을 보존하고 수경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환경과 정서 체험의 공간으로 육성

○ 오페라 전용공연장 확보를 통한 예술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북아 문화허브로써의 서울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

□ 한강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활성화

○ 한강 유람선 투어 개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한강 유람선 코스를 중심으로, 조망 가능한 야경에 대한 스토리를 구상하고, 다양한 선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한강교량 야경투어 코스 개발
 - 각각의 교량에 대한 디자인 컨셉과 이미지에 맞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여 연계 코스화
- 한강교량 접근성 개선
 - 도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지하철역에서부터 도보로 접근 가능한 교량을 발굴하고 접근경로에는 발광물질 등의 안내표식이 마련되어야 함
 -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N라인(night line bus) 혹은 L라인(light line bus) 등의 투어버스 노선 개발 필요
 - 운전기사를 야경 전문가이드로 활용하거나, 투어버스 이용객을 위한 전문가이드를 배치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한강교량에 대한 안내지 등의 홍보책자 및 교량 야경엽서 등의 기념품도 투어버스 내에 구비되어야 함

5. 북부지역

1) 관광자원 특성



<그림 4-21> 북부지역 위치도

- 북부권역의 범위는 서울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한산(837m), 도봉산(740m)과 동북방향의 수락산(638m), 불암산(508m)을 포함하며, 풍부한 산악 자원 분포
-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78.6km²이며 우이령을 중심으로 북한산 지역과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됨. 공원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도시지역에 대한 녹색허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서울의 4대문 중 북대문인 '숙정문'이 2006년 개방될 예정이며, 보안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던 숙정문이 개방되면, 지금까지 보존되었던 주변의 성곽, 소나무숲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표 4-25> 북부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서울시 지정 생태계 보전지역	은평구 진관내동(북한산성) 습지
산림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망우산, 서오름(앵봉산)
녹지	도봉구 발바닥 공원, 중랑구 용마폭포 공원, 중랑구 봉화산 근린공원, 노원구 공릉동 태릉 이스턴 캐슬
지천 (자전거 도로)	암산길 ~ 중랑천 자전거길
경작지	도봉구 도봉동 한천둔치, 도봉구 도봉동 무수굴, 은평구 진관내동
역사문화	숙정문, 도봉서언, 북한산성

2) 개발기본구상

□ 생태관광활동 활성화

-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 활동으로써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적 홍보

□ 역사문화관광활동 활성화

- 숙정문 일대의 역사문화자원 감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탐방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에 대하여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 진행
- 북한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을 활용한 종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북한산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프로그램 진행

3) 북부지역 공간개발구상

- 북부지역 중 도봉산, 숙정문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며, 지역내 자원간 연계성을 위하여 정릉을 부거점 지역으로 설정하여 서울시 북부지역 관광기능을 강화시킴

<표 4-26> 서울시 북부지역 중심공간의 세부기능

관광 자원	기능	세부기능
도봉산	거점	• 북부지역 자연 생태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산악생태 탐방로 조성 등 도시 휴양기능 강화
숙정문	거점	• 숙정문 개방코스를 활용한 북부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 역할 수행
정릉	부거점	• 북한산 초입에 위치한 정릉공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휴식·편의 기능 역할 수행



주요관광자원현황 북부지역



〈그림 4-22〉 북부지역 공간개발구상

4) 중점추진전략

☐ 그린투어(Green Tour) 프로그램 활성화

○ 도봉산

- 도시형 산악생태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육성
- 특정용도 탐방로(special use trail)를 설치하여 학습보다는 위락활동(자전거
용), 관찰데크상 자연학습, 탐승, 생태트래킹, 휴식을 주로 함
- 도시 산악오리엔티어링, 도시산림욕, 숲속 명상 프로그램 등 이용단위 20인
이하가 활용할 수 있는 모험형 관광활동 단체프로그램 도입

○ 북한산 국립공원

- 적극적인 산악휴양활동보다는 소극적인 형태로 순수 자연탐방형 상품으로
이용
- 탐방안내소, 자연 및 역사탐방로를 산림지역탐방로(forest trail), 산책·등
산 탐방로(walking or hiking trail), 그리고 정규학습탐방로(formal teaching
trail)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함

○ 불암산

- 모험형 산악 복합체험 지역으로 육성
- 다양한 지형변화를 이용한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유스호스텔,
오토캠핑장 등의 도입을 통한 자연탐방 활동 여건 조성

○ 생태관광 관리체계 구축

- 전문 생태해설사 양성, 생태자원 이용의 휴식년제 및 예약제 도입, 생태관
광객 행동지침 개발, 환경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의 관광상품화

- 서울성곽 및 4대문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숙정문 개방 코스(홍련사~숙정문~춧대바위)와 서울의 4대문을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서울의 풍수지리,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코스 조성
-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화계사 템플 스테이)
 - 기존의 단기적 선체험 프로그램을 불교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연등제작, 탁본, 사찰순례 등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숙박 및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함
- 유교문화 마케팅 전개 (도봉서원)
 - 서울에 산재한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은 유교문화 유적지로서 관광매력이 풍부한 자원임
 - 계절제의 성격을 갖는 춘향제와 추향제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조다실, 침류대, 도봉계곡 암각글자, 우암 송시열 친필각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루트로 조성함

제4절 서울시 전략별 관광개발 추진계획

1. 관광개발 8대 추진전략

1)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맞춰, 물리적 자원개발(Hardware)방식에서 벗어나 무형

적 문화관광컨텐츠(Software)의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과거 역사, 관광명소의 역사적 에피소드를 이야기 또는 드라마 형식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o 문화컨텐츠, 관광명소, IT,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개발
- o 서울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예술행사, 발전상, 사라지고 있는 서울 풍경, 진솔한 서울 삶의 모습 등을 담은 서울 관광사진전 및 우수사진작품 개발 통해 문화관광컨텐츠 자원 재구성 및 새로운 가치로 창출
- o 각종 관광홍보 컨텐츠 제작에 이미지컷 활용
- o 국내/외 개최 국제관광교역전 및 관광컨텐츠 홍보관 구성 이미지 활용
- o 여행사 등 민간의 여행안내, 관광홍보물 제작에 지원
- o 테마별, 계절별, 용도별 사진작품을 확보하여 관광컨텐츠로 활용
- o 문화유산, 문화자원을 문화관광컨텐츠 관점에서 재구성 및 새로운 가치로 창출
- o 문화관광컨텐츠 발굴 및 문화컨텐츠 소비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적 문화/엔터테인먼트 도시를 조성함

2) 특성 있는 테마형 체험/문화벨트 관광명소화

- o 서울의 개별적 관광명소를 관광벨트화 하여 하나의 연속적 관광공간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문화·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 o 테마형 체험/문화벨트의 이동성 증진을 위해 관광벨트의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관광명소간의 접근성과 연계성, 그리고 이동성을 증진시킴
- (1) 문화관광자원의 유형별 특성, 자원의 집적성, 접근교통체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함

- (2)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청계천-서울숲의 수상문화벨트, 내·외4산의 성곽 복원벨트 등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반한 도보관광코스를 신규로 지정

3) 시민여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충

- o 야간 엔터테인먼트의 활성화로 서울의 야간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간관광, 라이프스타일 관광에 초점을 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하고 서울의 밤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 o 즐겨 찾는 시민여가공간으로 한강을 환경친화적인 푸른 서울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공원의 기능을 다양하게 바꾸고, 역사유적의 복원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 한강을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공간, 문화공간으로 조성
- o 다양한 특별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의 관광객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특정주제와 관련된 장소를 개발하며, 미래의 경쟁력 있는 서울형 테마별 특별체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 o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여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관광 행사를 실시하여 계층간, 지역간 이해증진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에서 장애인, 노인계층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투자를 실시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지원 및 세제상의 각종 혜택 부여

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o 쇼핑관광 활성화위해 고품위 쇼핑관광을 유도하며,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활동을 강화 및 하이 서울 그랜드세일 개최

- “쇼핑 서울의 매력”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 하이서울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
- 외래여행객의 주요활동인 “쇼핑”에 대해 집중적인 프로모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성
- 최고 50%까지 가격할인 판매 및 각종 경품, 이벤트 개최
- 참가업체는 서울시 3개 관광특구지역 쇼핑점 및 주요백화점, 면세점, 호텔 등 30,000여개를 대상으로 함

(1) 하이 서울 쇼핑페스티벌 개최

- 대상 : 국내외관광객 및 일반쇼핑객
- 내용 : 상품할인판매 및 경품, 이벤트 개최

(2)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환경개선(우편택배제도, A/S도입, 표준가격 게재 등)

(3) 쇼핑 관광 거점으로 재래시장에 적정수준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쇼핑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가 및 상점을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내 종합적으로 제공

(4)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소규모 음악회, 패션쇼, 국산 면세품의 염가 판매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연계

o 관광특구의 육성사업 지원

(1)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의 3개 관광특구지역(이태원, 명동, 동대문)을 특색 있게 차별적 육성을 지향함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3개소) : 상징조형물 설치, 이벤트 개최 등

(2) 관광특구평가제도의 도입 및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의 운영

o 국제 컨벤션 산업의 효과적인 지원

- (1) 서울을 향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컨벤션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지원
- (2)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적하여 컨벤션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요인을 유지

o 고품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

- (1) 고품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선진화를 위해 Hi-Seoul 브랜드를 활용한 전문생산업체의 지정, 디자인개발지원, 기술/경영마인드 향상, 우수관광기념품 지정제도를 계속적으로 경쟁력 강화
 -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광 기념품을 개발.보급
 - 서울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전문성 및 사후관리 지속성 확보) 서울기프트쇼와 공동개최
- (2) 우수한 공예품 생산자에게 특전부여, 금융/행정지원책을 통한 적극 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 공모전 수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사업 중점 추진
 -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인사동 서울우수관광상품판매관 운영 및 신규 판매관 확충
 -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수상업체 세미나 개최, 우수업체 디자인 및 상품개발비 등 지원
- (3) 청계천의 문화·역사유적과 관련 스토리, 정조 능행반차도 등 벽면 조형예술품, 그리고 환경복원과 도시재생의 대명사로서의 청계천 자체를 고품격 관광쇼핑상품 이미지나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판매망 구축

5) 창의적인 지식기반 관광전문 휴먼웨어 조성

o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1) 관광경쟁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다시 소프트웨어에서 휴먼웨어로 옮겨가는 동향에 따라 서울의 관광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화된 관광인력 확보
- (2) 각종 분야별 전문 관광인력의 확보로 관광산업, 서비스, 해설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 자격 인증제도를 통한 관광전문인력 확보와 관광인력의 전문교육, 훈련 지원체계의 강화

o 매력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및 생태해설사 육성

-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체험관광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고 관광객의 요구가 높은 곳에는 상시적으로 배치
- (2) 문화유산해설사와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보체계(피드백시스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업데이트
- (3)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장소 보강/확보, 간편한 복장과 해설 장비 제공 등 전반적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6)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

o 서울 관광 통계 인프라 구축

- (1) 서울 지역단위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으로 관광정책 및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
- (2) 실효성 있는 서울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국인 관광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관광객 여론조사 실시

(3) 관광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과약을 위한 주기적인 관광백서 발간

(4) 외국인관광객 서울관광 마케팅서베이 실시

- “관광도시 서울”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이미지, 선호도 등을 주변경쟁도시와 비교조사 하고(해외조사),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들의 숙박/관광/쇼핑/음식/교통 등 각 부문별 여행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국내조사)

- “관광도시 서울”을 홍보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객관적인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관광불편요인을 개선하여 선진관광도시 수준으로 만족도제고

- 조사대상 :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지역 현지시민(관광공사 지사소재지) 및 서울방문 영/중/일 관광객

* 관광공사 지사현황 : 일본(5곳), 중국(3곳), 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아랍 에미리트, 미국(3곳),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2곳) 총 23개소

- 해외 현지조사(네티즌포함) : 서울관광인지도, 관광선호도, 주변도시와의 비교우위, 열위 사항, 관광이미지맵, 서울여행경험 등

- 국내 방문객조사 : 방문전 서울여행 계획과정, 방문후 숙박/관광/쇼핑/음식/교통등 부문별 여행실태, 관광상품 선호도, 관광불편사항 및 만족도 등

- 연도별 추세와 동향과약이 필요한 기본 항목들은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조사

- 국내 방문객 조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관광프로그램 참가자(시티투어, 도보관광, 왕궁수문장, 북촌문화센터, 관광안내소 등)을 포함하여 진행

o 문화관광 연계패스 발행

- (1) 서울시티패스를 도입하여 향후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직불카드의 형태로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주요 관광기념품점, 식당, 호텔 등 관광관련업소를 가맹단체로 지정, 판매금액의 일정비율(5% 미만)을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2) 공/사립 미술관, 박물관의 연계마케팅으로 해외관광객 및 지방관광객 관심을 활성화시킴
- (3) 향후 전국의 기차편까지 연결, 외래관광객이 지방에서 환전하지 않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

o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지원 및 이용개선

- (1) 현재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숙박시설의 유형별 다양화를 유도하고 장기체류, 주말관광, 가족형, 비즈니스형, 리조트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숙박 운영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2) 먹고 자고 즐기는데 불편 없는 숙박관광환경 개선
 - 외국인관광객 숙박편의 증진 : 27,158실(호텔, 월드인, 민박 등)
 - 식별스티커 부착, 가이드북 제작, 홈페이지 숙박정보 콘텐츠 신설 등
 - 개별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숙박수요에 대응
 - 중저가 모텔을 지속 육성 지원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편의를 증진함
 - 중저가 관광호텔 육성, 지원
 - 모텔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육성하여 관광객 이용 활성화

- 중저가 호텔 및 모텔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o 도심부 도보관광코스 경로 표시 사업: 도로위에 경로표시, 메인 관광명소 설정, 주요 음식점 등을 선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에게 도로상에서 정보를 제공함
- o 유비쿼터스 서울관광 시범지역 운영
 - (1) I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유비쿼터스 서울 관광을 위한 관광홍보, 안내 체계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
 - (2) U-City 체계화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서울 관광에 적용
- o 관광안내소의 선진화
 - (1)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비 관광안내소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량 부족 문제, 설치장소의 부적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증설 및 재배치
 - (2) 민관협력 및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안내소의 운영체계개선
 - (3) 야간관광 수요의 증대에 따른 야간 관광객을 위한 심야시간대 안내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7) 관광서비스가 체계적인 관광행정

- o 서울관광진흥공사의 설립 검토
 - (1) 장기적으로 '서울관광진흥공사'(가칭)의 설립을 통하여 서울시 독자적인 주요표적시장에 대한 직접 홍보와 올바른 관광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시장정보를 입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2) 중앙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로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매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리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사전검토

(3)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기관형
과 수익활동을 하지 않고 운영경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출연기관형
을 비교하여 실효성 높은 방안을 채택

o 관광수지개선 및 지방관광 활성화 유도: 국내 관광진흥과 해외관광수요를 대
체하기 위해 지방관광객의 서울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홍보함(지방관광객
Pull 전략)

o 중장기적 관광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관광과의 예산증액 이외에 별도의 서울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 중장
기적 가용재원의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

o 관광주체간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

(1) 서울시 관광진흥 추진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기관들,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사이의 파트너십 유지/강화

(2) 광역적 차원의 관광개발 전략의 수립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거점 관광
지와 관광루트 및 프로그램 발굴·활용

o 관광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해 행정집행부서와 민간과의 협조/역할분담 강화

(2) 소속분야별 서울 관광홍보 위원 위촉 및 회의진행

(3) 서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의 연계를 통한 서울 관광의 전
반적인 진단 및 총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8) 해외마케팅 및 홍보 강화

o 동북아 관광교류도시로서 관광이미지 홍보

(1) 세계속의 일류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관광이미지 구축의 근간은
2000년 고도이자 600년 수도로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 서

울의 정체성 구현

- (2) 서울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의 상징요소(Key Attraction)을 위해 서울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조성
- (3) 청계천 복원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서 이미지 마케팅 실시
- (4) 서울의 정체성을 통해 서울 관광이미지 창출 및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광슬로건을 활용
- (5) 관광교류도시로서 서울 관광이미지 홍보는 단기간, 일회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서울시정 홍보에서 벗어나 역사, 관광, 문화산업 등을 아우르는 홍보 전략 전개

o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

- 국제관광교역전 참가 Hi Seoul 브랜드 홍보 및 관광업체 공동 홍보 마케팅으로 한류열풍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
- 서울투어상품 판매업체, 관광시설 운영업체, 자체 해외 홍보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인바운드 여행업체와 프로모션 공동추진
- 국제관광기구(PATA, ASTA) 연차 총회 및 국제관광교류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국제교류활동 전개
- 서울관광 가상체험관
- 버처리얼리티관 제작 및 운영
- 서울홍보부스 운영
- 특색있는 서울관광 홍보부스 설치 운영
- 서울홍보영상물 상영 및 관광홍보물 배포, 경품이벤트 등

o 동북아 3수도 관광협력 체계의 구축: 현재 한·중·일 수도도시는 독립적인 시장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를 형성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하여 블록단위 통합(BESETO Line)을 추

진하여 해외관광객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도록 함

- 동북아 3개수도 관광협력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 서울컨벤션뷰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광전문가 등으로 자체협의체 구성

- 서울, 북경, 동경 3개도시 관광정책 담당자, 관광업계 등으로 협력협의체 구성

- 3개 도시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동북아 3개수도 통합관광이미지 개발 : 동북아 3개수도 관광벨트를 상징하는 이미지 개발

- 3개 도시 공동 홍보를 위한 공동홍보물 제작

- 서울, 북경, 동경을 잇는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

o 첨단매체를 통한 밀착형 홍보 도입

- (1) 해외시장별 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별 차별화 전략 추진

- (2) 관광홍보는 잠재관광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계적인 전략수립으로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

- (3) 서울 관광 영상물 제작 및 테마별 기획홍보 강화

-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을 방영하여 현지의 여행업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광 행선지로서의 서울 이미지 집중 홍보

- 서울 관광홍보물 현황

<표 4-27> 매체별 관광홍보물 현황

매체	현황	비고
간행물	Seoul's Best 100, 서울관광특구가이드, 신나고 실속있는 서울여행, Hi Seoul 그랜드세일, 서울관광안내지도 등	2005년 7월 현재 (국.영.중.일)
영상물	서울로 오십시오(VCD), I Love Korea, Seoul (DVD)	
해외 전광판	-	-

- 서울관광 영상물(VCD, DVD), 관광홍보물 발간, 해외 전광판 광고, 해외 이벤트
- 서울의 전략 관광 상품과 도시매력을 테마가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광 교역전 및 관광안내소에서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
- 한, 영, 중, 일본어 4종으로 나레이션 10~30분 내외의 관광자원 테마 영상물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한국 방문

o 서울관광 팸투어 개최

- 해외 유력 언론계 인사 및 관광 저널리스트, 관광상품 기획자 등을 초청하여 서울관광자원의 관람 및 취재를 지원함으로써 Hi Seoul 축제 및 서울관광자원을 중점 홍보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 청계천 복원기념 축제 팸투어 : Press Tour 형식 진행
-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Press Tour와 통합 실시
- 해외 여행저널, 방송사 등 유력언론인 및 관광업 관계자 등
- 서울관광자원에 대한 취재보도를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참가경비 부담

2. 관광특구 조성계획

1) 기존 관광특구 운영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1) 기존 관광특구 운영현황

- o 서울시의 기존 관광특구는 명동-남대문-북창지역,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등 총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 o '관광특구'는 개발 개념이 아닌 운영의 개념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6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로이 관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광지', '관광단지' 등과 구별되며, '관광특구'가 받는 지원이나 혜택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특구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한 영업 제한의 배제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 등을 들 수 있음
- o 그러나 관광특구가 개발 개념이 아닌 진흥 개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문화관광부, 관광학계, 관광업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2004년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그나마 더욱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대두됨
- o 따라서 관광특구가 지정된 3곳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재정적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음
- o 또한 관광특구 개념에 대해서, '관광특구'가 초기 실시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외화 획득이 관광산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법 제정을 하였으나,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중요한 것이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 향상, 타지역민의 서울시 국내관광 활성화 등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관광특구 지정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

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 과거 서울의 관광특구는 저비용/고효율의 단기 선택적으로 운영할 때, 효과적이었으나, 현재 특성 있는 볼거리가 부족하여 타 일반관광지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없이 거의 없음
- 1) 특히 특구지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친 지정요건의 완화와 지정개수의 미제한으로 인해 향후 관광특구 난립의 가능성이 있음
- 2) 최근 관광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과 평가 제도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되었음, 서울시 자체에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나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표 4-28> 관광특구 현황 및 강약점

구분	지역특성	연계지역	강점	약점
명동	- 최첨단 패션거리 - 이벤트(명동축제)	- 충무로 (영 화 의 거리) - 종로, 인 사동	- 패션1번지 - 서울의 패션1번지로서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 등 폭 넓은 구매고객층 확보	- 최고의 지가로 중 소투자자 자영업자의 투자기피 - 주차공간의 부족
남대문	- 재래시장(도소매업) - 싼 가격과 서민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음	- 남산 - 덕수궁	- 대표적인 재래시장 - 잘 연계된 대중교통수단	- 좌판상들로 인한 혼잡한 거리 - 오랫동안 자생되어 온 탓에 행정적인 정책과 규제를 반영시키기 어려움
이태원	- 외래 간판 및 외국인 거주촌 근접 위치	- 한남뉴타운	- 외국인 교류가능 - 쇼핑산업의 집적화 가능	- 인근 미군부대 이전 - 주차공간 부족

(2) 기존 관광특구 개선방안

① 관광특구 개선구상

- o 현재 운영되는 서울시 관광특구의 경우 각 운영상 혜택이 적고, 관광특구마다 그 특색이 적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관광특구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며, 각 관광특구간 차별화가 없어 실질적인 관광특구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o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3곳의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각각 테마화, 컨셉화를 하여 관광특구만의 개발·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림 4-23〉 관광특구 개선 방안

- 관광특구 총량제 도입방안 검토: 여러 지역(종로구 청계천 관광특구)이 관광특구로 추가지정 거의 중임. 관광특구의 수를 계속 늘려나갈 경우 현행 관광특구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관광특구 육성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
 - 1) 관광특구 지정규모의 제한요건제의 도입
 - 2) 관광특구평가제도의 도입/운영과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의 설치
- Matching-fund 제도 통한 재정지원 분담: 관광특구지역의 자립화 및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추진에 대하여 서울시가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매칭펀드(Matching-Fund) 방식으로 선별적 지원함. 또한 공동관광쇼핑안내센터 설치,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배포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함
- 관광특구별 차별화 포지셔닝 사업: 외래 관광객이 서울소재 관광특구를 방문하였을 때 쇼핑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등 각종 다양한 경험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관광기능을 갖추고, 각 특구가 서로 차별화되도록 함
 - 1) 이태원관광특구: 보고 먹고 쇼핑할 수 있는 국제타운의 건설을 추진 중
 - 2) 남대문관광특구: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민자유치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 건전한 쇼핑유도

- 3) 동대문관광특구: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동대문 난장축제를 개최해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까지 연예해종합적인 쇼핑클러스터를 확보
- o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외자도입방안을 고려함. 관광특구지역의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개입하여 외자도입을 알선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이외에 재원조달을 장기적으로 모색 함

② 명동-남대문-북창 관광특구의 ‘서울 문화 지향형 관광특구’ 진흥

- o 명동관광특구는 현재 관광특구 내 명동1가 54번지 일대 10만 여 평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옛 국립극장 자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도 확정돼 명동 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o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명동특구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관광과 쇼핑,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옛 국립극장 복원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 해당 용 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문광부에서 제출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
- o 이에 따라 건물높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사선제한에 따라 최소 21m, 최대 100m까지 가능한 건물높이를 최고 30m로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 기준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명동길과 충무로길 등의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차 없는 거리도 확대 지정



〈그림 4-24〉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역

- 점차적으로는 명동뿐만 아니라 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지역까지 건물높이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을 넓혀나가면서 옛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지 역할을 기대
-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서울 관광특구의 특색의 차별화를 위해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를 서울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 문화 지향형 관광특구로 진흥해나가며 특화 필요

③ 이태원 관광특구의 ‘지구촌 문화 지향형 관광특구’ 진흥

- 이태원 관광특구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다양한 지구촌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의 다양성이 조화되는 지역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함
- 특히 매년 개최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경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주최하여 세계음식축제, 외국인 및 이태원 상인 장기자랑 및 패션쇼, 세계민속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고, 철저한 축제 기획과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아 개선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음

-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하여 세계적인 지구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발전되고 특색있는 이태원 관광특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

④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패션 지향형 관광특구’ 진흥

-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는 대형의류매장의 쇼핑 관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며, 특히 비정기적으로 패션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는 ‘패션의 거리’로 특화하여 쇼핑 위주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문화 거리로의 탈바꿈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와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특구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적 이벤트와 함께 마니아 및 아마추어의 패션 이벤트를 상시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제시

2) 잠재적 관광특구 선정기준 및 조성방안

(1) 잠재적 관광특구 선정기준

①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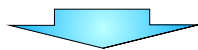
-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한 관광명소 선정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정체계를 구축
- 합리적인 관광명소 선정방식을 도입하고 자체 또는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관광명소를 선정함으로써 선정과정의 참여도 제고

② 선정기준 및 잠재적 특구 선정

- o Bottom Up 방식은 사업공모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 방식으로 사업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심사한 다음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임
- o Top Down 방식은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일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임

<표 4-29> 선정방식 기준

기준	선정방식
의사결정흐름 기준	• 공모방식 (Bottom Up): 후보 특구 사업공모 심사 후 선정하는 방식 [장점] 사업홍보효과 우수, 경쟁지역 압축 효과 [단점] 시간과 자금이 투입된 우수 계획에 유리
	• 상위 지정방식 (Top Down): 자원성, 시장성 등 대상지 계량적 평가 후 선정하는 방식 [장점] 비교적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 가능 [단점] 선정방법의 객관성, 타당성 확보가 중요
수량 기준	• 1테마 1 관광특구 선정 방식 [장점] 사업추진 대상 간결 [단점] 탈락 후보지의 반발
	• 1테마 다수 관광특구 선정 방식 [장점] 참여 주체 및 범위 확대 [단점] 대상지별 차별화 사업 전개에 혼란 가능



관광특구 신청 정도에 따라 혼합하여 선정

- 따라서 청계천 등 현재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종로구 등은 공모 방식으로 인한 지정, 하나의 자치구 이상이 연결이 되어 사실상 공모방식이 어려운 부분의 경우, 상위 지정방식이 필요
- 또한 현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6조 2항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결과가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이상 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또는 내국인 관광객 100만 명(서울특별시는 500만 명) 등 내국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발계획에서는 관광특구 의지가 강한 청계천 일대 관광특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많은 지역인 송파구 일대 관광특구, COEX 및 학여울 컨벤션·관광특구, 내국인 이용이 많은 한강 레저·관광 특구의 조성방안에 대해 제시하기로 함

(2) 잠재적 관광특구 조성방안

① 청계천 일대 관광특구

- 청계천 복원 이후 종로구는 이미 서울시에 ‘관철동(종각)~송인동 로터리 구간’의 청계천 주변을 14만 6천 700여 평을 ‘종로 청계 관광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제출하였음
- 종로구 관광특구 조성안은 청계천 복원과 연계, 재래시장, 의류, 신발, 가전, 귀금속, 보석, 수족관 등 15,000여 업체가 밀집된 청계천 일대를 관광객 유치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문안내판 설치, 지역축제 등 사업 예산 지원, 해당지역 상인 대표와 관광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구성 등을 준비 중에 있음
- 청계천의 관광브랜드 및 Landmark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 관광명소

로 외국인에게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선의 모델, 내국인들에게는 서울의 새 관광명소로 서울의 이미지를 창출함

- 1) 도심의 어메니티 공간으로서 새롭게 조성되는 친수공간은 서울의 이미지 강화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함
 - 2) 청계천 제대로 알리기 및 청계천 문화탐험, 찾아가는 청계천 이야기 등 청계천의 이미지를 통한 관광명소를 조성함
 - 3) 서울문화재단, 통상산업진흥원 등 문화, 관광사업을 실시하는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사업화를 주도함
 - 4) 청계천을 소재로 한 상품이나 기념품을 기획-제작하는 생산업체에 지원 강화
 - 5) 서울시 총무과나 국제협력과 등 문화/관광 교류 유관부서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친선 교류시, 청계천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활용
 - 6) 총체적으로 청계천 장소마케팅의 중요 요소로서 관광쇼핑 상품화를 기획하도록 함
- 서울을 대표하는 소규모 서울형 축제 및 이벤트를 기존 서울광장중심에서 보완적으로 청계천 일대 상시 문화벨트에서 상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관광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2개의 청계천 다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구성을 통한 축제를 프로그램화
- 1) 청계천 답교놀이: 옛 광고와 수표교를 중심으로 한 '다리 밟기'행사를 현대적으로 재현
 - 2) 청계천 만월축제, 전통등 축제: 정월대보름이나 사월초파일 등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가능
- 서울의 친수공간이자 생태복원지역인 청계천과 서울숲, 그리고 향후 서울의 문화메카가 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육상과 한강으로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함

- 1) 청계천: 생태문화관광 공간으로서 전통과 현대, 순수와 대중예술이 피어나는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이동무대를 설치하여 도심의 문화코스화(청계천 문화관 개관, 청계천다리, 청계천 야간조명을 관광자원화, 내/외국인 관광투어 코스화 하기 위한 시티투어버스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 2) 서울숲: 대규모 도심 생태공원으로 문화예술공원, 가족마당, 야외무대 등 공연장소 확충, 한강수변공원, 자전거도로 등 시민레저공간 조성
- 3) 노들섬: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인 문화단지 및 국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한강의 수경공간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및 유원시설 조성
- 4) 선유도: 환경테마공원으로서 현장체험교육, 하늘공원-선유도공원-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주말 시민여가코스로 개발

② COEX 및 학여울 컨벤션·관광특구

- o 권역별 구분으로 남동지역에 해당하는 삼성동 코엑스 및 학여울 지역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컨벤션·관광특구를 설치하여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광객을 위한 시설·프로그램 마련
- o 코엑스 및 학여울 컨벤션·관광특구를 컨벤션 벤처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Convention City 이미지 구축
- o 산학연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시회, 컨벤션 행사 기획 추진 및 Digital Contents Expo, 세계컨벤션시티 CEO 포럼 등 신규 전시회, 행사 개발
- o 국제관광·e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추진
- o Seoul Convention City 육성: 컨벤션 산학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컨벤션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IT와 연계한 컨벤션벤처집적단지로 개발. 서울컨벤션시티로 육성, 아시아 컨벤션 허브로 도약 추진

- o 컨벤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산업거변 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유도:
“컨벤션 인큐베이터제” 도입 추진
- o 서울형 U-conference 개최 지원
 -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컨벤션 산업 전반의 영역을 융합, 컨벤션 참가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컨퍼런스 서비스 제공
 - 컨벤션 참가자에게 최첨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한국 서울의 이미지 제고 및 IT강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 최첨단 화상회의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컨벤션서비스의 수준 제고 및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④ 한강 레저·관광특구

- o 한강은 서울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시민오픈스페이스로서 시민들의 휴식, 운동 등 여가활동공간과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임. 그러나 휴식 및 운동 위주의 단조로운 시민공간구성, 열악한 이용환경, 하천경관과 자연성을 해치는 부적합 시설의 입지 등으로 공원으로서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 현재 한강변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 중 전통의식 재현과 관련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과거 황포돛배 축제 등이 개최된 바 있으나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체험이나 청소년의 문화학습 측면에서 미흡함
 - 한강이 서울시민의 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쾌적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한강으로의 접근성 불량과 한강내의 단절적 공간구성으로 한강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임

- o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현행 법령상 한강시민공간을 적극적인 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에 많은 제약점이 있음. 서울 최후의 시민여가공간으로 주변의 여가 레저공간과 연결되는 관광벨트의 축이자 서울 대도시 기능을 연결시키는 중심적인 매개거점으로서 한강의 입체적 관광연계벨트 노력이 필요
- o 따라서 한강주변을 레저·관광특구로 조성하여 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지원과 함께 특화의 필요가 요구됨
- o 한강변의 풍부한 문화유적을 활용한 한강 주변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문화 여가 공간으로서 한강변을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한강변을 대소규모 문화 이벤트 장으로 활용
 - 여가 행렬의식 재현 및 한강 뱃놀이 행사 재현
 - 수신제, 기우제, 기청제, 기한제 등 전통제례 재현
 - 한강유역 생태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길동 생태공원, 서울숲, 여의도 샛강, 밤섬, 선유도 생태공원, 월드컵공원 등)
 - 한강유역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암사동 선사유적지, 몽촌토성, 국립중앙박물관, 절두산 성지 등)
 - 한강변에 자전거 택시 도입·운영
 - 한강관련 영상쇼(PIGI쇼)를 63빌딩 등을 무대로 시행하여 볼거리 제공
- o 정기적으로 오페라하우스에 관광유람선을 띄우고 한강에서 서울숲과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을 볼 수 있도록 함(민자유치)

3.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

1) 관광안내체계 개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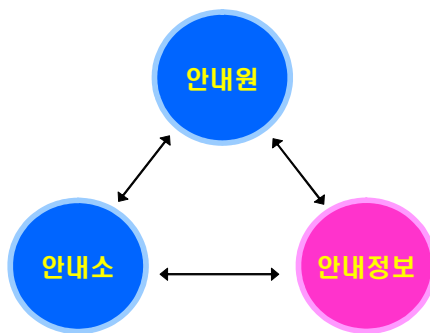
(1) 관광안내체계 개요

- o 관광안내체계는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 정보를 전달하는 제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로서 통일성을 갖춘 전체를 말하며, 그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공중관광정보망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체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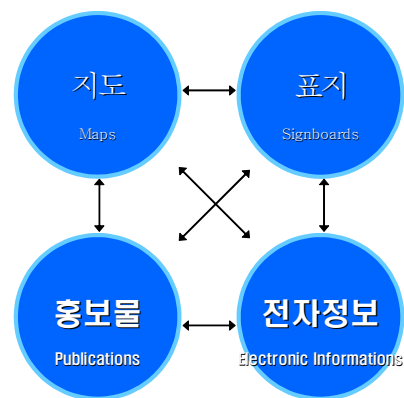
<표 4-30>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



- o 특히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를 상하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안내원(Guides), 관광안내소(Tourist Information Center), 관광안내정보(Tourist Informations)로 구성되며, 이중 안내정보는 다시 지도, 표지, 홍보물, 전자정보로 세분화할 수 있음



<그림 4-25> 관광안내체계 특성



<그림 4-26> 안내정보의 분류

(2) 관광안내체계 개선의 필요성

- o F. I. T(개별관광) 관광객 및 국민관광횟수 증가로 외래관광객중 F. I. T가 2001년도 50.7%에서 2002년도 52.2%, 2003 년도 57%, 2004년도에는 62.1%로 지속적 증가하며, 국민관광 횟수는 2005년도 주 8.7회, 2008년 주13.2회 증가가 예상됨
- o 관광불편사항 해소: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사항중 관광안내체계 관련사항이 우위를 차지함

<표 4-31>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시 불편사항

순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1	언어소통	56.2%	52.2%(69.2)*	61.5%
2	교통혼잡	40.2%	37.5%(32.3)	31.1%
3	안내표지판	29.3%	23.6%(27.9)	23.5%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2, 2003
한국관광공사, 월드컵기간 방한외국인 설문조사, 2002

<표 4-32> 국민관광객의 국내여행시 불편사항

순위	구분	1999년	2000년
1	화장실관련	20%(1)	16.9%(2)
2	교통	18.3%(2)	18.4%(1)
3	안내표지판	8.8%(3)	8.9%(3)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1999, 2001

- 관광인프라 강화: 관광안내체계의 선진화, 표준화, 통합적 계획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 관광안내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

(3) 관광안내체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도출

① 관광안내소

- 한국방문의 해 추진, 월드컵·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그동안 관광안내 기반 시설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으나,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안내시설 부족 상태 지속되어 있고, 특히 전국에 관광안내소 399(2005. 3 현재)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종합관광안내소의 경우 시도별 1개소 설치 운영중으로 그 한계가 뚜렷함
- 서울의 정보·홍보인프라에는 관광안내소 13개, 북스토어 1개, 정보사이트(서울문화관광사이트, 지하철여행정보사이트, 지리정보시스템포털) 3개, 관광안내책자 1개 등 총 18개의 자원이 존재함

<표 4-33>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황

	안내소	전화번호	위 치	운영시간
1	시청 안내소	735-8688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청본관 내	09:00 - 22:00
2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2236-9135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내 상가지역 을지로 7가 1번지	09:00 - 22:00
3	서울월드컵홍보관광안내소	736-0212	중구 태평로 1가 68-1	09:00 - 18:00
4	이태원역사종합관광안내소	3785-0942	용산구 이태원동 127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09:00 - 18:00
5	이태원 간이관광안내소	794-2490	용산구 이태원동 31-114 이태원시장 입구	09:00 - 18:00
6	남대문시장관광안내소	752-1913	중구 남창동 49 남대문시장내	09:00 - 18:00
7	덕수궁관광안내소	756-0045	덕수궁 정문앞 보도상	09:00 - 18:00
8	명동관광안내소	757-0088	남대문로2가 130번지 미도파백화점앞 보도상	09:00 - 18:00
9	김포공항관광안내소	3707-9465	강서구 공항동 157 국내선 1층로비 2번 게이트 옆	09:00 - 18:00
10	삼성도심공항터미널 관광안내소	551-0778	강남구 삼성동 159-6 도심공항 2층 입국장 1번 게이트옆	09:00 - 18:00
11	동대문간이관광안내소	2279-7381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앞	09:00 - 18:00
12	잠실종합관광안내소	423-3026	잠실롯데월드백화점 지하광장	09:00 - 18:00
13	신촌관광안내소	363-2883	서대문구 대현동 60-11 신촌역 4번 출구	09:00 - 18:00

- o 안내소 대부분의 경우 시설면적이 협소하고,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근무 인원이 부족하여 원활한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 o 근무 인원이 부족(1~2명에 불과)하여 원활한 근무가 곤란(식사시간 교대 등)하고 보수가 낮고 신분이 불확실하여 잦은 교체 현상이 발생하며, 안내원이 충분한 경험을 통한 안내를 하지 못하여 단순 자료에 의한 안내로 현실감이 부족한 상황임
- o 관광안내소의 설치장소가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며, 관광안내소간, 관광안내 인터넷사이트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곤란

② 관광안내원/문화유산해설사

- 상설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내원은 966명('04.6월), 1330 전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전화통역안내원은 13명, 등록된 관광통역안내원은 2003년 6월말 현재 13,589명임
- 표준 매뉴얼 없이 각 시·도별로 양성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는 1,238명('04.12월) 수준임

<표 4-34> 관광안내원의 현황

구분	인원	교육현황
관광안내소 근무 관광통역안내원	약 966명('04.6)	관광인력지원센터 관광안내소직원소집교육 통역안내소안내원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교육
1330 전화통역안내원	13명('05.2)	관광인력지원센터 관광안내소직원소집교육
문화유산해설사	1,238('04.12)	양성교육, 도에서 관광협회에 위탁 심화교육

- 관광진흥법상 유자격자 관광통역안내신고 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무자격자의 활동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유자격자의 사기저하가 우려됨.

③ 관광안내지도

- 관광지도의 종류: 형태에 따라서 평면지도와 입체지도로 나뉘며, 재질에 따라 지물지도와 전자지도로 나뉨
- 관광안내지도의 규격과 내용: 관광안내지도는 1장(가로 76cm, 세로 52cm)으로 하며, 3단 24접이식으로 각 지자체 발행지도의 규격을 통일하여 여러지역 지도의 입수와 관리를 용이하게 함
- 관광안내지도의 디자인은 전면과 후면부를 구분하여, 전면은 평면의 전체지도로 구성하고, 후면은 입체형의 권역별 상세지도와 관광정보를 수록함
- 관광안내지도가 관광객에 비해 매우 적은 소량 제작되고 있으며, 각종 관광안내 홍보자료 발간 부족, 민간제작 안내홍보물 확보도 미흡한 상황임
- 관광객이 한 해에 3억 3천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16개 시·도 전체의 관광안내지도는 겨우 1년에 200여 만부 발간하여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 매년 지자체별 관광안내지도 제작(시·도 관광지도 매년 약 200만부씩 제작), '98년~'04년까지 시·도지도 총 1,583만부 제작(문화부 1,941백만원 지원): 시·도 자체예산으로만 지도 발행은 다양하고 충분한 양 제공 곤란
- 이에 지도제작 수량이 부족하여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없고, 관광 안내소 등 일부 관광시설에 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내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최신 정보가 아닌 낡은 정보를 수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제작되고 있는 관광안내지도의 경우 입체기법, 픽토그램 등을 통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편의성이 부족한 상황임

④ 관광안내표지

- 전국에 관광지 안내표지는 2004년기준으로 총 4,0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관광지 표지판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 개선에 따른 정비를 실시한바 있음: 2002년 기존표지판 568개 로마자표기법으로 정비(문화관광부)

- o 그러나 관광지 대상 미설치된 관광지표지가 약 19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관광안내도의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분석결과 전국적으로 220개의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등 관광안내판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
- o 종합관광안내도의 경우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노후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안내도가 최근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4) 서울시 관광안내체계 개선 전략

① 관광안내소

- o 서울시 관광안내소는 2002년 현재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관광안내소 수준임
- o 따라서 기존 소규모 관광안내소는 정비하고, 종합 관광안내소인 방문객 센터를 보다 확충하고, 무인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제기되며 안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



<그림 4-27> 관광안내소 개선 전략

- 기존 관광안내소 정비: 기존 관광안내소의 통계정보 관리, 인터넷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 마련, 관광객 이용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여가 안내소로의 접근 변화 시도
- 무인 안내소 확충: 안내 서비스의 확대 및 관리·운영 비용 저감효과를 위해 관광 선진국들이 설치 확장하고 있는 무인안내소를 전화안내부스를 개선한 전화안내서비스 공간, 휴게공간, 버스 정류장 등에 확충
- 서울시 종합 방문객 안내센터 조성: 선진국일수록 관광안내센터(Tourist Information Center)에서 방문객 안내센터(Visitor Information Center)로 변화하는 추세로, 서울시 지역사업 연계, 지역민 교류의 장, 문화예술공간, 휴식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종합 방문객 안내센터를 각 권역의 거점, 부거점에 설치

<표 4-35> ‘한국관광정보센터’의 경주 방문객 안내센터 서비스 제공안의 사례

기본 서비스		추가 제공 서비스		
안내 서비스	판매 서비스	휴게 서비스	편의 서비스	기타 서비스
•질의 응답 •안내물 비치 (홍보물, 지도 등) • 1330 전화서비스 •여행상품 안내 •경주체험전 시관 •해설사·통역사	•특산품 판매 •기념품 판매 •지역 상품권 •전화·교통 카드 판매 •관련책자 판매	•휴게시설 비치 (의자, 소파 등) •음료·스낵 판매 •야외 휴식 공간 조성	•비즈니스 서비스 (Fax, 전화, 복사 등) •컴퓨터·프린터 비치 (관광 정보검색/비즈니스 구분) •예약서비스 (숙박, 식당, 공연, 교통 등) •환전 서비스	•휴대폰·디카 충전 •디지털사진 저장 서비스 •자전거 대여 서비스 •민원서류발급 서비스 •체험공간 운영 · 이벤트 개최

- o 안내소 운영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추진 네트워크 구축, 웹사이트·이메일 및 내방객 관리 시스템, 지역업체와의 업무협력 강화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안내소 운영체계 확립



<그림 4-28> 안내소 운영체계

- o 관광안내소를 민간위탁 전환하여 관광안내체계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도모
 - 서울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교통 등 관광정보 및 원스톱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소 현황은 7개소: 종합(5개소), 광화문, 동대문, 이태원, 김포공항, 잠실 및 간이(2개소), 남대문시장, 명동
 - 근무시간 : 종합 09:00~22:00, 간이 09:00~18:00

- 통역언어 : 3개국어 (영.중.일어)
- 운영인력(1일) : 38명 (통역안내원 24명, 자원봉사자 14명)
- 청계천 광장 시점부내 관광안내소 추가설치
- 전국관광안내소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o 서울의 디지털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 IT 선진도시 서울관광 무인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 24시간 관광정보 제공이 가능한 무인정보시스템 구축(KIOSK)
 - 안내원과 시간의 제약 없이 관광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
 -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관광 중 원하는 문화관광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관광컨텐츠를 제공 요구
 - 관광소재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편리하고 재미있는 서울관광 유도프로그램 개발 필요
 - 대내외 홍보기반 조성
 - DB & NetWork 기반조성
 -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여 대외 협력체계 구성, 활용방안 제안
- o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이용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고품질 컨텐츠 보강
 - 테마별, 지역별 관광코스, 투어세이버 등 관광정보 컨텐츠 개발 및 보강
 - 관광정보 양방향 모바일서비스
 - 청소년을 위한 문화관광체험 게임 컨텐츠 개발
 - 청계천, 도보관광코스 등 관광정보 체험인터랙션 컨텐츠 제작
 - 문화광 가상체험뮤지엄 (VRM, Virtual Reality Museum)서비스

- 송례문 등 가상체험공간 콘텐츠 개발
-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서울유치와 이를 통한 서울관광 자원의 콘텐츠화
- 서울의 관광지원 개발, DB화 및 홍보
- 서울관광 및 홈페이지 온라인홍보
- 가입회원, 여행사 등 관광관련 기관 대상 서울문화관광 홍보 메일서비스
- 네이버 등 검색포탈 플로팅 광고
- 언어권별 Hii-Seoul 리포터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관광정보제공
- 외국어 콘텐츠 감수를 통한 고품격의 외국어 홈페이지 서비스
- 문화관광사이트 환경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사용성 테스트
- 서울관광 체험시나리오 공모

② 관광안내원

- o 안내인력의 확충, 질적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안내원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안내정보 제공을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및 통역전문가의 인력 확충 및 양성방안 모색, 안내원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방안 및 홍보수단 다양화, 마케팅방안 강구
- o 안내인력의 확충: 안내수준 향상 (친절, 전문성)을 위해 기존 안내원 제도를 세분화·전문화 시키고, 처우개선 (고용인에 대한 월급 지급, 비정규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 교육강화, 자격증소지자로 단계적 교체 실시, 안내소 근무경험이 관련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습 교육과 연계하여 학사제도 개선 유도
- o 문화유산해설사의 활용 증대: 안내소, 안내원, 지도, 홍보물, 전자정보 등 안내 정보 (정보)체계를 통한 문화유산해설사 소개 강화, 주요 관광지 입구 및 매

표소 주변에 해설시간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

- 안내원 지원체계 마련: 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의 활동거점, 혹은 대기장소 (안내소 내, 관광지 등) 확보 및 유니폼과 해설 장비 구비,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홍보, 예산 지원, 보험혜택 등), 전국 네트워크 강화, 심화교육 기회 확대,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정착화

③ 관광안내지도

- 정체성을 부각한 핵심지역 입체+평면 지도 신규작성: 서울시 관광안내지도(평면형)를 신규 제작하고, 각 권역당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입체+평면 혼합형 지도의 제작
- 이용자 중심의 시인성 높은 정보 전달: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핵심관광자원을 선별하고 자원성의 위계에 따라 지도에 적용하고,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표기와 더불어 관련된 사진이미지와 해설 등을 함께 게재하여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편집

<표 4-36> 관광안내지도의 개선방향

구분	개선 방향
형식	펼쳤을 때와 접지시의 휴대가 용이성 고려 (홍보물과 규격 통일)
내용	불필요한 정보 삭제로 지도 기능 최적화 및 정보 검색의 용이성 제고
편집디자인	지도와 관련 콘텐츠의 유기적 배치, 시각표현 강화
표준화	표준 용어·문자·부호표기법 준수 및 경주시 용어 표준화
기타	빈번한 접지에 훼손이 적고 가벼우며 발색이 좋은 지질 사용

④ 관광안내홍보물

- 표준안 제작을 기준으로 양적인 확충: 서울시 공식 종합 관광 안내서 작성,

각 관광권역 홍보물, 거점 및 부거점 홍보물 제작

- 지역 업계와 유기적 협력구축을 통한 지역업체 소득주민 도모: 기존 국내 관광홍보물의 경우, 관광지의 안내 지도는 잘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그 지역의 민간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소득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업체·단체 (식당, 숙박시설, 특산품·기념품 판매점 등)과 연계한 다양하고 구체적 정보 제공 및 적극적 마케팅(광고 게재 등) 효과 마련

<표 4-37> 관광안내홍보물의 개선방향

구분	개선 방향
형식	휴대 용이한 인체공학적인 포켓용 사이즈 적용 (지도와 규격 통일)
내용	콘텐츠 다양화 및 전문화, 시각표현 강화, 스토리텔링 관련 업체·단체의 공간적 위치정보 제공 및 광고 유치
편집디자인	콘텐츠의 중요도에 따른 지면·내용비율, 동적이미지 적극 활용 가독성이 좋고 심리적 부담이 적으며, 편집이 용이한 다단 편집
표준화	표준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적용 및 신규 개발 표준용어의 사용 및 경주시 주요 명칭 (용어) 표준화
기타	사용감이 좋고, 부피 및 질량이 적게 나가는 지질 사용

⑤ 관광안내표지

- 서울시내에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관광안내표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존 도로표지내 관광지를 삽입한 형태이나, 그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
- 표지 종류별(교통, 사설 등) 기능적·형식적 위계 정립,
- 주요 동선의 표지 전수(全數)조사(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정보+야장 이용한 다양한 속성정보) 및 표지 DB 구축으로 합리적 개선계획 수립

- o 통합적인 양적·질적 선진화 추진 및 로드맵 작성에 의한 개선안 작성
- o 그림문자(픽토그램: pictogram)을 활용하여 안내표지 표준화, 선진화 추진 및 각 도로표지내에서도 그림문자가 있는 시설을 표시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

공공안내 그림문자와 용어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도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박물관, 미술관 Museum, Gallery
	쓰레기통 Litter Disposal		수영장 Swimming Pool
	문화유적 Historic Site		온천 Hot Spring

〈그림 4-29〉 공공안내 그림문자와 용어의 예시

2) 관광교통시설 개선 전략

(1) 서울시티투어버스의 문제점 도출

- o 현재 서울시티투어버스는 2개 노선(도심순환, 고궁코스) 및 야간 야경코스 등 7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 형태의 획일화, 코스의 제한, 일반 시내버스와의 차별성 부족 등 초기 시행시보다 그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35개 정류장에 하루 이용객이 200명에 불과할 만큼 시민 및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차량 한대가 하루에 실어나르는 고객이 1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평가됨
- 따라서 서울시티투어버스 개선을 위해 버스형태의 다양화 및 특성화, 코스의 다양화 및 컨셉화가 요구됨

(2)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개선 전략

① 버스형태의 다양화 및 특성화

- 현재 서울시티투어버스의 형태는 파란색에 고유의 빨간 문양이 들어간 형태의 중형 버스만이 운영중에 있음



<그림 4-30> 현재 시티투어버스의 형태

- 하지만 해외 관광 선진국의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2층 버스 형태로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창을 통유리 형태로 하여 창밖의 풍경을 보기 좋게 설계를 하기도 하며, 또 좌석 자체를 창쪽을 볼 수 있게 구조가 변경되어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음
- 이미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부산시에서 2층 시티투어버스가 운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2층 버스는 이미 지난 1991년 좌석버스 90번이 서울 신세계부터 과천 간 운행을 한 바 있음. 단, 당시에 도 육교, 고가, 안내표지 등이 문제였기 때

문에 이후 과천 서울랜드에 매각을 하였으나, 이러한 특성화된 형태의 버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 거리를 제시해 주고 있음



<그림 4-31> 파리 시티투어버스



<그림 4-32> 런던 시티투어버스

- o 또한 각 코스별 시티투어버스 형태를 다양화하여 고궁코스의 경우 보다 과거의 전통문화 모습을 형상화한 버스를 운영하고, 야경코스의 경우 야간경관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새로 코스를 개발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코스를 개발하면 이와 주제를 같이할 수 있는 형태의 버스 다양화 및 특색화가 요구됨

② 시티투어코스의 다양화

- o 현재 운영되는 코스는 도심순환, 고궁코스, 야간코스 등 3개의 코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각 코스의 경우 비슷한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객의 흥미 유발을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
- o 또한 시티투어코스의 개발이 서울시내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다양한 쇼핑거리를 체험하는 등의 독특한 체험을 중심으로 연결하지 않고, 다만 서울시내의 관광자원인 시설 위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다보니 외국인의 경우 첫 방문자는 이용을 하고자 하나, 외국인의 재방문이나 내국인의 이용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 o 따라서 우선 관광자원 연계 코스의 경우, 기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코스 이외에 상암동 DMC, 코엑스 컨벤션 단지 등 미래 지향적인 코스를 추가하여 관광객 취향에 맞는 테마코스의 개발이 요구됨
- o 또한, 이러한 관광자원 연계 코스와는 별도로 서울시내 먹거리를 체험하는 투어버스, 다양한 쇼핑과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버스 등 색다른 체험관광형 버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요구를 부합할 필요가 있음
- o 고객 재방문을 위해서는 시티투어버스의 상품이 정규적인 상품 이외 계절성, 이벤트와 어울리는 비정기적 상품의 개발 또한 필요한데,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기성 관광상품 개발은 이러한 계절적 행사를 상품화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o 따라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하늘공원 억새풀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시 이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 참여할 수 있는 비정기성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이 필요함

③ 서울시티투어버스 홍보지원

- o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여행객의 시티투어 수요 충족
 - 서울의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진흥
 - 운행코스 : 도심순환, 고궁, 야경코스의 3개코스 (CNG버스7대)
 - 운행시간 : 오전9시~오후8시, 매30분간격 출발, 월요일휴무
 - 관광안내 :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및 통역가이드 탑승안내
 - 서울시티투어버스 홍보 및 시설지원 : 국내외 광고홍보/외국어 홍보안내물 제작/탑승객이벤트행사/관광시설 제휴마케팅/정류장 및 외국어안내시설 유

지보수 등

- 서울시티투어버스 다양한 홍보 및 시설지원 종합계획
- 신학기 학생단체 홍보, 내/외국인 탑승객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 서울야경코스 운행개시, 가정의 달 어린이탑승객 우대행사
- 외래관광객 집중홍보 (관광숙박업소 및 현지관광가이드북 등) 실시
- 2005년 이용객수(1~6월) : 총 31,315명
- 내국인 18,607명, 외국인 12,708명 (1일 평균 199명)
- 명물화버스 도입지원 및 타켓별 홍보마케팅 강화 -> 편리한 관광인프라로 정착
- 신노선 개발 및 새로운 관광명소 연계제휴 ->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시설 및 편의서비스 개선, 친절서비스 강화 -> 서울방문관광객의 편의 증대

4. 문화관광부 사업추진 연계방안

1) 2006년 이후 문화관광부 핵심사업 개요

(1) 개요

- o 문화관광부 2006년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창의한국’,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청사진보고’ 등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2010년까지 사업의 지속성이 예상된다
- o 문화관광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각 부서는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 동학농민혁명사무국,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관광국,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체육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관광개발사업과 관련있는 부서는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관광레저도시추진단 등이 있으며, 이 중 관광레저도시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의 정책 및 사업은 서울시 관광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중임

(2) 문화정책국

- 문화정책국은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여가문화의 활성화 지원, 민족문화의 창조적 활용 및 한브랜드화 사업 추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제 구축,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지역경제 상생 정책 추진,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
- 정책방향에 따른 2006년 이후 문화정책국 주요 사업은 문화정책환경연구,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지역문화 진흥 등의 골자로 사업 추진 예정
- 이 중 서울시 관광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는 문화정책환경연구 중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여가문화 활성화 등이 해당함

(3) 예술국

- 예술국은 예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예술 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조성,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및 지속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소외지역·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기반 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방향에 따른 2006년 이후 예술국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문학·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예술산업 육성, 예술기반 확충 등의 골자

로 사업 추진 예정

- 이중 문학·예술단체 지원 중 정동극장, 예술의 전당 등 서울 소재 예술단체 지원, 예술기반시설 확충 중 명동옛국립극장 복원 등이 서울시 관광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해당함

(4) 관광국

- 관광국은 국민관광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여,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중저가 관광호텔 확보 등 관광 숙박시설 및 안내체계 개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개선,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세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정책방향에 따른 2006년 이후 관광국 주요 사업은 관광자원개발, 국제관광교류, 관광정책 지원 등의 골자로 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이중 국제관광교류 중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사업이 서울시 관광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해당함
- 또한, 비교적 정부 지원적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으로 관광객유치지원, 국민관광진흥 지원, 관광산업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관광객유치지원에서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시내순환관광객 지원,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국제회의산업육성 지원 등이 서울시와 연계 가능한 사업임
- 국민관광활성화 지원 중 서울시 연계가능 사업으로는 복지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음

2) 문화정책국 사업과의 연계방안

(1)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연계 계획

- o 특수소외계층 즉, 유색인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정책을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문화가이드가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한정된 문화시설을 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 o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문화시설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은 아주 한정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책자에 불과한 현실이나, 향후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을 위해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여가문화에 체험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함
- o 2003년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거주자수는 102,882명(전체 서울시 인구의 1% 수준)으로 이중 90%를 차지하는 유색인종은 여가시간에 주로 집안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어울리는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이 필요
- o 따라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인 국제 문화교류전과 같은 행사를 보다 상시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하여 특수소외계층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요구됨

(2) 여가문화 활성화 연계 계획

- o 문화관광부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의 여가수요 증대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지난 2003년 주5일 근무제 TF팀을 설치하여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 중 여가공간 조성, 여가프로그램 개편, 여가정보구축 기본계획 모색 등 여가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한 변화는 다른 요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토요일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이러한 증가 패턴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를 대비하여 주말 서울시민의 시내 관광을 독려하고 보다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점진적으로는 각 권역별 거점인 청계천, 남산, 서울숲, COEX 및 학여울 지구, 홍대거리, 상암 월드컵공원, 도봉산, 북한산 등을 중심으로 금요일 저녁 야간 행사와 토요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가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 검토가 요구됨

3) 예술국 사업과의 연계방안

(1) 예술단체 지원 연계 계획

- 예술국 사업 중 2006년 예술단체 지원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디자인미술관 등이며, 지원은 각종 시설 경비, 인건비 등 다양한 운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의 경우, 각각 서남권과 도심권의 부거점 지역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비정기적인 행사 및 지원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

(2) 예술시설 지원 연계 계획

- 명동옛국립극장 복원은 서울 중심 명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장르 특화형 전용공연장, 다목적 공연장, 복합문화시설

등의 시설 용도뿐만 아니라 주관객층의 설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중에 있음



<그림 4-33> 명동옛국립극장 건축설계경기 공고 선정작

주: '삼우 종합설계사무소'의 응모작 “예술의 빛과 시간의 산책” 조감도

- o 명동옛국립극장 복원은 도심권역의 부거점인 명동거리의 공연예술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완공 후 서울시는 명동거리와 극장을 이용한 거리공연 및 예술행사를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

4) 관광국 사업과의 연계방안

(1) 우수상품 인증제 연계 계획

- o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2004년 이후 전국의 우수 여행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내 우수관광상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또한 인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는

2005년 첫 시행된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포상 및 지원사업으로 여행업체들이 만든 투어 상품의 상품성과 경제성, 교육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음

- 2004년의 경우,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철새탐조 및 DMZ 체험’ 등 20개,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세계문화유산 한국주유 5일간 관광’ 등 15개,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등 ‘KTX’와 함께하는 국격의 섬 대마도 등 20개를 확정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내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청계천 및 서울숲 등 서울의 권역 연계를 통한 상품 판매를 실시하는 여행사에 서울시 자체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평가하거나, KATA 등의 기관과 함께 독려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2)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및 시내순환관광객 연계 계획

-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및 시내순환관광객 사업은 서울시 관광인프라계획과 함께 연계되어야 할 사업임
- 따라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서울시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화 및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며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시내순환관광객 사업은 서울 시티투어버스 및 코스 개선에 문화관광부의 지원과 협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업임

(3) 전통문화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연계 계획

- 중화권 지역의 ‘대장금’ 드라마의 인기로 인한 한류 열풍 이후 중화권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전통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중화권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남권의 부거점인 ‘롯데월드’와 같은 현대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서울시의 전통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

-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이나 중구의 남산골 한옥마을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궁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중요리 등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또한, 관광안내체계 개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화권 언어 가능 관광안내원을 육성하여 전통문화관광자원화 프로그램에 배치, 보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모색

(4)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연계 계획

-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시범운영 되어온 템플스테이는 2004년 3만 7천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에는 참여자가 5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그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현재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전국 41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해 일반인들에게 불교 및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서는 길상사, 묘각사, 봉은사, 조계사 등 총 4개 사찰에서 실시·운영중임
- 하지만, 템플스테이 사찰의 수용태세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 요사채 등 숙박시설, 편의시설, 안내정보체계, 인력 운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사찰 수용태세 개선전략 수립연구’(2005. 8.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연구용역)의 경우, 수용태세 중 대부분의 사업을 국비와 자체비로 충당하고자 하나, 템플스테이 관광안내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안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함
- 따라서 서울시 관광안내원 중 템플스테이 참여 및 활용 가능한 인력의 경우 길상사, 묘각사, 봉은사, 조계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5) 국제회의 산업육성 연계 계획

-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해 대전지역 컨벤션 센터, 제주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신규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회의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 서울 지역의 경우, 동남권역의 코엑스 및 학여울 컨벤션 특화지구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점 주변의 관광·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분위기 활성화를 제시

(7) 복지관광 활성화 사업 연계 계획

- 문화관광부는 소년소녀가장, 탈매매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함께 여행바우처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자녀들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중임
-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공연행사 등 다양한 서울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

5. 관광지 광역 연계방안

1) 산림 및 수변벨트 조성

(1) 산림벨트 조성

- 서울은 내4산과 외4산으로 대표되는 환상 산림의 중앙에 위치하여 산림자원의 관광순환벨트 조성에 유리하나, 현재까지 성곽복원에 주로 치중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의 관광 상품 노력이 부족함

- 서울은 성곽도시로서 북쪽으로 북악산(342.4m), 동쪽에 낙산(110.9m), 남쪽에 남산(265m), 서쪽에 인왕산(338.2m)의 이른바 내4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옛 성곽이 축조되었음. 따라서 서울의 도심과 외곽을 둘러싼 내/외4산의 복원된 성곽과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순환하는 도심/외곽 관찰형 코스 개발함
- 내4산(북악산-인왕산-낙산-남산)을 연계한 자연탐방형 연계순환벨트를 조성하여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과 역사경관 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함. 서울의 멋진 야경과 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성곽따라 10km 산책코스 프로그램'을 조성함



<그림 4-34> 명산 Grouse Mountain을 오르는 'Skyride'(Whistler Resort, Canada)

(2) 수상문화벨트 조성

- 청계천-서울숲-노들섬-선유도 수상문화벨트는 서울시민의 문화체험 및 자연체험관, 도시재생의 현장/도시리노베이션 수상문화벨트이나 아직 사업시행초기라서 다양한 관광경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활용 되지 못함
- 따라서 수상문화벨트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활용방안과 함께, 이를 한강 레저·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모색이 필요

- 수상문화벨트의 각 축인 청계천, 서울숲, 노들섬, 선유도에 각각의 테마를 부여, 시민들이 다양한 수상·수변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 한강유역과 연계한 수상·생태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길동 생태공원, 서울숲, 여의도 샛강, 밤섬, 선유도 생태공원, 월드컵공원 등)
- 수상 자전거 택시 도입·운영

2)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추진

(1) 서울-과천 양재천 공동 환경개선사업

- o 서울시 양재천의 경우 수질정화사업 등 일련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물놀이, 수영, 자전거 및 인라인 도로 개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악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지나 탄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서울시 지역은 복원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과천시의 경우 양재천 복개를 통한 자연형 하천 개발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할 계획이 진행중임
- o 따라서 이 두 지역간의 양재천을 공동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자전거, 인라인 도로를 연결하고 여가시설 등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을 연결하는 여가공간을 조성하게 될 수 있음



<그림 4-35> 양재천 모내기 교육장



<그림 4-36> 양재천 산책로 조성

(2) 서울-하남 미사리조정경기장-암사선사유적지 공동 관광지 개발사업

- 서울 강동지역의 암사선사유적지와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조정경기장은 직선거리로 불과 6km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여가·관광객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지역임
- 따라서 암사선사유적지는 교육·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적 기능을 특화하고, 미사리조정경기장 부근은 드라이브 코스, 카페·음식점 조성 등의 먹거리, 즐길거리를 특화하여 양 문화관광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공동 관광지 개발사업이 필요



<그림 4-37> 암사 선사주거지 내부



<그림 4-38> 미사리 조정 경기장

(3) 서울-의정부 우이동 엠티촌 연계루트 개발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엠티촌은 북한산을 끼고 발달한 북한산 우이공원 내 위치하여 대학생 MT, 직장·동료 모임, 사회단체 모임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박촌이 밀집해 있음
- 하지만 엠티촌 주변에 우이동 계곡을 제외하고는 크게 볼거리가 많지 않아 관광객들이 숙박 기능만을 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엠티 문화가 슬문화로 결부되는 특성으로 엠티촌의 문화 자체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또 다른 엠티촌으로 유명한 춘천시 강촌의 경우, 춘천 레저테마시티 기본계획에서 강촌 부근을 ‘로맨틱 테마타운’으로 조성, 강촌유원지, 폐철구간, 테마간이역, 남이섬으로 이어지는 낭만과 예술을 주제로 개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 따라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서울 북부 및 인근 의정부 관광·레저자원을 개발하여 엠티촌을 거점으로 연계루트, 관광지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관광기능을 확보하고 당일 및 1박 관광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요구

3)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권 개발

○ 한강변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 한강변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공동협력을 통한 수도권 관광활성화
- 수도권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 합의

- 5개 시.도를 회원으로 하는 수도권관광진흥 협의회 구성
- 수도권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 : 5개 시.도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공모
- 5개 시.도 관광사진전 개최 : 5개 시.도의 관광명소 사진 순회 전시
- 해외 관광판촉전 개최 : 수도권 관광매력 홍보 및 관광상품 마케팅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수도권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정
보 및 예약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5개 시.도가 사업비를 균등 부담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 (2006
년 사업주관 : 경기도)
- 한강변 5개 시.도 관광상품 기획.개발 및 홍보
- 시.도별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상품 홍보 추진
- 5개 시도 공동 관광사진전 개최
- 해외 관광판촉전 개최
- 수도권 관광상품 해외 판촉 및 신규시장 개척
- 수도권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시스템 콘텐츠 확대 및 시스템 안정화 추진
-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 자전거도로 수도권간 연계(3개소) 및 지속정비(총연장 80.7km)

- 광진교~구리시계, 암사취수장~하남시계, 행주대표~김포시

6. 관광지 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

1) 기본방향

- 국내·외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관광객 욕구의 변화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광자원 및 관광지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조율하고, 서울시 전체의 관광자원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원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각종 관광시설 등의 고유한 특성 및 다른 관광자원과의 차별성을 극대화시키고, 환경파괴 및 사회문화적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단위관광자원별 자원관리방안 모색
- 급속한 정보화 추세 및 관광행태 변화 추세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관광객 및 관광자원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2) 통합 관광자원 관리체계 수립

- 관광자원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광자원 관리방안, 단위자원별 관리방안, 지역관리운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계획 수립
- 단기적인 통합 관광자원관리방안으로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자원관리 협의체 구성
- 장기적으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하여 관광자원 관리 평가체계 구축
- 관광·문화·서울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특성이 차별화된 서울시에 맞는 평가영역을 선정하고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평가 실시

- 관광자원 평가체계를 통한 서울시 관광자원 관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 단위 관광자원별 관리운영방안 모색

- 이용자관리는 서울시 관광자원 중 과잉이용현상이 나타나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을 상쇄하지 않으면서 특정자원의 이용강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관광자원의 훼손을 방지함
 - (1) 방문자의 이용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변 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홍보함으로써 특정 자원에 대한 혼잡을 피할 수 있음
 - (2) 이용자가 밀집되는 장소와 이용자가 적은 장소에 따라 행사 및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과잉이용의 최소화
- 공공안전 관리는 시설의 노후화, 관광객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비한 구급체계로서 서울시 소방본부 및 구·군 소방서, 서울시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관리계획 수립
 - (1) 재난구조 정보시스템(SOS 시스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9신고 접수에서부터 병원후송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2) 관광객 스스로가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북부권역의 도봉산, 북한산 등의 산악지역 및 청계천, 한강지구, 월드컵공원 등 도심 여가 활동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수칙을 세우고, 지도촉진과 홍보활동을 강화
 - (3) 숙박시설 및 역사문화자원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환경관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산림, 식물 및 동물의 서식처·종,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항공사진, 필드샘플조사 등으로 표본이름, 날짜, 수집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함

(1) 매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학계, 지역주민단체,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해야 함: 길동 생태공원, 난지도 공원, 서울숲, 청계천 등 다양한 생태 관련 환경 교육이 가능한 시설에서 진행하도록 함

(2) 관광지 환경의 오염은 관광객뿐만이 아닌 지역주민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주게 됨으로 지역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시단을 운영하여 평소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몽해야 함

(3)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홍보 및 캠페인을 벌이며, 근본적으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 내 반입물건의 양 및 종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여 자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시켜야 함

o 시설이용관리는 숙박시설, 음식점,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 관광지의 주요시설의 크기, 위치, 모양, 조명, 색상, 선의 형태, 재료의 질감 등이 어떠한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가를 관찰하여 방문자의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함

4) 효율적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o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계획, 관광자원현황, 관광객이용현황, 관광자원별 관리자 실명제 등 관광자원과 관련한 자료를 총 망라하여 전산화하고, 각종 분석은 물론 손쉽게 빠르게 입력, 갱신, 편집, 검색이 가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서울시는 정부기관의 전국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제공 및 실시간 현황 자료를 제공받고 보다 현실적인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
- 서울시에서 각 관광시설 관련 도면들, 설립연도, 개·보수 상황, 향후 정비계획, 시설유지예산, 인력투입계획, 환경미화계획 등의 정보를 전산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향후 정비일정을 관리인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공시해 각종 시설들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각 관리인들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원부문관리운영팀을 운영
- 지원부문관리운영팀 운영은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지역내 관광관련학과 대학생들, 지역 청년회 등의 단체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
- 서울시권역의 여가문화공간(청계천, 서울숲, 한강변 등), 역사문화자원(고궁, 암사유적지 등), 위락관광자원(롯데월드, 월드컵 경기장 등) 등의 관리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정기간에 각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성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통합예약정보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숲 등의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5) 관광자원관리 협의체 구성

- 서울시 관광자원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및 각 관련부처간의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관리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관광자원관리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 서울의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관광자원 관리운영계획에서부터 관련기관들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내 관광

활성화뿐만이 아닌 주변지역간 균형적인 관광개발을 도모

- o 서울시 관광자원관리협의체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서울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운영에 대한 틀을 정기적으로 제시: 하이서울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민간 합동 단체 고려

제 V장 계획의 집행방안

제1절 집행단계 설정

제2절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제3절 관광지원체계 정비

제4절 개발 파급효과 분석

제1절 집행단계 설정

1. 1단계(2007년 ~ 2008년) 추진사업

- 부족한 상설 전통관광상품과 야간관광상품 마련을 위해, 역사문화관광상품 및 야간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육성해야함. 즉 운현궁의 궁중예법 체험관광, 종묘제례의 관광상품화, 전통문화 프로그램의 상설화 및 홍보강화, 전통재래 시장과 벼룩시장의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남산골 한옥마을의 야간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함
- 한강시민공원의 수상 레포츠시설 및 X게임 시설 확충에 힘쓰고, 홍대 일대의 청년하위문화공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함
- 도보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관광안내소간 연계강화 및 비치시설 확충으로 관광안내소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환경 여건을 정비해 나가야 함. 또한 안내 표지판의 내실화를 위해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Story를 발굴, 제시하고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 시티투어노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한편, 1단계 사업 시기는 2단계 및 계속 추진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할 것임. 쇼핑여건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관광특구와 관광특구 지정 대상 장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북한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전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2단계(2009년 ~ 2011년) 추진 및 계속사업

- 2단계 추진 및 계속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지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관광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광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 관광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체계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서울의 전반적인 관광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관광교통카드 발행, 시티투어 정류장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권역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서울관광컨벤션 뷰로 설치를 추진함
- 한편, 점점 다양해지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북한산 일대의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매진하고, 종교관광상품, 보건관광상품 등 각종 특별관심분야 관광상품을 개발함
- 선유도 공원 및 선유도 보행육교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 및 한강다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변 공간 활용방안으로 한강의 카지노선 유치방안을 모색해 나감

3. 단계별 전략 구상

- 단계별 전략: 사업별 3단계 구상[단기(2007-2008)/중기(2009-2010)/장기(-2011 이후)]를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관광객, 서울시민, 관광기업에게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서울 창조」로 가는 로드맵을 명확하게 함
- 추진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의 1단계는 주로 관광진흥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재원 조달 및 현재 시점에서 사업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관광중요도에 있어서 시급한 관광사업중에

주안점을 둬. 2단계(2008-2009)는 세부시행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해 S/W 개발(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H/W 개발(숙박시설 확충, 안내시스템 정비 등)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함

- 3단계(2010 이후)는 세부시행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를 통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지속, 폐지, 보완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이후계획에 반영토록 함

1) I 단계: 관광추진사업 기반 구축기(-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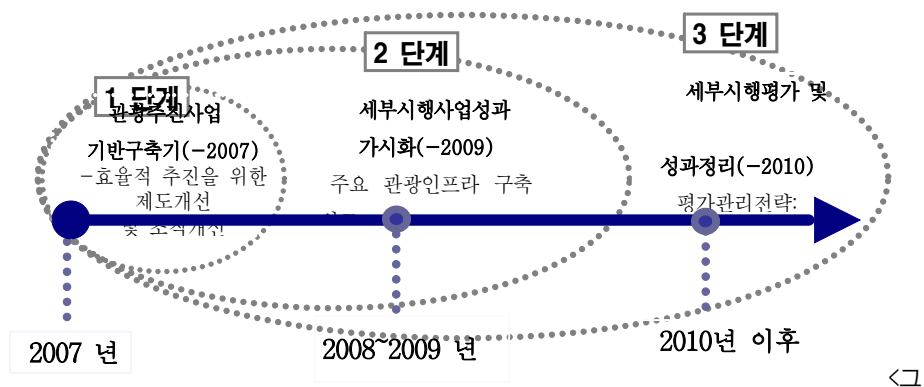
-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직개선 후 사업 추진

2) II 단계: 세부시행사업성과 가시화(-2010)

- 주요 관광인프라 구축완료
- 다양한 관광서비스의 통합

3) III 단계: 세부시행 평가 및 성과관리(-2011 이후)

- 평가관리 전략: 관광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림 5-1> 단계별 전략

제2절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1. 투자계획

- 본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27.8억 원이며, 국고 155억 원(21.3%), 기금 69.1억 원(9.5%), 지방비 165.9억 원(22.8%), 민자 388.4억 원(46.5%)로 구성됨
- 본 계획추진에 소요되는 투자계획은 2006년도 재원을 기준으로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감안한 추정치로써, 향후 계획수행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확정이 필요함
- 본 투자계획의 국고 : 기금 : 지방비 : 민자 비율은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2001년~2010년에서의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함

2.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1) 사업별 투자계획

- 지역사업별로는 ‘도심지역’ 223.4억 원, ‘동남지역’ 44억 원, ‘서남지역’ 73.3억 원, ‘북부지역’ 26억 원 투자비 소요 추정
- 추진사업별로는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 사업에 95.4억 원, ‘관광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 사업에 206.3억 원,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 사업에 59.4억 원 투자비 소요 추정

2)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로는 2007년 11.44억 원, 2008년 106.5억 원, 2009년 167.5억 원, 2010년 145.9억 원, 2011년 131.7억 원, 그 이후가 61.8억 원 수준의 투자가 예상

○ 따라서 투자액은 중기, 초기, 장기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표 5-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중점 추진사업

기본구상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 세부추진과제	초기		중기		장기		사업비 (억)
		2007	2008	2009	2010	2011	계속	
■ 도심지역(223.4억)								
도심지역	4대문안 역사 문화벨트 조성							26.2
	청계천지역 코스모폴리탄라인활성화							29
	송례문 광장 조성							6.3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							10
	남산의 관광상품화 추진							26.2
	5대궁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96.2
	쇼핑여건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23.5
	나이트라이프 관광상품 개발							6
■ 동남지역(44억)								
동남지역	엔터테인먼트 중심형 관광 육성							12
	도심환경재생, 서울숲 활성화							21
	고급문화관광 활성화							11
■ 서남지역(73.3억)								
서남지역	블루 문화벨트 조성							9
	상암 쇼핑엔터테인먼트공간 육성							15
	클럽 문화거리 활성화							4
	에코 체험라인 구축							2
	워터프론트 레저 공간 조성							4.3
	노들섬의 랜드마크화							30
	한강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9
■ 북부지역(26억)								
북부지역	그린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15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10

<표 계속>

추진전략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 세부추진과제	초기		중기		장기		사업비 (억)
		2007	2008	2009	2010	2011	계속	
■ 관광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서울 만들기(95.4억)								
문화관광컨텐츠	스토리텔링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10
테마문화벨트	내외산(성곽복원)연계순환벨트조성							13.9
시민 여가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충	시민여가형 한강수변레저공간 조성							15
	다양한 특별체험 관광프로그램 조성							8
	소외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9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특구의 육성사업 지원							14.5
	국제 컨벤션 산업의 효과적 지원							25
■ 관광 기반이 잘 준비된 서울 만들기(206.3억)								
창의적인 지식기반 관광전문 휴먼웨어 조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11
	매력있는 문화유산 및 생태 해설사 육성							16
세계 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	서울 관광통계시스템 구축							9
	문화관광 연계 패스 발행							민자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지원 및 이용개선							14
	도심부 도로 관광코스 경로 표시 사업							3
	유비쿼터스 서울관광 시범지역 운영							29.5
	관광안내소의 선진화							78.3
	서울관광진흥공사의 설립검토							2.4
관광서비스가 체계적인 관광행정	관광수지 개선 및 지방관광 활성화 유도							1
	중장기적 관광 예산의 안정적 확보							10
	관광 주체간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							27.6
	관광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5
■ 더 많이 팔기 위한 서울 만들기(59.4억)								
해외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동북아 관광교류도시로서 관광이미지 홍보							16.7
	동북아 3수도 관광협력 체계 구축							12.5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의 획기적 정비							30.2

3. 재원조달계획

1)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1) 시비조달

-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추진사업의 총 사업비 가운데 시비로 충당될 비용이 165.9억인데, 이 사업비가 5개년 및 계속 사업비의 합계인 점, 그리고 향후 관광과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현재의 관광과 예산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부족함
- 추진주체 계획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매력있는 관광자원 창출 사업을 위해서는 문화과와 문화재과가 담당할 업무가 있는 바, 문화관광국내 업무연계를 통해 관광부문 예산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다만 21세기 주요한 산업부문이 될 서울 관광산업의 위상제고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광정책 운영을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 관광관련 업무를 관광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국비조달

-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추진사업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로 충당될 비용은 155억임.
- 그러나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중 국비 조달이 필요한 사업의 대부분이 예술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사업이므로 예술문화 및 문화재관리 분야의 국고 지원액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세부 사업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 등으로 관광상품개발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비 조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관광관련 국고 지원금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진흥법상의 국고보조금이 있음
-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근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유일의 정책금융이나 기금의 용도가 <표 5-2>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지역적·내용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표 5-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구 분	내 용	비 고
기금용도	○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 제공사업 ○ 국내외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국민관광진흥사업 ○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	○ 여행업자 및 카지노업자의 해외지사의 설치 ○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 관광사업체의 운영의 합리화 ○ 국제회의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관광토산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 또한 건설 및 개보수자금은 비용의 50% 이내, 운영자금은 전년도 외화획득액의 30% 이내로 용자지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용자지원 조건 또한 사업별

로 상환기간이 상이하여 공익성 및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향후 기금지원의 확대와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공익성,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및 한도 조정이 필요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주로 관광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 지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고지원은 관광진흥법 제71조에 근거한 국고보조금임

<표 5-3> 국고 보조금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재정 지원	○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1조
국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보조금 신청서 기재 사항	○ 사업개요 (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 포함) 및 효과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자체 생략 가능) ○ 사업공정계획 ○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지자체 생략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관광진흥개발기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사업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각종 관광진흥책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에도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름

2)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 본 계획은 관광단지 개발 등의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중점추진사업을 제시하였으므로, 민자유치 등을 통한 대규모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은 요구되지 않음
- 다만, 보다 장기적인 서울시 관광개발계획을 위한 민간부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기본방향 및 기본전략을 재설정해 두도록 함

(1) 기본방향

-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 및 지역개발 의의 등을 주민 홍보, 민간투자설명회 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지역민과 국민에게 적극 홍보계도하여 관광개발 사업분위기를 사전에 확산시킴
- 관광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을 조기 추진하고,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합리적인 민간참여 절차를 정립하며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함

(2) 민자유치 기본전략

- 하부기반시설 개발은 중앙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적극적 우선지원을 유도하고 일부 관광관련 개발사업의 민간기업 대리시행제도를 검토함
- 토지소유자, 지역단체 및 조합 등 지역잠재 투자가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권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 세제, 금융 면에서 각종 개발투자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지방정부 소유 토지에의 위탁개발과 제3섹타 방식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
-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매스컴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개발에 대한

지역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기반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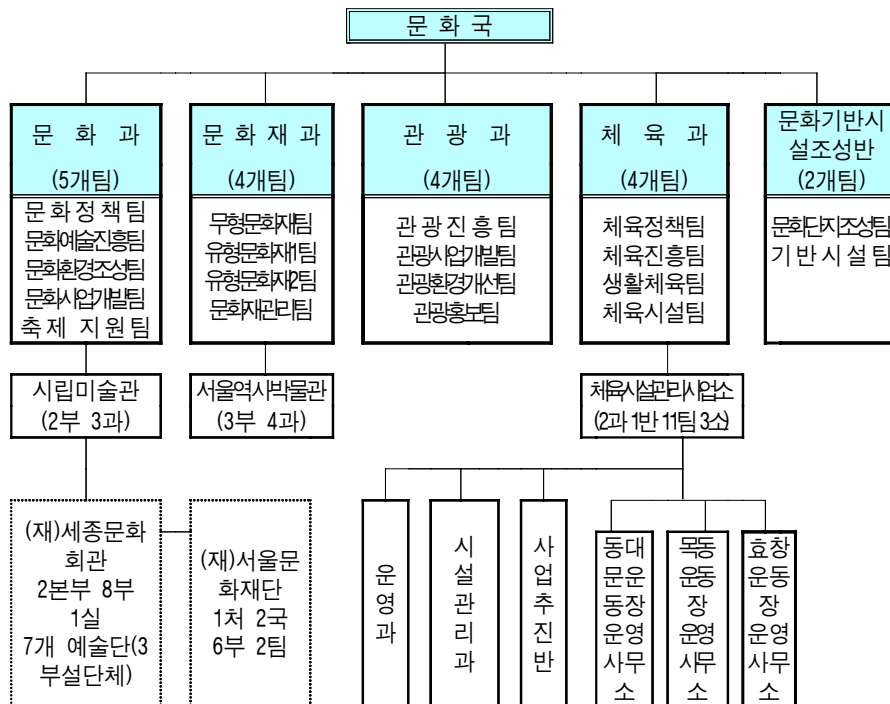
제3절 관광지원체계 정비

1. 관련 조직 개선

1) 추진 주체 현황

- 본 관광계획의 사업주체가 되는 서울시 문화국은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과 등 4과 1반 19팀 3사업소 2재단법인4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4> 서울시 문화국 조직도



2) 개선안

- 서울시 관광업무의 주무과가 서울시 관광과이기는 하나, 서울시 문화관광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시 문화과와 문화재과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한강의 관광상품화는 서울시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와, 북한산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업무연계가 요구됨
- 특히 서울시는 한국관광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화관광축제 및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와의 협조하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시범가로와 문화행사 등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 연계가 필요함

2. 관련 법/제도 개선

1) 관광특구제도 개선

- 현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6조 2항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결과가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이상 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또는 내국인 관광객 100만 명(서울특별시는 500만 명) 등 내국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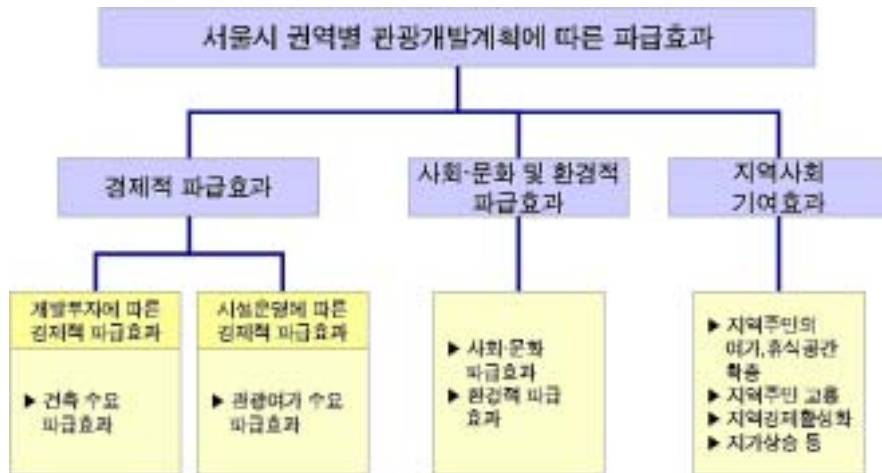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상비 사용 협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정적 시설 투자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광사업 또는 유관업무를 하는 곳의 고충은 경상비와 같은 인건비, 경비에 대한 부담의 감소를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적 시설 (관광안내소, 템플스테이 등)이 강한 곳의 인력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자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며 이에 대한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의 검토 요구

제4절 개발 파급효과 분석

1. 파급효과 기준

-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설 공사 및 부지조성과 관련한 개발투자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설운영수익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분되며, 개발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부지 조성, 여가관광 시설 및 인프라 건축 등 건설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수익에 따른 효과는 시설 운영시 방문객들의 지출액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소득유발효과를 계산함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구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효과 등을 나타내는 환경적 파급효과로 구분
- 이 밖에 서울시민의 휴식공간 확충, 지역주민의 고용·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가상승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



〈그림 5-2〉 파급효과 체계

2. 경제적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기준

- 서울시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는 관련 산업을 통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파급효과 측정 모형으로는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함
- 특히, 관광·여가산업에 대한 통합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산업에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새로 분류하였음
-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는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광여가수입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 투자비와 관광여가 지출 및 수입을 관광 산업 부문에 투입

<표 5-5> 파급효과 산업분류 체계

구분	산업분류
1. 농림수산물	0001 벼 ~ 0030 내수면 양식어종
2. 광산물	0031 무연탄 ~ 0045 기타 비금속광물
3. 음식료품	0046 도축육 ~ 0086 담배
4. 섬유 및 가죽제품	0087 견사 ~ 0117 기타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0118 제재목 ~ 0132 기타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0133 신문 ~ 0136 기록 매체 출판 및 복제
7. 섬유 및 석탄제품	0137 연탄 ~ 0147 기타 석유 정제품
8. 화학제품	0148 석유화학기초제품 ~ 0177 기타고무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0178 판유리 및 1차유리 ~ 0193 기타 토석제품
10. 제1차 금속	0194 선철 ~ 0214 기타비철금속 1차제품
11. 금속제품	0215 건물용 금속제품 ~ 0225 기타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0226 내연기관 및 터빈 ~ 0245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46 발전기 및 전동기 ~ 0274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4. 정밀기기	0275 의료기기 ~ 0280 시계
15. 운수장비	0281 승용차 ~ 0294 자전거 및 기타 운수장비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295 목재가구 ~ 0304 기타 제조업 제품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305 수력 ~ 0311 수도
18. 건설	0312 철근철골구조주택 ~ 0328 기타건설
19. 도소매	0329 도매
20. 운수 및 보관	0334 철도화물운송, 0336 도로화물운송, 0343 하역 ~ 0344 보관 및 창고
21. 통신 및 방송	0346 우편 ~ 0351 유선방송
22. 금융 및 보험	0352 중앙은행 및 은행에 금융기관 ~ 035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358 주택 소유 ~ 0365 컴퓨터 관련 서비스, 0367 광고 ~ 0371 기타사업서비스
24. 공공행정 및 국방	0372 중앙정부 ~ 0373 지방정부
25. 교육 및 보건	0374 교육기관 (국공립) ~ 0387 위생서비스 (산업)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395 기타 사회서비스 ~ 0400 가사 서비스
27. 기타	0402 사무용품, 0404 분류불명
28. 관광산업	0330 소매, 0331 음식점, 0332 숙박, 0333 철도여객운송, 0335 도로여객운송, 0337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 0342 항공운수보조서비스, 0345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0366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388 문화 서비스 (국공립) ~ 0394 산업 및 전문단체, 0401 기타 개인서비스, 0403 가계외 소비 지출

주: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관광산업을 재분류함

이강욱(2003).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최승묵(2001). 「관광비와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지역간산업간 연관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투입계수, 유발효과계수표의 작성

- o 투입계수란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나타내며, 투입계수는 산업간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기초가 되며,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매개변수라 할 수 있음
- o 투입계수를 통해 산출되는 생산유발계수는 ‘다부문 승수 (multi-sector multiplier)’ 또는 ‘레온티에프 승수 (Leontief multiplier)’라고도 불리며, 1단위의 최종수요가 주어지는 경우에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 간접적 파급효과를 나타냄. 생산유발계수는 앞서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투입계수 A 에 대하여 $(I-A)^{-1}$ 라는 역행렬 함수로서 도출함
- o 고용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고용승수 및 직접소득 효과지수를 통하여 생산유발계수와 행렬의 곱으로 산출함

〈파급효과 산식〉

생산유발효과: $X = (I - A)^{-1} \times F$
 I : 단위행렬, A : 투입산출계수 행렬, $(I - A)^{-1}$: 산업승수 행렬,
 F : 외부수요의 변화행렬

고용유발효과: $Eh = AE \times (I - A)^{-1} \times Ah$
 AE : 고용자계수, I : 단위행렬, A : 투입산출계수 행렬,
 $(I - A)^{-1}$: 산업승수 행렬 Ah : 투입계수행렬

부가가치유발효과: $Vh = Av \times (I - A)^{-1} \times Ah$
 Av : 부가가치계수, I : 단위행렬, A : 투입산출계수 행렬,
 $(I - A)^{-1}$: 산업승수 행렬, Ah : 투입계수행렬

소득유발효과: $lh = Al \times (I - A)^{-1} \times Ah$
 Al : 소득유발계수, I : 단위행렬, A : 투입산출계수 행렬,
 $(I - A)^{-1}$: 산업승수 행렬, Ah : 투입계수행렬

3) 분석의 전제

- 2007~2011년까지 사업 이행 절차 및 건설 기간동안 관광산업부문의 투자비 투입이 예상되며 총 580.8억 원 수준으로 파악됨(불변가 기준임)
- 2007~2011년까지 사업운영기간 동안에는 사업운영으로 예상 관광수입이 총 2007년 13조, 2008년 14조, 2009년 15조, 2010년 15조, 2011년 16조 원 예상(불변가 기준임),

4)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결과

- 생산유발효과: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약 124조 4천만 원 수준으로, 사업투자 983억 원, 사업운영 1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예상

<표 5-6> 각 산업간 생산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투자	사업운영	총계
생산유발효과 합	983	1,243,790	1,244,773

- 고용유발효과: 5년간 고용유발효과는 약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사업투자 22억 원, 사업운영 2조 8천억 원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예상
- 특히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100만원 당 1인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고용유발효과로 인한 고용인구는 5년동안 약 2백 8십명 수준

<표 5-7> 각 산업간 고용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투자	사업운영	총계
고용유발효과 합	22	28,279	28,301

- 부가가치유발효과: 5년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59조 원 수준으로, 사업투자 463억 원, 사업운영 58조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발생 예상

<표 5-8> 각 산업간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투자	사업운영	총계
부가가치유발효과 합	463	585,479	585,942

- 소득유발효과: 5년간 소득유발효과는 약 25조 원 수준으로, 사업투자 194억 원, 사업운영 25조 원의 소득유발효과 발생 예상

<표 5-9> 각 산업간 소득유발효과의 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투자	사업운영	총계
소득유발효과 합	194	245,221	245,415

<파급효과 분석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관광개발계획에서 파급효과 분석시 각 수요 F에 대하여, $X = (I - A)^{-1} \times F$ 식을 적용하여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를 그대로 곱하는 경우가 많음

가령, 본 파급효과 분석 결과,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합 (농림수산물부터 관광사업까지)은 3.2349로 나타나는데, 이 수를 사업운영기간의 매출액을 곱한 것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임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이 n차 항까지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파급효과를 내는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각 산업간 행렬의 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생산유발계수 $n \times n$ 행렬과 외부 수요변화 $1 \times n$ 행렬의 곱으로서 파급효과를 분석함

<표 5-10> 생산유발계수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농림수산물	1.0911	0.0084	0.4269	0.0073	0.0117	0.0101	0.0008	0.0086	0.0055	0.0030	0.0047	0.0044	0.0031	0.0048
2. 광산품	0.0007	1.0008	0.0018	0.0011	0.0022	0.0011	0.0011	0.0031	0.1138	0.0099	0.0038	0.0029	0.0027	0.0028
3. 음식료품	0.1266	0.0114	1.1567	0.0129	0.0096	0.0148	0.0014	0.0124	0.0092	0.0050	0.0079	0.0075	0.0051	0.0079
4. 섬유 및 가죽제품	0.0061	0.0034	0.0047	1.3292	0.0106	0.0089	0.0008	0.0093	0.0058	0.0026	0.0045	0.0044	0.0029	0.0069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63	0.0148	0.0329	0.0234	1.3581	0.3807	0.0015	0.0198	0.0277	0.0064	0.0185	0.0136	0.0131	0.0178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34	0.0041	0.0055	0.0076	0.0088	1.1157	0.0014	0.0077	0.0057	0.0031	0.0052	0.0050	0.0047	0.0071
7. 섬유 및 석탄제품	0.0415	0.0755	0.0375	0.0426	0.0429	0.0367	1.0294	0.0929	0.1103	0.0647	0.0469	0.0374	0.0184	0.0268
8. 화학제품	0.1107	0.0330	0.0938	0.2514	0.1119	0.1123	0.0145	1.4434	0.0646	0.0303	0.0689	0.0766	0.0676	0.0989
9. 비금속광물제품	0.0031	0.0026	0.0106	0.0042	0.0085	0.0048	0.0009	0.0112	1.1904	0.0260	0.0128	0.0117	0.0203	0.0220
10. 제1차 금속	0.0079	0.0128	0.0133	0.0098	0.0112	0.0097	0.0051	0.0200	0.0314	1.7028	0.4921	0.2833	0.0648	0.0714
11. 금속제품	0.0052	0.0064	0.0189	0.0091	0.0087	0.0064	0.0054	0.0144	0.0147	0.0096	1.1174	0.0620	0.0138	0.0281
12. 일반기계	0.0093	0.0151	0.0081	0.0097	0.0117	0.0130	0.0046	0.0203	0.0209	0.0160	0.0286	1.2118	0.0126	0.0174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053	0.0097	0.0049	0.0057	0.0069	0.0120	0.0018	0.0069	0.0114	0.0081	0.0124	0.0734	1.2302	0.1972
14. 정밀기기	0.0014	0.0009	0.0010	0.0009	0.0011	0.0013	0.0007	0.0019	0.0013	0.0015	0.0023	0.0135	0.0060	1.0867
15. 수송장비	0.0057	0.0254	0.0050	0.0038	0.0052	0.0076	0.0010	0.0042	0.0146	0.0036	0.0051	0.0089	0.0023	0.004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011	0.0018	0.0034	0.0064	0.0015	0.0022	0.0003	0.0014	0.0016	0.0009	0.0031	0.0016	0.0010	0.002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125	0.0500	0.0205	0.0356	0.0557	0.0338	0.0110	0.0540	0.0686	0.0786	0.0486	0.0341	0.0195	0.0262
18. 건설	0.0044	0.0069	0.0052	0.0058	0.0055	0.0081	0.0012	0.0063	0.0063	0.0061	0.0056	0.0052	0.0036	0.0063
19. 도소매	0.0118	0.0076	0.0282	0.0278	0.0347	0.0393	0.0026	0.0295	0.0230	0.0230	0.0300	0.0337	0.0320	0.0398
20. 운수 및 보관	0.0063	0.0049	0.0121	0.0139	0.0162	0.0137	0.0045	0.0097	0.0172	0.0144	0.0110	0.0111	0.0063	0.0088
21. 통신 및 방송	0.0101	0.0142	0.0132	0.0177	0.0185	0.0356	0.0038	0.0152	0.0225	0.0115	0.0134	0.0143	0.0128	0.0183
22. 금융 및 보험	0.0416	0.0823	0.0418	0.0518	0.0583	0.0599	0.0108	0.0539	0.0798	0.0409	0.0442	0.0493	0.0344	0.0468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555	0.0560	0.0647	0.0635	0.0520	0.1173	0.0119	0.0642	0.0520	0.0413	0.0477	0.0531	0.0414	0.0837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5. 교육 및 보건	0.0070	0.0059	0.0094	0.0122	0.0106	0.0113	0.0029	0.0269	0.0136	0.0195	0.0156	0.0285	0.0324	0.086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18	0.0034	0.0025	0.0038	0.0031	0.0035	0.0009	0.0031	0.0047	0.0032	0.0036	0.0036	0.0016	0.0031
27. 기타	0.0219	0.0452	0.0278	0.0452	0.0320	0.0614	0.0071	0.0319	0.0409	0.0255	0.0416	0.0350	0.0203	0.0320
28. 관광산업	0.0348	0.0921	0.0567	0.0667	0.0499	0.1088	0.0098	0.0521	0.0694	0.0369	0.0558	0.0556	0.0398	0.0601

<표계속>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농림수산물	0.0045	0.0095	0.0018	0.0075	0.0051	0.0074	0.0078	0.0041	0.0034	0.0066	0.0075	0.0082	0.0674	0.0531
2. 광산품	0.0028	0.0033	0.0072	0.0152	0.0003	0.0006	0.0005	0.0003	0.0011	0.0007	0.0008	0.0013	0.0021	0.0008
3. 음식료품	0.0075	0.0099	0.0029	0.0089	0.0089	0.0133	0.0136	0.0071	0.0054	0.0113	0.0091	0.0138	0.1171	0.0981
4. 섬유 및 가죽제품	0.0200	0.0504	0.0017	0.0046	0.0051	0.0050	0.0049	0.0028	0.0025	0.0099	0.0047	0.0147	0.0455	0.0050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36	0.1145	0.0035	0.0286	0.0084	0.0074	0.0096	0.0082	0.0136	0.0102	0.0109	0.0171	0.0659	0.0128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48	0.0084	0.0026	0.0061	0.0076	0.0051	0.0095	0.0143	0.0253	0.0113	0.0133	0.0200	0.0190	0.0091
7. 섬유 및 석탄제품	0.0370	0.0414	0.0702	0.0394	0.0279	0.1948	0.0150	0.0107	0.0133	0.0281	0.0296	0.0446	0.0534	0.0596
8. 화학제품	0.1487	0.1873	0.0422	0.0703	0.0114	0.0384	0.0157	0.0092	0.0165	0.0266	0.1433	0.0999	0.0940	0.0276
9. 비금속광물제품	0.0161	0.0190	0.0056	0.1104	0.0017	0.0024	0.0027	0.0014	0.0069	0.0033	0.0035	0.0078	0.0121	0.0036
10. 제1차 금속	0.1808	0.0939	0.0129	0.1431	0.0025	0.0123	0.0050	0.0030	0.0100	0.0158	0.0069	0.0241	0.0166	0.0071
11. 금속제품	0.0380	0.0404	0.0058	0.0855	0.0024	0.0056	0.0031	0.0027	0.0060	0.0079	0.0040	0.0120	0.0166	0.0053
12. 일반기계	0.0842	0.0143	0.0098	0.0445	0.0029	0.0079	0.0025	0.0016	0.0048	0.0333	0.0059	0.0162	0.0105	0.0051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808	0.0242	0.0145	0.0576	0.0071	0.0130	0.0300	0.0075	0.0104	0.0114	0.0113	0.0469	0.0220	0.0090
14. 정밀기기	0.0123	0.0014	0.0020	0.0031	0.0007	0.0012	0.0018	0.0004	0.0011	0.0025	0.0049	0.0024	0.0040	0.0012
15. 수송장비	1.3731	0.0049	0.0019	0.0056	0.0028	0.0632	0.0028	0.0019	0.0017	0.0291	0.0046	0.1022	0.0097	0.014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0135	1.0194	0.0008	0.0059	0.0024	0.0022	0.0033	0.0019	0.0021	0.0036	0.0052	0.0067	0.0221	0.004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324	0.0347	1.1331	0.0250	0.0115	0.0169	0.0184	0.0115	0.0212	0.0236	0.0257	0.0332	0.0249	0.0279
18. 건설	0.0048	0.0058	0.0361	1.0070	0.0075	0.0049	0.0089	0.0061	0.0564	0.0103	0.0073	0.0143	0.0066	0.0095
19. 도소매	0.0355	0.0379	0.0066	0.0262	1.0268	0.0094	0.0066	0.0036	0.0051	0.0103	0.0169	0.0169	0.0292	0.0122
20. 운수 및 보관	0.0124	0.0125	0.0034	0.0116	0.0020	1.0092	0.0024	0.0013	0.0020	0.0033	0.0036	0.0047	0.0101	0.0065
21. 통신 및 방송	0.0153	0.0181	0.0080	0.0165	0.0568	0.0194	1.1762	0.0348	0.0383	0.0205	0.0155	0.0328	0.0446	0.0370
22. 금융 및 보험	0.0574	0.0463	0.0463	0.0504	0.0453	0.0445	0.0387	1.1593	0.0757	0.0284	0.0353	0.0509	0.0424	0.0436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517	0.0722	0.0290	0.1008	0.1077	0.0589	0.0859	0.0900	1.0691	0.0545	0.0595	0.1706	0.0762	0.1100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5. 교육 및 보건	0.0301	0.0140	0.0156	0.0174	0.0067	0.0126	0.0132	0.0067	0.0109	0.0102	1.0226	0.0131	0.0091	0.009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30	0.0031	0.0013	0.0031	0.0024	0.0162	0.0021	0.0032	0.0017	0.0035	0.0038	1.0035	0.0073	0.0037
27. 기타	0.0263	0.0374	0.0149	0.0296	0.0484	0.0325	0.0852	0.0432	0.0318	0.0711	0.0508	0.0926	1.0288	0.0343
28. 관광산업	0.0581	0.0678	0.0196	0.0720	0.0650	0.1245	0.0910	0.0479	0.0360	0.0711	0.0535	0.0834	0.5744	1.0821

3. 사회·문화 및 환경적 파급효과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1) 지역 이미지 제고

- 관광자원 및 관광특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보다 깨끗한 서울시 권역별 관광·여가자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킴
- 각 권역에 따라 특색있는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특화되며, 이에 따라 내·외국인들의 방문 증대 예상

(2) 지역 인프라 증가

- 본 계획으로 인해 관광자원 주변의 시설물 개발,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정돈,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 예정으로 있으며, 본 계획 개발시 상하수도 정비, 지역 정주공간 인프라 정비 등 지역의 인프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안내소 설치 등 물리적 환경 정비·확충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 및 어메니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3) 관광·여가기회 증대효과

- 청계천 일대 관광특구 조성, 서울숲, 상암 월드컵 공원 등의 여가공간 거점 선정 등은 관광·여가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주민과 수도권지역 주민에게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
- 또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및 각종 지역 행사의 개최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본 대상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광역 연계 구상을 통한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통하여 수도권 전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 환경적 파급효과

(1) 서울시 관광자원의 자연환경 보전·복원

- 개발 시, 서울시 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계획하고, 공원 등의 공간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
- 이를 통하여, 생태관광자원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기존의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대규모 관광개발을 지양함으로써 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에 있어서 생태환경 및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자연경관의 향상

- 서울 도심의 복잡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관이 아름다운 도심 관광지 서울을 재창조함으로써, 현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지향하는 여가·관광 선호도에 근접하게 됨
- 특히 도심에서 찾기 어려운 서울숲, 월드컵 공원 등의 자연공원 경관 조성은 도심속의 휴식을 원하는 서울시민 생활만족에 큰 향상 기대

(3) 자연생태계 보전

- 개발 대상지 중 관광특구 등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상가의 난립 등

으로 자연 경관 및 생태계가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임

- 향후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후 지속적인 생태계 관리를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4. 지역사회 기여효과

1) 지역주민

(1)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각종 스포츠 시설·공간 확충 등 지역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 다양한 문화활동 및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자전거도로 등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 양질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산, 웰빙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속도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여가 시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 공사 및 관광개발 운영상의 인원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원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이와 관련, 사업투자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며 실제 운영을 하는 5년간 약 28,000명 이상의 소요인력의 고용 창출이 가능

2) 서울시

-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o 주변환경 개선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o 서울시 내·외국인 관광객 증대는 결국, 관광자원 일대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의 개발을 확대시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옴으로써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구연석, "국제회의 관광이벤트를 통한 도시 관광산업 진흥방안", 「도시문제」, 2000.8월호
- 김문숙, 『생태관광을 통한 장소관측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성혁, 『관광마케팅론』, 대왕사, 1994
- 김시중·이응규, "서울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 5호, 1999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 , 『2004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 『200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4
- ,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 , 『서울시 문화관광상품 마케팅 방안』, 2002
- ,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제3차)』, 2001
- , 『2002년 월드컵 서울시 외래방문객 예측 연구』, 2000
- , 『월드컵 전략지역 장소마케팅-홍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 2000
- , 『서울 관광마케팅 지원전략 연구』, 1997

- ,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방향 연구』, 1995
- , 『지도로 본 서울』, 1994
- 서울특별시, 『2002년 월드컵 계기 서울이미지 개발 및 관광홍보전략』, 2001
- ,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001
- , 『뚝섬지구 개발구상』, 2001
- , 『공원현황』, 2000
- ,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2000
- , 『새서울시정백서』, 2000
- , 『서울시 교통정비중장기계획』, 2000
- , 『서울의 환경』, 2000
- , 『중기투자·재정계획(2000~2004)』
- , 『한강시민공원』, 1999
- , 『한강생태계 조사』, 1998
- , 『2001년 성과주의 예산』, 2001
- ,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 서울특별시 관광과, 내부자료
- 이소영, 『지역문화의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일본국제관광진흥회(JNTO), 『일본국제관광통계』, 각년도
- 한국관광공사, “SIT의 개념과 사례”, 『관광정보』 1995, 3·4월호(통권 256호)
- , 『2004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2004
- , 『1999 국민여행실태조사』, 1999

- , 『외래방문객 실태조사』, 각년도
- ,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각년도
- , 『한국 국제회의 산업현황』, 각년도
- , 『한국관광통계월보』, 각년도
- , 『한국관광통계연보』, 각년도
- , 『일본 관광시장 분석』, 2001
- , 『한국관광인지도에 대한 세계여론 조사』, 2001
- , 『2001 해외마케팅 전략』, 2000
- , 『'99년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0
- , 『방한외래객 추이 분석』, 1999
- , 『서울 근교권 관광개발계획』, 1992
-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001
-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 연구』, 2001
-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9
- , 『관광수요 예측 및 경제 파급효과분석』, 1999
- , 『관광안내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1999
- ,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1999
- , 『관광 표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기본방안』, 1998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제관광 수요예측』, 200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년도 보건관광사업 추진결과보고서』, 2000

행정자치부, 『도시연감』, 1999

<외국문헌>

Harrison A. Price, "The Amusement Park & Attraction" in Arlin F.Epperson(Ed.), Private and Commercial Recre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1986

Hsu, C. H. C., "Residents' Support for Legalized Gaming and Perceived Impacts of Riverboat Casinos: Changes in Five Yea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00, vol.38

Krippendorf, J., Marketing et Trourisme, Herbert Lang, Berne, and Peter Lang, Frankfurt, 1971

McCarthy, J., Basic Marketing, Richard D. Irwin, Inc., 1960

Myerscough, J., The Economic Importance of Arts in Britain, Policy Studies Institute, London, 1988

Place S.E., "Nature Tourism and Development in Tortuguero",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1, 18(2)

Renaghan, L.M., "A New Marketing Mix for the Hospitality Industry",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April, 1981

Richards, G., "Tourism and the World of Culture and Heritag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00, vol.25(1)

Smith, V.L., Hosts and Guest: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Pennsylvania Press, 1977

Telfer D., "Strategic alliances along the Niagara Wine Route", Tourism

- Management, 2001, vol.22
- Wallace, D.R., "Eco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1992, 82(8)
- Weiler, B. & Hall, C., Special Interest Tourism, Belhaven Press: London, 1992
- Singapore Tourism Board, Singapore Annual Report on Tourism Statistics, 1998
- Singapore Tourist Promotion Board, Tourism 21: Vision of a Tourism Capital, 1996
- Travel & Tourism Intelligence, City Report, 1999, No.3
- WTO, Tourism Highlight 2000, 2000
- WTO, Tourism 2020 Vision, 1999
- WTO, Tourism Highlights, 1999
- WTO, Tourism Highlight, 2001
- WTO, Yearbook, 1998
- WTO, Yearbook, 1999
- 京都市, 『京都市観光振興推進計劃』, 2001
- <인터넷 홈페이지>
- NYC & Company (<http://www.nycvisit.com>)
- Tokyo Convention & Visitors Bureau (<http://www.tcvb.or.jp>)
- 가나아트21 (<http://www.ganaart21.com>)

강남구청 (<http://tour.kangnam.seoul.kr>)
국립국악원 (<http://www.ncktpa.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남산케이블카 (<http://www.cablecar.co.kr>)
문화산업지원센터 (<http://www.kcipc.org>)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npa.or.kr/pukan>)
산악자전거 전문 홈페이지 (<http://www.mountainbike.co.kr>)
서울시 문화관광정보 (<http://www.visitseoul.net>)
서울투어인포뱅크 (<http://www.seoultour.co.kr>)
서울특별시 (<http://www.metro.seoul.kr>)
엠파스 시티스케이프 (<http://cityscape.empas.com>)
오버클래스 (<http://www.wowyes.co.kr>)
전국관광호텔협회 (<http://hotelskorea.or.kr>)
태국관광청 (<http://www.tourismthailand.org>)
코리아인사이트 (<http://korea.insights.co.kr>)
한강시민공원 (<http://www.hanriver.seoul.kr>)
한강유람선 (<http://www.pleasureboat.c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한국관광호텔업협회 (<http://hotelskorea.or.kr>)
한국의 산하 (<http://mountains.new21.net>)
한국일반여행업협회 (<http://koreatrevel.or.kr>)
화계사 (<http://galaxy.channeli.net/~pjhmin>)

A Study on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n Seoul

<u>Project Number</u>	<u>SDI 2005-R-26</u>
<u>Research Staff</u>	<u>Jong-Koo Park (in Charge)</u> <u>Mu-Yong Lee</u>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n actualized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RTDP) in Seoul based on the Tourism Promotion Law(section 47) for next 5 years which is derived from the 2nd Basic Plan for Tourism Development.

This project reviews 1) establishment for the actual investment plan, diversification for the business involved development which integrated in multiple tourism resources such history, culture, eco-system, and green environment, 2) method for vitalization of special tourism zone, 3) connection to th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for wide range planning approach, and 4) imagination regard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ulturally oriented concept.

Tourism vision of this plan is creating new tourism image of Seoul metropolitan which can provide happiness to all members of citizen. This means that the plan can create new version of metropolitan tourism that represents 1) the tourism destination for willing to return, 2) the leisure oriented destination for citizens, and 3) the business friendly tourism destination to maximize their potential ability.

The objectives for tourism plan based on the previous vision can 1) attract 56.2 million local visitors that are approximately 5.7% of domestic tourists (650 million) and reach 12 times of frequency for the tourism involvement from citizens, 2) attract 10 million non-local visitors and generate 10 billion dollars of economic revenues.

Basic direction of this tourism development plan is following

1. Creation of distinguished tourism attractiveness from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nd Japanese comfortable infrastructure.

2. Transformation from hardware components to software components that contain cultural contents such as storytelling and staged experience.

3. Consistent expansion of hardware components

- Lower the regulation of criteria for tourist hotel and generate more tourist hotels

- Encourage renovation experience for the metropolitan destination of Chungye Creek, forest, and riverside of the Han river and Yangjae creek

4. Differentiated tourism package development that allows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 Core theme: City Entertainment Tourism;

- Day time : historical cultural experience, museum, and art gallery

- Afternoon : sport and cultural events

- Night time : shopping and nightclub experience

- Supportive theme: medical facility, medical checkup(health tourism), and cosmetic and plastic surgery(beauty tourism)

- Establishing tourism information center, improving road sign, and updating tourist map

- Establishing target market and encouraging promotional efforts about Seoul Metropolitan

- Need special effort for attracting inbound foreign tourists

There are 3 specific strategies for the plan; firstly, formation of Seoul that implements foreign marketing and advertisement, secondly, formation of Seoul that have competitive advantages (allocating citizen involved leisure consistently,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for tourism business, implementing creative and knowledge based tourism men power [human-ware], acknowledging tourism destination of the theme experience and culture belt, and developing impressive cultural tourism contents), and thirdly, formation of Seoul that have a well established foundation of tourism allocation of well prepared tourism infrastructure and placement of systematic tourism policy(tourism administrative service)

Table of Contents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Goal
2. Scope
3. Method and Content

Chapter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ourism Market

1.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 of Tourism Market
2. Characteristics of Non-local Visitors and Analysis of Tourism Condition
3. Contras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oul Tourism

Chapter 3. Tourism Condition and Formation of Development Task

1. Current Condition of Tourism Resources
2. Evaluation of previous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RTDP) in Seoul
3. Analysis of Tourism Demand and Supply
4. Total Analysis and Task for Development

Chapter 4.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RTDP) in Seoul

1. Tourism Vision and Goal
2. Basic Conception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n Seoul
3. Conception of Tourism Development for Narrow Range of Seoul Metropolitan
4. Proceeding Plan for Strategic Tourism Development

Chapter 5. Meth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Plan

1.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Steps
2. Plan for Investment and Financial Resources
3. Implement of Tourism System(Organization & Policy)
4. Analysis of 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시정연구 2005-R-26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발행인 강만수

발행일 2005년 10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40 팩스 (02)2149-1245

값 11,000원 ISBN 89-8052-405-6-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